생명 울타리 공동체 목회전략

A STRATEGY FOR MAKING ENCLOSURE OF LIFE MINISTRY WITHIN TODAY'S CHRISTIAN COMMUNITY

BY

KIM, JAE KYU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Seoul, Korea

2010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생명 울타리 공동체 목회전략

A STRATEGY FOR MAKING ENCLOSURE OF
LIFE MINISTRY WITHIN TODAY'S CHRISTIAN COMMUNITY

presented by

Kim, Jae Kyu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Academic Dean's Signature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2010.5.15

ABSTRACT

A STRATEGY FOR MAKING ENCLOSURE OF LIFE MINISTRY WITHIN TODAY'S CHRISTIAN COMMUNITY

BY

KIM, JAE KYU

In the course of Church growth in Korea, it was swiftly growing up in 1970s and stopped its growth in the late of 1990s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end of 1980s. Since the 1990s Korean Churches have been a target for social blame by losing the ontological functions of Church, rather than Church as a symbol of human rights and leading culture. At present, it is necessary for Korean Churches to make a strategy for dynamic, spiritual and quantitative growth, unlikely the Bible study routinized, the typical disciplinary training and the cell group system old-fashioned. The house church ministry may be an alternative.

Chapter 1. Issues in post-modern Christianity

In the chapter 1 the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 Seungsoo Presbyterian Church were introduced. In particular the middle classes gathered together near the place where the Church was located and they often moved to other places of residence. The Church tried to do various ministerial strategies according to different generations, different districts and different time slots, but the cell group ministry old-fashioned in Korean society had little effect on Church growth.

However the house Church ministerial strategy which focuses on

family-centric pastoral meeting in stronger homogeneous culture than cell-centric ministry have proved fruitful and further the Church started to bench-mark from the model Churches in Jerusalem and Antioch in Acts. The House Church Ministerial Strategy(HCMS) aims to foster lay leaders as ministerial partners and to make an enclosure of life and salvation with dynamic ministry for evangelization and youth Christian activities.

Chapter 2. Discourse and research questions

Chapter 2 proceeds to discourse about the research questions and ministerial issues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typical cell group ministry upon Korean Churches and then analyzes its effectiveness in the post-modern society. In a theological ques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alvinistic Church system as a typological presbyterian Church within the Apostles' Creed and lays the foundations for more thorough Trinity-centric faith and biblical interpretation.

As a result, this study was certainly different from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system and the biblical explanations of Anabaptism.

Further, this study deals with the biblical questions of House Church Ministry a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found in John chapter 10 within the beginning of enclosure of life ministry and then the holy activities of House Church Ministry are realized in Acts and Romans. This HCMS emphasis on more dynamic human relationship than typical Church system.

In the justice component this study lays stress on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 Church denomin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and the

Holy baptism and the Sacra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problem in independently doing the Holy Communion of individual house Churches, but more advisable if they have the Holy Communion with the mother Church community together.

Chapter 3. Living-Enclosure Christian Community Strategy and Ministerial Practice in Sungsoo Presbyterian Church

Chapter 3 establishes a strategy to settle safely down the Living-Enclosure Christian Community. Seoungsoo Presbyterian Church had implemented the strategy from December 2007 to the end of December, 2009. The Church congregation went to a prayer mountain more than once a month and had a pastoral sharing of helpers(or house church leaders) every month and Bible seminars, Friday spiritual festival, lost and found activities, Christian musicals, sports festival, spirituality development, etc. The Church had done total 27 Christian activities for 2 years. Together with such spiritual revival activities congregations were increased and improved Christian fellowships with happiness. In particular, Every small group (or 3-4 house Churches) had their own supporting missionaries.

Chapter 4. Analysis and Findings in Site teams

Chapter 4 analyses and evaluates the House Church Ministerial Strategy (HCMS). A senior minister and two assistant ministers had participated into the strategy and they practiced the strategy and made a plan for improving it and evaluated it every week. As a result, the

site functional teams and house churches had greatly improved together through self-evalu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mplemented a questionary survey. According to the 38-experienced senior Church minister who took charge of chief executive management of this program he confesses that Sola gratia (depending upon only God's grace) is more important than trusting in self-patient.

Chapter 5.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Chapter 5 mak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nd suggests a few recommendations. This empirical study for enclosure of life ministry were examined. There were a few useful findings that over 65% among participants of this ministerial strategy responded positively. Consequently, a Two-Wings Pastoral Caring System that focused on fostering lay leaders and administering site teams might b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Christian fellowship.

In conclusion, what was actually changed? Every house churches became a healthful pasture and lay leaders had strong confidence for ministering. That is the answers.

ACKNOWLEDGEMENTS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할 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독창성 보다 정통성의 계승이고 유지 발전이기에 저의 신학적 근간을 세우신 큰 스승 고 최순직 목사님을 깊이 되새겨 봅니다.

본 논문의 연구조사 질문의 칼빈의 교회론과 현대 교회에서 시행 중인 Cell 및 그 비판, 가정교회론 및 요한복음의 교회론은 4개 신학대학원 학술지의 논문과 조병수, 최홍진 두 분 교수님의 글들을 보고 인정 하면서 준용하였습니다. 먼저 좋은 작품들이 있어 글을 인용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 할 뿐입니다.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와 주신 Dr. Irvin 총장님을 비롯한 NYTS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와 격려로 학문적, 인간관계적 멘토요 지도해 주신 NYTS 백창건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의 현장모습입니다. 공부를 위하여 도우신 고 안상련 권사님, 정성을 다한 선교와 장학의 협력자 문구도 집사님, 이정선 권사님, 편집 전문가 배수영 목사님, 목회의 목장사역에 헌신한 정창호 장로님의 자료 정리와 연구원들의 헌신, 집행자로서의 김용호, 정주용 목사님 그리고 문건의 수정 배열을 위해 수고한 최영택 강도사님, 영문의 정확한 논제와 글의 수정 게재를 기꺼이 해 주신 김장대 목사님, 무엇보다 나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집사람 신순자님, 모두에게 감사 할 뿐입니다.

영화가 종합 예술 이듯이 목회에서의 글은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정체임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오월 성수교회 집무실에서

김 재 규

목 차

서론 (Introduction)

성수교회는 1972년 10월 당시 정확한 교단 배경이나 신학적 검증이 불분명한 전도사에 의해 개척되었다가 해체된 상황에서 장년 3명 청년 3명 학생 2명 등이 김재규 전도사와 개척 합의로 서울 성동구[1] 중곡동 503번지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2] 38년을 향해 가는 교회 역사 속에 지금의 중곡동 589-1 번지로 최종 이전하기까지 다섯 번의 장소를 옮기며 예배 하였고, 한국교회의 1960년대의 기도원 운동과 부흥회 중심의 교회상과 1970년대의 엑스플로 74[3]를 시작으로 민족 복음화 운동과 1970년대를 지나고 1980년대를 중심으로 경제 도약과 더불어 탈농현상, 산업화, 도시화, 군사정권 유지에 따른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 하여 한국 교회는 급격한 성장기를 맞았다.[4] 개척 초기부터 논자의 장로교 신학 배경과 그 과제의 현장화라는 의무감으로 철저히 새벽예배는 마태복음 1장부터 구약 말라기서 까지 계속 매일 1장씩 강해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했고 장로교회의 3대 표지[5]인 말씀의 바른 증거,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고, 성도의 증가와 함께 한국교회의 전통적 공동체의 소그룹 조직체인 구역 제도를 2002년까지 실시해 왔다. 구역 지도자 교육을 수요예배 후에 계속 하거나 화요일 낮 시간에 실시하는 일은 주로 여성들 지도자 중심의 구역 모임에 한계를 자져오는 외부적 환경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여성 취업의 증가와 중, 하 경제 여건의 지역적 특성으로 구역을 통한 진정한 교회의 기능인 교제와 봉사자 발굴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리고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 존재감의 상실을 절감하고 삶의 현장에서 증인

---

[1]1995년 서울시의 구청간 경계조정으로 성동구가 광진구로 분할됨에 따라 후에 광진구가 되었다.

[2]성수교회, 교회 요람 편찬지, 1996~2006년, 6.

[3]1974년 한국 C.C.C 주최 전국적 말씀, 성령 폭발 운동으로 당시 여의도 5.16 광장 집회와 서울의 대형교회 중심의 성경 연수를 말한다.

[4]김종렬, *바른 목회 바른 교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5), 325.

[5]Bullinger의 제 2 스위스 신조 제 18장

공동체의 자긍심 있는 자로 세워지는 일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는 한국 3대 종교 신도수 변화 <표 1>[6]에서 보는 바대로 2005년을 기점으로 10년 전보다 성도(개신교)의 숫자가 약 15만명이 줄었다.

구분 / 종교별	신 도 수 (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 교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5,146,147	2,950,730	1,865,397

<표 1> 한국 3대 종교의 신도수 변화

성수교회 역시 전국 교회(개신교)의 통계와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전체 통계에서 볼 수 있다.<표 2>[7]

연도 / 구분	신도수 (명)		
	1996. 1	2005. 1	2010. 1
어린이 포함 전체성도 재적	1,000 (약)	1,230	1,400 (약)

<표 2> 성수교회 성도수 변화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정적 측면이 공개되고 좌경적 정치 공세와 함께 기독교 폄하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교회 내부적으로 대 교회 중심의 부의 축적 인상, 교단 분열과 무자격 목회자 양산 이라는 비난, 수평이동으로 인한 교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물질주의 의식의 팽배와 여가 선용이라는 측면의 새 레저의 발달과 더 불어 탈 교회 현상의 가속화, 국가의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한 출산율 저하[8]로 인한 교회 학교 어린이의 급속 저하로 인한 파급과, 세상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상이

[6]종교 문화 연구원, *2008년 한국의 교회현황* (서울: 문화관광부, 2008), 9.

[7]성수교회 1996년 요람 ~ 2010년 요람, (발행, 성수교회) 2010, 1.

[8]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은 1.02%로 집계되었다.(최하)

약화된 내용은 질적 숫자적 교회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구의 약 16%인 기독교 인구는 긍정적 면에서는 교화 상대가 많지만 부정적 면에서는 80년대 보다 복음화율이 낮아지는 요소 때문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성의 회복과 세상 속에서 역동적 역량의 교회됨의 새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역을 소그룹이면서 학습단위 역할로 국한하는 구습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작은 목자화하는 전략, 그것을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에서 찾으며 전체교회와의 조화를 이루고 작은 목장(가정 공동체) 교회의 활성화와 그를 위한 전략의 시행과 그 결과들의 진행을 통한 역량의 변화와 계속 세상 변화에 적응 발전하는 전략의 새 모델을 제시코자 한다.

Ⅰ. 문제제기 (Raise a question)

1. 배경소개 (Introduction to setting)

1) 일반 및 역사적 배경

교회가 위치한 중곡 3동[9]의 지역 상황과 약사를 보면, 사중곡동은 행정동인 중곡1-4동으로 이루어진 법정동 이다. 광진구에서 가장 넓은 동이며 동쪽은 용마산과 아차산 능선을 경계로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북쪽은 중랑구 면목동과 접한다. 중곡동 이름은 능동과 면목동 중간에 있어 가운뎃말, 간뎃말, 또는 한자명으로 중곡리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주군 고양주면에 속하였고 갑오개혁 때에는 한성부 남부 두모방 전관중계, 하계 면목동리라고 하였습니다. 1914년 고양군 둑도면 중곡리로 불리다가 1949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리로 되었으며, 1950년 중곡동으로 바뀌었다. 1973년과 1975년 구청사이의 경계조정으로 동 일부가 동대문구 면목동으로 바뀌었고 면목동의 일부가 중곡동에 속하게 되었고 1995년 광진구가 신설되면서 이에 편입되었다.

[9]2008년 4월 중곡 3동의 현황자료는 동 행정 책임자가 제공하였다.

지역 특성								
1) 광진구 서북단에 위치하여 중랑천과 답십리 길로 동대문 중랑구와 경계를 이룸 2) 일반주택이 밀접한 서민층 집단 주거지역 3) 지하철 7호선 및 동이로, 능동로 중곡동길 등 남북간 연결 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이 원활한 지역 4) 중곡역세권 및 저층밀집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임								
일반현황								
면적	주민조직	세대수	인구수	주택현황			비고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0.60㎢ 구의 3.5%	21통 172반	8239	20129	2778동 (보유율 34%)	2362동	416동		
저소득층								
계		기초생활 수급자			모·부자 가정		저소득 틈새가구	
세대	인원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624	1106	241	380	모자	93	238	255	389
				부자	35	99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								
관공서 (동대본부)	구립 경로당	지하철 역	구립 어린이집	초등학교	금융기관	국립 서울병원	시장	비고
2	2	1	2 사립 어린이집 22	2	3	1	1	

<표 3> 중곡 3동 현황

2) 종교적 배경

1970년대는 미개발 지역으로 중랑천 변에 천막촌이 현성되었고, 탈농 이탈자들과 극빈층이 공존하였다. 저개발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도심에서 변두리 지역으로 흩어지는 종착점이기도 한 이 지역 초기에는 한집 건너 무당집, 보살집이 있었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아직 10개 이상이 남아있다.

중곡 3동 지역에 13개의 교회(개신)가 있고, 천주교회가 하나 있다. 초기의 샤머니즘적 요소와 인구가 많으나 대형교회 한곳과 중형교회 네 곳이 자리 잡고 있어 기독교 인구 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3)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정체성

(1) 성수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곧 교단성을 배경으로 한다. 교단 정체성 역시 신학을 배경으

로 하는바, 예장(대신)은 1961년 6월에 출범했고 44회기 4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74년 1월 12일 주간 크리스챤 신문에서 교회선언[10]을 발췌하였다.

Westminster 대, 소요리 문답과 신악고백을 수용하고 초기 장로교회[11]의 12 신조를 인정 게재하고, 그 핵심 내용은, 교회 정치면에서 장로교회이고, 교리적 면에서는 개혁주의, 역사적 면에 있어서 전통적 정통주의이며 보수주의다. 성경적 원리면에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근본주의며 세대주의가 아니다. 성경은 완전영감과 통일된 유일 계시이다. 은혜의 방편에 있어 복음주의이며, 로마 카톨릭의 성례주의를 배격하고, 신, 구약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도덕 율법을 생활의 규준으로 하는 신율주의이다. 또한 교단 사명의 주제는 성경적 교회 수립이다. 성수교회는 이런 교단 신학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출범했다.

(2) 공동체를 위한 학습 진행과정[12]

1973년부터 Westminster 소요리 문답해설을 매주 수요예배시 시행 1976년 107문을 끝내고 신, 구약 성경공부를 신약개론, 복음서 전권을 매주 일회 실시하다. 새벽기도회시 구약부터 매일 1장씩 강해 묵상하여 1977년 1차 끝내다. 1982년부터 초급 성경반과 중급으로 나누어 수료자를 제직으로 세우는 원칙으로 실시하고 1986년 제자훈련이 시작되어 모든 중직을 우선으로 제자삼고 세례반 기초성경, 중급반 십단계(C.C.C교재), 중급이후 Crossway 성경공부 후 지도자 양성과정으로 제자반을 두고 제자반 이후 지도자 일대일 양육, 사역자 훈련(제자이후)을 거쳐 지도자가 배출되어 2009년 성수교회 학사보고[13]에 나타난 내용은 유치부 721명, 초등부, 797명, 중등부 698명, 고등부 576명 성경공부 및 각종공부(기초, 중급, Crossway, 제자반, 일대일 양육, 사역반, 특별 전도학교, 무디 성경관통)포함 87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여, 구역지도자(구역장)에서 목장의 목자나 예비목자 및 선교담당, 헬퍼들을 세우는 뿌리

[10]교계신문 최대 부수이며 초교파 주간 기독교계 신문에 일면 게제로 전국 교회에 알린 것이다.

[11]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이후 형성된 최초의 장로교 독노회와 인도 장로교의 신조를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작성된 장로교 신조이다.

[12]성수교회 편찬 요람(1996~2000)의 역사 기록 1973년부터 2000년까지 중요내용게재 발췌.

[13]2009년 12월27일 교회학교 수료식의 학사보고와 공동의회 자료 제출 보고서(성수교회), 보고자 교육위원장 조길송.

가 되었다. 곧 소그룹 가정교회다.

2. 문제제기 및 방향

1) 문제제기

종교개혁의 유산에 매여 그것 자체를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고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상을 갖지 못한 목회 철학의 빈곤의식은 장기간 한 교회에서 남을 흉내 내는 교회성장에 몰입하였고 그로인한 성과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오는 영적 피로감과 자책 내지는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강한 도전의식이 있었고 그것은 교회 구조적 개편으로 역동적 소 공동체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1) 구역기능의 문제

구역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을 묶어 조직한다. 구역의 역할은 친교와 서로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4] 그리고 구역원 중에서 구역장과 권찰을 세워 관리와 사역을 하게 하는 소그룹이다. 구역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이다. 목회 분담사역보다는 행정 분담사역이다.

① 구역정의

구역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외적인 생활 속에서도 선별된 자로서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친교는 물론 전도생활을 통한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장이다. 따라서 구역관리는 교인들의 거주 분포를 중심으로 하여 적절히 구역을 조직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적인 목회활동이다.[15]

---

[14]최형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01), 20.

[15]최정성, *구역관리와 교회성장* (서울: 엘멘, 1993), 25.

② 구역목적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조직되게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구역모임의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고 둘째, 구역 안에 소속된 성도들 자체를 위하여 모이고 셋째,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모인다.[16]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구역조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만한 능력이 예배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17]

③ 구역성장의 원리

구역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을 위하고 교회의 성장이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의 확대이며 그리스도 역사의 계속적인 확장을 뜻하고 그리스도 나라의 성장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밝힌 대로 성수교회의 비역동성과 교역자 자신의 침체는 교회에 대한 재도전과 본질적 존재 의미에 충실한 목적이 분명한 양들 곧 교회 양육이라는 명제를 안게 되었다.

(2)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오랜 교회의 관습과 전통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고민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의 공통분모를 찾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 고민 해결을 위한 이론과 실행 철학의 관점을 가졌다.

자연적 교회성장을 위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6대주 32개 나라 1000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장하는 교회 8가지 질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관계 중심적, 사람 중심적, 팀 중심적 ② 은사 중심적 사역-은

---

[16]김찬종, *교회성장을 위한 구역운영 지침서* (서울: 솔로몬, 1991), 17.

[17]Ron Nicholas 외,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92), 119.

사를 따라 사역하면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③ 열정적 영성-한교회의 교리와 성경해석이 아무리 정통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열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④ 기능적 조직-사역의 계속적인 증진을 촉진하는 조직개발 ⑤ 영감 있는 예배-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로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 ⑥ 전인적 소그룹-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있는 모임 ⑦ 필요 중심적 전도-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다른 은사를 주신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는데 있다. ⑧ 사랑의 관계-공식적 모임 외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칭찬하는데 얼마나 너그러운가? 얼마나 웃음이 있는가? 사랑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없도록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음을 본다.[18]

이런 이론적 내용을 실제화 하기 위해서 실제적 교회본질 구현의 명제에 부딪혔다. 그 교회상은 지금까지의 구역기능을 젊은이, 직능별, 시간대별, 지역성, 조화성, 온가족의 공동체성, 철저 분담 사명성, 비 성차별성(부부동시 모임원칙)등을 고려하여 재편한바 참 교회상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19]의 진정한 예배 공동체, 빈부없는 나눔 공동체, 성령충만의 우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열정적 복음 전도가 있고, 영성 깊은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고, 계속 제자화 되고 철저히 사도, 평신도의 조화처럼 교회의 진정성이 훼손 안되고 부흥하는 교회의 벤치마킹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20]의 민족 초월, 다양한 계층이 성경과 기도 안에서 하나되고, 오직 성령이 주인 되고 절대순종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되 인사 선임과 모든 주체가 성령이 되는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상을 갖는 철학 가짐이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하나님 비전[21]을 알고 행하려 함이다. 그 실제적 비전이 전 교회의 목장화이다.

---

[18]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서울: NCD, 2001), 22-37.

[19]사도행전 2장 ~ 6장까지의 교회사 곧 초대 예루살렘교회이다.

[20]사도행전 13장

[21]에베소서 3장 9 ~ 11절 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 연구 목적 과 방향

(1) 가정교회 용어 정의

'가정교회' 에 대해서 서울 침례교회의 최형기 목사는 가정교회를 "개척교회와 같다." [22]고 말했다. 그가 개척교회와 같다고 정의하는 것은 개척의 기간이 교회를 시작하다는 기쁨과 더불어 누구나 교회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전도와 기도와 사귐의 열기가 뜨거우며, 모든 교인이 한 가족 같다는 느낌에서 표현한 말이다. 반변에 일산 화평교회의 최상태 목사는 '가정교회' 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교회의 형태로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3] 이들의 주장은 '가정교회' 를 하나의 독립된 지역교회로 보고 있다.

반면에 미국 조지아 주 아틀란타 지역의 우리 성결교회 박승로 목사는 가정교회를 '교회안의 작은 교회' 로서 구역과 같은 소그룹이며,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완전히 독립된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전인적 소그룹 형태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했다.[24]

논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관점이다. 완전히 독립된 가정교회를 주장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린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교회 안에서 불리어지는 소그룹의 명칭들은 교회의 환경과 목회자들의 철학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역, 양 무리, 순모임, 다락방, 목장, 속회 들이 그것이다. 이런 모든 소그룹 형태의 성경적 근거는 초대 교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정교회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교회' 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목장' 이라는 용어는 이미 라일 샬러(Lyle E. Schaller)에 의해 사용되었고, 후에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조오지 헌터(George G. Hunter)가 사용하였다. 와그너는 교인이 2백명 선에 도달하면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가 목자의 형태에

---

[22]최형기, 67.

[23]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63.

[24]박승로, 17.

서 목장 경영자의 형태로 바꿔야 함을 강조 하였고,[25] 헌터 또한 작은 교회의 성장을 논하면서 "목회자가 목자에게 목장 경영자로 변할 때 계속 성장 할 수 있다."[26]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샬러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그는 "목장 경영자는 목장을 경영하고 목축장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과 모든 가축들을 직접 관리하는 일은 목장지기와 목종 등 여러 조력자들에게 위임한다."[27]라고 말하므로 '목장', 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논자는 가정교회를 교회의 기능적 측면 특히 전도와 교제 그리고 봉사의 측면을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상당부분 위임하여 교회의 성장을 꾀하는 소그룹으로 정의한다. 만일 가정 교회를 독립된 하나의 교회로 본다면 이는 개혁교회의 참 교회 표지인 말씀의 선포, 성례전, 권징의 시행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보편적 개혁교회의 표지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고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므로 그 정통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의 기능을 상당부분 평신도들이 담당하는 소그룹이다.

현재 '가정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열거하면 다름과 같다. ① 목자: 가정교회 책임자 ② 목장: 가정교회 소그룹 ③ 목녀 혹은 목동: 목자의 배우자 ④ 목원 혹은 목장식구: 가정교회 구성원 ⑤ 초원: 목자들의 조 모임 ⑥ 초원지기: 조 모임 책임자 ⑦ 초원식구: 조 모임 구성단위 ⑧ 분가: 목장식구가 많아졌을 때 새 가정교회를 설립하는 것 ⑨ 예비목자: 목장 안에서 분가를 위해서 미리 세우는 목자 ⑩ 돕는 헬퍼등이다. 성수교회는 목장, 목자, 헬퍼, 예비목자, 그리고 10개이상의 목장을 묶어 마을촌, 촌장(지역장), 목장 내의 선교담당 회계 등은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

---

[25]Peter C. Wagn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69.

[26]Donald A. McGavran and George HunterⅢ, *교회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3), 108.

[27]Lyle E. Schaller, "Looking at the Small Church: A Frame of Referrence", *The Christian Ministry* Vol. Ⅷ. (July, 1977).

(2) 연구 목적과 방향

구역의 소그룹 혹은 Cell식 목장화를 통한 지역의 1514세대, 곧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틈새가구 모자, 부자, 독거노인 등 전체가구 8239세대(중곡지역)의 20%의 소외 계층을 어떻게 섬기며 복음화 하며, 복음화를 통한 평등 공동체에 대한 인식변화 나머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한 현장의 섬김과 증인이 되는가와 이를 통한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이룸에 쓰임 받는 공동체의 기능성 회복을 위한 초대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됨이 연구 목적이다. 이를 위한 2년여의 실제적 Project와 교육의 실제 및 시행결과와 평가를 하며 논문을 전개하겠다.

서론 부분에서 성수교회 태동역사와 기본적 시행 목회과정의 개론적 서술, 그리고 한국교회와 궤를 같이 한 교회의 상황을 점검하겠다.

Ⅰ. 문제의 제기에서 지역의 배경이 갖는 내용 중 일반역사 배경과 종교적 배경 그리고 성수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중 교회의 정체성과 지금까지 성수교회의 목회적 시행 패러다임의 진술을 통한 변화 추구의 필연성에 도달한 이유를 찾는다.

또한 문제제기 및 연구 방향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구역 기능의 내용을 점검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구현의 예를 성경 곧, 초대교회에서 찾고 기본적 건강한 교회상의 숙지와 그로인한 가정교회(목장) 세움의 의미를 위해 가정교회 정의와 세계의 건강한 교회상을 세우고 이 지역의 복음적 변화를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를 품는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하여 시행전략을 세운다.

Ⅱ장에서 울타리 공동체 목회에 대한 연구 조사질문 중 신학적, 성서적, 정의적 질문의 철저한 학문적 교회론과 목장, 특히 2008-9년 어간의 "생명력 넘치는 울타리" 주제를 중심으로 진정한 목장(교회)을 위한 기초 작업에 대해 서술한다.

Ⅲ장에서 생명력 넘치는 울타리(큰목장, 가정교회(목장))를 위한 전략으로서 1. 이를 시행할 목회 유능성 개발과 함께 연구반원의 활동 목회자의 평가 2. 목장을 위한 전략들의 실제에 대해 서술한다.

Ⅳ장 결론부분에서 총설문과 분석 그리고 결언적 제언과 계속 진행 될 시행 전략들과 부록과 참고 문헌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전개 부호는, 서론과 Ⅰ. 1. 1) (1) ① a. a) ⓐ로 한다.

II. 울타리 공동체 목회에 대한 연구조사 질문과 분석 (Discourse)

1. 신학적 질문 (Theological field)

1) Calvin 교회론과 Cell 교회론 관계

(1) 한국 장로교회의 변천, 그리고 셀교회

교회의 모습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하며 교회론도 역시 그러하다.[28] 동일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며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9]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해에 따라 교회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다.

종교개혁자 칼빈(1509-1564)의 경우 로마 카톨릭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교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독특한 교회론을 정립시켰다. 이후에 칼빈의 교회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그것이다.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성립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회(1884년 한국 입국)와 호주 장로교 선교회(1889년 한국 입국),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1892년 한국 입국), 캐나다장로교 선교회(1898년 한국 입국)의 선교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30] 그중에서

---

[28]시대에 따른 교회론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 Jay E. C. *The Church: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y Centuries, 2 Vols* (London: SPCK, 1977). 한역: E. C. 제이, *교회론의 변천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본문에서 인용하는 책들 중에 한역이 있는 것은 한역의 출판년도와 쪽수를 따른다. 따라서 한글로 외국 저자들을 밝히면서 인용된 곳에서 나오는 연도는 그 저자가 책을 처음 낸 연도가 아님을 주의할 것.

[29]여러 교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다양한 교파들의 교회론을 소개한 책으로는 아래의 것이 있다. Niesel, W., *Das Evangelium and die Kirchen* (Neukirchen: 1902). 영역: Niesel, W., *The Gospel and The Churches: A Comparison of Catholicism, Orthodoxy, and Protestantism* (Philadelphia :1961). 영역에서 옮김 한역: 빌헬름 니이젤, *비교교회론*, 이종성 & 김항안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30]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02), 51.

도 특히 미국 북 장로교선교사들의 역할이 컸으며 그들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신학성향을 가진 선교사들이었다.[31] 그 영향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론은 칼빈의 교회론에 가장 크게 기초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양한 신학 사조(성경 비평, 해방신학, 여성신학, 종교다원주의 등)의 소개와 타 교파(감리교, 순복음교회 등)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단들(대표적으로 구원파)에 대한 반응과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CCC, IVF, UBF, 네비게이토 등)의 영향과 미국식 교회 성장학의 영향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론은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여러 변천과정을 겪었음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 장로교회 교회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미국식 교회성장학의 영향이 가장 크다. 특히 1990년대부터 소개된 셀교회의 교회론은 한국 장로교회에 직 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이 주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셀교회란 무엇이며 그 교회론의 어떤 것일까? 셀교회가 왜 현대 한국교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가? 셀교회의 교회론과 칼빈의 교회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셀교회에 대해 칼빈의 교회론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의 셀교회 수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진단하며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론을 새롭게 정립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셀교회와 그 교회론적 특징

① 셀교회의 정의

간단히 말해서 셀교회는 셀그룹들이 모여서 구성한 교회를 말한다. 교회 전체는 오직 셀그룹의 활동으로만 이뤄지고 다른 활동은 없다. 그렇다면 셀그룹은 무엇인가? 먼저 셀교회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세계 각지에 널리 전파한 랄프 네이

---

[31]예를 들어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실로암, 1988), 4. 를 보면, 미국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 40명은 대체로 무디 성경학교와 같은 보수적인 성경학교 출신으로, 신학교는 프린스턴 출신이 16명, 맥코믹이 11명, 샌 안셀모가 4명, 유니온이 3명이었다.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공히 구학파(the Old School)의 영향을 받은 보수적 신학을 한 사람들이었다.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63.

버의 정의를 보자

"셀그룹(Cell Group)은 지역교회 구조의 권위와 지도 아래 있는 기독교 기초 공동체를 일컫는 용어이다." [32] 하지만 이 정의는 너무 간단하다. 아래 다음 로베르트 헤스테네스의 정의를 보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기독교 셀그룹이란 3명에서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을 말한다." [33]

그렇다면 셀교회에 대한 정의는 어떤가?

"셀교회(Cell Church)는 비전통적 교회 형태로서 그리스도인이 셀모임들의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예배, 교육,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의 결속, 양육과 서로 간의 돌봄을 행한다. 셀들은 '기독교 기초 공동체' 즉 교회생활의 기초 단위를 정의하는 교회이다. 셀들이 지역적으로 연합하여 모이는 모임을 '회중들'이라고 하며 모든 회중들의 전체 모임을 '축제예배'라 한다.[34]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셀그룹과 소그룹의 차이는 어떠하며 소그룹 활동하는 교회와 셀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우선 셀그룹은 기존의 소그룹과 차이가 있다. 네이버 목사가 정의한 소그룹은 아래와 같다.

"소그룹(Small Group)은 전통교회의 소그룹들, 이를테면 교제, 제자훈련, 기도 등을 위한 소그룹들을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전통교회의 소그룹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일 뿐이다." [35]

즉 전통적인 소그룹은 교회의 프로그램의 하나일 뿐인데, 셀그룹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그 자체가 교회의 모든 기능을 다하고 있다. 로렌스 콩의 말을 들으면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32]Neighbour, R. W. Jr., *The Shepherd's Gmslo'ebook* (Houston: 1994, 1995, 1996). 랄프 네이버, *셀리더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335.

[33]전남순, "*구역장 훈련을 통한 구역 활성화 (Cell Group Growth and Vitaliztion through Cell Group Leaders' Training)*",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맥코믹 신학대학원.

[34]랄프 네이버, 335.

[35]Ibid., 340. 랄프 네이버의 이론에서 소그룹과 셀그룹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정신과 원리에 있어 서로 상통하는 부분들(예를 들어 성경적 배경과 기원과 역사 등)에 있어서는 교차적으로 용어를 쓰겠다. 이 외에도 랄프 네이버가 새롭게 규정한 셀교회 관련 용어들 중에 "축제 예배(Celebration)", "회중(Congregation)", "양떼(Flock)", "인턴(Intern)", "목자(Shepherd)", "전도소그룹(Share Group)", "오이코스 (OIKOS)" 등이 있다.

"교회가 단지 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셀교회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교회는 셀사역(Cell Ministry)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 교육, 제자훈련, 성경공부, 전도, 기도, 예배 등이 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일예배도 모든 셀그룹이 한데 모여 드리는 공동의 축제예배일 뿐이다." [36]

이 교회는 일찍이 칼 죠지가 자신의 책에서 제 3세계에서 발견된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고찰하고 그것을 북미의 교회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교화시키면서 '메타교회'(Meta-Church)라 불렸던 교회와 상통한다.[37] 여기서 '메타'(meta)라는 말은 변화 또는 변형을 의미한다. 기존 교회의 정신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만 되는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칼 죠지는 "우리는 소그룹 교회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38]

② 셀교회의 성경적 근거

셀교회의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원리는 성경에서 도출되며,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친교'이다.[39]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셀교회 이론가들이 이 친교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40] 랄프 네이버는 "셀교회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양식을 '공동체'라고 묘사한다.[41] 셀교회 이론가인 데이비드 핀

---

[36]Khong, L., *The Apostolic Cell Church* (Houston: 2000)., 한역: 로렌스 콩, *신사도적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 2001). 참조.

[37]George, C.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we* (Grand Rapids: 1992).를 참고하라. 칼 죠지의 소그룹 이론을 랄프 네이버가 셀그룹 이론에 접목시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초 원리는 서로 통한다.

[38]Icenogle, G. W. *Bi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Illinois: 1994). 한역: 개러스 W. 아이스노,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소그룹 운동과 공동체 사역을 위한 성경적 근거*, 안영권 & 김선일 공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121.에서는 다음과 같이 메타교회를 규정한다. 칼 죠지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이드로의 이야기(출애굽기 18장)에서 착안했다. 가정을 중시하며 평신도에게 목회자 사역을 부가한다. 담임목사는 이들의 지도력을 훈련시키는 일을 한다. 예배는 모든 교인이 함께 하는 축제의 형식으로 드린다.

[39]전남순, 20. "소그룹 운동가들에게 교회는 친교 공동체이다."

[40]그러나 셀교회 이론이 삼위일체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신학적 내용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넬도 셀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삼위일체론이라고 생각한다.[42] 그들은 "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 "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들에게 " 소그룹의 역사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하며" ,[43] "소그룹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다.[44] 랄프 네이버는 '3' 이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세 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45]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관통한다. 소그룹의 성경적 개념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46] 그들은 창세기 1:26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말고…" . 여기서 사람의 본질이 공동체성에 있음을 확인한다.[47]

그들에게는 노아 가족과 아브라함 가족도 모두 공동체적 삶을 영위했던 모범이 된다. 일종의 셀그룹이 되는 셈이다.[48] 특히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가장 모범이 되는 셀그룹이다.[49] 여기서 '12' 라는 숫자가 셀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숫자라고 도출해내는 사람도 있으나 대체로 10명 안팎이 적당하다고 본다. 바울의 전도 공동체인 초대 교회의 가정교회 모두 그들에게는 셀그룹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셀교회론이 자주 강조하는 이상형이다. 그들은 모두 사도행전 적 교회를 소망한다.[50]

---

[41]Neighbour, R. W. Jr.,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Cell Group Churches* (Houston: 1990). 한역: 랄프 네이버,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서로사랑, 1999), 124. 이 책은 NCD에서도 나왔다. 랄프 네이버,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42]Finnell, D., *Life in His Body* (Houston: 1995). 한역: 데이비드 핀넬,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O, 2001), 41. 데이비드 핀넬은 랄프 네이버에게서 셀교회 이론을 배웠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표적 현대 셀교회 이론가들은 랄프 네이버에게서 사사 받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43]박용호, "*소그룹 활성화와 역동적 교회성장 연구*" ,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97, 11.

[44]개러스 w. 아이스노글, 21, 457.

[45]랄프 네이버, 125.

[46]전남순, 8.

[47]랄프 네이버, 126.

[48]Ibid., 128.

[49]Ibid., 13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127.도 참고. 물론 옥한흠의 교회론은 셀교회론과 다르다. 그는 제지훈련을 통한 교회 내실화와 성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근저에 흐르는 정신은 유사점이 크다.

[50]Neighbour, R. W. Jr., *Cell Leader Intern Guide* (Houston: 1995, 1997)., 한역: 랄프 네이버, *셀인턴 가*

③ 셀교회의 기원

성경 밖에서는 셀교회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셀교회 이론가들은 우선 기독교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그룹을 본받아 초대교회도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주장한다.[51] 교회 역사 속의 소그룹은 카타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그룹의 역사를 살피는 이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성도의 교제와 신앙의 역동성이 상설되었다고 보며[52], 그런 상황에서 교회 역사 속에는 수도원 운동으로써 소그룹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3세기 안토니우스에 의한 수도원의 탄생도 소그룹 운동의 일환으로 본다. 즉 제도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무리들을 모두 소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종교개혁기의 재침례파를 소그룹 운동의 본격적 시작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53] 랄프 네이버와 함께 셀교회 운동을 주도하는 벡햄은 루터도 소그룹을 원했다. 다만 정치적, 개인적, 실용적 이유로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셀교회 운동은 '제 2의 종교개혁'이 된다고 하겠다. 제1의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
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54]

하지만 오늘날 소그룹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소그룹은 1727년 진젠돌프 백작에 의해 시작된 헤른후트 소그룹 공동체였다. 진젠돌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존 웨슬리였다. '홀리클럽'(Holy Club)은 172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성경공부와 기도생활을 위해 모인 공동체다.[55]

이드,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1.

[51]Donahue, B., *Leading Life -Changing Small Group* (Grand Rapids: 2002)., 한역: 빌도나 휴, *윌로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31.

[52]문교수, "*평신도 소그룹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미간행목회학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1994, 27.

[53]한국재침례교연합회(Korea Anabaptist Association)의 활동과 그들의 문건들을 참조하라.

[54]Beckham, W., *The Second Rformation:Re shapingThe Church for 21st. Century* (Huston: 2000)., 한역: 빌 벡햄, *제 2의 종교개혁 21세기를 위한 교회갱신,*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55]전남순, 12.

존 웨슬리는 이를 더 발전시켜 '속회'(구역)로 만들었다. 속회 활동의 3가지 구성요소를 (1) 목회적 심방, (2) 성도 간 교제, (3) 불신자의 개종으로 규정했다.[56]

웨슬리는 결신한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속회를 강조하여 셀운동의 기초를 닦았다.[57]

현대적 셀교회 운동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순복음교회 측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구역예배를 셀운동의 시원으로 보고자 한다. 조용기 목사는 초창기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기도 중,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및 천부장을 세워 목회사역을 분담한 것을 깨닫고 구역장을 임명하여 목회를 분담하였다고 한다. 이는 칼 죠지가 이드로의 경우에서 메타교회의 원리를 찾은 것과 흡사하다.[58] 조용기 목사는 2001년 4월, 구역모임을 셀모임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 셀교회를 조용기 목사가 만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셀교회 이론 구성에 순복음교회가 영향을 마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셀교회 이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랄프 네이버조차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하고 이일로 인해 조용기 목사를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이다.

④ 셀교회의 전파

셀교회의 현대적 기원은 칼 죠지의 메타 교회 이론과 랄프 네이버의 셀교회 이론, 그리고 랄프 네이버가 창립한 "국제 터치사역"(International TOUCH Ministry)"[59]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남 침례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랄프 네이버 박사는 1969년부터 교회당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에 회의를 품고 셀교

---

[56]장복문, "*구역장 교역자화 훈련을 통한 교회성장과 활성화(Church Growth and Vitalization through Training Cell Group Leaders as Lay Ministers)*",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 대학교, 맥코믹 신학대학원, 2001년 6월, 13.

[57]서울순복음교회 홈페이지(http://www.sfgc.org)를 참조하라.

[58]개러스 W. 아이스노글, 121. 이드로의 지도력을 셀교회에 접목시키는 예는 Beckham, W. A., *Redefining Revival* (Huston: 2000)., 한역: 벌 벡햄, *자연적 부흥*, 이병헌 & 박경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35. 를 보라.

[59] "그리스도의 손 아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Transforming Others Under Christ's Hand)" 는 뜻이다. "터치 셀사역(Touch Outreach Ministries)" 은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1970년 초반에 설립된 것으로, 미국 내 셀교회들을 컨설팅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랄프 네이버, *셀리더 지침서*, 340.

회 운동을 주장했다. 랄프 네이버는 미국 교회의 현실 즉, 교회성장의 둔화와 주일 학교의 영향력 쇠퇴,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훈련에 치중한 나머지 교회의 관심이 불신자로부터 신자에게 옮겨가는 현상을 보면서 지금의 전통 적인 교회라는 가죽부대를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교회라는 가죽부대를 새롭게 개선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셀교회들을 방문하면서 1990년에 출간한 셀교회 지침서라는 책에서 현대 셀교회의 모든 흐름과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하였다. 이 책이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랄프 네이버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도움을 입은 목회자들이 셀교회들을 발전시켜 놀라운 셀교회들의 성장이 있었다.

랄프 네이버가 그동안 남미, 미국, 싱가폴 등 여러 나라에서 전통적인 교회를 셀교회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이후로 미국에서 '셀교회 지도자 훈련과정' (Advanced Cell Training)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이수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교회를 셀교회로 전환하였다. 국제 터치본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싱가폴, 홍콩,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어 한국에 사역본부(터치코리아 Touch Korea)를 설립했다.[60] 따라서 현 재 한국 장로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셀교회 이론은 랄프 네이버가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초기에 역사 한국 침례교를 통해 수입되었다. 한국에서의 셀교회 흐름과 역사를 침례교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 목포성서침례교회(당시 노향모 목사 담임)에서 "전신자 사역자 교회목회자(全信者使役者 敎會牧會者)"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 때 랄프 네이버의 "Where Do We Go from Here?"라는 책을 소개했다. 셀교회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다.

이때 미국 버클랜드 침례교회의 이남하 목사는 미국에서 셀교회로 전환했다. 1993년에는 로렌스 콩 목사가 시무하는 "싱가폴 신앙 공동체 침례교회(Singapore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 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영철 교수가 셀교회의 실재를 보고 돌아와 목포성서침례교회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에게 셀 교회를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1995년 4월에는 버클랜드 교회에서 제1회 '셀교회 개발컨퍼런스' 를 개최하였고, 그 해 9월에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전신자 사역훈련원' 을 세우

---

[60]이상에 대해서는 자연적 교회 성장 http://www.ncdkorea.com 을 참조하라.

고 본격적으로 셀교회를 한국교회에 소개했다. 그 다음 해인 1996년 제2차 '셀교회 개발 컨퍼런스'(Cell Church Development Conference-C.C.D.C)를 버클랜드교회에서 개최했으며 제3차 C.C.D.C.를 1998년 목산침례교회에서 개최했다.

1999년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제4차 C.C.D.C.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셀교회를 소개했고, 2000년에는 랄프 네이버의 터치 사역을 정진우 목사가 '터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소개하고, 셀교회 훈련자료들을 번역 출판하면서 셀교회 용어가 확산되었다[61]

이와 같이 셀교회 이론은 미국 침례교에서 처음 만들어져, 한국 침례교를 통해 한국에 수입 전파되었다. 침례교에서 이렇게 저교회(Low-Church)적 성격을 많이 띠는 교회론이 발달한 것은 그 역사를 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17세기에 청교도 개혁 운동이 진행될 때 영국에서 발생한 침례교는[62] 이후에 17세기 초에 미국과[63] 19세기 초 독일로[64] 그리고 19세기 말 한국으로[65] 전파되었다. 선앙을 고백한 자에게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점 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그 외의 교리상의 차이도 용납된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66] 모든 침례교회는 "모든 사제권 제도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개인적 판단의 자유"를 주장하여 왔다.[67] 침례교는 국가교회의 틀을 깨고 나온 재침례교도들의 교

---

[61]서울순복음교회 홈페이지(http://www.sfgc.org) 참조.

[62]Torbet, R. G., *A History of the Baptists* (Valley Forge: 1973)을 참조하라 이때 2개의 침례교 집단이 등장했다. 이 두 집단은 신자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편성(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을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켜 일반 침례교도라고 불렀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사람들 을 특수 침례교도라고 불렀다 일반 침례교도의 기원은 1611년경 토머스 헬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런던에 세운 침례교회에서 비롯된다. 특수 침례교는 1633, 1638년에 런던에 있던 독립교회(영국국교회에 속하지 않음)를 떠난 사람들이 1638년에 세운 한 침례교회에서 시작되었다.

[63]미국 침례교의 기원은 로저 윌리엄스가 청교도들에 의해 매사추세츠로부터 추방당한 뒤 프로비던스에 침례교회를 세운 16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eonard, B., *Bapti Ways: A Hist ay* (Valley Forge: 2003). 참조.

[64]독일 침례교 운동은 1834년 함부르크에서 요한 게르하르트 옹켄의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빌헬름 니이젤, 391.

[65]한국 침례교회의 역사는 1889년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독립선교사 M.C.펜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편,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0).을 보라.

[66]빌헬름 니이젤, 393.

[67]Payne, E. A., *The Fellowship of Believers-Bapist Thought and Practice Yesterday and Today* (London: 1944), 17.

회론과 흡사하다.[68] 그들의 교회론은 회중교회의 교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셀교회의 교회론은 침례교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론이 그 준거이며 틀을 형성하는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왜 셀교회를 도입하고 있을까? 그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를 답습하는 한국 장로교회에 대해 셀교회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셀교회의 장점과 특징

① 셀교회의 장점

랄프 네이버는 전통적 교회를 'P.B.D. 교회'(Program Base Design)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말해 전통적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 성도들이 이끌려 가는 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셀교회를 추구하는 서울순복음교회에서 제시하는 것을 볼 때, 전통적인 교회의 구역모임(소그룹 모임)과 셀모임의 차이와 전통적 교회와 셀교회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69]

a. 구역 모임은 주일 대 예배의 형식과 다른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셀모임은 셀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역 즉 친교, 양육, 문제 해결이나 치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체험하는 것과 불신자 영혼에 대한 전도가 중심인 모임이다.

b. 구역모임은 친교중심의 모임이지만 셀모임은 지도자 훈련, 친교 및 전도에 중점을 둔다. 구역장은 특정 신자에게 제한되어 있지만 셀모임은 모든 신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신자를 처음부터 지도자로 양성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셀그룹을 인도한다.

c. 전통적인 교회에서 구역모임은 다른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 셀교회에서 셀모임은 교회의 기초공동체이고 교회 속의

---

[68]침례교 신도들은 재침례교도들을 영적 혈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며, 그들의 신앙정체성을 재침례교도들의 역사와 교리에서 찾곤 한다. 김기태, "*재침례교도와 칼빈의 교회관 비교*",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학위논문(역사신학), 1990년 2월, 1, 52. 참조.

[69]서울순복음교회 홈페이지 http://www.sfgc.org 를 참조.

교회이다. 셀모임에서 찬양과 기도, 가르침, 양육, 권면, 지도자훈련, 전도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따라서 셀은 교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니며 교회 그 자체이다.

d. 전통적인 교회는 주로 부서를 통한 일 중심의 교회이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성경공부 중심으로 교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내면을 깊이 잘 터치하지 못한다 그러나 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적용 및 실절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

e. 전통적인 교회는 일과 프로그램 중심이므로 일꾼, 프로그램 및 예산 쟁탈전이 벌어진다. 또한 다른 부서와의 교인과는 공통된 관심거리나 화제가 드물다. 그러나 셀교회는 모든 교인이 셀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므로 일꾼, 프로그램 및 예산 쟁탈전이 없고 셀모임과 번식이 모든 교인의 관심사가 된다.

f. 구역모임은 주입식 성경공부나 설교시 말씀전달이 모임의 주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셀모임은 하나님의 임재체험과 성령의 은사 사용을 통한 실질적인 사역이 주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셀원 각자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g.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전통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셀교회에서는 셀이라는 사역의 장을 통해 자신이 부여받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 셀리더는 셀의 담임목사이다. 셀 리더는 셀의 목사이다. 능력과 은사에 따라 셀리더는 셀을 무제한 번식시킬 수 있다, 셀원들을 모두 셀리더로 성장시킨 셀 리더는 자연히 셀리더들을 인도하는 셀 수퍼바이저가 되어 셀리더들을 계속 지원하고 훈련한다.

h. 전통교회의 모임은 건물 중심이다 대부분의 교회 모임은 교회 건물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의 크기는 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의 분량과 공간에 제한된다. 이에 반해 셀교회는 교회 공동체 중심이다. 셀교회의 사역은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등의 흩어지는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셀교회는 셀그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I. 전통교회는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시스템은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교회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그것으로부터 원리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취한다. 셀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성경적인 교회론을 세우는 교회이며, 교회의 전통보다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서 그 모델을 찾아 오늘날 적용하고 있는 교회이

다.

정리하자면, 전통적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돌아가므로 불필요한 인력, 자본의 낭비가 생기면서도 성도들의 필요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반해서 셀교회는 친교와 성장과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작은 그룹들의 모임이므로 방향성이 뚜렷하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 구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전통적 교회보다 뛰어나다고 보는 셈이다.

랄프 네이버는 셀교회가 전통교회에 대해 가지는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효율적이다. (2) 공동체적이다. (3) 기도를 중시한다. (4) 도시 구조에 침투성이 뛰어나다. (5) 교파에 매달리지 않는다. (6) 건물 규모에 제한받지 않는다. (7) 전도에 효과적이다.[70]

실제로 셀교회는 교회성장의 측면에서 놀라운 효과들을 거두었다. 네이버는 모든 전통교회 중에 1/3은 신도 50명에서 성장이 멈추며, 나머지 1/3은150명에서 28%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350에서 성장을 멈춘다고 보고한다. 다만 5%에 해당하는 교회들만 성장을 계속해서 1000~2000명까지 성장한 다음 멈춘다고 말하고 있다.[71] 반면, 셀그룹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된다. 셀교회는 1990년에 미국에서만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는 싱가폴에 있는 '신앙 공동체 침례교회' 인데 불과 10년 만에 1,000여 개의 셀과 12,000명의 교회로 급성장했다. 1990년에 남미 '보고타 국제 은사교회' 는 70개의 셀그룹에서 8년 반 만에 24,000개 셀로 폭발했다.[72]

셀교회는 가정교회(House Church)에 비교해서도 장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만 개가 넘는 수를 가진 가정교회는, 대표자로 호주 캔버라의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박사를 들 수 있다.[73] 네이버는 아래와 같이 가정교회를 정의한다.

---

[70]랄프 네이버 *셀목회 지침서*, 28.

[71]Ibid., 21.

[72]Ibid., 17, 32.

[73]Banks, R.,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 (Homebush west: 1979)., (Grand Rapids: 1988). 한역: 로버트 뱅크스,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장동수 역 (서

가정교회(House Church)에 대한 순수한 정의로는 가정에서나 혹은 집에서 모이되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유한 그룹으로서 그들은 어떤 다른 교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어떤 경우에 이 용어는 셀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경우, 셀그룹은 업격한 의미에서 볼 때 가정 교회는 아니다. 셀그룹이란 가정에서 모이기는 하지만 도시나 지역에서 하나의 운동으로서 함께 모이는 보다 큰 규모의 그리스도인 모임(지역교회)의 한 부분인 것이다.[74]

네이버는 셀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를 가정교회는 전체 다 합쳐도 15~25명 정도인 점,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점, 천천히 성장한다는 점, 공격적인 복음 전도가 없다는 점, 대체로 복음 전도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둔다.[75] 이에 비해서 셀교회는 한 셀그룹은 10명 안팎이지만, 셀들이 모인 전체 회중은 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셀교회는 절대 독립적이지 않고, 항상 상위 지도자의 지도하에 있고, 셀리더 간에 연계성이 존재한다.[76] 그리고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정신적/물질적 나눔을 통해 상당히 공격적인 전도를 한다.[77]

② 셀교회의 특징

여기서 셀교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핀넬은 전통교회와 셀교회의 차이점을 여러 면에서 비교 검토하는데,[78]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이 도표를 보면, 셀교회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셀교회는 평신도[79] 사역자들을 적극 개발하는 시스템이다.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울: 여수룬, 1999).

[74]랄프 네이버, *셀리더 지침서*, 337.

[75]랄프 네이버, *셀목회 지침서*, 269.

[76]랄프 네이버, *셀리더 지침서* 27. "당신은 교회의 담임목사, 교구 목사, 지역목사, 그리고 지역 리더들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다. 당신이 사역을 할 때 셀교회의 모든 목자들과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77]여기서 우리는 셀교회론이 현대 마케팅 전략에 크게 힘입은 바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본다. 특히 "다단계 기법"을 통한 판매 전략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셀교회와 관련된 저서들에서 이 둘을 연관시킨 것은 보지 못했다.

[78]데이비드 핀넬, 17.

[79]칼빈은 권징을 논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다. *기독교 강요* Ⅳ. xii. 1. 그는 베드로전서

는

전통교회	셀교회
프로그램 중심(Program base Design)	사람중심
건물 중심	공동체 중심
"오라"(Come) 구조	"가라"(Go) 구조
교회 교육의 중심	섬기는 사역 중심
모임을 위해 시간 허비	전도를 위해 시간 사용
서양 문화적, 전문적, 관료주의적	초대교회 모델, 섬기는 지도자
교회당 중심 전도	관계 중심 전도

<표 4> 전통교회와 셀교회 비교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시키는 교회가 미래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80] 셀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교회보다 전혀 뒤지지 않는다. 칼 죠지는 목회자는 다음 세 그룹과 접촉함으로써 확실한 목회로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원 받지 못한 자들, 교회의 구역 조직, 구역 지도자 모임이 그들이다. 그는 이중에서 구역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미래 교회는 많은 시간과 힘을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81] 그런 점에서 셀교회는 가장 근접해 있다.

셀그룹은 한 명의 공동리더[82] 아래에서 서로 연결된다. 하나의 구조 권위 즉 담임목사 하에서 존재한다. 담임 목사는 셀을 돕기 위한 훈련자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며 감독한다. 사람은 감독의 지도를 받을 때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셀그룹은 항상 외부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개개의 지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둔다.[83]

5:3을 따라서 교회 전체가 주님의 임무를 이어받은 성직자라고도 했다. *기독교 강요* VI. iv. 9. "tota Ecclesia clerus, hoc est haereditas Dmini(교회 전체는 성직자다. 이것은 주님의 계승이다.)" 칼빈이 원리적으로는 용납하지 않는 (성직자) 개념을 전통을 존중하는 뜻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 대신에 "비직분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라는 개념이 더 옳다고 본다.

[80]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21세기 한국 교회 메가트렌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96.

[81]George, 98.

[82]랄프 네이버, *셀목회 지침서,* 278. 그 리더를 가리켜 "목자"라고 한다. "그는 양떼의 목사들이다."

[83]Ibid., 270. 셀교회의 단점을 보강한 교회 중에 "G-12 교회"가 있다. 하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책을 참조하라. 오바자 탄도 스티아완, *세계교회는 G-12로 간다,* 임종혁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Comiskey, j., *From 12 to 3: How Apply G-12 Principles in your Church* (Houston: 2002). 그런데 "G-12교회"가 새로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셀교회 자체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12교회"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이제까지 우리는 셀교회의 의미와 그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셀교회의 장점과 특징을 조사했다. 그런데 셀교회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는 이와는 다른 교회론에 기초해 있으니 그것은 아래에서 상술한 칼빈의 교회론이다. 칼빈의 교회론을 살펴본 다음, 다시 셀교회를 분석한다.

(4) 칼빈신학과 교회론의 형성 및 그 영향

① 칼빈신학의 형성과 특징

a. 사도 신경적 구조

칼빈의 교회론은 그의 신학의 한 부분이다. 칼빈의 신학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강요』만 해도,[84] Ⅰ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De cognitione Dei Creatoris)", Ⅱ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De cognitione Dei Redemptoris in christo)", Ⅲ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양상(De modo Percipendae Christi Gratiae)"에 이어, Ⅵ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회[85]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수단들 혹은 도움들에 관하여(DE EXTERNIS MEDIIS vel adminiculis, quibus Deus in Cristi societatem nos invitat, et in ea retinet)" 다루고 있다. 이는 사도신경의 구성을 다루는데, 칼빈은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는 다르게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 사도신경이『기독교강요』의 형식과 이해와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86] 따라서 우리가 가진 칼빈의 신학의 특징을 먼저 조사하는 것은 그의 교회론을 살피는데 있어 적지 않은 유익을 줄 것으로

---

[84]Paker, T. H. L., *CALVI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 1995). 한역: T.H.L. 파커, *칼빈 신학 입문*,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9.에서는 파커는 "나는 칼빈이 한 권의 책에 매달린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강요가 그의 사상 전체를 담아낸다는 평가에는 동의한다." 고 썼다. 물론 칼빈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강요만 연구해서는 안되고, 기독교강요 외에 다른 작품들까지 살핀 다음에 다시 기독교강요로 돌아와야 한다. Wallace, R.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1959). 한역: 로날드 S. 월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3.

[85]여기서 '그리스도의 사회' 란 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과 동의하며 교회와 동의어이다. 파커, 181.

[86]Weber, O., *Die Treue Gottes in der Geshichte der Kirche, Gesammelte Aufsätze II* (Neukirchen: 1968). 한역: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이레서원, 2001), 55., 파커, 20.

보인다. 그렇다면 칼빈 신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의 신학의 대립자들과 중심적 원리들로 나눠서 기술한다.

b. 칼빈신학의 대립자들

칼빈신학의 대립자들로서, 로마교회와 재침례파, 인문주의자들과 극단적 인문주의자들을 생각해야 한다.[87] 당시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 대표적인 교리들만 쥐고 교황제도에 충성했다. 칼빈은 이들을 '교황주의자들', '스콜라주의자들', '소피스트들', '소르본의 학자들'이라고 부른다. 이중에 '스콜라주의자들'은 중세 신학자들을, '소피스트들'은 중세와 당대의 신학자들을, '소르본의 학자들'은 반계몽적인 파리 대학 교수들을 가리킨다. 종교 개혁자들과 로마와 불일치했던 점은 무엇보다 은혜가 죄보다 크다고 주장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재침례파들은 '광신도들', '열광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88] 인문주의자들은 헬라와 라틴 고전들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그것을 저술과 사고와 심지어 실천에까지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았다.[89] 마지막으로 극단적 인문주의자들에는 라블레(Rabelais), 돌레(Dolet), 데 페리에(des Priers) 같은 파리의 자유사상가들과 신이교주의를 표방한 에피쿠로스 추종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 칼빈은 유럽 사회를 위협하는 세력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분자들로 간주하여 경계했다. 『기독교강요』에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대목을 읽을 때 대체로 이 집단을 생각하면 된다. 이들과 대립하면서 칼빈은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로마 고전과,[90] 자신의 건전한 이성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리했다. 이들과 대립점은 교회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87]이하 내용은 파커, 13. 참조.

[88]G. 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 (Londen: 1962)., W. Balke, *Calvin and the An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1981).을 참조 특히 윌리암스는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기존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급진적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로서, 재침례교, 신령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을 묶는다.

[89]Kristeller, P.O., *Studies in Renaissance Thought and Letters* (Rome: 1956), 24.

[90]칼빈은 고전 저자들에게 깊은 애정과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문체로 훌륭한 산문을 썼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완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을 받아들였고, 스토아주의와 플라톤주의 같은 다양한 고전철학을 활용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원칙을 표방했을지라도 자신의 뇌리에서 항상 성경 외적인 개념들을 뿌리 뽑을 만큼 자신의 사고를 철저히 통제하지는 못했다. 파커, 16.

c. 칼빈신학의 원리

칼빈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칼빈 신학이 반주지주의나 비논리성이라고 특정 짓기도 한다.[91] 사실 칼빈신학은 서로 부조화 되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월레스는 그의 신학의 대립점들을 자신의 책 서문에서 4가지 큰 예를 들어 설명한다. 신학적인 넓은 관점과 좁은 관점, 현세주의와 타계주의, 영광스런 삶과 고난의 삶, 그리스도를 다름과 자연법을 따르는 것 등이 그것이다.[92] 그러나 칼빈의 신학은 결코 부조화 덩어리가 아니다. 칼빈 신학이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과 일관성 없어 보이는 곳에서 칼빈은 오히려 성경의 교리를 옹호하면서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칼빈은 바르트가 말하는 대로, '종합하는 자'였다.[93] 그런데 그 종합의 원리는 없는가?

우리는 여기서 칼빈신학에서 어떤 체계를 찾고, 그 체계에 따라서만 고찰하는 것을 반대한다.[94] 하지만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하여 본, 칼빈의 신학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정적인 원리들이 있다. 우리는 "내용상 원리로서는 삼위일체"를, "형식상 원리로서는 성경에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종합"을, "태도상 원리로서는 경건"을 들고자 한다.

실로 『기독교강요』를 볼 때, 삼위일체가 전체 내용과 구조를 이끌어 나감을 알 수 있다. 그의 신학에서 삼위일체는 하나의 항목으로 고립되지 않고, 전체 신학의 중심점이었다. 칼빈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역에서 고백하는 형태를 취하여 신학을 전개했다.[95]

---

[91]Doumergue, E., *Le Caractére de Calvin - L' Homme. Le syeteme. L'État-* (Nauilly(Seine): 1931). 한역: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70.와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230. 김재성은 이것을 칼빈 신학의 이중적 구조라 불렀다. 칼빈은 성경을 따라 이중적 구조를 가진 교리들이 많이 나온다.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92]로날드 S. 월레스, 4. 월레스는 그의 책에서 이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93]Barth, K., *Die Theologie Calvin* (Zürich: 1922). 영역: Barth, K., "*The Theology of John Calvin*", tr Bromiley, G W, Grand Rapods 1995, 179, "Calvin, the synthesizer."

[94]칼빈 신학의 중심 원리를 트릴취는 예정론으로, 나이젤은 기독론으로, 워필드는 성령론으로, 헤르만 베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방델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월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주권이나 종말론으로 보았다.(박성진, 71. 참조). 그러나 칼빈은 체계 신학자가 아니다. 어떤 한 주제만으로 그의 신학 전체를 체계적으로 엮으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하고 만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원리들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 이 원리만으로 그의 신학을 체계화 시키고자 함은 아니다.

[95]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8), 79.

그리고 각각의 부분을 논함에 있어 두메르그와 바우케[96]가 말하는 것처럼, "이율배반들(Contarietee)"과 "상반대립들(antinomies)"의 복합(Complexio oppositorum)이라는 방법론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두메르그의 비유를 빌자면, 칼빈의 신학은 활과 같다. 활의 양쪽이 팽팽한 힘으로 자신을 주장하면서 활대를 휘어가는데, 그 힘이 강할수록 발사되는 화살의 속도는 빨라지고, 제대로 박히게 된다. 그 한쪽을 없애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활 자체를 못쓰게 만드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칼빈의 사상도 이율배반, 상반대립 덕분에 비로소 칼빈의 사상이 된다.[97] 그런데 이 대립의 종합은 성경 때문에 자주 도입된다. 성경에서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칼빈은 역설적 진리를 밝혀주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종합은 성경주의에 기초한 종합이다.

'태도상의 원리'가 경건이라는 사실은 그의 글을 한 쪽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니이젤의 말이 웅변적으로 증언한다. 칼빈의 교리에는 모든 내용 중의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취급되고 있다. 칼빈 신학의 특성은 그의 신학의 양식 구성이나 내용적 요소에 있지 않고, 그의 신학태도에 있다. 그는 그의 신학 곳곳에서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98]

d. 칼빈 신학의 형성과 특징 그 중요성

a) 변천과정

칼빈 신학의 이와 같은 특징을 그의 교회론도 가진다.[99] 칼빈은 당시 자신의 신학의 대립자들 중에서 특히 로마교와 재침례교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교회론을 발전시켰다. 이 교회론은 이들과 투쟁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목회 경험 속에서 변천과정을 겪었다. 이를 판수가 거듭되어 출판되었던,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관찰할

---

[96]Bauke, H.,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Lepzig: 1922), 11, 31.

[97]에밀 두메르그, 70-74.

[98]빌헬름 니이젤, 17.

[99]McDonnell, K., *John Calvin the Eycharist* (Princention: 1967). 참조.

수 있다.[100] 1536년 『기독교강요』는 1536년(초판)에서는 교회의 불가시적인 본질이 강조되고 있지만, 1539년(2판)에서는 부쳐(M. Bucer, 1491-1551)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의 가시적인 본질이 강조되고 있다. 1543년판 즉 제 3판부터 칼빈은 "주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그 직분은..."이라고 말하고 있다.[101] 1559년의 최종판에서는 목사와 교사 임명, 그리고 말씀 선포와 성례를 강조했다. 즉 직분과 그 사역을 중시했던 것이다.[102]

b) 삼위일체적 구조[103]

칼빈의 교회론에서도 삼위일체적 구조가 곳곳에서 관찰된다. 많은 연구서들에서 칼빈 신학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의 『기독교강요』최종판의 구성을 따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의 신학일반과 마찬가지로 그의 교회론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104] 예를 들어 칼빈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도, 삼위일체론적으로 방향정립을 하고 있는 그의 신학을 유념하면서 해석하면, 그 항목 안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강요』Ⅲ권에서 개인 신앙을 다루다가 Ⅵ권에서 갑자기 공동체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공동체 그 어느 것도 『기독교강요』Ⅲ,Ⅵ권의 중심이 되

---

[100]기독교강요는 1536년(초판)에 6장으로 시작하여, 1539년(2판)에 17장 1543-50년에 21장, 1559년(최종판)에 네 권 80장으로 발전했다.

[101]베버, 63.

[102]박성진, "*칼빈의 교회론의 근원과 변천 /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서논문, 2000년 8월, 37, 76.

[103]유해무, 76.

[104]Butin, P. W., *Reformed Ecclesiology: Trinitarian Great According to Calvin*(Princeton: 1994)., Butin, P. W.,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Oxford: 1995), 97-106.을 보라. 여기서 부틴은 칼빈의 신학을 삼위칠체론적이라고 규정하고 교회론도 그런 맥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Leith, J. 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on Life* (Louisville: 1989). 한역: 존 H. 리스, *칼빈의 삶과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179.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이며,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친교 공동체이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환경과 훈련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 칼빈의 교회론의 삼위일체적 구조를 약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각론에서 리스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의 교회",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통치와 훈련기관으로서의 교회"라고 하여 삼위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지 않는다. 중심이 되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다.[105]

c) 칼빈교회론의 중요성

본격적으로 칼빈의 교회론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의 교회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106] 한 마디로 말해 그의 교회론은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은 칼빈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칼빈 이전에 부쳐가 고안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실행으로 옮겨 사용된 한 것은 칼빈이었다. 이 세 직분이 신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장로교 신자들 중에서도 마치 이 삼직이 교회사 초기부터 오늘날의 형태로 굳어져 지속적으로 전수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칼빈이 지적하듯이 고대교회 이후 교황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직분제가 전복당하고 말았다. 그것을 다시 칼빈이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107] 칼빈은 이러한 직분 제도의 근거를 성경과 고대 교회에서 찾았다.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직과 교사직을,[108] 디도서 1장에서 장로직을,[109] 디모데전서 5장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직을 찾았다.[110] 그는 주로 히에로니무스(=제롬)의 글들에 의지해서 고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직분체제가 있었음을 논증한다.[111] 하지만 평등한 직분제는 얼마 못 가서 계급제로 바뀌고 만다. 로마의 클레멘트로부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시작되며,[112] 이레나

---

[105]존 H. 리스, 178.

[106]Mckelway, A., "The Importence of Calvin Studies for Church and College," in :George, T. ed., *John Calvin and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1990), 135-146.를 참조하라.

[107]장로와 집사를 일반성도들이 감당하도록 다시 시행한 것을 칼빈의 종교개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초대 교회의 원상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재성, 234.

[108] *기독교강요*, Ⅵ. iii. 4.

[109] *기독교강요*, Ⅵ. iii. 8.

[110] *기독교강요*, Ⅵ. iii. 9.

[111] *기독교강요*, Ⅵ. iv. 우리가 아는 바에 따라, 이그나티우스 감독, 장로, 집사 삼직을 말했다. 이냐시오스, *일곱편지*, 박미경 역주 (서울: 분도출판사, 2000), 123.에서는 “episkopos”를 “주교”로, “Presbyteros”를 “원로(단)”으로, “diakonos"를 ”봉사자(들)로 옮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감독ㅇ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연결시키고, 장로들을 사도단과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위계질서를 두었다(Ibid., 54). 칼빈은 이를 주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관습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기독교강요* Ⅵ. iv. 2). Ignatius, *The Epostle of Ignatius to the Smyranaeans,*, Ⅷ in: *ANF* Ⅰ, 89.

이우스가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항하여 감독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교회를 말함으로써 감독직의 위상이 점점 높아졌다.[113] 종교개혁 당시에도감독, 장로, 집사직이 위계질서 안에서 상당히 제한받고 있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직에 반대하고, 만인제사장직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설교직을 강조하고, 장로나 집사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말씀 선포만 강조했는데, 이는 로마교와 급진적 종교개혁과 구분점이 모호했다.[114] 그는 장로와 집사가 맡은 일을 구교에 넘겼다.[115]

하지만, 루터가 불분명한 곳에서 칼빈은 분명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목회하면서 부쳐의 『진정한 목회(Die wahre Seelsorge)』에서 장로직과 집사직을 알았고,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겼다.[116] 종교 개혁자들 중에 부서와 칼빈만큼 교회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부서는 다만 이론에 그쳤던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 교회사에 직분을 정착시킨 사람은 칼빈이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사역 경험을 살려서,[117] 1541년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로 당회를 지도체로 만든 문서였다. 위의 교회헌법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네 직분을 세우셨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그것이다. 이것은 부쳐가 내세운 원칙이었다. 목사와 장로는 매주 한 번씩 당회(consistoire)를 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자신이 교회 직분을 갖게 되었으며, 목사 혼자가 아니라 직분자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국가의 승인 없이도 유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였다.[118] 당회가 목사와 함께 성만찬 참여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112]Clement of Rome, *The First Epistle of Clement to the Corinthians,*, XXXVII, XL, in: *AFN* I, 15,17.

[113]Irenaeus, Adversus haereses, III.ii.2, in: *AFN* I, 414.

[114]Mcgrath, A. E.,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Oxford: 1993), 195.

[115]Exalto, K., "*De kerk bij Luther*", in: Spojker, W. van't et al. ed., *De Kerk* Kampen 1990, 105. 이상 유해무, 533, 566.

[116]이하 논의는 오토 베버, 25, 30, 41.

[117]Courvoisier, J., *La notion d'Eglise chez Bucer dans son developpement historique*(1933), 88.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설명은 기독교강요 3판에부터 볼 수 있다. 그가 직분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스트라스부르그에 있을 때였다. 1541년 나온 교회 헌법에서 비로서 그는 네 직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는 것을 위해 칼빈은 1555년까지 투쟁했다. 이처럼 목사와 장로가 교회 일을 함께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게 된 것은 칼빈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다. 이것은 다소 변형이 되기는 했으나 개신교 교회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게 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교회론은 칼빈의 교회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칼빈의 교회론은 한국 장로교 교회론의 준거가 되며 이것을 검토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e. 칼빈신학의 형성과 특징 그 중요성

a) 변천과정

앞서 우리는 칼빈 신학의 방법론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서로 대립되는 것들의 종합이라고 말했다. 교회론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로서의 교회와 인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이다. 전자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 비가시적 교회와 대응시킨다면, 후자를 인간의 응답에 의해 모인 교회, 가시적 교회와 대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칼빈은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고립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시켰다. 따라서 칼빈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자 신자들의 단체이다.[119]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서로 불가분하다.[120]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대립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굳건한 기초와 골격을 가진 교회론을 정립시켰다. 이제 칼빈의 교회론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118]Mcgrath, 195.

[119]에밀 두메르그, 112.

[120]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서로 불가분하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외형적 교회와 관련이 있고 그 교회와 교통하며 그 교회의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강요 Ⅵ. ⅰ.3, 7. 로날드 S. 월레스, 290. 기독교강요 Ⅵ. ⅰ. 5. “교회는 다만 외적인 설교를 통해 형성될 뿐이다.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배우고 협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질서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모임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칼빈은 교회를 제도로서 이해함과 동시에 모임으로 이해했음을 안다. 즉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제도적인 면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을 중심하여 생각할 때 모임이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오토베버, 38.

b)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 택자들의 총수, 가시적/비가시적 교회, 어머니교회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arcana electio Dei)이다.[121] 즉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기인하는 공동체다.[122] 칼빈의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종교적 공동체의 본질을 인간학적을 접근하는 논술은 아니다.[123] 확실히 교회의 근거와 기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124] 칼빈은 그의 요리문답과 1536년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거룩한 공교회는 선택받은 자의 총수"이며, "교회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들의 불가시적 총체"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125] 그리고 이 주장은 최종판까지 이어진다.[126] 이처럼 칼빈은 교회를 논할 때, 다른 어떤 것을 화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함으로써 교회가 가지는 성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 의해 좌우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선택이 시작이다. 선택은 모든 다른 축복들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127]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제도라고 보았다.[128] 정당하게 말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활동을 이용하신다.[129] 여기에 지역교회 즉 가시적 교회의 활동이 나온다.[130] 신구약의

---

[121] *기독교강요* VI. i . 2.

[122] 존 H. 리스, 178.

[123] 빌헬름 니이젤, 194.

[124] *C.R.* 32:439.

[125] 이 점은 빌헬름 니이젤은 소홀히 했으나, 오토 베버가 올바르게 강조했다.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8), 455.

[126] 이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가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지각을 가지는 사람은 은혜로운 선택 교리에 의해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도리어 믿음의 확신이 보강된다. 빌헬름 니이젤, 189.

[127] *칼빈주석*, 시편 28:8, *C.O.* 31:285. "...ex hoc fonte fluere quaecunque in nos Deus confert beneficia, quia graeis in christo nos elegit([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원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128] *기독교강요*, VI. i . 1.

언약의 통일성을 잘 알고 있었던 칼빈은, 하나님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분임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는 자를 세우시고 질서를 보여 주심을 알았다.[131] 칼빈이 가시적 교회의 본질을 논할 때 곧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는 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132] 아마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논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의 잔재가 현저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에서도 의식적으로 고대 교회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증거를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33]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을 적용하긴 했지만 그것은 두 개의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대립하여 불가시적인 교회 개념을 비판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는 있는 그대로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여 끊임없는 교회의 개혁을 말하며, 참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의도이다.[134]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한 부분에서 선택된 것으로서의 교회 및 교회의 가시성과 불가시성을 다룬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제도'라는 말은 언뜻 보기엔 인간의 모임 즉 공동체와 대조되어 보인다. 하지만 칼빈은 '제도'라는 단어로써 교회가 가지는 신적기원과 인간적 노력을 연합시켰다. 그러므로 칼빈은 '제도'로서의 교회 대신에,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로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나태하며 진리를 꺼려하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불러서 이 교제 안에서 지탱하도록 돌보아 주시기 위해 어머니인 교회를 사용하신다.[135] 하나님은 교회라는 질서의 창설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임재가 그의 정하신 제도 안에서 나타나도록 뜻하셨다.[136] 그렇기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

[129]*C.R.*24:402.

[130]*기독교강요,* Ⅵ. ⅰ. 7. 다음과 같은 말들도 참조하라. "참 교회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경멸의 대상이다(*칼빈주석,* 미가서 4:11 *C.R* 43:361)." "마치 무덤 속과 같은 곳에서도 기적적으로 교회는 보존되어 있다(*칼빈주석,* 에스겔 16:53 *C.R* 40:387)."

[131]오토 베버, 22

[132]빌헬름 니이젤, 198.

[133]Ibid., 186.

[134]Ibid., 190.

[135]*기독교강요,* Ⅵ. ⅰ. 5.

계시의 장소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의 광장이다.[137]

c) 성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 그리스도의 몸, 직분, 설교와 성례, 목사직의 우선성과 책임

따라서 교회는 인간과 결코 대립해 있지 않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도 대립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교회의 한복판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난다.[138] 성부의 우선적 선택을 강조했던 칼빈의 교회론에 이제 기독론이 침투해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외적인 형태와 제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다.[139] 칼빈의 교회론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전개된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신자들의 지체됨이라는 개념이다. 우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몸을 세우신다. 이것은 칼빈의 에베소서 4장 주석에서 나온 결론이다. 교회는 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동체다. 피차에 섬김과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과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견해는 필수적으로 결부된다.[140] 교회는 한 개인이나 개인들의 연합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취급한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14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와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142] 교회 안에는 직분자와 그렇지 않은 자

---

[136]빌헬름 니이젤 , 184.

[137]Ibid., 187.

[138]*기독교강요,* VI. ii. 3. 빌헬름 니이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구주와 주로서 인정되며 높임을 받을 경우에만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여 칼빈의 기독론적 교회론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는 바르트 학파의 영향이라 할지라도, 맞는 주장이다.

[139]*기독교강요,* VI. i . 2. 빌헬름 니이젤, 187. 특히 다음을 보라. *기독교강요,* VI. i . 5. 7. Undesequitur dignos esse qui fame et inedia pereant quicunque spiritulem animae cibum divinitus siniper manus Ecclesiaw porrectum respuunt(누구든지 교회의 손을 빌어 제공되는 영혼의 신령한 신적인 양식을 거부하는 자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죽고 마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140]*칼빈주석*, 갈라디아서 4:19 *C.O.* 50:235.

[141]*칼빈주석*, 로마서 12:6, *C.O.* 49:238. *칼빈주석*, 에베소서 4:7 *C.O.* 53:192.

[142]교사 직분에 대한 내용은 칼빈 생애후기로 갈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제네바 재학을 설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즉 이 직분을 교회에서 학교로 옮긴 것이다.

간에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긴 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책을 떠맡은 사람을 우리 위에 두신 것은 "그의 권리가 손상 없이 지속되게 하시려는 것뿐"이다.[143] 교회는 학교로서, 그의 학생인 성도들을 가르친다.

여러 직분들 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봉사직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직이다.[144]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와 성례의 집례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145] 말씀이 함께하는 성례는 공동체적으로 일시에 경험하는 지극히 개인적 체험이다.[146] 목사직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147] 말씀 선포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대표한다.[148] 목사는 몸인 신자들을 서로 붙들고 있는 '최고의 머리'이다.[149]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다만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50]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칼빈은 교회의 사역을 경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설교에서 온다는 바울의 말로 향하게 했다.[151]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교회의 거만한 태도가 없어진다.[152] 하나님은 질그릇에 선물을 담아 주신다. 목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보잘 것 없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여부를 두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겸손을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복종을 철저히 검토하신다.[153] 따라서 칼빈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이지만 결국 설교

---

[143] *칼빈주석*, 사도행전 5:29 *C.R.* 48:109. *칼빈주석*, 신명기 18:17 *C.R.* 24:374.

[144] 빌헬름 니이젤, 190. 칼빈은 목사직의 임무를 설교 뿐 아니라 양무리를 치는 것까지도 보고 있다. *C.R.* 10b:154.

[145] *기독교강요,* Ⅵ. i .5. 칼빈주석, 갈라디아서 4:19 참조.

[146] *칼빈설교,* 신명기 4:27-31, *C.O.* 26:197.

[147] *기독교강요,* Ⅵ. iii. 4.

[148] *C.R.* 27:688, 11:121.

[149] *기독교강요,* Ⅵ. iii. 1-2. *칼빈주석*, 디도서 1:5 Crampton, W. G,. *What Calvin Says,* Maryland 1992. 한역: 그링이 크램톤, *칼빈의 신학*, 박일민 역 (서울: 그리심, 2003), 124.

[150] *칼빈주석*, 신명기 18:17 *C.R.* 28:274

[151] *기독교강요,* Ⅵ. iii. 9. 로마서 10:17

[152] Barth P., "Calvins Verstädnis der Kirche" , in: *Zwischen den Zeiten* 3 (1930), 216-33 중에 특히 219.

[153] *기독교강요,* Ⅵ. ⅰ. 5.

로 집중된다.[154] 그래서 칼빈은 목사들에게 고상한 지위를 부여했다. 목사들에 대한 비난은 당회가 징계를 요청하기에 충분한 범죄였다.[155]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한다고 해서 목사직을 경솔하게 취급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칼빈은 목사직의 권위를 아주 강조했다.[156]

이에 따라 목사들의 책임도 강조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수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시며 우리 특정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는 특정한 말씀들이다.[157]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다.[158] 제도개혁 조차도 칼빈에게 있어서는 설교에 수반되는 열매였다.[159]

d) 성령 하나님의 사역장인 교회

- 성도의 성화와 교제, 세상과 구별도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라는 별명과 함께 칼빈은 성령님의 신학자로서 또한 알려져 있다. 『기독교강요』 제 1권에는 성경의 저자로서 성령님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성령님의 신성과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제 3권은 거의 전부가 성령론이다. 성령님께서 인간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주관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제 4권에서는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을 중점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성령론은 칼빈의 신학의 중

---

[154]그러므로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설교에 대한 강조가 후기 장로교의 발전에서 성례의 약화를 초래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칼빈이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155]존리스, 192;*C.R.* 21:303, 413, 417; 김재성, 234. 참조.

[156]Pauck, W.,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Boston: 1950), 133.

[157]*칼빈주석*, 시편 12:5 *C.O.* 31:129. Neque enim satis foret, Deum apud se statuere quid factureus sit in Seus voce sua ostendit se nobis fore propitium(실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직접 이름 불러 모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구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실지 결정하기, 에 불충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비춰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들의 말씀 선포는 적실성이 있어야 하며 성경 공부도 개인의 체험을 깊이 있게 만져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을 배운다. 현대 교회에서 개별 심방이나 목회적 경험과 체험적 묵상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가지는 무차별m성i과 무적용성을 칼빈이 이미 지적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한간에 떠돌았던 평신도 설교는 오히려 설 자리를 잃고 만다. 목회적 돌봄 없는 설교로 성도들이 온전히 양육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설교는 은사를 가진 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해야 하며, 목회를 하는 자만이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158]*칼빈주석*, 시편 95:8 *C.O.* 32:33.

[159]유해무, "한국교회와 개혁신학", *개혁신학과 교회* 제 13호 (2002년): 146-168. 중 168.

심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160]

칼빈의 교회론 또한 성령론에 정초해 있다.[161] 칼빈이 나름대로 제도주의자(Institutionalist)라는 점은 옳더라도 그가 신약의 중심적인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기구는 그 안에 은사가 늘 작용하고 있다. 직분과 은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직분은 은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162]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며,[163]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끈이 된다. 성령님은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164]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165] 성령님으로 인해 구원을 깨닫고, 성령님으로 인해 은사와 직분이 주어진다. 성령님으로 인해 신앙과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서 증진된다. 따라서 교회와 성령님은 분리불가능이다. 성령님 덕분에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있으시면 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 칼빈에게는 성령님의 교회적 차원의 활동이 아주 강조된다. 우리가 유형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에 그 연합에서부터우리의 성화가 비롯된다.[166] 심지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성령님을 나눠 주시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쓴다.[167]

---

[160]Warfild, B. B., "John Calvin as Theologian", in: *Calvin and Augustine,* Philladelpha, 1956 487. 김재성, 229.

[161]이하 논의는 Dae-Woo Hwang, *Het Mystieke Lichaam van Christus-De ecclesiologie van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in* (Apeldoorn: 2002), 178-197. 참조.

[162]오토 베버, 69.

[163]교회를 삼위 하나님의 전으로 본 칼빈은 하나님의 천상적 하나님의 성소는 지상에 있다고 했다. *칼빈주석,* 요한복음 2:16, *C.O.* 48:215 Est enim coeleste in terra Dei sacrarium(하나님의 천상적 성소는 지상에 있다). 칼빈주석 Hand. 9:31 *C.O.* 48:215 quia ecclesia templum est ac domus Dei, et singuli etiam fideles templa sunt(교회는 하나님의 성전혹은 집이다. 그리고 신자 개개인이 성전들이 된다).

[164]*기독교강요,* Ⅵ.xvi 16. 15. "idque per Spritum Sp sanctum qui nos facit Christi ipsius participes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다)."

[165]*기독교강요,* Ⅲ. ii . 8. "Fides in Christi notitia sita est. Christus nisi cum Spiritus sui sanctificaione cognosci nequit(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과 성화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알려지지 않는다)."

[166]로날드 월레스, 248. 이하 논의에서 이 책 245-311을 많이 참조 했다.

[167]*칼빈주석,* 고린도 후서 13:14. C. O. 50:156. 13절. "Deus non singulis seorsum largitur spiritum, sed pro gratiae mensura cuiqe distribuit, ut exxlesiaw membra vicissim inter se communicando unitatem foveant (하나님은 개인에게 따로따로 성령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분량을 따라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는 교회의 지체들이 상호간에 번갈아 참여함으로써 연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판넨베르크가 "칼빈에게 성화론은 일차적으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한 과정이다."라고 한 것은 기독교강요 Ⅲ권과 Ⅳ권의 관계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견해로서, 옳지 않다. Pannenberg, W., *Christian Spirituality*

특별히 칼빈의 교회론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화가 교회에 의해 좌우된다고 칼빈은 보았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가시적 교회에 충실한 애착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가견(visual) 교회는 불가견(unvisual) 교회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168]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169]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상호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170]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171] 오히려 성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피차 서로에게 나누어 준다는 조건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연합된다.[172] 우리는 고립된 지체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교제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성화에 참여한다.[173]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교회론이 지닌 상당한 역동성을 발견한다. 칼빈에게 교회란 교제인데, 그 교제란 은사를 통해 성도 서로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연합시키는 그런 식의 교제이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은사들의 상호 분배를 통해 서로에게 밀착해야 한다.[174]

앞서 우리는 칼빈의 교회론의 근저에는 선택이 있다고 했다. 성화의 근거도 역시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의 열매는 성화이다.[175]그런데 선택은 교회 안에서 이뤄진

(Philadelphia: 1983), 57. 칼빈이 교회를 개인의 신앙과 성화를 위한 외적 수단으로 이해한다는 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를 개인 성화의 수단으로 삼기 보다는, 개인 성화가 오직 교회로 말미암는다고 본 것이다. 박영돈, "교회론의 성령론적 차원", *개혁신학과 교회* 제 9호, 1999년 12월, 226-246.

[168] *기독교강요,* Ⅵ. ⅰ. 7. 7. "Quemadmodum ergo nobis invisibilem, solius Dei oculis conspocuam Ecclesiam credere necesse colere iubemur(따라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인간들의 관점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를 주목하고 그것과 교제를 증진시키도록 우리는 명령 받는다)."

[169] *C.R.* 51:203.

[170] *C.R.* 49:500. *C.R.* 51:192.

[171] *기독교강요,* Ⅳ. ⅰ. 5.

[172] *기독교강요,* Ⅳ. ⅰ. 3.

[173] 로날드 월레스, 249.

[174] *칼빈주석* 고전 12:12, *C.o.* 49;501. 성경본문 고전 12:12. "Quemadmodum enim corpus unum est, et ita et Christus(실로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은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Hic vero fideles hortatur ut mutua donorum collatione inter se cohaereant(여기서 바울은 진정 충심으로 성도들이 선물들의 상호적 분배를 통해 서로 간에 붙어 있도록 권고 한다)."

[175] *칼빈설교,* 에베소서 1:3-4 *C.O.* 51:270. "Car ce sont choses coniointes et inseparables, 뻗 Dieu nous ait eleus, et que maintenant il nous appelle à sainctete̒(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리라는 것과 지금 우리를

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선택하심이 바로 선택이다.[176] 그렇기에 성화의 확신은 교회 회원권을 떠나서는 가질 수 없다. "주께서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지 않으셨다."[177]

칼빈에게 성령님의 은혜에 의한 성화란 결국 육체성, 세상성과 분리됨이다. 칼빈이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조직된 이 세상의 현실 생활이며, '육체의 영역', '이기적 생활의 영역', '사단의 세력의 영역'이다.[178] 그런데 교회의 교제 안에서만 성도는 세상과 분리될 수 있다. 세례를 받아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자는 세상과 분리되었다.[179]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역이다.[180] 하나님의 양떼와 백성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181]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되고 구별이 된 것은 개인적인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182] 칼빈은 이로써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관을 비판한다. 그는 이기적인 교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팔을 내민 것처럼 우리 팔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183] 우리가 이웃과

거룩한 데로 부르시는 것은 상호 연관되며, 분리불가능하다)." *칼빈설교*, 에베소서 1:4-6, *C.O.* 51:270. *칼빈설교*, 요한복음 13:18, *C.O.* 47:311.

[176] *칼빈설교*, 에베소서 1:3-4 *C.O.* 51:265. *칼빈주석*, 시편 105:26, *C.O.* 32:110.

[177] *기독교강요*, VI. ⅰ. 20. 7. "Dico autem aedificari primum oportere, non quod Ecclesia sine sanctorum communione(그러나 나는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죄사함이 없이어떤 교회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교통 속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보내시지 않기 때문이다)."

[178] *칼빈주석*, 요한일서 2:15 *C.O.* 55;318.

[179] *칼빈주석*, 베드로전서 3;21 *C.O.* 55:267-8. *칼빈주석*, 창세기 7:17, *C.O.* 23:133.

[180] *칼빈주석*, 시편 16:3 *C.O.* 31:151.

[181] *칼빈주석*, 시편 106:, *C.O.* 32:117.

[182] *칼빈주석*, 히브리서 10:24, *C.O.* 55:132. 본문 24. "Et consideremus nos mutuo in aemulationem chariatis et bonorum operum(우리가 사랑과 선행에 있어 경쟁하도록 서로 살핍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옳은 길로 회복시키고, 넘어진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밖에 있는 자들을 얻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183] *칼빈설교*, 에베소서 4:15,16 *C.O.* 51:583.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며, 온 세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범위와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84] 성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은닉성과 불가견성을 갖고 있지만, 성도들의 모범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성도들의 의와 거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찬란하게 빛난다.[185]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모범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의 체험을 공적으로 간증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186] 성도의 고백이 진실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설득력 있고 확실한 것이다.[187] 공적 고백과 전도가 중요하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공적인 고백이 더욱 요청된다.[188]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평판에 무관심한 자는 잔인하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 못지않게 평판이 우리의 앞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189] 평판이 좋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외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190] 이렇듯 칼빈의 성령론적 교회론은 교회와 세상을 성령님의 사역장으로 보는 성경의 견해에 충실한 교회론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칼빈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며, 어머니와 같이 자기 자식을 말씀과 성례로 키우고, 학교처럼 가르치며, 직분자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자라게 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아(敎會兒)이고, 교회 안에서 평생 학자이며, 교회의 지체이며, 은사를 따라 섬기는 자들이다. 교회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다른 이름들이라면, 그 이름들에 따르는 우리의 사명들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Gabe ist Aufgabe).[191]

---

[184] *칼빈설교*, 디모데전서 2:5-6, *C.O.* 53:161-2.

[185] *칼빈주석*, 시편 16:3, *C.O.* 31:151.

[186] *칼빈주석*, 시편26:12, *C.O.* 31:270.

[187] *칼빈설교*, 디모데전서 6:12-14, *C.O.*53:603.

[188] *칼빈주석*, 마태복음 10:32, *C.O.* 45:291.

[189] *칼빈주석*, 고린도후서 8;21, *C.O.* 50:105.

[190] *칼빈설교*, 창세기 14:13-16, *C.O.* 23:643.

[191] 로날드 월레스, 245.

이러한 칼빈의 교회론은 당대의 다른 교회론에 비해 독특한 장점을 지녔다. 우리는 아래에서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 및 재침례교도의 교회론과 칼빈의 교회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논문의 주제인 셀교회 교회론에 대한 칼빈의 교회론이 가지는 특징들이 더 잘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칼빈의 교회론과 루터파, 로마 가톨릭 및 재침례교도 교회론 비교

① 루터파와 비교해서

칼빈 당시 루터(파) 교회론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 7장과 8장에서 잘 나타난다.[192]

「아우구스부르크 신악고백서」 Ⅶ: Et ad veram unitatem unitatem ecclesiae satis est consentire de doctina evangelii et de administratione sacramentorum. Nec necesse est ubique similes esse traditiones humanas seu retus aut ceremonuas ab hominibus institutas(따라서 교회의 참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과 성례의 수행에 관한 교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전통, 즉 예전과 인간들에 의해 제정된 의식 등은 어디에서나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악고백서」Ⅷ: sacramenta et verbum prppter ordinationem et mandatum christi sunt efficacia, etiamsi per malos exhibeantur(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서 수행된다 할지라도 유효하다).[193]

이상에서 보면 루터파와 루터파의 신조는 교회의 주된 문제가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칼빈에게 강조되었던 직분론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루터파는 교회가 ‘신앙인의 공동체(communio sanctorum)’ 임을 강조했다.[194]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

[192]오토 배버, 56.

[193]빌헬름 니이젤, 재인용, 308.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제도(institution)임을 강조한다. 개인구원과 그에 따른 편협한 칭의교리에 중점을 루터파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역점을 두는 곳이 개인구원이나 만인구원이 아니라, 주님 자신과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운 은혜로운 통치라는 사실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은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매우 깊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195]

② 로마 카톨릭과 비교하여

종교개혁 당시 칼빈과 로마 카톨릭의 충돌 지점들은 다양했다. 그러나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196] 첫째, “교회의 무오개념”이다. 로마교는 교황과 교회가 무오하다고 했다. 그러나 칼빈은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오류에 둘러싸여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 “계급 구조와 특별한 사제제도”이다. 로마교는 성직과 평신도 계급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을 받아들였다. 셋째, “성례의 구원적 성질 개념”이다. 로마교는 성례 자체의 효력을 믿었다. 그러나 칼빈은 말씀이 함께 하지 않는 성례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례의 효력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성례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칼빈에게는 사도신경이 말하는 ‘가톨릭’ 즉 ‘보편적’이라는 것은 ‘범세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었다.[197] 따라서 가톨릭교회를 주장하는 로마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코 아니라고 칼빈은 말한다. 교황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많은 오류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변질된 형태의 교회 정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해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198] 칼빈은 이렇게

---

[194]오토 베버, 7.

[195]빌헬름 니이젤, 311.

[196]그레이 크램톤, 110.

[197]파커, 110.

[198]*기독교강요,* Ⅳ. ii. 6. 파커, 190.

위계 제도와 그 병폐 속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목사/장로 연합체로 다시 갈려내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199]

③ 재침례교도와 비교하여

사실 루터교와 로마교의 교회론 보다, 본 논문의 목적상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재침례교도들의 교회론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만연한 여러 교회론들 중에 오늘날 셀교회론과 가장 유사한 것이 그래도 재침례교도들의 교회론이며, 셀 교회론이 발생한 침례교가 언제나 재침례교도들을 자신의 영적인 혈연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200]

그런데 우리가 재침례교도라고 할 때 먼저 엄격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201] 왜냐하면 그들을 ‘신령주의자’, ‘이성주의자’, ‘종교적인 자유사상가’들과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은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202] 칼빈주의자들도 이들을 이성주의자와 종교적 자유사상가로 생각하기도 했다. 20세기 들어서 이에 대한 바른 정립이 이뤄졌다. 베인톤은 신령주의자들, 재침례교도들, 이성주의자들을 특징지어 “종교개혁의 좌익(left wing of the Reformation)”이라고 불렀다. 윌리암스는 “급진적 종교개혁자들(The Radical Reformation)”이라고 불렀는데, 제대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관심은 종교사회학파 중 에른스트 트뢸취와 막스 베버의 연구로 고조되었다. 그리고 자유교회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교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자 자유교회들이 출현했고, 그들은 자기의 뿌리를 재침례교도들에서 찾곤 했다.[203] 윌리암스는 교회 전통의

---

[199]그런 점에서 장로직은 장로교의 영광이요 힘이다. Johnson. R. C., *The Church and Its Changing Ministry* (Philadelphia: 1961), 22.

[200]본 논문 본론 Ⅰ.1.

[201]이하의 논의는 Estep, W.R., *The Anabaptist: An Introduction to Sixeenth-Century Anabaptism* (Grand Rapods: 1963, 1975[2],1996[3.]). 한역: 윌리암 에스텝, *재침례교도의 역사*, 정수영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86), 22. 참조.

[202]루터, 칼빈, 쯔빙글리, 부서 모두 그랬다. 빌헬름 니이젤도 그런 경향이 있다. 빌헬름 니이젤, 392.

[203]국교회의 문제점과 현대 대형교회의 문제점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Littell, F. H., *The Free Church* (Boston: 1957).에서 리텔이 말하듯이 16세기가 자유교회 운동의 시대였다면, 셀 교회론자들에게는 21세기 또한 자유교회 운동이 한창인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질식할 것 같은 증식과 고아적인 특권을 누리는 교회와 여러 신조들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경향을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잡는다.[204]

물론 교회가 민주적 체제를 가진 형제애적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점과[205] 교회가 세상에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침례교도의 교회론과 칼빈의 교회론은 유사점이 있다.[206] 그러나 차이점이 더 많다.[207]

칼빈의 교회론과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 그 차이점으로 회중정치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회중정치는 16세기 재침례교도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재침례교 연구가 리텔은 당시 재침례교도의 대표자였던 "휘브마이어는 사제로서 자리를 내어 놓고 즉시 회중에 의해 다시 사역자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회중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예로서 재침례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쓰고 있다.[208]

또한 재침례교도는 중생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유아세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209] 이는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통일성을 근거하여 유아세례를 인정한 칼빈과 상충된다.[210]

재침례교도는 교회에는 흠이 없기 위해서 치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1] 물론 칼빈도 그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은 좀 더 엄격한 치리를 추구했다.

---

[204]이런 점에서 에스텝(Ibid., 43.)는 재침례교도의 기원을 1. 중세의 프란시스파의 Tertiarii로 보는 알브레이트 리츨의 견해와 2. 왈도파, 보헤미아 형제단으로 보는 루드비히 켈러의 견해, 3. 중세의신비주의자들로 보는 루푸스의 견해, 4. 복음주의적 인문주의자들로 보는 발터쾰러와 폴 피체이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가장 큰 영향은 성경이라고 결론짓는다. 여하튼 이들 집단 모두는 제도권 교회, 국가 교회와 대립적인 성형을 지닌다. Littell, F. H., *the Anabaptist Viewof the Church* (Boston: 1985).도 참조.

[205]*The Mennonite Encyclopedia* Vol.,1, (The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55), 597.

[206]Miler, M. E., "The Church in the World: a Mennonite Perspective" *Covernant Qiartely* 41 (August 1983), 49. 종교개혁 시기에 재침례파 교도들보다 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낸 개신교도들은 없었다. 그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중심적인 신학으로 삼았고, 교회론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유아세례가 아니라 전도를 통해 교회가 확장되고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Rudnick, M. L., *Speaking the Gospel Through the Ages: A History of Evangelism* (St. Louis: 1984), 93.

[207]이하의 논의는 김용국 "재세례파 교도들의 교회론." *일립논총* (2001): 29-45. 중 34-44.에 힘입은 바 크다.

[208]Littell, F. H., 17.

[209]*The Mennonite Encyclopedia* Vol.,1, The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55, 594.

[210]*기독교강요* Ⅳ. xvi.

[211]The /schleithem Confession (1527) in Timothy and Denise George edd., *Baptist Confessions, Covenant, and Catechism* (Nashville: 1996), 23-24. 참조. 그러므로 국가 교회는 그들이 보기에 참된 교회가 아니었다.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The Mennonite Encyclopedia* Vol.,1, The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55, 595. 재침례교도들의 완전주의에 대해서 에스텝(Ibid., 280.)은 휘브마이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우리가 침례 후에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고 자랑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외냐하면 우리는 침례 받

재침례파 교도들은 출교와 치리를 교회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칼빈에게 권징은 첫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 둘째 다른 이들을 타락의 유혹에서 지키기 위해, 셋째 권징 받은 자들의 회개를 위해 필요했다.[212] 재침례교도는 교회를 위한 이상적 단체로 보았던 경향이 있다. 하지만 칼빈은 흠 없는 교회를 말하는 재침례파의 이상을 맹렬히 논박한다. 완전히 순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교회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유혹이다.[213] 칼빈이 교회 회원들 중에 그 신실성이나 마음의 진실성에 의심스런 점이 분명히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을 때, 칼빈은 재침례파의 엄격주의와는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214]

교회가 가시적이냐 비가시적이냐 하는 질문은 재침례파 교도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는 항상 실재로 경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교회는 세례로서 신앙을 고백한 살아 있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것 이었다. 칼빈에게도 역시 비가시적 교회는 외형적 교회와 관련이 있고 그 교회와 교통하며 그 교회의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215] 그러나 그는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어 가시적 교회의 지침과 위로를 삼았다. 재침례파가 교회는 항상 가시적이므로 신앙고백자만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면, 칼빈은 의식과 종교적 관행들을 중시한다.[216] 재침례교도와 달리 칼빈은 규준성 안에 있는 역동성을 강조했다.

재침례교도들에게 국가는 옛 체제에 속한 것이었다.[217] 따라서 재침례파는 맹세

기 전이나 후에나 모두 불쌍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본다면 재침례교가 완전을 주장했다는 것은 약간 생각해 볼 문제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농후했던 것은 사실이다.

[212] *기독교강요* Ⅳ. vii. 5.

[213] *기독교강요* Ⅳ. ⅰ. 13. 칼빈은 완전주의자들의 예로서 초기 교회의 도나투스파, 중세의 카타리파, 16세기 일부 재침례파들을 들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의 생활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버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민족을 떠나지 않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전 예배를 버리지 않은 것을 들었다.

[214] *기독교강요* Ⅳ. ⅰ. 8-9. "Ita et Ecclesiaw universail suam servamus unitatem, quam dissecare semper studurrunt diabolici spiritus(이렇게 우리는 보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 그 통일됨을 마귀의영은 항상 찢으려고 애쓸지라도)."

[215] *기독교강요,* Ⅳ. ⅰ. 3., *기독교강요,* Ⅳ. ⅰ. 7.

[216] *칼빈주석*, 시편 42:2 *C.O.* 31:426. "'Pitatis exercitia(경건의 실행)"

[217] The Schleitheim Confession (1527) in Timothy and Denise George edd., *Baptist Confessions, Covenant, and Catechism,* (Nashville: 1996). 교회의 타락이 언제부터냐는 질문에 루터가 사비아누스와 보니페이스 Ⅲ 때

하는 것, 무력을 사용하는 것, 관직을 갖는 것, 전쟁세를 내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보았다.[218] 그러나 칼빈은 시민 관리의 직분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명'이라고 가르쳤다.[219]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시민 관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가 가진 성경적인 기능을 알려주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성경이 허락하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 시민관리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참된 교회의 복지도 증진 시키고,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220] 칼빈에게 교회 조직과 국가 조직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서로 간에 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루돌프 오토가 말한 것처럼, "초기 칼빈주의는 고교회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221] 즉 이 제네바의 개혁자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전통을 아주 중시했다. 특히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중시한다. 이것을 논할 때 그는 몇몇 루터교 신학자들과 재침례파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말하고 있다.[222] 이것은 오늘날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물론 재침례교와 오늘날 침례교 사이에는 직접적인 역사적 유대보다는 신앙적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223] 그리고 16세기 칼빈의 교회론과 오늘날 장로교의 교회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점들을 다루면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때의 두 교회론(재침례교도:칼빈)과 오늘날의 두 교회론(침례교:감리교) 사이에 대응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칼빈의 교회론은 감독정치(로마교, 감독교회, 성공회, 감리교)와 독립교회(회중교회, 침례교회)를 모두 반대하고, 장로정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224]

부터라고 생각했고, 츠빙글리가 힐데브란트와 성직 계급의 권력주장의 때부터, 그리고 칼빈이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라고 생각했다면, 재침례교도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때부터라고 보았다. Littell, F. H., 64.

[218]Davis, P.H., "An Anabaptist Viewof the Church," *Evangelical Quarterly* 56 (april 1984), 85.

[219]*기독교강요,* Ⅳ. xx. 4. 물론 목회자의 직분은 세속적인 직분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기독교강요,* Ⅵ. xviii. 11.)

[220]*기독교강요,* Ⅳ. xx. 2, 8.

[221]Otto, R., *Zur Erneuerung und augestaltung des Gottesdienstes* (Marburg: 1925), 51.

[222]오토베버, 52.

[223]에스텝, 301.

그리고 그 당시 로마교 교회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재침례파나 성령주의자들의 신령화(spiritualization)를 모두 거부했다는 검에서 독득한 특색을 지닌다.[225] 이제 칼빈의 교회론과 셀교회의 교회론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6) 칼빈의 교회론과 셀교회 교회론 비교

① 칼빈의 교회론으로 비판해 본 셀교회의 문제점

우리는 이상에서 논의한 칼빈의 교회론을 기준으로 삼아서 셀교회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a. 말씀의 측면

칼빈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쓰이는 "칼(gladius)"이요,[226] 성도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aqua)"이며,[227]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도록 하는 "밥(cibus)"이며,[228]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약(medisina)"이고,[229]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방(locus)"이자,[230]그리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길(via)"이며,[231] 신앙에서 자라게 하는 "씨(semen)"이고,[232]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거울(specula)"이며,[233]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제갈(frenus)"이다.[234]

---

[224] *기독교강요,* Ⅳ. vi-viii.

[225]황대우, 311.

[226] *칼빈주석,* 빌립보서 2:17 *C.O.* 52:36.

[227] *기독교강요,* Ⅳ. i. 17; *칼빈설교,* 신명기 7:5-8, *C.O.* 26:514.

[228] *기독교강요,* Ⅳ. i. 5.

[229] *기독교강요,* Ⅳ. i. 16 참고

[230] *칼빈주석,* 히브리서 11:11 *C.O.* 55:154.

[231] *칼빈주석,* 시편 18:1231, *C.O.* 32:185; 시편 81;14, *C.O.* 31:766.

[232] *기독교강요,* Ⅳ. i. xvi. 11; Ⅲ.ii. 29.

그런데 칼빈이 말씀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염두해 둔 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다. 하지만 셀교회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교회에서는 설교가 없다. 설교를 남겨두고 셀교회 원리를 도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설교의 영향력 약화는 막기가 힘들다. 특히 교리적 보전성에서 있어서 셀그룹들은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235] 그래서 교구 목회자들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새신자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무지할 수 있다.[236]

이와 함께 심각한 것은 성경의 해석의 문제이다. 셀교회 운동을 벌이는 측에서 내놓은 성경공부 교제들과 이론서들은 많은 부분 끼어 맞추기식의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론에 맞는 성경의 부분이라면 적극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침묵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토록 모범이 된다고 한다면 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직분의 문제는 빼 놓는가? 신약의 바울 서신서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라는 명령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이드로가 모범이 되었다면, 왜 초대 교회 때부터 그 원리를 교회 내에서 시행하라는 명령으로 발견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자세하게 대답해 주는 셀교회 운동가의 책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삼위 하나님을 셀의 시작점으로 보지만 그 이후에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에 대한 설명은 소멸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만 많은 경우 "소그룹 운동가"로서만 부각될 뿐이다.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현하셨던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심한 사건은 셀교회론과 어떻게 조화가 될까?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제 1의 종교개혁'에 이어서,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다는 '제 2의 종교개혁'인 셀교회 운동의 주창자들은 우선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부터 지키면서 '종교개혁' 운운해야 할 것이다.

---

[233] *칼빈주석*, 고린도전서 13:12, *C.O.49;514-15*

[234] *칼빈주석*, 시편 119: 147, *C.O.* 32:281

[235] 데이비드 핀넬, 35.

[236] 오순절운동이 쉽게 한국 장로교회에 유입되었던 것은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운동과 마찬가지로 신조에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해무, 164. 셀교회의 수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

b. 예배의 측면

이와 함께, 공예배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237] 칼빈은 하나님께서 외형적 직제, 말씀, 성례, 공기도 등의 수단 아래에 자기 백성을 두신다고 했다.[238] 따라서 예배를 더럽히는 모든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행도이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거짓되고 변하기 쉬우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239] 그래야 성도들 간에도 진정한 연합이 이뤄진다.[240] 하나님은 일반 성례식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데, 개인적 성경 읽기와 묵상이 공적인 말씀선포에 참석하는 것 즉 공예배적 설교와 성례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241]

셀교회는 각 셀 내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규범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예배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셀교회에서 말하는 '축제 예배'는 어떤 점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배다[242] 이와 더불어 성찬과 세례의 문제와[243] 헌금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셀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를 통제할 방법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세례는 어떻게 베풀 것인가? 그리고 헌금의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

[237]유해무, "공교회적 교회론의 개혁과 회복을 향하여." *개혁신학과 교회* 제 10호 (2002년): 183-218. 참조.

[238]*칼빈주석*, 시편 27:4, *C.O.* 31:274.

[239]*칼빈주석*, 누가복음 1:6 *C.O.* 45:10. 칼빈주석, 시편 128:1 *C.O.* 32:327

[240]*칼빈주석,* 시편 16:4, *C.O.* 31:151. "neque enim aliter in unum exxlesiae corpus coalescimus cub Deo, quam dum abrumpimus omnes impios nexus, disiungimus nos ad idolatris, et ab omnibus inquinamentis, quae purum Dei cultum corrumpunt ac vitiant, integri sumus ac immunes(달리 말해 실로 만일 우리가 연관된 모든 불경건을 깨부수지 않고, 우상숭배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예배를 더럽히고 훼손시키는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교회의 한 몸 안에 연합할 수가 없고 순전하거나 정결하다고 할 수 없다)."

[241]*기독교강요,* VI. i . 5.

[242]이는 소위 말하는 '구도자 중심 예배'나 '열린 예배'도 마찬가지다. 유해무, "한국에도 개혁신학이 가능한가?" *개혁신학과 교회* 제 15호 (2003년): 169-201. 중 200.

[243]칼빈은 성례를 거울(specula)이라고 하며(*기독교강요,* VI.xiv.6.9-10) 특히 성찬을 "약(medicina)"으로 비유한다. *기독교강요,* VI.xiv.42. 그리고 권징을 "약(medicina)"으로 비유한다. *기독교강요,* VI.xvii.11. *기독교강요* VI. i . 16.도 참고. 칼빈은 성찬을 자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독교강요,* VI. xvii. 43.를 보면, 칼빈은 매 주일 성찬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칼빈은 백번 양보하여 1년에 4번 성찬을 베풀었다. 제네바의 독재가로 잘못 알려진 칼빈이지만, 그는 완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1561년 교히 헌법에 보면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9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도록 말하고 있다. 오토 베버, 35.

c. 직분의 측면

셀교회를 그대로 도입한다면 전통적 직분제도가 위험에 처하게 됨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244] 칼빈은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 직접 세우신 것으로 보았다.[245] 신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기 위해 직분자가 중요하다.[246] 그러나 셀교회의 직분 개념은 장로교회의 그것과 판이하다. 셀교회의 직분론에 따른다면,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이 약화되어 결국 교회의 고유적인 기능의 저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셀교회 자체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 셀교회가 계속해서 리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중산층 교회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양질의 리더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 해도, 셀의 성장 속도와 분화 속도에 비해 리더가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격과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리더로 세워야 할 경우가 생긴다.[247] 리더의 갑작스런 결격 발생시, 새로운 일꾼을 발굴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셀교회처럼 셀의 활동이 교회 전체 활동을 다 차지한다면 리더의 교역자와 의식 부족과 수동성, 소극성이 뒤따를 때,[248] 그 셀 원들은 모두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셀 이론가인 핀넬 조차도, 셀 리더가 통제와 책임감을 상실할 가능성을 염려한다.[249]

---

[244]이렇게 본다면 한국 교회에 셀교회가 도입된 것은 직분자들의 유명무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45]*기독교강요,* Ⅵ. iii. 1. "Iam de ordine dicendum est quo Ecclesiam suam gubernari voluit momunus(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도록 세우지는 사역자에 관해서 살펴봐야 한다)."

[246]*기독교강요,* Ⅵ. iii. 2. 오토 베버, 63. 칼빈의 교회는 직분을 중시한 "교회(Amtskurche)"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1543년판 즉 제 3판부터 칼빈은 "주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직분은..."이라고 말하고 있다. 칼빈이 교인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교인의 공동체는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존속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로 직분자 조직을 중심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247]칼빈이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신중했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강요,* Ⅵ. iii. 10. 15.와 *기독교강요,* Ⅵ. iii. 11.을 보라.

[248]장복문, 38.

[249]데이비드 핀넬, 35.

d. 교회 연합과 교인 전체의 교제의 측면

한국 교회 상황에서 볼 때 셀교회가 한국교회 연합에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도 볼 수 있다. 칼빈이 말한 바처럼 교회는 연합될 때에만 강해질 수 있다.[250] 그는 분파주의를 반대한다.[251]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는 벌써 150여개 교단으로 난립해 있다.[252] 이런 한국 장로교회 상황에서 볼 때, 셀교회가 장로교 연합에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셀교회는 집단 이기주의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 교인 전체가 폭넓게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준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셀 목회 사역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253] 관심도는 증가시키는 반면, 전체 교회 교인들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다. 따라서 셀교회 처럼 되면 교회 연합의 정신은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 분명하다. 셀교회의 단점은 바로 옆에 있는 10명의 지체와는 기꺼이 연합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셀의 지체는 거의 무관하게 지낸다는 점이다, 하물며 다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로서 교회의 공교회성이 약화된다. 더불어서 교회 이탈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254] 셀교회의 구조 속에서는 이탈과 재가입에 대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e. 구체적 신앙 양태의 측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구체적 신앙생활의 모습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255] 첫째는 신앙적 감정주의적 경향에 치우칠 수 있다. 즉 실제적인 삶을 나

---

[250] *칼빈주석*, 시편 122:3 *C.O.* 32:304.

[251] *C.R.* 7:77에서 칼빈이 재침례파의 완전주의를 반대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252] 양낙흥, “교회의 일치와 분열에 대한 칼빈의 견해.” *개혁신학과 교회* 제 7호 (1996년 12월): 119-136. 중 135. 합동측은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 내분과 분열을 거듭하여 이주에서 “합동개혁”, “합동정통”, 등 합동이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 교회 집단이 44개나 된다. 허순길, “보수, 자유 양 신학이 한국장로교회에 남긴 자취.” *개혁신학과 교회* 제 7호 (1997년 9월): 125-141. 중 138.

[253] 장복문, 38.

[254] 칼빈은 교리에 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가장 엄하게 경계한다. 결정적 이유 없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기독교강요 Ⅵ. ⅰ. 10. 교회일치와 분열의 문제에 대해 니이젤은 칼빈을 현대 모든 교회 분열의 주모자로 보려는 자는 그의 저서 중에서 이에 관한 표현을 한 줄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칼빈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서명을 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칼빈의 교회 일치적 경향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칼빈은 현저한 교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멜랑히톤과 우의를 지켰던 것이다. 빌헤름 니이젤, 195.

눌 때, 극단적으로 감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리더가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는 말씀보다 경험에 우위를 둠으로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실천부터 하려고 덤벼들 위험도 있다. 셋째로 셀 전체가 침체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셀 전체가 타인 중심적이지 않고, 불신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열정과 비전을 잃어버릴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셀그룹의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열의가 식어진다.[256] 칼빈이 말하는 바 은사를 통한 교제를 무시하고, 성도간의 친목만 도모한다면 교회는 기독교적인 특색이 사라지고 다만 일반 사회단체와 별 다를 바가 없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치리상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칼빈은 교회의 치리가 교회의 존립을 좌우한다고 보았다.[257] 그런데 셀교회에서는 개인적 권면은 가능해도, 교회적 치리는 힘들 것이다.

이와 함께 셀교회의 경우 수장이 되는 담임 목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칼빈은 교황제의 위험을 교황 스스로가 자신을 지체의 자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았다.[258] 상위 셀리더로 갈수록 일반 성도들과 평범한 교제는 힘들어 진다. 교황과 같이 자신을 계속 고립시키려 하는 자는 결국 교회의 조화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가 되고 만다.[259] 최상위 셀리더를 교황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용기 목사의 경우 충분히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7) 장로교회가 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

이렇게 장로교회의 원리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은 셀교회론이 어떻게 한국 장

---

[255]데이비드 핀넬, 35.

[256]장복문, 38.

[257]*C.R.* 10b:154.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치리는 각자를 각자의 자리에 있게 하면서 몸의 지체로서 결합하는 데에 필요한 끈과 같은 것이다.” *기독교강요,* VI. xii. 1.

[258] *칼빈주석*, 에베소서 4:15, *C.O.* 51:202. “Quid est igitur papatus nisi deformis gibbus, qui totam ecclesiaw summetriam confundit, dum unus homo capiti se opponens, e membrorum numero se eximit(그러므로 교황이 그토록 교회의 조화를 어지럽혀 한 사람으로서 머리(되신 주님)에 대항하여 자신을 두며, 지체들ㄹ의 수로부터 자기를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그는 찌그러진 곱사등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259]*칼빈설교,* 에베소서 4:15-16, *C.O.*52:585.

로교회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가? 그것은 셀교회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은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언급하였다.[260] 여기서는 칼빈 교회론에서 보기 힘든 장점을 위주로 다룸으로써 한국 교회에서 셀교회의 수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① 평신도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칼빈은 그저 모이기만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교회에 맡겨진 과제 즉 임무를 은사와 직분에 다라 수행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다.[261] 그가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함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독점하지 않고 서로가 가진 은사를 통해 교회의 단결과 일치가 증진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둔 것이다.[262] 이렇게 볼 대 그의 직분론은 신약적인 교회관이 근저에 흐르고 있다. 그는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의 교회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가르침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추켜세우는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만인 제사장직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조직에 있어 왕 같은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로서 개인의 참여를 교훈하는 진리이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론에서 비직분자들은 대체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받기만하고 자신의 은사를 펼치기 힘들다. 반면에 셀교회는 개개인의 은사를 잘 살릴 수 있는 체제다. 현대의 중형 이상의 교회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익명성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작은 조직 안에서는 익명성이 줄고 자신을 개방하여 은사에 따라 섬길 여지가 더 많이 확보될 수도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그 연령적, 사회 신분적 위계질서와 비역동성 및 폐쇄성 그리고 목사들의 제왕적 목회활동으로 인해 은사 중심적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결과에 비해 오히려 셀교회가 교회의 역동성을 살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더 없는 설득력과 호응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

[260]본론 Ⅰ.2를 보라.

[261]*C.R.* 10b:308.

[262]빌헬름 니이젤, 201.

② 성도 서로간의 교제와 관련하여

칼빈은 성도가 사랑 안에서 교회의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263]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교회 연합의 정신이다. “성도의 완전성은 사랑에 있다.”[26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시금석이다.”[265]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구제나 봉사나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형제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266]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구역제도’를 통해 그것을 시도하지만, 역동성이 떨어진다. 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셀교회는 바로 그 점에서 강하다. 셀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성도 상호간의 교제로 확장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교회의 본질을 예배와 교제로 보는 셀교회의 셀그룹들은 잘 될 경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많은 부분 실현시킨다. 이 점에서 한국 장로교는 배울 것이 많다.

③ 말씀과 실천에 관련하여

칼빈은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한 것은 아니다.[267] 그는 여러 주제를 묵상의 주제로 제시했다. 설교,[268] 내세,[269] 하나님의 명령,[270] 그리스도의 수난,[271] 재림,[272] 창조,[273] 진노,[274], 심판[275],

---

[263] *칼빈주석*, 마태복음 18;20, *C.O.* 45:517.

[264] *칼빈주석*, 베드로전서 1:22 *C.O.* 55:228.

[265] *칼빈주석*, 베드로전서 1:22 *C.O.* 55:228.

[266] *칼빈주석*, 에베소서 6:18 *C.O.* 51:237-8.

[267] *칼빈주석*, 갈라디아서 2:20 *C.O.* 50:200; *칼빈설교*, 갈라디아서 2:20, *C.O.* 50:450.

[268] *칼빈설교*, 욥기 3:11-19, *C.O.* 33:158; *칼빈설교*, 마태복음 2;9-11, *C.O. 46:356*

[269] *칼빈주석*, 에베소서 3:18, *C.O.* 51:188

[270] *칼빈설교*, 갈라디아서 2:20-21, *C.O.* 50:499-50

[271] *기독교강요,* Ⅱ. xvi. 17.

[272] *칼빈주석*, 시편 104:1, *C.O.* 32:85; 시편 68:33, *C.O.* 31:635.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276], 은택[277], 축복, 구원의 역사,[278] 성도의 과거,[279] 일상 속에 임하는 축복[280]이 바로 묵상거리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묵상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묵상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묵상으로만은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도들끼리 서로 북돋아 주면서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 잘 행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셀교회 모델은 강력하다. 특히 전도에 있어서 그러하다.

한국 장로교회는 너무 안으로만 향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 문화에 대해 선교적으로는 무관심하나, 심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현대 문화는 지극히 개인화 자본주의화 되어 있어서 목사의 공적 권면과 설교가 잘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럴 때에 셀그룹은 말씀의 구체적 적용을 도와준다.

(8) 한국 사회에 적응성이 있는 개혁주의 교회론을 소망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밭과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만드신바(걸작품),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선한 목자의 양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령님의 전, 진리의 기둥과 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므로 아무 교회도 자기가 참된 교회냐 하는 질문에서 해방 받은 일은 없다. 그리고 아무 교회도 다른 교회들에게서 네가 참된 교회냐 하는 질문을 받을 의무에서 해방 된 일이 없다.[281]

125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의 장로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노력

---

[273] *칼빈설교*, 욥기 34:4-6, *C.O.* 35:137.

[274] *칼빈설교*, 욥기 31:9-15, *C.O.* 34:654

[275] *기독교강요,* Ⅰ. xvi. 22.

[276] *칼빈주석*, 시편 23:1 *C.O.* 31:238

[277] *칼빈주석*, 빌립보서 1:6, *C.O.* 52:9

[278] *칼빈주석*, 시편 4:1, *C.O.* 31:59

[279] *칼빈주석*, 시편 77:13 *C.O.* 31:717; *칼빈설교*, 욥기 3:11-19, C.O. 33:153-4.

[280] *칼빈설교*, 신명기 4:19-24, *C.O.* 26:163.

[281] Barth, K., *Gotteserkenntnis und Gottesdienst* (Zollikon: 1938), 18.

하였다.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개혁된 교회를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서 세워간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좋지 못한 토착하가 이뤄졌으니, 대표적으로 교회 분열과 교회성장주의 교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장로교인들의 불신실성에 근거한다. 특히 비개혁주의 교회론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고찰할 수 있다. 한국 장로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은 보수적이고 칼빈적인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 미국 부흥 운동 영향 하에서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는 한편, 신앙고백(교리)에 근거를 둔 고백교회의 역사를 심는 데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흥주의적이고 성장우선주의적인 교회론이 한국 장로교회에 침투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그 초기부터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셀교회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칼빈의 교회론에 근거하여 보자면, 장로교회가 셀교회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직분론이 셀교회론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셀교회론에서는 삼위일체적 교제를 성경적 근거로 하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자신들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가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 이미 나타나는 직분의 생성과 이후 방루 서신에서 원리에 충실한 예배와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가꿔가는 데는 부족한 교회론이라 할 것이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셀교회론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진다. 칼빈의 교회론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교회는 사람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셀교회론은 현대의 상황과 관련하여 문화 적응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장로교 교회론 자체가 가지는 한계들을 고려한다면, 셀교회론을 청년층과 구역 모임 위주로 일부 수용하거나 변형시켜 접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장로교회에서 셀교회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거나 교회 전체 틀을 바꾸는 식으로 도입한다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장로 교인들의 보수성 때문만은 아니라, 교회론 자체의 차이점에서도 기인하는 현상이라 봐야 한다.

칼빈은 삼위일체론적으로 방향지워진 교회론을 성경적으로 잘 세워 놓았다. 그

의 교회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만 화두로 꺼내고 집어넣는 셀교회론과는 달리, 그 중심원리로 삼는 신학이다. 그는 교회의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서 찾는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신다, 설교 말씀과 성례를 통해 젖과 꼴을 얻은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신 직분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안에서 거룩의 사역과 교제의 일을 하시므로, 우리 또한 이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은 천년이 훨씬 넘는 중세 교회에서 나타난 오류 및 실수, 그리고 교회사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정립된 것이므로, 백년이 조금 넘는 한국 장로교회사가 참고하기에 좋은 교과서가 된다. 특히 자신의 시대에 로마교와 재침례파에 대립하여 형성되어 갔던 칼빈의 교회론은, 로마 카톨릭의 장점과 재침례파의 장점을 둘 다 붙잡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하한 경우에도 형식 그 자체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형식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282] 올바른 예식과 형식이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을 말한다, 모든 형식은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를 도움을 준다는 의미 밖에 지니지 않는다.[283] 다만 형식을 잘못 취함으로써 본질마저 잃게 되는 우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경적 틀을 벗어 버린다면, 얼마 못가서 신앙생활의 역동성마저 훼손당하고 말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 신학은 재침례파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성경을 넘어서는 주장에서는 철저하게 갈라서고자 했다. 이것은 중세 로마교의 잔재가 그의 신학에 남아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성경에서 떠나 한쪽으로 치우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칼빈이 탁월한 역사의식과 현장의 목회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경계했던 것이다.

역사는 개혁주의 교회가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널리 확장되었음을 말한다. 평신도들에게 동등한 자격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은 칼빈의 덕택이다, 사실 개신교 역사에서 칼빈만큼 직분에 큰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칼빈에게 직분은 다양하며,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284] 우리가 그의 정신을

---

[282] *C.R.* 14:285, 15:538

[283] *O.S.* 1:432.

더욱 살리고자 한다면, 직분자 뿐 아니라 비직분자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현대 한국 사회에 적응성 있는 개혁주이 교회론을 새롭게 정립하여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함께 세워나가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를 향해 부단히 정진해 가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2) 초기 기독교 태동에서 본 가정교회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를 재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는 유일하게 신약성경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신약성경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가장 생생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재구성 작업에 어려운 점은 이런 자료들조차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그 자체가 일차적으로 초기형태의 교회 모습을 사료적(使料的)으로 묘사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어떤 주요목적 (예를 들면 교리와 선교 등등)에 종속하는 이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런 자료들에 들어있는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에 관한 진술들이 기록자의 필요와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도 재구성에 난점이 된다.

이러한 진술들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초기 기독교의 교회형태를 재구성하는 일을 힘겹게 만드는 것은 심지어 이런 진술들 까지도 문맥에 필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 형태에 관한 모든 것을 싣고 있지는 않다는 데 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에 관한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에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를 재구성해 보는 일을 시도하였다.[285]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신약성경의 후반부에 속한 책들은 내용상 간접적으로라도 교회문제와 상당히 결부되어

---

[284]오토 베버, 33, 65.

[285]조병수,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 자료분석, 33-62.

있다는 점에서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를 재구성하는 일에 적지 않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초기 기독교 교회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까닭은 신약성경의 모든 진술의 배경에 교회론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진술들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내리는 결론은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는 가족교회로부터 출발하여가정교회로 발전하고 결국은 지역교회로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정교회는 가족교회와 지역교회 (오늘날의 노회적 개념으로서)의 중간단계이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신약성경의 후반부 책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에 가족교회와 지역교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가정교회가 존재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이 글에서는 가정교회가 초기 기독교를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초기 기독교를 위한 가정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초기 기독교 태동 당시에 가정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둘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가가지고 있던 구조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1) 가정교회의 배경

초기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대에는 로마제국의 모든 사회가 가정 공동체(household community oikonomia)의 분위기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286] 실제로 가정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기본 단위였다.[287]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에 가정은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약성경이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여 자주 가정의표상을 사용한 것은 어렵

[286]Judge, Social Pattern, 30.를 참조하라 Judge는 Augustus 황제가 조국의 아버지(Pater Patriae)로 칭송받았다는 을 근거로 하여 심지어 로마제국 자체도 가정공동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32) 그는 이러한 가부장적 형식이 시저가문의 권세가 근거하는 정서적인 기초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33)

[287]Malherbe, Socail Aspects, 69:" in New Testmant times the household wad regarded as a basic political unit."

지 않게 이해가 된다.[288]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당시의 가정이 혈연적인 성격을 넘어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289] 당시의 가옥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 생활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신들에게 헌정된 가정제단으로 기능을 하였다.[290] 이런 까닭에 당시의 이교도들은 대단히 쉽게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를 종교적인 단체로 파악하였을 것이다.[291]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교도의 가정제단과 기독교의 가정교회 사이에 순전히 어떤 외면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292]

하지만 결코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가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적인 가정 제단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293] 오히려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신 6:4-9)과 중간기 유대교(눅 1:58)가 보여주는 가정신앙에 연속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초창기에 형성했던 '가정회당'(Haussynagogen)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294] 초기 기독교가 선교의 중심을 회당 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두었다는 사실은 유대인 가정회당이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교 자정교회의 본래적인 모범이었다는 이론을 제시하게 만든다.[295] 그러나 이 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 가정교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가정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의의와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학적인 의의와 이상이야말로 초기 기독교가 이방종교의 가정제단 뿐 아니라 유대교의 가정회당과도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가정교회를 형성

[288] Judge, Social Pattern, 32.: Meeks, The First Urban Christans, 86., esp. 86: "Especially striking is the language that speaks of the member of the pauling groups as if they were a family."

[289] barclay, *The Family as the Bearer of Religion.*, 67.

[290] Stuhlmacher, Philemon, 72.

[291] Ibid.

[292] Osiek/Balch, Families, 33.

[293] Ibid., 82. "Among the many forms that religion took in the Greco-Roman city, Family religion played an important part. This importance of household and famiy religion would translate easilu into household assemblies for christians."

[294] Stuhlmacher, Philemon, 72.

[295] Stuhlmacher, Philemon, 72.; Weiser, "Die Rolle der Frau", 166.

시키고 견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가정교회의 구조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의 집에 있는 교회"(롬 16:5; 고전 16:19; 골 4:15; 몬 2)이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 있는 전체 그리스도인이 한 가정에서 집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 있는 전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296]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가정에 기초한 개별적이 그룹들을 말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모이는 전체 교회(롬 16:23; 고전 14:23; 참조. 고전 11:18,20,33,34)와 차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규모의 기독교 운동인 교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297] 따라서 이 표현은 기독교 운동의 기본세포(basic cell)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의 핵은 실존하는 가족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298]

초기 기독교 당시에 가정에는 직계가족에 더하여 노예, 자유인, 하인, 노동자, 동업자와 고용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299] 가정교회가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빌레몬의 경우에서처럼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졌다(부모와 자녀, 몬 1-2). 추측컨대 그리스도인 이전의 바울이 초기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신자들을 체포하였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행 8:3)이 언급되는 것은 가정교회 구성의 핵심인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에 두로의 신자들과 작별할 때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행 21:5) 바울을 전송했다는 것은 직계가족이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296]Judge는 이 표현이 특정한 가정이 주빈으로 접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규모의 집회를 말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성된 기독교 가정집회의 가족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성된 기독교 가정의 집회의 가족들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근거로 하여 후자를 선호한다. Social Pattern, 37.

[297]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5.

[298]Ibid.

[299]malherbe, Social Aspecrs, 69.

가정교회는 조금 확대되면 직계가족을 넘어 친척과 친구들이 참여하였다. 이 사실을 위하여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행 10:24)은 고넬료의 회심 전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이야기의 결말(행 10:44-48)에 그들이 결국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고 말하는 것은 가정교회의 확대구성을 의심할 바 없이 확신시킨다. 더 나아가서 확대된 가정교회에는 부하와 하인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것을 위하여 역시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하인 둘과 군졸(행 10:7)과 예루살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가정교회에서 활약한 마리아의 하녀(12:13)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300]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 가족교회와 가정교회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스데바나의 집을 종결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는데(고전 1:16; 고전 16:15),[301] 해당단락(고전 16:15-18)을 분해해보면,[302]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 교회와 친구(또는 하인)까지 포함하는 가정교회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도 바울은 우선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레 자신들을(ἑαυτον) 드렸으므로 이런 자들에게(τοi τοιου,τοὐ) 복종하라고 말하고(고전 16:15-16), 또한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의 방문을 기뻐하면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였기에 이런 자들을(τoυ τοιτου,τοὐ) 알아주라고 말한다(고전 16:17-18).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전반에 나오는 사람들과 후반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도바울이 스데바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은 전자로는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족교회를 염두에 두고, 후자로는 친구/하인으로 확대된 가정교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듯이 고린도에는 스데바나의 가정교회 외에도 여

[300]이것은 당시의 가정구조를 이해할 때 더울 분명해 진다. 타이센, 원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 309.

[301]이 두 단어는 동의어이다. 타이센, 원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311.

[302]이 단락의 첫째 부분인 15-16절에서 15절은 전형적인 parakalw/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중간에 삽입문(parenthese)으로 oi;date+목적격+o[ti 문장을 가지며, 이어서 16절에 권면의 내용인 I[na 문장이 따라온다.(vgl. Schrage, Korinther 3, 449.) 이 단락의 둘째 부분인 17-18절에서 17절은 de,를 지님으로써 앞 부분과 분리되는 것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 18절 마지막에 ou=n으로 결론적인 문장이 따라온다.

러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었다.[303] 이렇게 가정에 기초한 개별적인 그룹들이 경우에 따라[304] 지역교회로 모이고(고전 11:18,20,33, 34),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ἡ ἐκκκλησίτου Θεου 고전 11:22) 또는 '온 교회(ὅλη ἐκκκλησια, 고전 14:23; 참조. 롬 16:23)라고 불리었다. 가족교회가 가정교회와 구분되는 것보다 가족/가정교회가 지역교회와 구분되는 것은 더욱 선명했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305]

정리해 보면, 초기 기독교의 교회 형태는 구성원에 따라서 세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교회(Family Church)라고 부를 수 있으며, 친척이나 친구가 동참하는 가정교회(House Church)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하와 노예가 포함된 것은 가문교회(Household Church)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도시 안에는 여러 개의 가족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가족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 지역교회(Local Church)는 위에 언급한 여러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늘날의 노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가정교회의 의미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에서 가정교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크게 보면 내적인 의미와 외적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306] 하지만 조금 더 세분하면 가정교회의 의미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타종교 또는 타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체적인 성격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

[303]조병수, 52.

[304]예를 들면 성찬을 위하여(고전 11:20), 또는 가정교회에서 연보된 것을 다소 바울의 방문에 맞추어 수집하기 위하여(고전 16:1-2), 또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함께 읽기 위하여(골 4:16). 마지막 사항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Dunn, The W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286: "perhaps at a single (open-air?) meeting of 속 whole church called for the purpose."

[305]조병수, 53, 62.

[306]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6: "tthe adaptaion of the Christian groups to the household had certain implications both for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groups and for their relationship to the larger society."

① 물질적인 측면

초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잠시 동안 성전을 집회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때 기독교에게는 성전을 대신할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전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사도행전).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기독교에 더 이상 신학적인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307] 실제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성전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초기 기독교는 추방당하는 결과를 예상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는 시작점부터 집회를 위하여 성전과 집을 동시적으로 겸용하였기 때문이다.[308] 그러므로 결국 초기 기독교는 성전을 박탈당했을 때 가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은 예루살렘 밖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당이 기독교인들의 집회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그 정체를 노출하게 되었을 때 회당에서도 추방당하고 말았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회당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당했을 때 가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309] 다시 말해서 성전과 회당으로부터의 거절은 가정교회의 부상을 위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초기 기독교는 특별히 종교적인 활동을 위하여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310] 초기 기독교가 소수의 성도로 집회장소를 구매하거나 건축할 능력이 없었다는

---

[307]건물로서의 성전이 기독교에 무의미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신약의 성전 개념을 논하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Gärtner, B., *The Temple and The Community in Qumran and the New Testament, A Comparative Study in the Temple Symbokism of the Qumarn Texts and the New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Mckelvey,R.J., *The New Temple. The Church in the New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308]조병수, 37-39.

[309]Filson, "Early House Churches", 106: Whenever the synagogoue was closed to Christian propaganda -and this seems to have occurred early in the developmenst of Paul's work in the cities he visites- the house church dominated the situation". Malherbe, Social Aspect, 68f.: paul's missionary practice was to convert entire households after his ejection from the sunagogues and then to use these houses as the bases for his further activity".

[310]Malherbe, Socail Aspects, 68: "the early church did not own building specially construted for its religious activities".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는 집회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건물로 신자들은 집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었다.[311] “집을 공동체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개적인’ 집회건물을 사용하거나 구입하거나 건축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일이었다.”[312] 따로 공식적인 예배처소를 마련할 수 없었던 초기 기독교는 지체들이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가정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313]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2세기에 들어서도 집회를 위하여 에배당을 건축하기 보다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용했던 것이다.[314]

② 타민족사회 또는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타민족사회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조금 복잡한 의미를 보여준다.

첫째로 타민족사회와 타종교에 대한 가정교회의 관계는 특히 가정교회의 발생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과 이교도들에게 핍박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안전한 은신처를 찾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에게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는 가정이었다. 가정은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핍박을 면할 수 있는 비밀장소였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행 12:1-17 특히12!). [315]회심 이전의 바울이 기독교인의 집을 수색한 이유도 이런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행 8:1-3, 특히 3!). 이것은 가정교회의 발생의 소극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가정교회 발생의 소극적인 의미에도 교훈이 들어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가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도 쓰러

---

[311]Osiek/balch, Familes, 33: "in these earliest years, perhaps for the first century and a half, there were probably no structural adaption for christian worship, but rether, the adaption of the group to the structures available".

[312]Bieritz,K.-H./Kähler, Chr., "HausIII", 484: "Die nutzung von Häusern für Gemeindezwecke war insofern eine Notwendigkeit, als die Benutzung, der Erwerb oder gar der Bau 'öffentlicher' versammlungsgebäude zunächst außerhalv aller Möglichkeiten lag".

[313]Vgl. styhlmacher, Philemon, 74.

[314]Osiek/Balch, Families, 35.

[315]조병수, 42.

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근간이 가정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의 모든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정교회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가정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가정교회로 구성된 기독교는 무너질 수가 없었다.[316]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타사회와 타종교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것은 가정교회가 이웃에 대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웃은 가정교회에 호의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자연스럽게 이교적인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317]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입증된다(아래 성구의 밑줄에 주의하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전 14:23-35).[318]

이렇게 하여 초기 기독교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웃사회에 자신을 공개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활동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교회는 이웃사회라는 덩어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초기 기독교가 가정교회로 출발함으로써 타사회 타종교와 질 다fms 체계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가정교회의 시작은 핍박의 상황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가정교회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특별한 사항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대인에게는 가정회당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가정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

[316]이런 사실은 이단의 공경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초기 기독교는 이단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목회서신, 요한서신 등을 참조하라). 그러나 이단이 가정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없는 한 기독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317]Judge, Social Pattern, 36: "Not only was the conversion of a household the natural or even the necessary way of establiching the new cult in unfamilar surroundings, but the household remainde the soundest basis for the meeting of christians".

[318]Osiek/Balch, Families, 34.

구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결국 특정한 신전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다. 신전은 그들에게 모든 존재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건물에서 자유로웠다. 이것은 유대교와 이방종교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차별화 현상이다.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유대인 성전이나 이방인 신전에 대한 차별화 현상이었다.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공간의 자유를 보여준다. 가정교회는 기독교의 자유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식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가정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설교를 넘어서 교제와 자유를 가진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선교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319] 이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가정교회의 방식으로 물질과 공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써 비가시적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였던 것이다.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의 실현은 가시적인 것에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고후 4:16-5:7)

③ 자체적인 의미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대단히 중대한의미를 가지고 있다.

a. 결속성

무엇보다도 초기 기독교는 가정교회의 형식을 가짐으로써 핍박과 이단이라는 두 가지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본래 가정은 어떤 개인감과 상당한 친밀감과 공간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320] 가정의 친밀성은 대규모적인 정치와 사회의 구조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였다.[321]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질적이나 초기의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322] 신약시대에는 가정이 정치적인 기본단위로 여겨졌는데, 가정의 이익

[319]Stuhlmacher, Philemon, 74: "In ihrer missionarishen Wirkugn sind gerade die Hausgemeinden deshalb bedeutungsvoll gewesen, weil sie über reine Wortverkündigung hinaus für Personen aller Schichten einen Lebensraum in Gemeinschaft und Freiheit anboten...".

[320]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6.

[321]Malherbe, Socail Aspects, 69.

을 위한 가족의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경쟁을 할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323] 따라서 초기 기독교의 집회가 가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가정교회가 그 자체로서 긴밀한 구조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의 집회가 가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가정교회가 그 자체로서 긴밀한 구조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가 핍박과 이단으로 말미암은 불안한 상황을 무난히 헤쳐 나가면서 안정되고 견고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회 형식으로 내부적인 긴밀한 결속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324]

특히 가정교회의 내부적인 결속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가장이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가정의 가장이 기독교 신앙을 개종하는 경우에 그 가정의 종교적인 통일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325] 이 사실은 한 가정의 가족들이 가장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넬료 행 10:48; 루디아 행 16:15; 빌립보 간수장 16:33; 스데바나 고전 1:16 etc.). 이렇게 가정은 공통된 종교를 가짐으로써 가족들의 결속을 표현하였다.[326] 가정 공동체의 이러한 종교적 성격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룹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종교와 가솔의 종교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장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솔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었다.[327] 먼저 주종관계와 관련하여 이것은 사례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쉽게 발견된다.[328] 이 경우에 노예가 한결 같이 주인의 신앙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

[322]Bieritz,K.-H./Kähler, Chr., "HausⅢ", 484.

[323]Malherbe, Socail Aspects, 69.

[324]Stuhlmacher, Philemon, 74: "Hinzuzufügen ist, daß rechtich und organisatorisch das Christentum in der römischen Welt des 1. Jh.s Gerade in Form der Haugemeinden sehr gut Fuß fassen konnte".

[325]Judge, The Social Pattern, 35.

[326]Judge, Social Pattern, 35: "the household, like the republic =, expressd its oslidarity in a common religion".

[327]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역으로 가장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솔이 그리스도인일 가능성도 있었다(롬 16:10,11).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6: "Furthermore, there were groups formed in households headed by non-Christian, like the fore menrionsd in Romans 16:10, 11, 14,15, not to mention the familia caesaris."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가정과 상관없이 개인이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했기 때문이다(Barclay, "the Family as the Bearer of Religion", 72.를 참조하라). Judge, Social Pattern, 36은 이런 현상에서 가정공동체의 느슨함 (looseness)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서 가솔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가정공동체에서 구분될지라도 여전히 긴밀한 일원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 토막은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고전 7:12; 참조 고전 7:14). 이와 비슷한 경우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나타난다: “아내도니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벧전 3:1-2)[329]

b. 개방성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개방성이다. 비록 가정교회의 사회적 구성은 대단히 상이하였지만 가정교회는 남녀를 불문할 뿐 아니라 모든 신분과 교육수준과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330] 가정교회는 “고대에 특히 중압감을 주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학식자와 무학자 사이의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장벽들이 깨어지고 모든 기독교인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새롭게 결속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평등하게 되는 곳”[331]이었다. 사실상 가정교회의 이와 같은 개방성과 평등성의 실현은 당시의 가부장적이며 계급주의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332]

c. 선교성

이렇게 결속성과 개방성을 지닌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상당

---

[328]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6: "Conversely,not menver of a househeld always became a Christian when itshead did, as the case of Onesimus shows". Vgl. Barclay “,The Family as Bearer of Religion", 75.

[329]이에 대한 설명은 Barclay, " Family as Bearer of Religion", 73. 을 참조하라.

[330]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9: Weiser, "Die Rolle der Frau," 167.

[331]Stuhlmacher, Philemon, 74.

[332]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6: "... there were certain conterviling modes and centers of authority in the Christian movement that ran contrary to the to the power of the paterfafamilias, and certain egalitarian beliefs and attitudes that conflicated with the hierarchical structre."

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정교회는 초기 기독교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근거지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333] 가정교회가 선교거점으로 사용된 사실에 관한 대표적인 예는 루디아의 집이다.[334] 사도 바울도 가정들을 사용하여 다음 활동을 위한 근거지로 삼았다.[335]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가정교회가 선교활동에서 중요한 까닭은 단순히 언어의 설교를 넘어서 각 계층 사람들에게 교제와 자유가운데 생활공간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선교하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단체들과 대중적 철학강의들과 회당의 유인력에 대하여 종교적인 연합운동으로서 경쟁할 수가 있었다.[336]

d. 중개성

이와 더불어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두 가지 방면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하였다. 첫째로 가정교회의 중계적인 역할은 가정교회들 사이의 연합적 성격에서 증명된다. 초기 기독교에서 가정교회들은 서로 간에 정보들을 교환하는 체계(network)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37] 예를 들어 비록 상호간에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정교회들이라도 성찬을 위한 집회의 정보를 나눔으로써 지역교회의 성찬예식 수행에 무리가 없게 하였다(고전 11:17 이하). 또한 가정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지도자의 지역교회 방문에 관하여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고전 16:1 이하). 특히 가정교회들의 상호 중계성은 사도들의 편지를 회람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골 4:15-16).[338] 아마도 예루살렘의 사도회의(행 15장)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의 참여

---

[333]Vogler, W., "Die Bdeutung der urchristlichen Hausgemeinden für die Ausbreitung des Evangeliums", *ThLz* 107 (1982), 785-794.

[334]조병수, 44.

[335]Malherbe, Socail Aspects, 69.

[336]Stuhlmacher, Philemon, 74.

[337]Chow, Patronage and power, 84.는 고린도전서의 배후에 있는 연결 네트웍은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나는 Chow의 네트웍 아이디어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Chow와 달리 고린도교회의 네트웍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가정교회적인 차원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38]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m, 283: "but that there could be such personal contacts again suggests regular movement among the verious churchs in laodicea and Colossae(ten miles).

를 중요시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339] 가정교회들이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가정교회의 중개적인 연합집회였다고 추측하게 만든다.

둘째로 가정교회의 중계적인 성격은 상부상조적인 관계에서도 엿보인다.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사도들의 그룹과 같은 상부조직에 협조하는 체제를 가족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다음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우선 상부적인 관계에서 가정교회는 상부조직 에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보고하였다. 때때로 이런 보고방식은 가정교회와 지역교회에 근접하여 사역하는 순회전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지만,[340] 가정교회로부터 직접 시행되기도 하였다(스데바나, 고전 16:15-18).[341] 또한 가정교회의 상부적인 관계는 접대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다.[342] 가정교회는 사도들 뿐 아니라(롬 15:23; 고전 16:6; 몬22), 사도들이 파송한 순회전도자들을 접대하였다(딛 3:13; 요삼 6[343]). 이런 순회전도자들은 상부구조에 가정교회의 형편을 보고할 뿐 아니라 가정교회들에 관한 정보를 소통시킴으로서 일종의 네트웍을 형성하고 가정교회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44]

Dunn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교회 사이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교환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도 교환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상호관계성을 주시한다.(Ibid.)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교환함으로/서 성립된 교회들이 상호관계에 관여하는 Dunn의 다음과 같은 설명도 설득력 있다. "The ready implication of a close associantion between the churches in t=caluanle insight into the way communication was maintained between paul and his churches and among his churches"(286).

[339] 조병수, 43.

[340]이런 보고 방식은 요한삼서에 잘 증거 되어 있다 (요삼 6절). 조병수, "지역교회와 선교교회의 갈등." 자료분석, 214.

[341]스데바나와 그의 동료들이 고린도교회의 편지를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배달 했을 것(Hurd, Origen, 49.)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중계성은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우편중계성에서 구두로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교회의 사정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고린도교회에게는 사도 바울의 사정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적인 중개성을 발휘했을 것이다.

[342]Vgl. Malerbe, Social Aspects, 67.

[343]조병수, "지역교회와 선교교회의 갈등." 216.

[344]Malherbe, Socail Aspects, 65: "... they must have contrivuted to the formation of a network by which information about vhurches was commuicated. In this way they eould have contrivuted to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o whatever continuities charcterized early Christianty".

e. 계승성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긴 하지만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사도들의 활동이 끝난 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사실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사도적’ 지도가 상실된 후에 교회를 세워야 할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양성 근거지였다.”[345]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한 부유한 집주인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을 것이다.[346] 결국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이어서 초기 기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d. 남은 문제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를 연구하면서 남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가정교회들 사이에 발생했을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한 지역에 병존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가정교회들이 아무런 긴장 없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다.[347] 가정교회를 연구하는 일에 시발점을 놓았던 Filson은 한 도시에 여러 가정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은 사도 시대의 분쟁에 대한 경향을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348] 한 도시에 다양한 가정교회는 분파를 등장시킬 잠재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349] 가정교회 간의 마찰에 대한 증거로는 거의 언제나 고린도전서의 분쟁이 제시된다.[350]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과연 가정교회들 사이에 일어난 것인지는 더 자세히 따져 바야 할 문제이며, 만일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가정교회들 간에 분쟁이었다면 그것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도 더 폭넓게 고찰해야 하는 문제이다.

---

[345]Filson, "Early House Churches", 112: "The house church was the training ground for the christian leaders who were to build the church after tfhe loss of 'apostolic age".

[346]Biertz/Kähler, "HausⅢ" 485.

[347]Biertz/Kähler, "HausⅢ" 484.

[348] Filson, "early House Churches", 110: "The existence of several house churches in one city goes far to ecplain the tendency to partu stife in the apostlic age".

[349]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76.

[350]혹시 호기심 많은 과부들이 집집마다 가정교회의 강단을 찾아다님으로 말미암아(딤전 5:13) 가정교회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Vgl. Biertz/Kähler, Haus Ⅲ, 484).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신약성경이 여러 곳에서 풍성한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세기동안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 세대에서도 교회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였다는 점은 분명하다.[351] 초기 기독교에서 가정교회가 태동하는 데는 당시의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정교회는 가정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기초하는 기본단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상황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초기 기독교를 위하여 필연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가정교회가 단지 당시의 현실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면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에도 가정교회의 신학과 이상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원시 또는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는 기독교의 태동시기에서 선교와 신학과 조직에 중요한 요소를 보여준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선교에서 그리고 생활 가운데 종종 대단히 빈약하게 된 선포에서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의 요소에 대한 형태와 영향을 기억해야 한다."[352] 신약성경으로부터가정교회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미를 발견한 과제는 오늘날 과연 어떻게 가정교회의 이상을 회복할 것이며, 과연 어떻게 가정교회의 모습을 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풀어야할 숙제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은 대형목회를 하려는 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정교회는 소형목회이므로 가정교회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목회자가 대형목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목회자 뿐 아니라 성도들도 가정교회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헌신과 희생을 멀리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듯이 철저한 헌신이 없이는 가정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가정교회를 회복하려면 분명한 신학의 확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교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저한 신학작업을 해야 한다. 만일 신학교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형태를 복원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부지중에라도 교회의 세속화를 찬성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방향의 노력과 함께 초기기독교의 가정교회에 관한 신약성경의 제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문화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의 현실

---

[351]Filson, "Early house Churches", 112.

[352]Stuhlmacher, philemon, 75.

을 고려하여 가정교회의 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삼아 가정교회와 지역교회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정교회와 지역교회가 전 기독교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가장 타당하게 방법론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약교회의 회복이 현대교회의 살 길이다.

2. 성서적 질문 (Biblical component)

1) 성경에서 가정교회(목장) 출처는 가능한가?

(1) 성전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는 교회당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목회자가 없으므로 평신도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 아직 성경이 없었으므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를 직접 개입하신 것이다.[353] 신약시대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은 건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이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막과 성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막과 성전 등에 대하여, 역대상 6:48; 25:6; 에스라 5:2, 15에서는 통일적으로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고 있다. 즉 성막과 성전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선약 성경에서는 파격적으로 변한다. 즉 건물 중심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강조된다.

(2) 사도와 평신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당시의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였음을 발견한다. 신약시대에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목사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 이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도가 이러한 부류에 속했었다.[354]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

[353]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5), 39.

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3,14). 그러나 지금의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신약 시대에는 뚜렷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가 다 평신도였으며 모든 성도가 다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바울도 사도였지만 때로는 평신도처럼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 2:9). 또 빌립은 집사였지만 사도처럼 세례를 주기도 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행 8:38).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목사같이 헌신되어 성도들을 맡아서 자기 집에서 함께 모이면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던 평신도의 좋은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다. 이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 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롬 16:3-5상). 이 구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 부부를 지도자로 하는 가정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약 시대에는 각 도시마다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도시마다 집집에서 모이는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다.[355]

(3)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ια)

바울 시대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에클레시아는 본래부터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이 LXX로 번역[356]되면서 구약의 총회에 해당하는 קָהָל을 ἐκκλ

---

[354]Ibid. 40.

[355]Ibid.

εσια로 번역하면서 부터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정기적이며 지역적인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클레시아'의 개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1:1에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26-27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도시의 다른 모임들과 같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란 말을 첨가함으로써 정기적인 공중회의(民會))와 구별하고 있고 또 한 '에클레시아'란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구절을 첨가함으로써 매주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과 구별 짓고 있음을 볼 수 있다.[357]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1:1에는 '에클레시아'가 복수로 언급되고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라는 한 교회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을 언급하고 있다.

(4) 폴리테이아(πολιτεια)와 오이코노미아(οικονομια) 중심으로

1세기 중엽의 그리스 로마 세계의 두드러진 특성은 거대한 다양성과 활력에 있다. 비록 로마제국이 그 당시 전 지중해 지역을 지배했었고 헬라문화가 제국의 끝부분까지 침투해 들어갔지만, 각각의 지역적인 통치형태와 생활방식들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며 또한 사회조직에 다소 새로운 사조들이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관계하는 두 가지 형태의 주요한 공동체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폴리테이아'(πολιτεια)로 이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도시국가의 공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이코노미아'(οικονομια)

---

[356]헬라어 성경(70인 역)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었다. 주전 3세기경(250-1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장로(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70인경'으로 알려져 있다. 헬라어는 당시에 "전 세계가 사용하던 언어"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일은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성경으로 인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주님께서 열어 준비해 주신 귀중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3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복음과 함께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70인경에는 외경들이 함께 첨부되었다.

[357]H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룬, 1991), 62.

는 그들이 태어났거나 연결되어 있는 가정의 질서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 유형의 공동체에 참여 하는 것이 아주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다. 주전 5세기에 아테네에 살았던 헬라 시민들은 그들이 살았던 '폴리스'(πολις, 도시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오이코스(οικος,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358]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신약성경의 소그룹 형태를 취했다. 그들은 나눔과 예배와 가르침을 위하여 다양한 가정에서 모였다. 또 폭넓은 교제와 예배를 위하여 성전에 모였다. 따라서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에 기초한 큰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359] 지금과 같은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모두가 목사 같은 평신도였고, 또 평신도 같은 목사였다.

(5) 사도행전의 가정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즉 마가의 집 이었다(행 1:14; 2:42; 12:12). 그리고 후기에는 야고보의 가정(행 21:8)이 예루살렘교회의 중심이 되었다(행 2:1,46; 3:11; 5:12,20)[360]. 누가는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 어떻게 시작 되었으며(행 1:14), 어떻게 확산되어 나갔는가를 잘 말하고 있다. 즉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가정교회로 진행되고(행 10장), 가정 교회로 마무리되었다(행28:30).[361]

초대 교회 성도들은 좀 더 넓은 장소인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폭넓은 교체를 했는가 하면 더욱 작은 장소인 가정이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공동체적인 식사를 나누었다(행 2:46; 5:42).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먹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358]Ibid., 28.

[359]최상태,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74.

[360]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505.

[361]김의원, *목회와 신학 목회자 세미나* (서울: 두란노, 2000), 2.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 윌리암 벡햄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두 날개로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표현했다.[362]

바울과 그의 일행이 회심한 가족들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교회를 세우거나 돌아본 흔적들이 사도행전 이곳저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우거하는 집에 도착한 일(행 11:14),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 받고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 받은 일(행 16:15-34),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바울과 동역하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교회를 섬긴 일(행 18:18) 등. 이외에도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행 17:11), 드로아(행 20:8), 에베소(행 20:20), 가이사랴 빌립보의 집(행 21장) 등이 가정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 초대 교회에는 다양한 가정 교회들이 존재했으며, ‘집에 있는 교회’가 복음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큰 그룹으로도 모이고 작은 그룹으로도 모였다 즉 회중적인 환경(성전)으로도 모이고 ‘공동체적 셀 환경’인 가정교회로 흩어져 모이기도 했었다. 동일한 시간에 한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모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도 했다(행 2:46; 20:7; 계 1:10).

초대교회의 전도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개종(改示)과 함께 그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의 송사로 인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 받기를 호소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구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난 후 셋집을 구하여 2년 동안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복음화를 위한 소그룹 가정교회를 설립 했던 것이다(행 28:30).

이외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집(가정)을 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사도행전의 진술(행 20:6-12, 20; 21:4, 8, 16)은 초대 교회의 모임이 가정교회의 형태로 모였다는 것을 증거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오늘날 전통적인 형식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초대 교회가 1세기 동안 대 규모 회중과 작은 셀로 동시에 존재했음을 인식하고, 이 모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363]

---

[362]최상태, 76.

[363]Ibid, p. 5.

(6) 바울서신의 가정교회

바울이 각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을 보면 여러 가정교회가 지역마다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가정교회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아굴라와 브라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롬 16:5).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가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몬 1:2).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 4:15).

바울이 직접 세운 가정교회 외에도 이미 여러 지역에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위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 사역하고 있었고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가정교회 사역에 힘썼다. 또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를 많이 묘사하고 있다. 첫째, 교회 구성원의 결속력과 기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의 유사함을 말한다(롬 16:2, 13; 갈 1:2; 4:19; 골 4:9). 둘째, 교회의 공동체를 직접 하나님의 권속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셋째, 교회의 중심적인 활동이 가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살전 5:16; 롬 12:9-10; 고전 11:33).

이처럼 바울은 가족과 관련된 용어를 교회로 표현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교회가 가정과 같음을 강조했다.[364]

사도 바울의 서신은 자신의 사역이 가정에 기반을 둔 교회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기록했던 서신서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자신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는 곳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주후 3세기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위한 특정한 건물이 건축된 흔적이 없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3세기 이후에 발견된 ‘교회의 건물들’이라 하여도 그것들은

[364]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임원주 외 역 (서울: NCD, 2000), 167.

모두 다 로마나 헬라 가정의 전형적인 응접실을 본 따 지은 초대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던 교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요한복음에서 교회론 도출의 의미 분석과 해석

(1) 요한복음의 교회에 관한 진술들

요한복음에는 고등하게 발전된 교회조직이나 직제(職制)에 대한 증거가 없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열두 사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된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숨어있다. 그 증거로 곳곳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나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요한복음 16~17장에서도 요한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요한복음 17:20에 의하면 예수는 열두 제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29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축복한다. 또한 요한복음 1:35~50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선택 장면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요한복음 15:16, 17:18, 20:21에 반영되어 있다.

요한복음에서 다른 책들과 서술 형식은 다르지만 성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요한복음 3:1~21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내용, 특히 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나 니고데모와의 강화에 이어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언급들은 요한의 교회가 세례를 행했음을 말해 준다. 요한복음 6장의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 사건의 서술 형식이 다른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성만찬 제정 본문과 유사한 점이다. 이 기적 사건에 이어 나오는 예수의 강화, 특히 요한복음 6:51~58은 요한공동체가 성만찬을 행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또한 요한복음 1: 35~50의 특별히 선별된 제자의 선택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15:16, 17:18, 20:21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 등은 요한의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은 요한이 교회조직이나 직분, 그리고 예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표현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여러 가지 은유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교회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이 제시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요한의 교회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의 교회론의 특징을 살피기 전에 요한의 교회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당시의 교회의 정황을 살펴보자.

(2) 요한 교회의 정황

요한의 교회는 당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마가복음 10:32은 예수의 생애 말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제자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겨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가에 따르면 이 두려움은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체포되는 순간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물러가거나 도망쳤다는 언급이 없다(막 14:50).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 6장은 제자들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6:66-68a).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19에는 한 그룹이 전자의 공동제로부터 나갔다고 말한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이러한 구절들은 심각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 요한의 교회의 정황을 잘 반영해 준다.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 요한의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분열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과연 요한의 교회가 분열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에 있어서 외적으로는 회당으로부터의 출회(出會) 조치이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기독론적인 견해차이다. 요한복음 6:60-61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 중 많은 사람(πολλοί)이[365] 수군거렸으며(ϒοϒϒυςουσιν)[366],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말씀이 그들에 게 걸림돌이 되어 넘어졌다(σκανδαλιςε ι)고 밝히고 있다.

---

[365]KATA IOANNHN 6:6, *The Greek New Testament Third Edition(corrected)*, (United Bible Societies, 1983).

[366]Ibid.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그의 말을 따를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참조. 66절). 이 교회에 예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과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곧 기독론에 대해 이해의 차이가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6:66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요한의 교회와 유대 회당과의 갈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7:41, 9:16, 10:19),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요한복음에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을 서술하면서 공관복음과 다르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12절)는 것을 강조한 점이나, 생명의 빵 강화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39절)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44절)라는 말씀 역시 교회 내의 분열의 징조들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교회의 분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6:60 이하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 공동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대변자로 보여 진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68-69절). 요한복음 6:66~68의 ‘ἤμεις’[367]는 이 고백이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제의 고백임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요한 교회의 예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요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강조함으로써 남아 있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 교회를 떠나간 사

[367]Ibid., 6:66-68.

람들의 대변자로 묘사되어 있다. 요한복음 6: 64에는 “예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τικνες εισιν οι μη πιστευουσιν'[368],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신다”고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70~71절에서는 그가 ‘유다’라고 밝힌다.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한 후 예수에 의해 사단과 동일시되었으나(막 8:33, 마 16:27),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예수에 의해 사단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요한복음에 있어서 유다는 그의 교회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에서 유다를 적대적(敵對的)으로 표현한 이유를 1세기 말 초기교회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적대감이 절정에 달했음을 들어 설명한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의 교회에서 분리해 나간 사람들을 유다의 이미지에 부합시켜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드물게 나오는 열두 제자에 대한 언급이 이 구절들에서 여러번 사용된 이유 역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네 번 기록되었다. 그 중 세 번이 요한복음 66~71절에 있다. 그러면 요한이 다른 구절에서 피한 것처럼 보이는 이 단어를 이 구절들에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요한복음 20:24-25에는 ‘εις εκ των δωδεκα’[369]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다. 이 구절들에서 강조된 의미는 열두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를 배반하는데 요한 교회의 신자들 중 몇몇이 예수를 배반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는 것이다. 곧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참조. 8:43-47) 큰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요한의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회당으로부터의 출회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으며 내적으로는 기독론과 관련하여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다. 요한은 흔들라는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그들을 내적으로 결속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정황과 요한의 의도가 요한복음의 여러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요한의 교회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368]Ibid., 6:64.

[369]Ibid., 2:24-25.

(3) 요한의 교회론

요한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의[370] 하나로 먼저 일치를 강조한다. 요한복음에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곳은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와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이다. 요한복음 10장의 양떼의 비유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의 참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양떼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맡기셨다. 이 양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다. 곧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온전히 소유된 공동체이다(10:26-29,17:10).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양을 알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며 그 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양도 그를 알고 그를 따른다(10:10, 27 이하). 그러므로 참된 목자의 인도 하에 있는 양들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10:16). 10장의 양떼의 비유에서 요한은 신자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자들로서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져야 하며(참조. 6:37-39.17:6.9 이하 11 이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10:30), 신자들 역시 한 목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요한의 교회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속한 자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요한복음 10:16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 준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역시 이러한 요한의 교회관이 잘 나타난다. 15장은 세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1-10절), 신자들 상호간 의 관계(12-17절), 그리고 신자들의 세상과의 관계(18-27절)이다. 요한은 요한복음 15:12-17에서 선자들은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자들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요한은 특별히 ‘서로 사랑’을 강조 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15:12). 이 구절의 교훈은 교회의 성도들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

[370]요한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론이 철저하고, 예외 없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데 있다. 모든 교회론적 이미지가 일관성 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목자와 양"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는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것이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예수가 곧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형성하는 구성원이 신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이고, 신자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목자의 양으로서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의 교회론의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개인적 관계를 교회 형성의 또 하나의 축으로 중시되고 있다는 데 있다. "목자와 양"에서는 상호 앎의 관계로, 목소리를 인식하는 관계로 그리스도와 신자 각자의 밀접한 관계를 묘사한다.

나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이며 측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12절. 예수의 선자들에 대한 사랑이 신자들 상호간의 사랑의 모델이요 근거라는 말씀이다. 이 구절들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한 점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교제이다”라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선자들 상호간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됨’(united)이 요한의 교회의 중심 주제이다.

이 외에도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강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한복음의 파라클레토스[371]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파라클레토스를 통해 예수와 교제를 나누며 예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요 15:1-11), 요한복음에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 강조된 이유 중의 하나는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며, 그들 사이에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요 10:16, 17:20-21).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역시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17:11, 20:23).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됨 가운데 있게 하고, 또한 그들을 지켜 달라고 기도한다(17:11 이하, 22이하).

요한의 교회론[372]에서 일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교회의 정황과 관련이 있다. 당시 교회는 내적인 분열의 위기에 있었다. 교회의 분열은 신자들에게 맡겨진 사역 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며 신자들이 함께 일함으로 얻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한다. 신지들 역시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의 조직이나 직제보다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비유들

[371]보혜사의 역할도 그 중 하나이다. 요한복음에 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의 죽음 후에 제자들과 함께하실 예수의 임재를 나타낸다(요 14:18-19).

[372]김세윤, *요한신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159.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구원은 단지 미래의 가능성인가? 아니면 그것은 신앙인의 현재의 체험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성취를 선취하는 차원에서 현재에서의 부분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미래적인 종말보다 현재적인 종말을 왜 그렇게 현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과 경험을 들어 신자 서로간의 사랑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의 교회론의 또 다른 특징은 성례나 교회 조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강조하며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요한의 교회론은 기독론과 관련된다. 요한의 기독론이 곧 교회론의 근거가 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영광 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오심은 믿는 자 편에서는 구원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의미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세기 말 성경 기자들은 예수를 교회의 ‘건축가’요, ‘창시자’요, ‘머릿 돌’로 묘사하고 있다(마 16:18; 엡 2:20). 이러한 표상(表象)은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과거의 것으로 그리고 활동력이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현재 서 있는 건물의 건축자는 과거에 그것을 세우는 일을 했으나 현재는 단지 기억 속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퉁이 돌은 건물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가능한 이러한 표상을 피하고 있다. 대신 양과 목자의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창시자(創始者) 이상의 존재이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는 여전히 살아 계시며 활동하신다. 그는 양을 돌보 는 목자요, 양은 그를 알고 그를 따른다. 포도나무인 그는 가지가 과실을 맺도록 생명력을 준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목자를 따라야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요 10:27-28, 15:2-6). 이것이 요한의 기독론과 연결된 교회론이다. 포도나무와 양과 목자의 이미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의 교회론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신 생명을 주는 자인 예수와 신자들의 개

인적이며 지속적인 관계이다.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개개인의 믿음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요한은 여러 구절들에서 예수와 신자들의 개인적인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요 7장). 또 요한복음 8:31-32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에 의해 살며,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한다.[373] 요한복음 11:27에 기록된 "네가 믿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은 제자들이 교회에서 행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종의 모범이 될 고백적인 진술이다. 유사한 고백은 치유 받은 소경의 입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경이 증언하기를 " 예수께서 자신을 치유하셨다" 고 진술한 후 회당으로부터 쫓겨난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 그에게 묻는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 9:35-38). 그는 처음에는 예수께 '예수라고 하는 자' 라 하고, 다음으로는 '예언자' 라 하며(17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3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요 주' 로 고백한다(37-38절). 이와 같은 고백의 과정은 신자들의 마땅히 발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예시해 준다. 요한은 이러한 구절 등을 통하여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개인의 진정한 고백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현재 완료형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7번, 마가복음에는 8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4번인데 반해 요한복음에는 77번 사용한다. 완료형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요한이 완료형을 빈번히 사용함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의 교회에 예수께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자 함이다. 예수의 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 교회에 활동하시는

[373]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와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은 파라클레토스(παρακλητος, 보혜사)를[374] 통해서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는 예수의 요청으로 예수께서 떠난 후에 신자들에게 보냄을 받아 예수를 대신한다. 예수는 진리이며(요 14:6)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이다(요 14:17). 그는 예수의 분신(分身)이요 연장(延長)이다. 파라클레토스는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며(요 14:26), 신자들 안에 거하며 신자들에게 다가올 일에 대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파라클레토스는 신자로 하여금 예수와 직접 교제를 하게하며 전체 교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새 생명의 차원에로 이끄시는 분이다. 예수는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 교회에 약속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 주셔서 그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이 신약의 다른 책들보다도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 적인 관계와 그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 요한 교회의 정황과 관련이 있다. 아마도 요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개인적 만남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고백자들로 인해 교회 내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의 고백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으며, 요한 1서에 의하면 예수가 누구시냐는 이해 차이로 공동체 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요한은 무엇 보다 신자 개개인의 분명한 신앙고백이 절실히 요구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 개개 신자들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374]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6-18),보혜사(保惠師)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παρακλητος)이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παρακαλεω-동사(動詞); 권하다. 위로하다. 간구하다/ παρακλησις-여성명사(名詞); 위로(慰勞). 권면/ παρακλητος-남성명사; 보혜사. 흠정역은 주로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다. 파라(παρα)는 전치사로서 '옆에' 칼레오(καλεω)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파라클레토스'(보혜사)는 '옆에서 부르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의 교회론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 직분의 계층적인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과 다르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사도’(α π ό σ τ ο λ ο ς)[375]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요한복음 13:16에 한번 사용하나 이는 ‘보냄을 받은 이’ 라는 비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μ α Θ η τ ης’ 라는 단어[376]가 빈번히 나온다. ‘μ α Θ η τ ης’ 는 요한복음에 78번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정한 사람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일반 사람들을 지칭한다.

요한이 ‘사도’(apostle) 라는 단어를 피하고 대신 ‘제자’(disciple)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요한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신분상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신자들 간에 계층적인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어떠한 은사나 직분을 가졌든지(사도, 선지자, 교사 등-고전 12:28)간에 모두 동등하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어떠한 한 가지 은사나 직분이 다른 것 위에 있지 않으며, 모든 신자가 똑같은 권위와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은 신자들 사이에 파라클레토스가 임재 하므로 모든 사람이 파라클레토스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직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사명과 성령과 권한을 위임 받은 제자 그룹을 교회의 대표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제자 그룹의 대표자로 인정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목양의 사명(요 21:15-17)을 위임한 점 등은 교회의 직분 자체나 직분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신분상의 구별을 없앤 것이다.

또한 요한은 교회를 하나님의 자가 계시되 장소로 본다(요 17:22-23).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영광이다. 하나님은 영광중에 계신다(출 16:10, 24:16, 40:34, 왕상 8:11). 그런데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 예수는 그 영광을 선자들에

---

[375]12사도라고도 하는 이 말은, ‘απόστολος’(아포스톨로스, apostolos)에서 유래한다.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다. 현재 술어로서 이해하는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를 위임받아 파견된 자, 즉 12사도를 가리킨다(마 10:2~4, 막 3:14~19, 눅 6:13~16, 행 1:13). 12사도는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이다. 이 12의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支派)와 연관시켜 정한 듯하다. 후에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를 선택하여 12제자에 대신했다(행 1:15~26).

[376]KATA IOANNHN 13:16, *The Greek New Testament Third Edition(corrected)*, (United Bible Societies, 1983).

게 준다(요 17:22).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한다(요 17:24). 여기에 요한이 기독교인의 현재적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곧 신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계시와 현존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래의 어떤 시간에 신자들에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에 모두에게 계시된다.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 현재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현존하신다. 그러기에 요한의 교회는 직분자들의 중재사역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요한이 특정 인물이나 제자들의 계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고 오직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런 점들은 요한의 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교회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인도된 카리스마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친구 혹은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다 제자들이며 계급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요한의 의도를 잘 보여 준다. 요한복음에서 '사도의 대표자'인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서로 비교하여 사랑하는 제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 역시 이와 관련된다.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요한이 사도의 직분 자체를 부정 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의 그룹이 부적절한 신망을 가졌을 가능성, 곧 그들이 신자들의 절대적인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요 6:71)나 의심하는 도마를 열두 제자 중의 하나(요 20:24)라고 밝힌 점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중에 교회를 떠나간 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사도 중의 한 사람이 배반하게 되는 경험을 체험한 요한은 직분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다.

또한 예배 장소에 대한 언급에서도 구별을 없애려는 요한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요 4:21-24)라는 구절은 지리적(地理的)인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진리의 영은 모든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하신다. 또한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는(요 14:15-16) 연대기(年代記)적으로도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곧 요한은 사도시대와 요한 공동체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다(요

20:29). 예수는 그의 사역 기간에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요 17:20). 이와 같이 요한은 교회의 직분, 예배의 장소 시간 등의 차등(差等)을 두지 아니한다.

(4) 결　론

요한복음에는 교회의 직분이나 조직 예전 등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과10장 15장 등에 근거해 볼 때, 요한의 교회가 분명히 존재했었다. 어느 정도 발전된 교회조직과 직분이 있었고, 성례(聖禮)도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요한의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 분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기독론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열되어 나갔으며, 심지어는 열두 사도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요한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곧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교회상(敎會想)을 제시하고 있다.

요한이 제시한 긍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 신자들 간의 갈등과 교회 내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가 된다. 서로 간에 교제함으로써 얻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한다.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은 공동체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신자들 상호간에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 자신의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고백을 대신하거나 외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예수께서 파라클레토스(보혜사를 통해 직접 그의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에 누

구나 현재,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셋째, 교회 내의 직분상에 있어서 계층적인 구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직분자와 평신도 간의 계급적인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분자체나 직분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지만 어느 한 직분과 은사가 다른 직분과 은사 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요한이 '사도' 라는 단어 대신에 '제자' 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나 직분을 받은 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구성원들 간의 신분상의 구별을 없애고 모든 신자가 똑같은 권위와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한의 교회론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시사(時事)하는 바가 크다. 분열보다는 일치를,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신앙보다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한 신앙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권위와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며,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다.

3. 정의적 질문 (Justice component)

1) 현대 가정교회의 실제적 고찰

지금까지 본 논문은 가정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교회의 신학적 질문과 성서적 질문과 함께 교회사적 배경을 고찰하면서 정의적 질문을 진행해 갈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교회와 가정교회에 기반을 둔 교회 공동체들이 전혀 새롭거나 이단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가정교회와 같은 신앙공동체의 형태들은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끊임없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역사상 나타난 가정교회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초 공동체의 모습을 잘 투영해준다.

(1) 두 개의 공동체 고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공통체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교회 전체로 구성된 지역교회 공동체, 즉 대그룹 교회와 적은 숫자로 모이는 소그룹교회가 그것이다.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 모였던 두 개의 교회 형태를 보여 준다. 성전에서 모이는 큰 규모의 교회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규모의 교회로 각각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어느 하나의 형태만으로 충분히 그 본질을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두 형태의 교회를 흔히 두 날개라고 부른다. 대그룹 교회는 건물 중심으로 세워진 지역교회이며, 성도들이 모두 함께 예배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나 대그룹 교회는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며 중보기도 하며 함께 몸으로 세워져 가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 교회이다. 교회는 이 두 날개, 즉 대그룹의 지역교회와 그 안에 작은 소그룹 교회가 함께 균형을 잡고 날아오를 때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성경적이며 건강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다.

① 가정교회의[377] 정의와 원칙

가정교회의 원리와 특징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정교회에 대하여 정의하고 그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77]http://blog.daum.net/kkho1105, 영적 분별력, 가정교회는 성경적인가?/ 변종길-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변종길목사(천안).

오늘날 미국 휴스턴의 최영기 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 교회’가 그러하다. 이러한 ‘가정 교회’의 핵심은 교회 안에 있는 ‘가정 교회’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역’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가정 교회와 구역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구역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을 묶어 조직되지만 가정 교회는 가정 교회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결성된다. 둘째, 구역 모임은 친교와 서로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가정 교회에서는 예배, 성경공부, 제자 훈련, 선교, 전도, 친교 등 교회가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한다. 따라서 가정 교회는 자그마한 개척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최영기 목사가 주장하는 가정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이며, 그러한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회 안의 교회’라는 구조가 중요하며 어디에서 모이는가 하는 장소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

a. 정의

가정교회는 대그룹인 지역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교회이다. 정의를 내려 보면 “10-12명의 남녀가 공동체를 이뤄 매 주일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소그룹 교회”이다. 가정교회는 모임 장소가 ‘집’이라는 의미에서 쓰여 졌다. 그래서 ‘가족교회’ home church 보다는 ‘가정교회’ house church의 의미를 갖는다. 이 가정교회는 여러 가지 소그룹교회들(셀 그룹교회) 중의 하나의 형태이다.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의 원리와 정신, 그리고 골격은 그대로 살려 나가되 모임의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어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야 한다.[378]

b. 원칙

가정교회의 원칙으로서 약 네 가지를 고찰 할 수 있다.

첫째, 목적 :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반듯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 준다.

둘째, 사명 :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가정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며, 이것은 교회나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다.

셋째, 리더십 : 가정교회 리더는 평신도이다. 평신도 리더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양육과 목양을 펼쳐간다. 전임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런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일이 그 사명이다.

넷째, 우선순위 : 가정교회는 사명을 다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인원배치, 예산투입, 시간확보 등 중요한 일들이 가정교회 사명을 완수하는데 투입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378]최상태, 167.

(2) 가정교회의 성립 조건

개혁주의 사상으로서 세워진 교회의 표지는 말씀선포, 권징, 성례식이다.[379] 혹 가정교회에서 이 요소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하여도 가정교회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은 이 세 가지 표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공동체라면 분명히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징과 성례식이 작은 공동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해도,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정교회와 큰 공동체적 교회는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으며 한 몸이기 때문이다. 족장시대는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창 4:26). 모세 시대의 교회는 광야 교회로 성막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교회를 이루었다. 성전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었다. 시대나 문화가 다르다고 교회의 원리나 근본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가정교회의 정신과 그 역동성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380] 가정교회의 성립조건은 아래와 같다.[381]

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기존의 구역이나 기관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이다.

②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전임 사역자인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된 평신도가 리더가 되어서 목양하며 돌보며 공동체로 세우

---

[379]http://cafe.daum.net/cgsbong/21nL/808, 1. 개혁주의에 대한 정의. 많은 사람들은 ‘주의(主義, ism)’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주의’는 일상적으로 고형화 된 의미를 제시한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대원리 중 하나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로 본다면 ‘개혁주의’라는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작금에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개혁주의와 병행하여 “개혁신학”을 필두로 “개혁신앙”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Reformed를 문자적으로 번역하여 “개혁된 신학”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개혁주의는 어떤 신학자의 사상에 고착된 사상은 아니며, 사상을 답습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개혁주의를 역사적 개괄로 볼 때, 기독교 신학은 역사적으로 고대신학, 중세신학, 종교개혁신학, 근, 현대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교개혁시대에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루터의 신학과 칼빈이 신학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380]Ibid., 87.

[381]구미남포교회 목자 가이드북, “가정교회ABC” 구미남포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교회 운영 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 운영 안은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와 부산 초당동교회의 가정교회 운영 안을 참조로 작성한 것이다.

고 교호의 기능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③ 평신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도력은 “섬김과 지도력”이다. 가르치고 설교함으로 확립되는 지도력이기 보다는 섬기고 봉사함으로 보여주는 지도력이다. 지체들은 그 지도력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며, 또 보고 배워 그대로 행함으로 재생산되는 지도력이다.

④ 이 가정교회는 남녀가 함께 모이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⑤ 뿐만 아니고 매 주일 모여야 한다. 교회가 매 주일 모여 공식 예배를 드리듯이 꼭 같은 비중으로 가정교회도 매 주일 모여야 한다.

(3) 가정교회의 특징과 효율성

가정교회는 독특한 특징과 그 나름의 효율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과 효율성은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①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

a.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돌로 세워진 건물 중심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으로서 함께 지어지는 유기체(생명체)이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 중심의 대그룹에 국한되어 있으면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본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교회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아주 용이한 구조다. 그래서 소그룹 교회, 바로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b. 초대 교회의 모습이다

초대교회는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는 지역교회를 이뤘고 동시에 날마다 가정에서 소그룹 형태로 모여 교제하며 떡을 뗐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해 갔다. 어떤 심각한 핍박이나 위기에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 증거가 결국 이런 형태의 교회가 핍박을 딛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다. 성령께서 그런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21세기 교회에서 구현되기를 바라신다. 근래에 중국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c. 영혼구원, 제자 삼는 일에 효과적이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과 제자를 삼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전도를 분업화(分業化)해서 모든 구성원이 전도에 참여하고 또 인격과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제자화(弟子化),[382] 즉 재생산(再生産)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소그룹 교회, 즉 가정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단지 성경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된 지체의식(肢體意識)의 삶을 보여주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통해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교회 사명을 이루는데 효과적이다.

---

[382] http://cafe.daum.net/pky6127/G6wn/81 [전도, 제자화]에 대한 비전으로, 이 사이트는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물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서 다음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1) 축제, 치유→ 생명 운동이 먼저다. 성경에 보면 많은 축제 운동, 치유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생명 운동을 하는 것이다. (2)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첫째, 소수-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확립시켰다. 둘째, 부르심- 끝까지 갈 사람을 선택하셨다. 셋째, 함께- 이것해라, 저것 하라 하지 않고 함께 하셨다. 넷째, 모형- 전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형을 보여주셨다. 다섯째, 성령(부여)- 예수님이 요14, 16, 17장, 행1장에 계속 강조하신 것이 성령으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겠다. 여섯째, 대리(대사)- 너희들이 가는 것은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대신 가는 것이다. 일곱째, 죽음(부활)- 예수님께서 희망을 얘기해야 하는데 가면서 계속 얘기한 것이 죽음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생명 건 헌신이 나왔다. (3) 마16:16, 마28:16-20, 행1:1, 3, 8-힘(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만약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도대체 제자화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질문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체험하면 당장 오는 응답이 여러분 개인 문제가 해결 된다.

▶여러분이 제자화 사역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전달해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 하셔야 한다. 여러분은 여기에 눈을 떠야 할 증인들이다.

d.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대안이다

대그룹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용의하기 때문이다. 대그룹 교회는 대규모의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 몸인 지체의식(肢體意識)된 섬김의 삶을 보여줌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산, 즉 제자 삼는 일의 한계를 극복하기 매우 어렵지만 소그룹 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에 아주 용이하며 내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② 가정교회의 세 가지 성경적 축

a. 대 사명(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는 동사가 네 개가 나온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그 중 '제자를 삼아' 만 빼고 나머지는 분사형이다.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제자는 배우사람이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다.[383] 이러한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휘하여 주님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주셨다. 그것은 "가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다.

b. '듣고', '보고' 살게 하는 가르침(막 3:13-15)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사시므로

---

[383]최영기, 49.

스스로 본(本)을 보이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을 분만 아니라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듣고 또 보고 배우게 하시고, 때때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실습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방법이었다. 듣기도 하며 배우게 하시고 더욱 나아가서 보고 실천하며 배우도록 하셨다.[384]

그러므로 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삶을 나누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통해 배우고 들었던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를 통해 가르침을 배웠던 제자들은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설교하는 목회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설교하므로 성도들은 그 말씀의 진리가 명령하는 대로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르쳤으면 살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c. 사역의 분담(엡 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즉 평신도의 은사를 발견해 주고, 훈련시키고,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봉사 활동 및 교회를 세우는 일, 즉 전도, 심방, 상담 등을 평신도가 담당하게 한다. 많은 전통적인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목사가 감당하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본연의 사역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평신도는 예배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내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의 전부였다.[385] 그 결과 목회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하고, 평신도는 참여하는 일이 없어 권태롭게 되어 왔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을 목회자와 평신도

---

[384]Ibid., 53.

[385]Ibid., 59.

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분담을 한다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보람 있는 사역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가정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가능케 한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선포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 할 수 있다.[386]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특권이다. 이 특권을 목회자와 평신도와 합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③ 가정교회 특징

a. 몸으로 세워짐(공동체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교회는 조직체이기 이전에 상호 생명작용을 이루어야 하는 생명 공동체이다.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 안에 있는 한 몸”인 것이다.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봄으로 한 몸 안에서 상호 생명작용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며,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특히 가정교회의 특징이다.

b. 평신도 리더십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 따로 생업(生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담해서 섬기는 ‘유급’(Full time) 전임사역자와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무급’(Non full time) 전임사역자가 그것이다. 전자는 주로 말씀을 맡은 사역자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로 목사가 이 직분에 해당된다.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동안 신학과 성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무급사역자를 편의상 ‘평신도 사역

---

[386]Ibid.

자’라고 부른다. 이 사역은 봉사와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급 전임사역자인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평신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평신도 사역자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이다. 가정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리더가 되어 섬김과 봉사로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다. 돌보고 위로하고 권하고 격려하면서 목양 하는 장이다. 이렇게 평신도가 리더가 되어 말씀의 원리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다.

c. 섬김의 삶으로 이루는 재생산

살아있는 생명공동체라면 반드시 번식하고 재생산해야 한다. 섬김과 나눔, 사랑과 돌봄,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통해 영혼을 얻고 제자를 삼아 번식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특징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건강한 생명공동체라면 반드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 삼는 방식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함께 살면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가정교회는 그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d. 지체의식-은사에 따른 사역

‘지체의식’(肢體意識)이라는 말 안에서 한 몸이라는 통일성과 함께 각자의 은사와 역할이 다르다는 다양성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의식은 후자, 즉 다양성(variolity)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의식은 후자, 즉 다양성에 비중을 둔 표현이다. 공동체성이 교회의 특징 중에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면 지체의식은 다양성의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가정교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밀한 은사와 역량이 가장 달 드러나고 또 발견될 수 있고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각자의 필요가 잘 드러나고 또 그것을 도우려고 애쓰다 보면 감춰진 은사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각 지체의 다양성이 잘 드러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갖는

다. 사역은 계급이나 상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발견하고, 그 일에 자신을 부르시는지를 확인 한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사역현장에서 섬기는 것이 가정교회 사역의 중요한 원칙이다.

e.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가정교회는 강제로 시키고 억지로 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드러나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부담스러움과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최소화(最小化) 하는 대신 즐김과 누림, 그리고 우러나는 아름다운 헌신이 꽃을 피우게 된다.

2) 가정교회와 다양한 소그룹의 차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래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에 관한 실험을 했다. 주일예배를 위해 예배당 본당에서 정시에 모일 뿐만 아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구성원들이 성경공부나 기도의 목적으로 평일에도 작은 그룹을 만들어 모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들을 통해 더 큰 모임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관심사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소그룹

슈바르츠는 성장하는 교회들의 경우 성도 개개인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부분에까지 도움을 받으며, 강한 영적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체제를 발전시켜 왔음을 지적하였다.[387] 소그룹은 일시적인 유행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드롬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이다,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통틀어서 소그룹이라는 방법에 심혈을 기울이셨다.[388]

---

[387]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경기: 도서출판 두날개, 2009), 71.

[388]오정현, 158.

① 하나님과 의 관계를 공동체 속에서

소그룹 공동체란 무엇인가? 주님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신 ‘서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 속에서 쌓으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의 필요로 함을 느끼는 공동체를 의미한다.[389] 그룹은 적어도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건전한 모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90] 진리가 자기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에 참석할 때 비로소 교회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삶도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된다.

② 두 개의 교회가 연합 교회로

초대교회 당시에 소그룹은 작은 교회 역할을 했다. 소그룹 안에서 전도와 정착, 양육, 번식이 진행되었으며 또 다른 소그룹을 번식시켰다.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모여 전도하고, 교제하며, 양육하던 구성원들이 다시 주일이 되면 대그룹인 교회당에 모여 축제의 예배를 들렸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처럼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그룹인 교회(건물 중심)와 같은 비중으로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는 하나의 교회였던 것이다.[391]

(2) 강한 공동체의식의 셀 교회

셀교회는 “비전통적(非傳統的) 교회의 형태로서 사역들은 매우 다양하고 실제적인 일들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 일들은 교회 안에 있는 셀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인 것이다.

---

[389]Ibid., 161.

[390]Ibid., 172.

[391]김성곤. 72.

① 공동체의식을 우선순위에 둔다

셀교회 접근법은 강한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을 창출하고, 유대관계를 조직체(組織體)보다 위에 놓는다. 전통교파의 구조에 반대해 개개의 셀 모임에 리더십을 위임하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일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고 있는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셀 모임은 목양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토대이다. 셀 모임의 리더는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다음 자신들이 담당하는 셀 모임에서 목회자 역할을 맡는다. 개개의 셀 구성원들은 모임 안에서 훈련을 받은 뒤 직장이나 주변에 기독교 신앙을 전하게 되며, 따라서 교회 성장은 셀 모임의 성장 여부에 달렸다.

② 셀 그룹의 주된 관점-관계 중심

셀그룹들의 주된 관심은 셀 그룹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모임을 가지며 운영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 그룹은 교회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전통적인 교회들이 교회 내에 다양한 종류의 기관들과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반하여 셀 교회는 전체 교회가 셀 그룹들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392] 셀 교회는 지체가 하나의 교회이며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철학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셀 교회는 확대 양육 시스템에 비중을 두는 반면 가정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통하여 성도 개개인의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역에 포인트를 셀그룹은 재생산에 두고 있다면 가정교회는 관계중심에 두고 있다.

(3) 구역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구역은 교회의 부속기관이다. 구역의 구성은 가정들이 모여 구역을 이룬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 사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392]박영철, “교회본질로서 공동체성 회복.” *목회와 신학* (2001): 4.

있다. 전통교회의 구역의 목적은 아무래도 친교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역을 포괄적으로 다한다. 조직적인 면에서 구역의 목적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가까운 지역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형성이 된다. 구역원들은 가까운 지역에 산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그라나 가정 교회는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가정을 선택하여 구성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가정 교회를 선택했음으로 가정 교회 구성원들끼리 동질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서가 조성되는 것이다.[393]

최영기 목사는 "가정 교회를 지역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골고루 다하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가정교회는 '개척교회' 와 같다. 둘째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 셋째 구성원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정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다. 넷째 주된 활동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다섯째 대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지역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골고루 다 하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이다.

3) 가정교회의 기능

가정교회가 지역교회 같은 교회라면 가정교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가정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예배, 양육, 제자화,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선교이다.

(1) 예배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여서 형식에 메이지 않는 자발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런 자발적인 예배는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때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자발적인 예배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자유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상적인 여건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완벽한 자유의 표현이었다. 초기 기독교 가정 예배는, 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

---

[393]최영기, 69.

외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였다. ②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③ 성찬을 나누었다. ④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예배가 함께 모이는 데 대한 의식이 있었다.

(2) 양육과 제자화

초대 교회의 양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②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주님의 실재를 경험하였다. ③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서로의 신앙을 나누므로 서로의 신앙 성숙을 가져왔다. ④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양육은 ①성경 ② 예수의 가르침 ③ 당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요리 문답 등이 있다.

(3) 구제와 봉사

초대 가정교회는 구제와 봉사에 힘썼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제산과 물건을 팔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구제와 봉사를, ① 기쁜 마음으로 하였다. ②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었다. ③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였다. 그들은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갔다.

(4)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였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양육되면서 서로 교제하였고,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교제는 선교와 연결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가정교회의 교제는 성서적이고도 기독교적인 접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5) 전도와 선교

가정교회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 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초기 선교전략이 핵심이다. ② 초기 가정교회는 개종에 있어서 통합된 결속의 개념을 강화시켰다. ③ 가정교회는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 복음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어느 제도도 완벽하지 못하다. 가정교회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4) 가정교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가정교회의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 둘째, 영적 갱신의 세력 형성. 셋째, 가정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가정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의 회복. 다섯째, 가정교회를 통한 선교를 들 수 있다.[394]

(2) 부정적인 면

반대로 가정교회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담임목사의 지도력이 상실되었을 때에 분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교회는 지나친 소그룹의 강조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사회적 무관심과 이기적 집단화인 것이다. 셋째, 가정교회는 그 조직이 잘 연합을 이룰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 흩어질 때 문제를 발생한다.[395]

---

[394]박승로, 245.

[395]박승로, 246.

어느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다.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논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통에서 찾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강점과 약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가정교회 조직과 임무[396]

가정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조직한다. 가정교회의 모든 사역은 평신도 지도자에게 위임하여 모든 일을 알아서 자원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한다(교회 이름, 모이는 시간, 순서 진행, 후계자 선택과 양성, 특별행사 기획 등).

○ 가장 : 가정교회의 모임을 주관하며 가원들을 돌보고 섬긴다.
가정교회 제반의 일을 책임진다.

○ 총무 : 가장을 보좌하며 회원들을 기도와 봉사로 섬긴다.

○ 회계 : 헌금과 일체 예산을 관리한다.

○ 새가족 담당 : 새 가족이나 방문객을 환영하고 교제한다.

○ 찬양담당 : 모임 시 찬양인도를 하며 찬양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한다.

○ 전도담당: 전도이벤트를 관장하며 전도대상자를 관리한다.

○ 선교담당: 선교헌금송금, 선교사 편지, 선교사 정보관리 등을 담당한다.

○ 성경담당 : 성경 읽기 체크, 성경통독 등을 주관한다.

○ 생일담당 : 가원이나 자녀들의 생일을 기록, 관리 및 축하를 담당한다.

○ 친교담당: 야유회, 스포츠 , 음악회, 연극·영화관람 등을 주관한다.

○중보기도 담당 : 기도카드 관리, 기도목록 작성 및 배부, 긴급기도 연락,

교회마다 부르는 이름은 차이가 있지만 철학과 명칭과 운영의 원리는 비슷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96]최상태 115-116.

(1) 가정교회의 모임순서[397]

진행순서나 내용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첫째, 모이면 먼저 식사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설거지는 나중에). 형편에 따라 간식으로 대체하는 가정교회도 있다.

둘째, 찬양은 2-3곡 정도 한다.

셋째,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힘들었던 일, 기도 응답 받은 일, 말씀 듣고 깨달은 것, 말씀 적용했을 때 생긴 일 등을 자원하여 나눈다.

넷째, 교제에 따라 성경공부를 한다.

다섯째, 선교, 전도보고

여섯째,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한다.

일곱째, 광고

여덟째, 성경 읽기 확인

아홉째, 가장이 파송기도를 한다.

보통 이와 같은 순서로 진해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원들의 숫자나 나눔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

6) 큰 공동체와 목장(가정교회) 간의 관계형성에서 오는 소외 문제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 전통 교회에 대한 회의

① 프로그램 중심의 전통교회

전통교회의 문제점은 분명히 상존한다. 그 문제점의 핵심은 ‘프로그램 중심(Program Base Design)의 교회’라는 데서 찾는다. 오늘날 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

[397]최상태, 116.

이 물려받은 전통적인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치명적인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의 비효율 적인 면을 다섯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교회의 건물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텅 빈 채로 방치되는 것. 둘째, 전문 목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것은 교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것. 셋째,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교인이 전교인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넷째, 소망을 잃은 채로 봉사 활동을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 다섯째, 온 교회가 불신자와 복음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②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가둬진 회중

전통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를 추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위 ‘교회’라는 특별한 건물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렸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함으로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 안의 신자들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 단절되고 차단되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독교의 고유의 사명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③ 피동적 성도가 대부분인 교회

셀 교회 지도자들은 전통 교회에서 목회자가 왕처럼 군림하며, 평신도는 단지 수동적으로 앉아서 설교만 듣고, 교제에 결핍되고 사명감 없이 단지 신자들 가운데 10-15퍼센트만이 교회의 기능에 필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④ 성령의 임재가 소홀한 교회

셀 교회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도 들을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⑤ 열정적인 전도가 결핍된 교회

셀 교회 지도자들은 전통교회가 신자들 끼리 모이는 일에 열심이지 불신자들에게 헌신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2) 신약교회의 근거[398]

이상과 같이 열거한 전통교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교회들은 신약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셀 교회'라는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교회의 본질을 보여 주셨다고 한다.[399]

다음은 세 가지의 초대교회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신약의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돌로 쌓아 만든 구조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어우러진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신약시대의 교회는 사람의 신체와 같으므로 지체들로서의 성도들은 자기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신약시대는 인간의 가치를 나누며, 사람을 개인적으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으뜸가는 전략으로, 또 불신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전략으로 소규모 모임인 가정교회로 모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셀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통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약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으면서 셀 교회의 개념을 제시한다.[400]

조엘 코미스키는 "셀 운동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령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평신도로 서로 간에 세워주기 위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소그룹 운동이다."[401]라고 정의한다.

렐프 네이버(Ralph neighbour)는 셀 그룹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셀 이란 8-15 명 정도의 교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임과 동시에 교회 속의 교회들로서 목가와 예비목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양육과 전도활동을 목적으로 특정한 방식으

[398]랄프 네이버, 71-78.

[399]Ibid., 25.

[400]조병수, *신학정론*, 제 19권 2호, 315.

[401]조엘 코미스키, *셀 그룹 폭발*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3.

로 교제하는 작은 모임이다."[402]라고 정의했고, 셀 그룹교회에 대하여 "셀 그룹교회는 비전통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셀 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간의사역을 시행하는 교회이다."[403]라고 정의하였다.

데이비트 핀넬은 "셀 교회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경험하게 하는 관계의 가장 순수한 표현을 보여주는 곳이며, 셀 그룹이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곳이다."[404]라고 정의한다.

(3) 셀 교회의 성격[405]

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나눔과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변화임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셀 교회에 관한 성격들을 살펴보기 위해 열거된 몇 가지를 본다.

① 소그룹 운동

첫째로 셀 교회는 셀이라고 일컬어지는 소그룹 운동이다. 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는 소그룹과 대그룹이라는 두 날개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소그룹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406] 셀 교회 지도자들은 셀 그룹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대가족이며 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초석으로 이해한다. 전통교회의 소그룹은 교회의 일부이지만, 셀 교회에서는 소그룹(셀) 그 자체가 교회라고 주장한다.

---

[402]랄프 네이버, 262.

[403]박영철, *전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전신자 사역훈련원 1998), 4.

[404]데이비드 핀넬,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41.

[405]조병수, *신학정론*, 316-329.

[406]백헴, *제2종교개혁*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31.

② 불신자 전도

둘째로, 셀 교회는 불신자 전도에 관심을 둔다. 네이버는 말하기를 “언제나 셀 그룹의 건강을 재는 척도는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느냐 이다.”[407]라고 말하면서 셀 그룹에서의 불신자에 대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③ 평신도 활용

셋째로, 셀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통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신자 하나하나를 훈련하여 능력 있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에 새로운 빛을 던진 각성을 옥한흠 목사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다행히 근래에 와서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를 바로 계발하고 그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것만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408]

④ 성령의 역사를 강조

넷째로, 셀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은사)의 체험과 실현을 강조한다. 셀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흐르는 영적인 피라고 생각한다.[409]

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영적인 은사를 이용해 굳게 세우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 치유를 끊임없이 경험한다고 한다. 은사의 활동을 통해 덕을 세움으로써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

[407]랄프 네이버, 263.

[408]옥한흠, 34-38.

[409]Ibid, 214.

(4) 셀 교회의 문제점

① 셀 개념[410]

셀 교회지도자들은 신학적으로 셀 교회가 신약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몇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묘사하기 위한 용어 선택에서 난점을 일으킨다. 그들은 지도자들은 교회를 묘사하기 위한 용어선택에서 난점을 일으킨다. 그들은 셀 교회의 개념이 신약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신약성경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번도 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셀로 규정하는 것은 단지 셀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적인 결과 일 뿐이다.

둘째로, 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 설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들은 교회의 개념을 셀로 설명함으로써 매우 미세한 조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생물학적으로 셀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체의 최소단위구조'이다......하나 하나의 셀이 모여서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셀 모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또한 건강한 교회의 셀에서도 일어나는 과정들이다.[411] 하지만 이와 달리 신약성경은 교회를 몸, 건물, 신부, 어머니 등으로 설명함으로써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biological)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아니다.

셋째로 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인격요소에서 혼동을 일으킨다. 신약성경은 교회를 인격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셀은 인격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셀은 생물학적 개념이지만 인격적 개념은 아니다.

넷째로, 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전도와 관련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셀 개념

---

[410]조병수, *신학정론*, 321, 322.

[411]코미스키, *셀 그룹 폭팔*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5.

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셀은 신자 대 불신자와 같은 성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번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셀 개념은 전도와 맞지 않는다.

② 전도 목적

셀 교회는 근본적으로 전도를 지향하는 목회 이론이다.[412] 다라서 셀 운동이 성장하지 않는 셀을 폐쇄하는 것[413]은 교회 공동체나 교인이 인격체임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조직으로만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교회성장을 위한 세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아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가는 성도들이다.

③ 성경교육과 설교[414]

셀 교회 지도자들은 셀 그룹 모임을 성경공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서로간의 관계성이 생겨야 할 시간을, 다른 지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셀 그룹의 모임은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셀 교회지도자들은 성경공부를 위해서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에 쓰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깨끗하게 훈련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공부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성경공부의 목적은 섬김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고 하에서 이루어지는 셀 교회의 설교는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셀 교회의 지도자인 "다이

---

[412]조병수, *신학정론*, 325.

[413]빅 벨헴, 제2의 종교개혁, op, cit., 256-258.

[414]조병수, *신학정론* 19권 2호, op cit., 326, 327.

언 로버트 목사는 ‘주님을 잃은’ 자신의 교인들을 양육하고 권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여러 셀 모임에서 섬기는 자들이 전하는 보고서에 담긴 의견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들에는 여러 셀 모임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적인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담겨있고, 그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설교를 한다.”[415]

④ 성령의 은사와 계시

셀 교회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직접계시를 주장하는 매우 위험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416] 그래서 셀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자들이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때 계시가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계시와 조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둘째로, 더욱 큰 문제는 사도행전의 개인적인 계시를 우리 시대에 계속된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성경시대와 우리 시대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417]

⑤ 가정교회 대한 오해[418]

셀 교회 지도자들은 신약의 가정교회를 A라는 가정에서 B라는 가정의 일원 중 어떤 이들과 C라는 가정의 일원 중 어떤 이들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정의 일원 중 어떤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의 가정교회의 2차적인 모습이다. 신약의 가정교회이 일차적인 모습은 가정 그 자체가 교회이다. A라는 가정에서 B라는 가정의 일원 중 어떤 이들과 C라는 가정의 일원 중 어떤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전에, A라는 가정,

---

[415]랄프 네이버, 92.

[416]Ibid, 521.

[417]조병수, *신학정론* 제 1권 2호 , 327.

[418]Ibid, 332.

B라는 가정, C라는 가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정들은 부모와 자녀가 전체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A가정도 이미 교회이며, B가정도 이미 교회이고, C가정도 이미 교회이다. 이렇게 볼 때, 신약성경이 지시하는 교회의 기초적인 단위는 엄격히 말해서 가정교회(House Church)라기 보다는 가족교회(Family Church)이다. 가족교회가 모여서 가정교회가 된다.

(5) 가정교회와 셀 교회의 차이점

셀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교회와 차이점에 대하여 첫째로 가정교회의 독립성에서 나타난다. 주일마다 함께 15-25명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이는 가정교회는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가정교회가 근처의 다른 가정교회들과 접촉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넘어선 더 진전된 구조를 생각지 못한다.

둘째 차이점은 가정교회의 정체성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은 공격적인 복음전도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흥의 진정한 운동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419]

박지웅은 그의 논문을 통해 가정교회와 셀 교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정교회와 셀 교회의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교회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중국의 처소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가정교회는 주일마다 혹은 주중에 대체로 15-25명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주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모인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가정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그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위에서 말한 대로 셀 교회는 가정교회의 형식을 취하되 그 가정교회 자체로서 끝나지 않고 보다 더 큰 회중 교회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소그룹과 대그룹 중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419]조병수, *신학정론*, 19권 2호, 316, 317.

가정교회는 대그룹을 취하지 않고 소그룹만(가정교회)을 취한 형태가 된다. 셀 교회의 입장에서 보다면, 이것은 마치 두 날개 중에서 한 날개를 잃은 것이다.[420]

로버트 뱅크스는 가정교회 셀 교회를 비교하여 정의하기를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셀 교회의 모델은 교회의 구조를 지나치게 20세기의 경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했다.[421]

(6) 결 론

한국교회의 정체현상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이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나온 강력한 대안 중 하나가, '셀 교회'이다. 셀 교회는 신약을 근거로 전통교회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셀 교회는 신약성경의 근거가 거의 희박하며, 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모습은 전통적 교회론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교회관이라 볼 수 없다 밝혔다. 교회는 신구약성경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원과 그 모습에서 변화를 계속하여 왔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가정교회는 신약시대에 로마나 유대인들로부터의 무서운 핍박을 이기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으며,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나가는데 기여했으며, 새로 들어온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를 나누며, 복음이 세계 끝까지 선포되어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의 형태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셀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신약적 근거는 거의 모두가 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지 셀 교회 자체가 신약성경을 근거로 태생된 것은 절대 아니다.

신약성경의 가정교회에 대한 조병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초기 기

---

[420]박지웅, *21세기 목회적 대안으로서의 셀 목회 연구* (서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18.

[421]버트 뱅크스, 쥴리아 뱅크스, 138.

독교에서 가정교회가 태동하는 데는 당시의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정교회는 가정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기초하는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상황적인 이유에서 뿐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초기 기독교를 위하여 필연적인 것이었다.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위한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가정교호가 단지 당시의 현실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면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의 형성 원인이 역사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계시적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초기 기독교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에도 가정교회의 신학적 이상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422] 가정교회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지금도 유효하다면, 셀 교회 보다는 가장 강력한 신약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가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가정교회는 소형 목회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김명혁 목사는 "번영의 신학이 평신도들과 목회자들로 하여금 더 큰 사업과 더 큰 교회를 추구하는 허영심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결국 대형화와 대량화(大量化)를 추구하는 현대에 교회주의와 물량주의를 초래했다."[423]고 지적하며 한국교회의 침체원인을 대형화와 대량주의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의 꿈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교회가 한국교회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가정교회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을 요구하는 셀 교회의 형태보다는 천천히 성장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케 하는 가정교회의 형태가 더욱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의 변화 한가운데서 교회가 목회에 대한 성경적 원리로 고민하기보다,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결과지상주의적 세속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세속의 물결을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장위주의 노력보다는 성경이 제시하고 말하는 교회의 형태인 가정교

---

[422]조병수, *신학정론* 제2권 2호, 420, 421.

[423]김명혁, *한국교회 쟁점 진단* (서울: 규장출판사, 2002), 22.

회를 신학적 바탕위에 견고히 세우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문화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의 한국 교회에 어떻게 가정교회를 적용하며 이상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위해 지대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 할 것이다.

Ⅲ. 생명력 넘치는 울타리 목회(목장)를 위한 전략(Strategy & Project)

1. 전략 시행 계획표

1) 시행전략 (Strategy statement)

(1) 목적

설립 40년을 향해가는 성수 장로교회는 기존 성경공부나 사도된 제자 훈련이나 구역예배의 한계를 실감하며 교회 부속기관에 불가한 구역예배 형태에서 성경의 가정 교회를 현대에 접목하여 가정교회 곧 소그룹 형태 같으나 교회 기능을 다 하는 그룹, 친교 이상의 진전이 없는 구역 교회 형태에서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역을 포괄적으로 하는 작은 교회 곧 목장, 그것은 대단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 구역이 갖고 있는 특성인 지역 중심에서 구역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지역성, 기능성, 세대성, 직능성, 은사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특성화와 고정된 금요 구역 예배라는 고정 관념에서 주중,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상황에 따라 자유로 모임을 갖는 자발적 봉사 공동체를 이루고 Q.T나 성경공부가 있으나 진정한 지체의 삶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 투입된 정병이 되는 행 2:46의 예루살렘의 가정 같은 교회상이 목적이다. 전도 선교 목표와 분담된 선교사나 선교지를 스스로 찾고 지원하는 독립된 선교사나 선교지를 스스로 찾고 지원하는 독립된 선교 지원 교회화와 관계를 통한 전도의 확대로 핵심 성장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또한 목적이다.

오랜 관습과 관행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생명 울타리 공동체 곧 활성화된 세포 같은 교회는 비전이요, 이 공동체인 가정교회인 목장은 반드시 세포 분열하는 특성을 들어내는 것이 성경의 답이고 또한 바른 목장화를 위해 수고한 자들의 공통적 열매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실화의 교회요 회심성장이 계속되는 교회상이다. 목장은 그러므로 큰 공동체인 교회와 작은 공동체인 목장의 유기적 관계성 유지와 조화가 필연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전 목장이 모이는 큰 공동체 예배를 한달에 한번이상 가질 뿐 아니라 전체 산상기도회, 물론 공동예배를 하면서 동시에 목장(가정교회)을 계속 지원하고 목원간 뜨거운 결속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함 등을 들어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중보하는 자리에 까지 가는 목장,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식탁교제의 부담 없는 모임, 여성모임 중심이나 가정을 지키는 사람만의 공동체에서 온 가정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화는 곧 천국의 또다른 모습이고 도전의 현장이며 이는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존 구역모임 의식에서 목장으로의 전환은 계속적인 세미나와 학습, 예컨대 초기 가정교회 시행 목회자를 초빙하여 이해 학습을 하고 실행을 시범케 한 일[424]들을 통하여 온 교회로 인식화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더 구체적 목장의 구체적 교회성을 위하여 실제 참여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교회가 단지 우리끼리만 좋아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닌 참교회의 큰 목회의 사명인 "세례에 대한 봉사"로 교회 사명을 말한 Hans küng,의 제안인 주님을 따라 교회는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들에게 행동적 봉사를 하도록 부름 받았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행동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이 행하는 매사에 있어서 - 그것이 일견 매우 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 외향적으로 인류를 향하여 존재한다. 세계는 스스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교회의 형제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세계를 위하여,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것,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교회가 받은 은혜로 또 따라서 교회의 과업이다.[425] 를 지향 하면서 목장이 목자뿐 아니라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다 활성화 되는 평신도 사역화와 구성원들 까지 확대 가족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불신자 전도를 겨냥한 공동기도 사역을 통한 역동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은혜 체험으로 인식화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424]2003년부터 "이것이 21C 가정교회다."의 저자를 부르고 시범 목자의 목원의 학습이 있었다.

[425]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202.

(2) 목표

성수교회는 내적 성령충만과 예배, 교제, 봉사, 교육, 선교(전도)가 고루 이루어진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를 밴치마킹하고, 동시에 전성도의 선교사화, 곧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서 동참하고 그것이 곧 국외에 보내는 선교는 물론 삶의 현장에 섬김과 빛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위해 전 목원, 곧 청년목장까지 참여하는 선교사화를 위해 1개월에 한번 있는 전체 목장모임에 반드시 각 목장별 선교기도 제목을 배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참여케 하며, 목장의 기능을 따라 지역의 독거노인 가정 및 소년 소녀 가장과 연계하여 돌보는 이레 차명 하는 선교 지향을 목적으로 지속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생명력 넘치는 목장화는 2008년 연구자의 신년인사[426]에 잘 나타나 있다.

>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수 가족 여러분,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 여건 가운데서도 2007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 2008년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의 해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비전 2000』에 담겨진 내용처럼 성경적 교회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비전 2000속에서의 올해의 방향은 <성장의 해>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2010년 목표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목장사역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고 보다 더 생명력있는 목장이 되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 올해 주제인 『생명력 있는 울타리』는 이러한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1)울타리는 양들의 우리요 교회입니다. 울타리는 벽과 달리 밖에서 다 보입니다. 이것은 양과 목자의 행동이 다 보이는 투명성이요, 양들과 목자가 함께 하는 꼴 먹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동역목회요 평등지향성(낮은 울타리)이며 참여목회의 의미입니다.
> 또한 울타리는 목장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인 가정교회(목장)의 현대적 적용과 그간 목자 세움과 운영상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함입니다. 또한 울타리는 보호와 평화이며 동시에 열려있음입니다. 울타리는 안에 있는 양과 밖에 있는 양을 구별함이며 동시에 울타리 밖에 있는 생명을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여야 할 선교와 지역복음전도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2)생명력은 끊임없는 새 생명의 탄생과 양육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질 높은 교사배출을 통하여 교회학교 어린이 교육강화와 교회의 든든한 터다짐입니다. 또한 생명력은 자발적 봉사와 섬김의 표출입니다. 자발적 전도와 선교, 좋은 교제, 말씀 나눔, 사랑의 수고, 헌신과 헌금, 열정적 기도로 끊임없이 세포 분열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참여함입니다. 구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비전의 창출과 전진을 의미합니다.
> 이 『생명력 있는 울타리(교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사랑으로 섬기고(헌신・봉사) ②기쁨으로 나누고(교제・구제) ③성령으로 일하자!(사역・선교)는 실천 강령을 정했습니다.
>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목장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①각자 자신의 신앙을이

[426]성수교회 발간 2008년 요람, 4,5.

지키는 일과 ②나아가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2008년도에 예배생활과 목장 모임에 생명을 걸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개인 신앙이 성숙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각자 맡은 바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룸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목표하고, 목장이, 평신도가 목자가 되어 이끌도록 하는 참여는 물론, 적극적 사역자가 되고 가정의 천국화 사회의 정의적면 변화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정신 함양, 생명사랑 운동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마 28:18-20) 감당해 내는 사명의식의 구현을 목표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지체의식, 형제자매 의식을 위한 모임, 애찬, 공동기도제목 나눔, 함께 감당해야 하는 프로그램 참여로 나간다.

오랜 교회의 정체기 속에서 필자는 자신의 영적 소진과 신앙 집단을 이끄는 일로 인하여 과중한 목회 역할과 역량소진은 물론 내부 소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결과로 진정한 영성적 성장과 실제적 성장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기름부음의 뜨거운 기도와 전도 동기유발, 진정한 교제와 치류의 공동체가 현장화 되는 평신도 리더의 양육과 참여는 필수 불가결로 다가 왔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목표이고 이를 위해 의식, 구조의 변화와 끊임없는 의식 개혁의 수고가 이어지고 개발되며 이는 새 삶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함을 목표한다.

2) 시행 전략 계획표(Time line)

2007년 12월~2009년 11월까지 목장 발전 전력 시행표

날 짜	시 행 내 용	비 고
2007년 12월	목장의 목원리더(목자, 헬퍼) 은사발견 테스트	
2008년 1월 20일	목장 리더 세미나(1차)	
2008년 1월 27일	전 목장리더 모임(이단방지 세미나, 애찬)	준비된 내용대로
2008년 2월 22-24일	전 목장 산상기도회 전목장리더 모임	〃
2008년 3월 30일	전목장 리더모임, 전목장 산상 기도회	
2008년 4월 27일	전목장 리더 모임, 전목장 잃은양 찾기	
2008년 5월 11일	목장 잃은양 찾기, 목자 수련회(2차)	
2008년 5월 25일	목장 리더 모임(애찬), 목장 산상기도	
2008년 8월 17일	목장 리더 세미나(3차)	
2008년 8월 24일	전목장 산상 기도회	
2008년 10월 3일	목장 중심 체육대회	
2008년 11월 5일	한주간 목장별 기도회	
2008년 11월 23일	전 목장 산상기도회	
2009년 1월 11일	목장리더 영성 세미나	
2009년 1월 25일	전 목장 연합모임	
2009년 2월 1일	목장 리더 세미나	
2009년 3월 22,29일	1,2차 목장 리더 성경 세미나	
2009년 3월 22일	전 목장 산상 기도회	
2009년 4월 24일	목장 금요 페스티벌(목장연합)	뮤지컬
2009년 4월 26일	전 목장 리더 모임	
2009년 5월 24일	전 목장 산상기도	
2009년 5월 31일	2009년 목장 축제	찬양
2009년 6월 7일	목장 사역 헌신예배	
2009년 6월 28일	전 목장 리더 모임	
2009년 7월 26일	상반기 결산 목장별 성경 퀴즈대회	
2009년 8월 30일	전 목장 리더 모임	
2009년 9월 27일	전 목장 연합 모임	
2009년 10월 25일	목장 중심 새생명 축제	전도대회
2009년 11월 22일	목장 금요 페스티벌(20일 금)	목장편성
2009년 12월 27일	전 목장 리더 모임	

<표 5> 목장 발전 전략 시행표

2. 울타리 목회 전략의 실제 (Implementation)

1) 성수교회 목장과 목원 은사개발과 적용[427]

(1) 성령의 은사 발견 테스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성령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때 성령이 더욱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성령을 체험이나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면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건강한 몸의 특징은 그 몸의 모든 지체가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의 기능을 이행해 내는 일이다. 그러나 연합은 일률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상이한 은사의 기능이 있지만, 그들 모두는 동일하신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의 개인적인 지체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427]이 코너는 성수교회 목장에 대한 목원들의 은사개발과 적용에 대한 실습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전 목장의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파워포인트 자료들이다.

(2) 은사 발견을 위한 설문

이설문은 C. Peter Wagner 교수가 정리한 은사 발견을 위한 설문이다. 이 은사 발견 및 확인표를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자신이 가진 대표적 은사와 보조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3) 은사 테스트를 위한 기록방법

기록방법

Value of answer 측정치					Total 합계	Gift 은사
1	26	51	76	101		
2	27	52	77	102		
3	28	53	78	103		
4	29	54	79	104		
5	30	55	80	105		
6	31	56	81	106		
7	32	57	82	107		
8	33	58	83	108		
9	34	59	84	109		
10	35	60	85	110		
11	36	61	86	111		
12	37	62	87	112		
13	38	63	88	113		
14	39	64	89	114		
15	40	65	90	115		
16	41	66	91	116		
17	42	67	92	117		
18	43	68	93	118		
19	44	69	94	119		
20	45	70	95	120		
21	46	71	96	121		
22	47	72	97	122		
23	48	73	98	123		
24	49	74	99	124		
25	50	75	100	125		

(4) 은사 테스트 점수기준[428]

(5) 각 은사에 대한 정의

다음에 열거된 27가지 은사는 C. Peter Wagner 교수가 분류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이다.[429] 와그너 교수는 "나는 성령의 은사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또 모든 교회에서도 은사가 존재한다.…그러나 이 은사들을 땅 속에 묻어두지 말고 다시 꺼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430]고 주장한다.

---

[428]매우그렇다<much>=(3)/대체로그렇다.<some>=(2)/조금그렇다<little>=(1)/전혀그렇지않다.<notatall>=(0)

[429]Wagner C., Peter,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California: Regal Books A Division of Gospel Light Ventura, 1994), 59-88.

[430]Ibid. 59.

(6) 27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

① 예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별된 말로 전달하는 역량이다.

②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과업 가운데 충족되지 못한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그 요청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역량이다.

③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몸과 그 지체들의 건강 및 직임에 관계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량이다.

④ 권면

권면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과 조언의 말을 해주어 그들이 실제로 도움이나 치유를 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역량이다.

⑤ 헌금

헌금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들이 물질적인 자원을 관대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바치는 것이다.

⑥ 지도력

지도력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 하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 목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량이다.

⑦ 긍휼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순수한 자비를 느끼고, 그 순수한 자비를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역량이다.

⑧ 지혜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성력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지식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요구 사항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역량이다.

⑨ 지식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

으로서, 몸의 성장과 번영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발견하고 쌓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역량이다.

⑩ 믿음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간하는 역량이다.

⑪ 신유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시는 일의 중개자로서 봉사하는 역량이다.

⑫ 기적

기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관측자들에게는 자연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일로, 지각되는 하나님의 능력있는 행동의 중개자로 봉사는 역량이다.

⑬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혹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⑭ 방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역량이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배우지 않은 언어인데도 하나님의 성별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이다.

⑮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일상어로 알려 주는 것이다.

⑯ 사도

사도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특히 영적인 일애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맡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일의 놀라운 권위란 그 여러 교회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평가되는 영적 권위를 말한다.

⑰ 서로 돕는 일

서로 돕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몸의 다른 지체들의 활동에 주어, 그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의 효율을 증대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⑱ 행정

행정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 단위의 장기적, 단기

적 목표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계획을 기안하여 실행할 줄 안다.

⑲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여량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의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량이다.

⑳ 목사

목사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신자들의 영적 번영에 대한 책임을 장기간에 걸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다.

㉑ 독신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독신 생활을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고, 성적 유혹도 받지 않는 것이다.

㉒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일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일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하나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물질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특정 사회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양식을 택하여 사는 것이다.

㉓ 순교

순교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믿음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기쁨과 승리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㉔ 대접하는 일

대접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숙식의 요구되는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㉕ 선교사

선교사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다른 은사들이 어떠한 것이든, 제2의 문화권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이다.

㉖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기도하고, 보통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응답을 많이 받는다.

㉗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마귀와 악령을 쫓아내는 역량이다.

(7) 은사 발견을 위한 테스트 항목 [431]

번호	문제	점수
1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말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2	나는 여러 사람들과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같이 나누면서 동참하는 일을 좋아한다	
3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가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의미 있게 잘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4	나는 성경의 영적 진리를 나의 생활에 잘 적용해 왔다고 생각한다	
5	사람들은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아주 알기 쉽게 가르치고 설명한다고 말한다	
6	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좋아한다	
7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곤 하는데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한다	
8	나는 주의 일을 위해 더 많이 드리도록 돈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기쁨으로 애쓴다	
9	나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기를 즐거워 한다	
10	나는 몸이나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고통이 감소되도록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11	나는 특별히 소외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도 나를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12	나는 전도하여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즐겨한다	
13	나의 집은 누구든지 머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14	어느 모임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인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편이다	
15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편이며, 또 그 말에 따라주는 편이다	
16	조직이 잘 안되어 있는 그룹에서 나는 그 약한 조직을 강화시켜 주기를 즐겨한다	
17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응답으로 자주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18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료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져 왔다	
19	나는 방언을 말한다	
20	가끔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질때가 있다	
21	나는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청빈하게 산다	

[431]* Use it or lose it ! -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 * Learn a little ! Use it a lot ! - 적게 배워 많이 써 먹어라/ * Expression deepens impression ! - 밖으로 표현할수록 속이 더 강해진다. 남에게 주면 줄수록 더욱 내 것이 된다(소개한 글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도움 글들’ 이다).

22	나는 독신생활을 즐기며 산다	
23	나는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일로 소비한다	
24	내가 약한 영(귀신)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나의 말에 복종한다	
25	나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일에 부름 받는 것을 즐거워 한다	
26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밝히곤 한다	
27	나는 성도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 책임 맡은 자라고 확신하며 또 맡은 사역에 즐거워 한다	
28	나는 건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을 위한 신약의 교훈을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당한다	
30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적통찰력을 가지곤 한다	
31	나는 필요한 사역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할 수 있다	
32	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상을 볼 수 있다	
33	나는 교회와 주님 사업을 위해 나의 전체수입중에서 10% 훨씬 이상을 바친다	
34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에 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3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필요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36	나는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배울 때 아주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 때 많은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는다	
38	나는 교회 행사에 몸으로 봉사하기를 즐겨한다	
39	나는 불가능한 일이 쉽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한다	
40	다른 신자들이 나의 지도력을 따라주는데 그것은 그들이 나를 믿기 때문이다	
41	나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휘해 아이디어, 사람, 물질 등의 자원을 조직화하여 사용하는 일에 특별한 취미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2	하나님은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	
43	나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기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때문이다	
44	나는 내가 전혀 모르는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곤 한다	
45	내가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주면 그 결과 교회에 위로와 유익이 된다	
46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47	내가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	
48	누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도해 준다	
49	나는 실제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말하는 것을 듣는다	
50	나는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51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메시지를 적시에 전달한다고 말한다	
52	나는 성도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53	나는 성경의 새로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54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자주 최선의 성경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곤 한다	
55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전략과 방법을 구별해 왔다	
56	슬픔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곤 한다	
57	나는 아주 확실한 믿음으로 악령에 들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58	하나님 사역에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나는 그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5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 놓은 지루한 일도 즐겁게 하는 경향이 있다	
60	나는 병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이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61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좋아한다	
62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주 표현하여 영향을 미쳐도 불신자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63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다고 말하곤 한다	
64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	
65	재가 목표를 세우면 사람들은 쉽게 따라준다	
66	나는 어떤 그룹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일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67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내 생애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기적같이 이루시는 것 같다	
68	내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69	나는 전혀 배우지 않은 말로(방언) 하나님께 말할 수(기도) 있다	
70	다른 사람이 방언 말하는 것을 통역하여 기도할 수 있다	
71	나는 가난한 편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	

72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73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내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즐거운 때이다	
74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의심이 가면 사람들은 항상 나를 부른다	
75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평범한 일에 싫증내지 않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편이다	
76	나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라고 시키시는 강력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77	나는 동료신자들에게 말씀으로 인도, 양육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있다	
78	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지식, 태도, 가치, 혹은 행위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79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닫고 또한 취사선택하여 다른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고 말한다	
80	나는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꽤 많은 시간을 쏟아 읽거나 공부하고 묵상한다	
81	나는 실망한 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 혹은 중독자(술, 마약, 섹 스, 노름 등)를 효과적으로 상담해주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82	나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83	나는 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며 살아 간다	
84	나는 남모르게 사람을 도울 때 정말 기쁘다	
85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부른다	
86	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 매우 마음이 기쁘고 편하다	
8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을 때 매우 실망한다	
88	사람들은 내가 손님접대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89	타인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미래에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될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가 많다	
90	내가 어떤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세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91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설득할 필요없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92	사람들은 내가 생활과 환경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적이 있다	
93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결과 병든 자가 낫기도 한다	
94	내가 공중 앞에서 방언을 말할 때 나는 그 방언이 통역되기를 기대한다	
95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면으로 방언을 통역한 적이 있다	
96	사람들에 의하면 나는 너무 지나치게 주의 일 때문에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한다	

97	나는 독신으로 혼자 살지만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적은 거의 없는 편이다	
98	내가 기도해 준 사람들에 의하면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99	내가 기도해주면 계속해서 귀신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다	
100	나는 누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단지 읽거나,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 한다	
101	나는 가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때가 있는 것 같다	
102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103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남과 나누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른다	
104	나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개인적으로 확신할 때가 많다	
105	나는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을 살펴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6	나는 고난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성경을 찾아보도록 권면하고 있다	
107	나는 누가 방언은 말하면 그것이 참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	
108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난한 삶을 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109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110	나는 고독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일이 즐겁다	
111	무엇보다도,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싶다	
112	나는 불신자를 전도하려는 소원 때문에 그들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3	나는 주의 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의 집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다	
114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역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115	내가 무슨 일을 책임 맡으면, 모든 일이 부드럽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	
116	나는 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책임을 맡는 것을 즐거워 한다	
117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 적이 있고 또 할 수 있다	
118	내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나 혹은 그들이 몸에 어떤 떨리는 현상이나,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19	내가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임을 믿는다	
120	내가 방언을 통역하면 그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	

121	내가 그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받아 들인다	
122	나는 바울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123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주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안다	
124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낸다	
125	나는 비록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일지라도 어떤 일을 부탁 받으면 기쁨으로 응답하는 편이다	

(8) 은사 테스트 시행 결과

마을별	목장별	사역	성명	드러러진 은사 1	2	3	4	5	6	예언	목사	가르치	지혜	지식	권면	영분별	구제	돕는은	긍휼	선교사	복음전	대접	믿음	지도력	다스림	기적	신유	방언	통역	청빈	독신	중보기	귀신쫓	봉사
사랑마을	엘림	목자	김신홍	구제	권면	돕는은사	지도력	청빈	지혜	0	4	1	6	1	7	3	10	7	6	6	4	4	6	7	4	3	0	0	0	7	0	0	0	6
	나올	목자	신용오	봉사	돕는은사	목사	구제	복음전파	대접	0	7	6	5	3	5	2	7	9	3	2	7	7	1	5	6	1	2	0	0	5	2	3	0	10
	예루살렘	목자	유기호	청빈	봉사	구제	권면	돕는은사	대접	6	2	4	5	7	8	3	9	7	3	7	7	7	4	6	4	6	3	0	0	12	1	3	1	9
	다윗	목자	이인성	지도력	목사	지혜	대접	봉사	돕는은사	4	9	5	7	5	6	4	2	6	4	5	6	7	4	11	6	3	4	2	0	5	1	4	4	7
	기쁨있는	헬퍼	윤종혁	구제	봉사	돕는은사	다스림	지도력	청빈	2	5	2	2	2	2	1	10	8	2	2	3	5	3	6	7	1	0	2	0	5	0	2	0	9
	면류관	헬퍼	이차훈	중보기도	구제	예언	돕는은사	대접	복음전파	7	1	5	3	5	5	2	9	6	3	4	5	6	2	4	4	4	4	1	0	5	5	11	0	4
	면류관	목자	이정선	가르치는	복음전파	대접	지도력	다스림	봉사	6	14	15	10	14	12	7	4	12	4	10	15	15	10	15	14	12	10	0	0	3	11	11	6	15
	찬양	목자	김명숙	봉사	대접	목사	구제	선교사	지도력	5	7	3	3	2	3	3	7	7	2	7	5	8	4	7	7	2	2	1	0	6	5	3	2	9
초락마을	복있는	헬퍼	김계신	권면	돕는은사	대접	믿음	지도력	봉사	3	4	2	4	1	6	0	5	6	5	4	4	8	5	9	4	0	1	1	0	4	0	2	0	5
	바나바	헬퍼	연선례	청빈	복음전파	목사	권면	신유	봉사,돕는	6	11	10	9	10	11	6	9	10	8	10	12	9	9	8	6	8	11	5	6	14	10	10	6	10
	에덴	목자	임호운	가르치는	목사	돕는은사	다스림	봉사	지식	7	10	11	7	9	5	6	7	10	8	6	5	6	7	6	9	4	4	0	0	6	4	5	2	9
	에덴	헬퍼	김유호	권면	구제	긍휼	대접	선교사	봉사	1	1	0	1	0	4	0	3	2	3	3	1	3	0	1	2	1	0	0	1	2	2	1	0	2
	임마누엘	목자	김검재	가르치는	구제	다스림	지도력	방언	지혜	1	6	9	7	4	6	5	10	7	3	3	6	6	3	8	9	1	1	8	0	5	0	1	3	6
	야베스	목자	박철스	구제	봉사	목사	가르치는	지도력	권면	8	10	8	8	5	8	8	12	8	4	7	5	7	6	8	8	6	4	3	1	6	5	8	5	11
	벧엘	목자	이영규	봉사	목사	지혜	긍휼	대접	중보기도	4	8	5	6	3	3	2	6	5	6	2	4	6	6	4	3	5	2	0	1	3	0	6	0	11
	벧엘	헬퍼	김영아	믿음	대접	예언	지혜	복음전파	봉사	8	6	6	8	2	7	2	7	4	2	2	8	9	12	7	3	5	2	7	1	4	1	4	1	8
	벧엘	예비목자	반종복	대접	봉사	구제	돕는은사	청빈	가르치는	1	1	5	2	1	2	0	7	6	2	3	4	12	1	3	1	0	0	0	0	5	0	1	0	8
	디모데	목자	조검구	목사	가르치는	지혜	구제	대접	지도력	4	12	9	9	5	4	3	11	8	3	3	7	9	5	9	6	7	2	0	0	4	1	4	0	8
	디모데	예비목자	김준환	목사	권면	복음전파	믿음	지도력	봉사	5	12	8	7	9	11	6	6	8	6	5	10	6	10	10	9	6	6	5	4	6	1	8	3	9
	디모데	헬퍼	정은화	구제	돕는은사	대접	봉사	긍휼	복음전파	2	3	5	4	2	5	0	9	9	6	4	6	7	2	4	4	3	3	3	2	6	6	3	0	7

마을별	목장별	사역	성명	두드러진 은사						예언	목사	가르치	지혜	지식	권면	영분별	구제	돕는은	긍휼	선교사	복음전	대접	믿음	지도력	다스림	기적	치유	방언	통역	청빈	독신	중보기	귀신쫓	봉사
				1	2	3	4	5	6																									
화평마을	온유	교사	정재완	돕는은사	청빈	선교	기적	구제	복음전파	3	4	6	5	6	5	4	8	9	5	9	7	7	5	5	6	8	2	5	2	9	4	3	5	5
	이스라엘	목자	권영선	목사	가르치는	권면	돕는은사	지도력	방언	6	9	9	6	8	12	7	8	9	2	8	7	10	6	9	5	7	6	9	5	8	2	6	12	8
	이스라엘	헬퍼	박정순	청빈	대접	지도력	봉사	구제	기적	5	3	3	4	2	6	2	9	7	4	5	5	10	6	10	7	8	7	0	0	12	6	2	2	10
	이삭	목자	석철영	대접	봉사	돕는은사	지도력	다스림	목사	4	10	9	8	6	7	5	9	11	6	7	6	13	6	11	11	2	3	1	0	7	0	5	0	11
	이삭	목자	서원덕	봉사	방언	지도력	구제	목사	대접	2	9	8	3	4	5	3	9	7	3	8	6	9	4	10	6	3	1	11	3	7	0	3	2	12
	이삭	헬퍼	이은화	지혜	지식	가르치는	구제	봉사	예언대접	9	7	10	13	12	8	6	10	7	6	3	3	9	7	7	8	6	3	0	0	7	0	5	2	10
	헵시바	목자	정창호	가르치는	지혜	지식	권면	지도력	목사	10	13	15	14	14	14	6	8	10	3	11	12	10	10	14	13	7	4	4	4	5	0	7	8	11
	헵시바	헬퍼	채형경	돕는은사	지혜	구제	지도력	봉사	목사	4	7	5	8	6	4	4	8	10	2	4	4	6	2	8	7	2	2	3	1	3	1	7	0	8
	노아	목자	이정길	가르치는	선교	목사	대접	돕는은사	봉사	0	5	7	3	3	3	1	3	5	3	5	3	5	0	2	0	1	1	3	0	3	1	3	0	4
	보아스	목자	서천근	다스림	복음전파	지혜	영분별	귀신쫓기	봉사	9	11	10	12	7	10	12	10	9	6	10	14	11	11	10	15	10	10	1	0	10	3	9	12	12
	보아스	헬퍼	송소애	목사	권면	돕는은사	선교사	대접	봉사	11	14	13	13	10	14	12	13	14	12	14	13	14	11	12	13	11	10	6	0	9	5	11	8	14
	여호수아	목자	박은	구제	방언	돕는은사	가르치는	목사	지도봉사	3	9	11	7	7	5	7	12	11	4	7	6	7	6	9	7	7	3	12	0	5	1	8	3	9
자비마을	여호와닛시	목자	신순자	가르치는	지혜	영분별	구제	복음전파	지식	8	8	13	11	10	6	11	11	8	3	6	11	6	9	9	6	6	4	10	1	7	2	9	6	7
	샬롬	목자	홍종열	목사	예언	방언	중보기도	가르치는	대접	12	13	10	9	7	7	7	7	7	5	9	8	10	7	7	10	5	9	12	6	4	2	12	2	8
	딤알	목자	윤은자	독신	지도력	대접	예언	통역	믿음	8	6	6	7	6	6	5	7	7	7	8	6	9	7	9	5	6	5	7	8	6	12	5	4	8
	겨자씨	목자	김용호	복음전파	가르치는	봉사	지도력	예언	구제	10	9	13	10	6	10	7	10	8	3	5	13	9	9	10	7	8	9	0	2	8	0	7	4	11
	겨자씨	목자	이성렬	예언	지혜	구제	복음전파	대접	목사	6	5	5	6	5	5	3	6	5	5	4	6	6	5	5	5	5	5	0	0	5	2	4	3	5
	겨자씨	헬퍼	손기순	구제	돕는은사	믿음	봉사	목사	지혜	4	7	5	7	6	5	5	8	8	3	6	6	6	8	7	6	7	6	1	1	6	2	5	2	8
	새순	목자	민춘택	목사	구제	믿음	청빈	권면	복음전파	6	14	9	10	11	12	8	13	11	4	7	12	10	13	10	11	8	8	1	0	13	0	10	5	11

마을별	목장별	사역	성명	두드러진 은사						예언	목사	가르치	지혜	지식	권면	영분별	구제	돕는은	긍휼	선교사	복음전	대접	믿음	지도력	다스림	기적	신유	방언	통역	청빈	독신	중보기	귀신쫓	봉사
				1	2	3	4	5	6																									
충성마을	사랑	목자	임재건	목사	가르치는	권면	중보기도	선교사	복음전파	8	12	12	10	10	12	8	10	10	7	11	11	8	8	10	11	5	6	0	1	10	3	12	3	8
	에녹	목자	권시용	대접	가르치는	돕는은사	복음전파	봉사	지혜	4	7	9	8	6	7	3	8	9	5	5	9	11	7	7	6	1	2	0	0	5	0	6	0	9
	에녹	예비목자	배영선	가르치는	권면	봉사	복음전파	대접	돕는은사	1	4	7	4	0	7	1	1	5	3	2	5	5	2	3	2	1	0	0	0	1	1	0	0	6
	에녹	헬퍼	전옥희	가르치는	권면	방언	목사	구제	돕는중보	6	10	12	8	8	11	7	10	9	5	8	8	7	5	8	8	5	4	10	1	6	0	9	3	8
	이레	헬퍼	허금옥	복음전파	대접	봉사	권면	방언	중보기도	4	10	6	6	6	13	7	12	10	4	7	15	15	3	11	5	7	6	12	2	10	6	12	0	14
	이레	목자	김기대	돕는은사	선교사	가르치는	독신	권면	목사	3	7	8	7	5	8	6	5	10	2	9	7	5	5	4	5	3	6	1	0	4	8	7	0	8
	할렐루야	목자	정승자	봉사	중보기도	독신	돕는은사	방언	목사	1	5	3	4	1	1	0	4	6	1	2	3	8	5	2	0	5	3	6	0	3	8	8	1	9
	시온	목자	전영준	가르치는	지도력	목사	지식	권면	지혜	1	5	7	4	5	5	1	4	4	0	3	4	3	2	6	2	1	1	0	0	3	0	0	0	4
온유마을	화목	목자	조재숙	구제	긍휼	봉사	청빈	선교사	돕는은사	4	5	6	6	3	7	1	11	8	10	8	4	3	4	4	4	3	1	3	0	8	4	2	1	9
	화목	헬퍼	김혜경	봉사	돕는은사	긍휼	선교사	중보기도	구제	1	3	2	2	3	2	3	3	6	6	6	4	3	2	4	2	1	1	0	0	2	3	5	0	9
	백향목	목자	방인규	구제	봉사	돕는은사	대접	지도력	긍휼	3	8	8	8	4	8	3	12	8	8	7	6	9	4	9	5	2	3	3	1	8	3	6	0	10
	백향목	헬퍼	김연숙	지혜	구제	돕는은사	봉사	대접	권면	10	10	9	11	9	10	6	11	11	8	6	7	10	8	6	8	5	6	7	4	6	4	9	4	11
	엘림	목자	하선오	목사	복음전파	방언	중보기도	봉사	돕는은사	7	10	5	5	2	8	5	6	9	7	7	10	9	5	4	5	7	3	10	3	5	3	10	4	10

2) 성수교회 목장 중심의 체육대회

(1) 2008년도 ‘성수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시나리오

구 분	시 간	내 용	담당자	준비물	비 고
D-day	07:30 ~ 08:00	■ 준비위원회 집결 및 준비물 운반	준비위		
		■ 본부 천막 및 현수막 설치 (단상 중앙)	준비위	현수막	
		■ 쓰레기통 설치 (마을촌별 1개, 본부석1, 총 7개)	임희운집사	쓰레기봉투	
		■ 경기장 라인설치	권병상집사	끈, 못	
		■ 본부석 책상, 의자 설치 (책상2개, 의자 10개) ■ 책상위 메모지, 펜, 컵, 음료수 준비	준비위	탁자(10), 책상(2), 수반(2)	
		■ 우승상품, 준우승상품, 정려상상품, 4~6위 상품 진열 ■ 행운권 추첨함 및 경품 진열	임희운집사	상품/경품	
		■ 화이트보드 식순부착, 종합점수 집계표, 대진표 부착	준비위	종합점수집계표, 대진표, 식순, 화이트보드(2), 스카치테이프 등	
		■ 생수, 화장지, ICE BOX준비	준비위	생수통5, 생수기2, 화장지, ICE BOX, 얼음	
		■ 경기종목에 따른 장비 준비 및 설치	심판위원장	별첨	
	08:00	■ 음향, 마이크 테스트 완료 ■ 축포 준비완료	이형래집사	음향장비, 축포	
	08:30 ~ 09:10	■ 안내표지판 설치 ■ 주차장 안내	준비위	호각5개 등	
		■ 마을촌별 피켓 입장 안내 ■ 선서자 예행연습	진행자	개회선언문 선서문	
		■ 마을촌 6개 천막 설치 ■ 마을촌 명칭 천막 부착 ■ 단체선물 준비 ■ 캠코더 및 카메라 준비	준비위	선물 300개 캠코더 카메라	

구 분	시 간	내 용	담당자	준비물	비 고
정렬 및 인원파악	09:10	■ 성수가족 여러분께서는 피켓과 현수막을 중심으로 마을촌별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촌장님께서는 각 마을가족들이 집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을촌에서는 참석인원을 파악하여 주시고, 입장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되는 대로 피켓기수의 인도에 따라 입장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을촌장	마을촌 피켓	
입장	09:30	■ 성수가족 여러분! 마을촌 피켓기수의 인도에 따라 지금 즉시 지정된 자리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을촌 기수 출발; 각 마을촌은 피켓기수, 마을촌장, 4열 종대의 순으로 입장) 입장은 사랑마을, 희락마을, 화평마을, 자비마을, 충성마을, 온유마을순입니다. *사랑마을은 이정선마을촌장을 중심으로 열린목장, 기쁨있는목장, 다윗목장, 면류관목장, 찬양목장, 바울목장, 예루 살렘목장이 소속되어 젊은 목장으로서 기백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마을은 박철수마을촌장을 중심으로 야베스목장, 임마누엘목장, 에덴목장, 바나바목장, 복있는목장, 디모데목장, 벧엘목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화평마을은 서천근마을촌장을 중심으로 보아스, 헵시바, 이삭, 노아, 여호수아, 온유, 이스라엘목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비마을은 임춘택마을촌장을 중심으로 새순, 마하나임, 겨자씨, 샬롬, 여호와닛시, 한나, 밀알목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충성마을은 엄재건마을촌장을 중심으로 사랑, 에녹, 시온, 에스더, 할렐루야, 여호와이레, 소망목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온유마을은 이득선마을촌장을 중심으로 새길, 새롬, 다니엘, 엘림, 화목, 백향목, 에바다목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을촌장 , 피켓기수	CD카셋트	행진곡

구 분	시 간	내 용	담당자	준비물	비 고
개회선언	09:50	■ 전체 차렷 ■ 이번 체육대회 대회장이신 당회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개회선언 : 지금부터 2008년도 성수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진행됨을 선언합니다.	진행자, 대회장	축포 2대	권병상 김경재
선 서	09:55	■ 선서낭독 : 이어서 심판진과 성수가족 전체를 대표하여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판대표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심판대표 정오환 집사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번 체육대회 행사의 심판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권병상, 배영선, 김경재, 김응수, 방인규, 최현규, 정동일, 서원덕, 신문수, 김용호, 김순실, 박광순, 윤창원, 석철영 ■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심판대표 선서문> ■ 이어서 가족선수대표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 성수가족을 대표하여 이정선권사님의 가족이 나와 우리를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정선권사님과 가족, 임희운집사, 김유희집사, 김덕현집사, 신민정집사, 임성호, 임송하, 김주은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선수가족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수가족대표 선서문 낭독> ■ 이어서 이번 체육대회 준비위원장인 강부웅 집사님의 개회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개회인사말> ■ 개회예배 : 이제 오늘 체육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회예배를 다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우리를 대표하여 권병상 집사님이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벤트	태극기	음향 지원
에어로빅		■ 자, 이제 우리 다함께~~~			
경기안내		■ 다음으로 오늘의 경기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분	시 간	내 용	담당자	준비물	비 고
체육행사	10:20	■ 지금부터 체육대회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폐 회	15:40	■ 지금부터 행운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 행운권 추첨은 ( )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발표 및 시 상		■ 먼저 성적발표가 있겠습니다.			
		■ 이어서 종합성적 발표 및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 호명되는 팀의 마을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대회장이신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회자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 먼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하셨던 응원부문에는 (00팀), 단합상에는 (00)팀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경기종목에 대한 우승, 준우승,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합3위(00팀), 종합준우승(00팀), 종합우승(00팀) 입니다!	사회자		
폐회예배	15:50	■ 폐회예배 -찬송: 1장 -기도: 권시용 장로 -말씀: 김용호 목사	기도, 설교자		
		■ 자리를 떠나실 때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시어 성수인으로서의 성숙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쓰레기 봉투는 출입구쪽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도구	

(2) 2008년도 '성수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안내문

2008 성수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목장별 연합축제

● 일 시 : 2008년 10월 3일 오전 9시30분

● 장 소 : 서울중곡초등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수교회

www.sungsu.or.kr ☎02-432-0971

체육대회 프로그램 (전체진행: 정창호 장로)

시간	경기종목 및 내용	담당 및 심판진
09:30~09:40	마을촌별 정렬 및 인원보고	각 마을촌장
09:40~09:50	입장식 행사(마을촌별)	
09:50~10:10	●개회선언(대회장 김재규목사) ●선서 ▶심판대표: 정오환집사 ▶선수대표: 이정선권사 ●개회인사(준비위원장 강부웅집사) ●개회예배 ▶말씀: 김재규목사 ▶기도: 권병상집사	사회: 정창호장로
10:10~10:20	몸풀기 체조(건강에어로빅)	윤석용청년 외
10:20~10:30	마을촌별 응원전	심사위원
10:30~11:00	풍선터뜨리기(전원) ①사랑,온유,자비/②충성,화평,희락	①배영선집사, 이송이청년 ②김용호집사, 김은혜청년
11:00~11:20	협동 공튀기기(8명) 사랑,희락 / 화평,온유 / 자비,충성	김응수집사, 김순실집사
11:20~11:50	3인 4각(7짝,가운데1명은 남자) ▶유치부,초등생,10-20대,30대,40대, 50대,60대이상	김경재집사, 신문수집사, 김진수청년, 서병일청년
11:50~12:40	배구(9인제-남6,여3) ①화평,충성,희락 1)화평:충성 2)화평:희락 3)충성:희락 ②사랑,온유,자비 1)사랑:온유 2)사랑:자비 3)온유:자비	①박광순집사, 윤창원집사 -기록: 박창모청년 ②정오환집사, 조남혁청년 -기록: 반현정청년
12:40~13:30	목장별 점심식사 및 휴식 (비공식경기 축구 30분)	

체육대회 프로그램 (전체진행: 정창호 장로)

시간	경기종목 및 내용	담당 및 심판진
13:30~14:00	O, X 퀴즈(전원)	조길송목사 이상현청년, 박세훈청년
14:00~14:20	훌라우프돌리기(5명-여자4,남자1)	최현규집사, 석철영집사
14:00~14:20	낚시게임(65세이상 전원)	정동일집사, 진미혜청년
14:20~14:40	신발던지기(13명) ▶유치부,초등생남,여,10-20대남,여, 30대남,여,40대남,여,50대남,여, 60대이상남,여	방인규집사, 서원덕집사 -기록: 김호진청년
14:40~15:10	줄다리기(전원) ①충성,화평,사랑 1)충성:화평 2)충성:사랑 3)화평:사랑 ②희락,온유,자비 1)희락:온유 2)희락:자비 3)온유:자비	①신문수집사, 최문석청년 ②정오환집사, 이경일청년
15:10~15:40	계주달리기(15명) ▶교역자/유치남/여/60대이상남/여 /초등남/여/50대남/여/10-20대남 /여/30대남/여/40대남/여	권병상집사, 윤석용청년
15:40~16:00	●선수단 정렬 ●행운권추첨 ●성적발표 및 시상 ●폐회예배 ▶말씀: 김용호목사 ▶기도: 권시용장로 ●폐회선언(준비위원장 강부웅집사)	사회: 정창호장로 <상품도우미> 박상문집사 이송이청년

공지사항 안내

1. 마을촌별 참석현황 인원점검은 모두3차례로 이루어집니다.
   입구에 들어와서 행운권 추첨통에 행운권을 꼭 넣어주세요.

2. 행사시작이 정확한 시간대에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준수사항에 대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성수교회 목장 리더 세미나

2009 성수교회 목장 리더 세미나

(교육 교안)

■ 일시: 2009. 2. 1(주일) 17:00

■ 장소: 성수교회 본당

■ 대상: 목자, 헬퍼, 예비목자

성수교회 목장사역 위원회

목장보고서 작성 사례 (통계부문)

번호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1	0	0	0	20/40	2
2	0	0	0	20/25	2
3	0	0	0	10/15	1
4	0	0	0	10/15	1
5	0	0	×	10/20	0
6	0	0	×	10/20	0
7	×	0	0	20/30	0
8	0	0	0	5/10	0
9	0	0	×	2/5	0
10	×	0	×	0/0	0
11	×	0	×	0/0	0
12	×	0	×	0/0	0
13	×	×	×	0/0	0
14	×	×	×	0/0	0
15					
계	8	12	6	107/180	6

목장보고서 작성 사례 (사역부문)

모임현황

목장일자	1월 10 일(목)요일
모임시간	21:00 ~ 22:30
모임장소	교회 유년부실

목장사역/행사현황

►목장내 사역 담당자 임명
(찬양:김00/기도:최00/성경:서00/봉사:지00/문서:최00/회계:정00/행사:전00/선교:김00)

►목장 비상연락망 정리(주소,전화,생일)

헌금현황

헌 금 내 역	금 액
목장모임 헌금	15,000
주간계	15,000 원
누 계	30,000 원

목장신상변동/기도제목

•000: 중국출장(1/13~1/19),건강을 위해
•000: 올해 안에 세례받게, 가까운직장으로 이직을 위해
•000: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믿음으로 충만
•000: 목이 아프지 않도록

(1) 목장 운영계획 및 조직

① 2009 교회 표어 '생명력 있는 울타리'(요10:16~17)

a. 주님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 성령, 기도, 전도, 사랑, 헌신의 불이 타오르게 하자

b. 차고 넘치는 교회

- 말씀, 은혜, 기쁨, 나눔, 성도가 차고 넘치게 하자

c. 사랑의 모델을 이루는 교회

- 헌신자, 전도자, 기도자, 예배자의 모델이 되자

② 2009 목장사역 운영방향

a. 체계적인 목장사역 운영으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기반 조성

- 새로운 조직 구축과 지원부서 담당별 스탭(Staff) 운영
- 목장, 마을 촌별 실시간 통계분석 체계 지원

b. 교회의 리더육성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장조직 구축

- 단계별, 대상별 교육과정 진행과 교육평가 시스템 적용
- 예비목자 양성과 기존 목자, 헬퍼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운영

c. 질 높은 교육과 헌신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목장의 모델 배출

- 실제 적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적 교육 실시
- 목장별, 마을촌별 우수사례 발굴과 목장 정착을 위한 적극 지원

③ 목장사역위원회 조직구성 및 역할

a. 위원장, 지역장의 역할

a) 목장 총사역장

- 목장 전체를 총괄하며, 마을촌장 및 목자를 직접 양육, 지도함.
- 목자와 헬퍼를 최종 임명 또는 해임하는 권한을 가지며, 목장의 분리, 신설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함.
- 목장을 심방하고, 목자와 헬퍼의 영적 상담을 담당함

b) 목장 사역 위원장

- 목장사역위원회를 소집, 운영하며 목장운영상태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함
- 목자, 헬퍼들의 교육을 담당하며, 목장사역의 문제점 파악과 방향설정, 목장 심방, 새신자 정착 상황 등을 점검함
- 목장을 지원하는 사역위원회 스탭 인원을 선발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목장의 발전을 도모함
- 마을 촌장과의 간담회 및 목장 페스티벌(Festval), 목장축제, 성수인의 날, 플러스전도, 새생명축제, 목장성경퀴즈대회, 목장리더교육 등 목장관련 행사 주관

c) 지역장의 역할

- 목장별 인원변동사항 점검 및 최근 현황으로 업데이트(update)
- 예배출석 현황 관리(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심야기도회)
- 관심대상자 전화 및 심방으로 돌봄

b. 사역부위원장(정주용 목사)의 역할

- 위원장을 보좌하며, 목장사역위원회 스탭진을 지도, 감독
- 회의를 소집, 운영하고 전 부서간의 관계를 조정, 지원
- 개인별 은사점검 및 은사발견에 따른 인력 재배치

c. 선교간사(최성애 권사)의 역할

- 목장별 선교대상지 선정 및 조정
- 선교지 방문일정 및 관리
- 선교지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선교지 정보 각 목장에 전달

d. 기획실(기획부장 외 5명의 스탭으로 구성)의 역할

a) 기획부장(정창호 장로)

- 교회 목장사역 중, 장기 계획 수립
- 플러스 전도 및 새 생명축제, 목장행사 관련 기획
- 각종 통계자료 분석
- 규정 및 제도, 매뉴얼(Manual) 표준화, 자료 및 양식 제작
- 평가자료 및 보상제도 마련
- 교육과정 기획 및 프로그램 설계
- 목장소식지 활용 및 설문 기획
- 교육 스탭(김경재 집사, 박상문 집사)
- 대상자별 교육진행 및 출결 관리
- 사전 교육준비 및 교육 강사 관리
- 교육관련 자료수집(영상자료 포함) 및 교육결과 분석, 정리
- 목장 전체행사 진행 및 목장 우수사례 발굴
- 목장소식지 자료 수집
- 사역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교육대상자별 출석부 및 교육자료 준비

b) 행정 스탭(윤현정 집사)

- 마을 촌 운영총무로부터 목장보고서 취합
- 목장보고서 통계자료 입력 및 자료 전송
- 관심대상자 관리(엽서, 주보 발송 및 문자 전송)
- 사역위원회 관련 교회전산시스템 자료 활용 및 출력
- 비상연락망 구축 및 회의소집 연락, 사역위 경조사 연락
- 사역위원회 활동 및 행사비용 결제 및 간식준비

c) 영상 스탭(진미혜 청년)

- 동영상, UCC, 플래쉬 자료 촬영
- 연극, 드라마 팀 섭외 및 진행
- 간증사례 취재 및 영상 편집
- 목장 취재 및 탐방, 행사자료 디지털화
- 교회 홈페이지 목장커뮤니티 운영

d) 편집 스탭(김은혜 청년)

- 목장자료 디자인(홍보, 교육자료 등), 자료편집
- 목장 소식지 편집 및 발간
- 목장 역사(history) 정리

(2) 목장 제반 운영

① 목장 리더의 역할

a. 목자와 헬퍼는 목원들의 개인 이력 및 신상에 관한 사항(가족사항, 나이,

직업, 경력, 특기, 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첨부#1<성수교회교적카드>)

b. 목자와 헬퍼는 목원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주 3회 이상목원들을 위해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새벽기도 참석).
c. 목자는 목원들의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

d. 목자는 목원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예비목자를 집중하여 양성(월 1회 정도는 예비목자가 인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기 리더를 통해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 목자는 목원들의 신앙적 질문에 대해 늘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경의 개관적 이해 및 역사이해, 이단연구, 창조와 진화, 절기이해, 전도훈련 등의 훈련을 적극 지원, 참여하고 개인적인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f. 목자는 늘 목원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도록 목원들과 가까워지는 관계 커뮤니티를 잘 형성하여 한다.

g. 목자는 목원들과 목장모임 전까지 전화 또는 만남,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계속적인 접촉을 시도함으로 관계를 지속시켜가야 한다.

② 목장 매뉴얼 지침

a. 목장에 대하여

a) 목장은 하나의 작은 교회이므로 찬양, 기도, 말씀, 돌봄과 섬김, 양육, 전도, 봉사의 전인적인 나눔과 사역의 장이 된다.

b) 목장모임은 주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다. 단, 연합으로 목장이 모인다거나 교회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될 때 는 사전 공지를 통하여 그 주간에 한하여 목장모임 실시여부를 자율에 맡긴다.

c) 목장모임은 주간 중, 주 1회는 반드시 실시하며, 주간 중 목장 사정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최소한 1일 전)에 마을촌장 및 지역장에게 보고한다.

d) 목장모임 한 주의 시작은 반드시 주일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 및 통계의 기준이 주일이 된다(예-2009년 1월 첫주는1/4~1/10이 됨).

e) 목장모임은 월~토 중 목장 사정에 따라 요일을 조정하여 모임을 가지되, 가능한 주일날은 피하여 모이도록 한다.

f) 목장모임 장소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장소를 교회 및 야외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g) 목장모임은 기본 요소인 환영인사, 찬양, 말씀, 기도, 전도, 실천사항 점검 교제와 나눔의 순서에 의거하여 목자가 매끄럽게 인도하도록 한다.

h) 목장모임 시마다 전도계획에 따른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파악한다.

i) 교제와 나눔의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감사했던 일, 깨달았던 것, 은혜 받았던 일 등을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한다.

j) 목장모임이 다른 모임에 우선하는 1차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가족 같은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b. 목장사역, 행사, 헌금에 대하여

a) 목자는 목장 내 사역을 세분화하여 목원들 각자에게 사역을 분배한다. 이때 목원 전원이 사역을 한 가지씩 맡도록 잘 분담하여 위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한다.

b) 목장 내 사역으로는 찬양담당, 중보기도 담당, 재정담당, 기록담당(목장 History, 사진, 행사내용 정리 등), 새 신자담당(바나바), 행사추진담당, 선교지 담당, 성경읽기 Check 등으로 사역을 배정한다. ☞첨부#2 <목장 내 사역담당자 명단> 목장보고서 앞 표지에 있음

c) 교회행사 및 마을 촌 행사시에 목장에서는 인원을 배정하여 사역을 돕도록 적극 지원한다.

d) 마을 촌 스탭(부장, 총무)들의 자료 및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마을촌장 및 지역장의 목장 탐방에도 문을 개방하여 사역을 돕도록 협조한다.

e) 목장에서는 목장 내 가족들의 단합과 이벤트를 위하여 야외행사(M/T)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 2회까지 목장사역위원장에게 계획서 및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목장사역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검토 후, 회당 10만원을 지원한다.

f) 목장에서의 헌금은 매주 집계하여 목장보고서에 기록하고 교회 예배 시에 목장헌금으로 봉헌한다.

g) 선교헌금은 목장별로 선교지를 먼저 지정하고, 매월 목장에서 결정된 금액과 개별적으로 지정헌금 항목을 통해 교회예배 시에 선교헌금으로 봉헌한다.

③ 목장보고서 작성 및 제출

a. 목장 보고서는 목자 및 헬퍼가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잘 정리하여 주일날 13시까지 마을촌장에게 제출, 보고한다.

b. 해당 주간에 목장이 모임을 갖지 못했거나 연합목장으로 모였을 시라도 목장보고서는 기록되어져야 하며, 모임현황 및 헌금현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해야 한다. 단, 모임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시 못함'이라고 기록하며, 헌금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누계는 정확히 산출하여 기재해야 한다.

c. 목장보고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모임현황(금주/내주), 헌금현황, 목장사역 및 행사현황, 목장신상변동 및 기도제목, 목장모임출결, 주일오전 및 오후예배 출결, 성경읽기 장수(주간/누계), 전도인원(인도/전도) 등이다. ☞첨부 #3 <목장보고서 작성예>

d.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는 완료될 때까지 목자와 헬퍼가 책임지고 주일날 17시까지는 미비 된 사항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e. '목장신상변동/기도제목'란은 결석사유 및 연락처변동, 주소변동, 직장변동, 출장, 기도제목 기재한다.

f. 목장보고서는 주일 예배 후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목자나 헬퍼가 주일 1시까지 마을촌장 또는 마을촌 총무 스탭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g. 마을촌장 또는 총무 스탭은 해당 마을촌의 각 목장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역위원회 교육 스탭(김경재집사, 박상문집사)에게 주일 오후 3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미비 된 보고서는 보완하여 주일날 오후 5시까지는 반드시 제출되어져야 한다.

h. 마을촌에서 사역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시는 해당 주간의 보고서 면을 2

부 복사하여 1부는 해당 마을촌장에게, 그리고 나머지 1부를 사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i. 목장보고서가 복사되고 나면, 해당 목자나 헬퍼에게 목장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되돌려 주거나 교회 꽂이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j. 사역위원회 교육스탭은 목장보고서의 복사된 면을 취합하여 사역위원회 행정스탭에게 당일(주일날) 즉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어느 한 목장도 빠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마을촌 제반 운영

① 마을촌장의 위치

a. 목자 및 목원들과의 관계

- 목자의 역할: 마을촌장은 자신이 속한 목장의 목자 및 헬퍼를 돌보는 목자이다.
- 감독의 역할: 마을촌장은 6-7개의 목장 교회들을 돌아본다.
- 상담자의 역할: 마을촌장은 목장교회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 협동사역자의 역할: 마을촌장은 지역장 및 타 마을촌장들과 동역하는 마을사역자로서 마을촌 및 목장운영에 책임을 진다.

b. 지역장과의 관계

- 마을촌장은 자원 평신도 사역자이지만, 지역장은 전임 사역자이므로 그 관계를 서로 긴밀히 해야 한다.
- 마을촌장은 지역장과 공동사역을 책임지며, 목자를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한다.
- 마을촌장은 목장의 문제점들을 지역장 및 사역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지역장

및 목장사역위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조언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최종 결정자는 사역위원장임).

c. 교회 및 교회 각 부서와의 관계

- 마을촌장 중에서 교회 위원장 및 각 부서의 장은 교회 각 부 담당 교역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목장교회 사역과 교회 부서 사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 마을촌장은 교회적 차원에서 마을촌 사역의 애로점을 언제든지 목장사역위원회를 통해 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마을촌장은 정기적인 마을촌 행사 및 운영진 간담회를 통해 목장교회 사역 정책 마련을 위한 기획과 행사, 의견을 교회에 제시하도록 한다.

② 마을촌장의 사명

- 교회의 비전이 각 목장을 통해 실현되도록 한다.

- 발전하는 목장은 배가되도록 하고, 침체된 목장은 부흥, 또는 잠정적 합병되도록 중간역할을 담당한다.

- 지역장에게는 협력자가 되고, 목자들에게는 격려자가 된다.

- 목장교회의 보고사항과 애로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을 지역장 또는 목장사역위원회를 통해 교회에 전달한다.

- 목장교회가 교회 목장의 운영체제와 비전에 맞도록 운영한다.

- 목장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지역장에게 보고한 후 지역장과 일차적인 해결점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장사역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 지역장 및 목장사역자들과 동역하는 다른 마을촌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도자가 된다.

③ 마을촌장의 역할

a. 마을촌 사역

- 마을촌장은 목자들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적 필요를 돌봄으로써 목자들을 견고히 세워가야 한다.
- 마을촌장은 목장교회가 전도와 배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할 뿐 아니라, 전략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마을촌장은 새 가족들이 목장교회에 정착하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 마을촌장은 목장이나 목자의 문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 마을촌장은 마을촌 끼리의 연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역에 힘써야 한다.
- 마을촌장은 교회의 행정적인 요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b. 목장 운영

- 마을촌장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체 운영진들과 모임을 가져야 한다(가능한 주1회).
- 마을촌장은 하나의 목장을 운영하면서 목장교회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 마을촌장은 목장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반드시 교회에서 선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c. 목장 탐방

마을촌장은 반드시 해당 목장을 방문하여 목자와 목장교회를 격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a) 방문시 점검표(Check-list)

· 목자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 목장모임 순서에 따라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 모든 목원들이 적극적으로 삶의 나눔과 사역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지?

· 예비목자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예비목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 목장 내 사역들이 골고루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태신자 작정카드를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 목장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 배가의 시기를 정해놓고 있는지?

· 목장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지?

b) 방문시 유의 사항들

· 방문 직전에 방문계획을 알린다(의식하지 말 것과 중보 기도의 격려 방문이라고 설명).

· 정시 조금 전에 도착하여 목원들과 인사한다.

· 목장모임에 끝까지 참여한다.

· 목장모임 동안 인도하는 목자를 조용히 지지하고 지원한다.

· 필요하면 나눔에 참여하지만, 목자나 목원들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목자가 모임인도를 잘 못하고 통제 불능의 상황에 이를 때에는 목자의 허락을 받고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다.

· 목장모임 후 목자와 함께하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며 평가 시간을 갖는데, 먼저 목장모임에서 좋았던 점들을 칭찬한 후에 목장교회 모임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틀렸다든지 잘못되었다는 표현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해 보면 어떻겠어요?" 라는 식으로 제안하도록 한다).

· 목장을 방문하고 돌아보아 지원할 사항 및 기도제목, 신앙적 상담 내용 등을 파악한다.

· 목장을 지원하는 마을촌 스탭(부장,총무)들과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여 목자들과 자료를 공유한다. ☞첨부 4# <마

을촌 사역일지>

④ **마을촌 부장의 역할**

- 마을촌 연간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 주간 및 월간, 반기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을 실시한다.
- 마을촌 및 목장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해당 목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및 리서치, 분석을 통해 결과 내용을 다시 목장에 피드백(Feed-back)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다른 마을촌 사례 및 목장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여 다른 목장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 별도계획 수립 후 교육일정 공지 예정

⑤ **마을촌 총무의 역할**

- 마을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 매주일 마다 목장보고서를 취합하여 복사한 후, 목장사역위원에 제출한다.
- 마을촌 행사의 계획서 및 보고서를 목장사역위원회에 제출한다.
- 목장사역과 관련된 자료정리, 행사지원, 설문조사, 연락처 변동사항 등을 정리한다.
- 마을촌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고, 애경사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한다.

* 별도계획 수립 후 교육일정 공지 예정

(4) 목장사역 행사추진 계획

① 플러스(1:1) 전도

a. 개요

- 선포일: 2월 22일(주일)

- 태신자 작정: 1차(3/8), 2차(3/29), 3차(4/19)

- 플러스(1:1) 전도축제일: 6월 28일(주일)

b. 플러스 전도축제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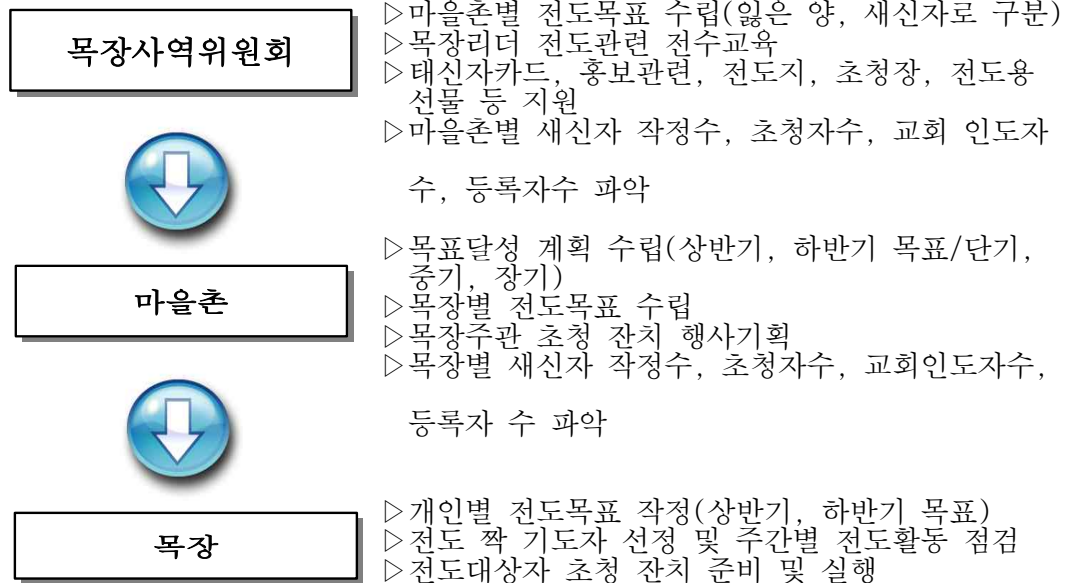
목장사역위원회

▷마을촌별 전도목표 수립(잃은 양, 새신자로 구분)
▷목장리더 전도관련 전수교육
▷태신자카드, 홍보관련, 전도지, 초청장, 전도용 선물 등 지원
▷마을촌별 새신자 작정수, 초청자수, 교회 인도자 수, 등록자수 파악

마을촌

▷목표달성 계획 수립(상반기, 하반기 목표/단기, 중기, 장기)
▷목장별 전도목표 수립
▷목장주관 초청 잔치 행사기획
▷목장별 새신자 작정수, 초청자수, 교회인도자수, 등록자 수 파악

목장

▷개인별 전도목표 작정(상반기, 하반기 목표)
▷전도 짝 기도자 선정 및 주간별 전도활동 점검
▷전도대상자 초청 잔치 준비 및 실행

c. 플러스 전도축제의 특징

- 플러스 전도축제는 목장 또는 마을촌 단위로 새신자를 전도하여 자체 축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플러스 전도축제 초청대상자는 목장 내에 속해 있지만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목원들과 우리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새신자이다.

- 태신자 중에서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교회 정착할 수 없는 사람(해외, 원거리 등)은 중보기도자로 분류한다.

- 태신자 중에서 교회 등록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수교회 미래교인으로 분류한다.

- 2-3개의 목장이 연합하여 전도 축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장사역위와 마을촌에서 적극 지원한다.

- 각 마을촌별로 목표수립 및 달성을 위한 경쟁을 유발하여 향후 마을촌 중심

의 사역운영과 교회의 비전(Vision)을 가시화하도록 한다.

- 매월 1회 전도 동기부여를 위한 간증을 강사초청 또는 영상으로 시청한다.

- 전도 축제를 위한 지원역할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바자회, 이웃돕기 등)를 교회가 주관하여 열도록 한다.

-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성수인의 날’과 ‘플러스전도축제’를, 하반기에는 ‘새생명축제’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도록 한다.

- 새신자가 목장 내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교회 양육시스템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d. 목장별 진행 4단계

a) 1단계 : 기도하는 단계

- 태신자 카드를 작성한다. 태신자 카드에는 중보 기도자와 전도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5명 이상의 전도자를 태신자 카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장 내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짝을 정한다.

- 기도 짝과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한다. 이 때 기도 장소는 교회 또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며, 각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 목자는 목원들이 서로 약속한 시간을 사정에 파악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한다.

b) 2단계 : 1:1 관계를 세우는 단계

- 태신자 카드에 작성한 전도대상자 5명 중에서 기도 짝과 논의하여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2-3명 선정한다.

- 목장에서 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정보 교환한다.

- 대상자를 찾아가 만나고 섬기는 약속을 하고 실행한다.

- 목장에서 대상자를 찾아가 실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발표한다.

c) 3단계: 목장과 함께 관계를 세우는 단계

- 목장에서 전도대상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며 관계를 갖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도대상자가 목장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한다.

- 목장행사를 추진하여 전도대상자가 자연스레 목장모임에 참여하게 하므로 스스럼없이 목원이 되도록 흥미를 유발시킨다.

d) 4단계: 목장에 초청하는 단계(목장초청잔치)

- 목장모임에 초청하여 열린 예배를 드린다.

- 2개의 목장이 연합하여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므로 세상의 모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한다.

- 목장 초청잔치는 마을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주변 장식, 음식준비, 게임, 찬양, 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e. 태신자를 목장에 초청하는 세부 추진 사례

- 대상자를 집에 초청한다(차 마시기, 간단한 식사하기)

-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제시한다.

- 본인을 비롯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생활을 통해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자신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점과 유익을 전한다

- 목장의 열린 모임에 초대해 온다.- 환영(집안 꾸미기)

· 가능한 모든 목장식구들이 참여하고 이웃목장에서 1~2명, 마을촌 스탭 중 1명 정도 참여하면 더욱 좋다.

· 목장에서는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한다.

·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의 변화와 기쁨, 유익, 받은 은혜를 서로서로 나누며 성도로서의 덕목과 긍지를 갖게한다.

· 언행조심, 단정한 복장, 순결한 모습, 농담금지, 극진한 식사대접, 우리 교회의 사회참여 이야기(호박죽 병원방문, 김치나누기, 성탄 쌀, 노숙자 식사대접 등)와 대상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칭찬

· 헤어질 때 목장에서 준비한 간단 선물을 한다.

· 단체사진 촬영(마을촌 스탭이 찍어 줌)

· 계속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 표시- 교회 참석 약속(우리 교회 꼭 한번 나와 보세요!)

② '성수인의 날' (전 성도 출석주일)

a. 개 요

- 일시: 3월 29일(주일)
- 태신자 작정일(3/8)에 잃은 양 찾기 별도 목록 작성

b. 목장중심의 초청

-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 모두 초청
- 목장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장기결석자를 대상으로 초청

c. 목장 주관의 진행사항

- 관심엽서 직접 자필로 쓰기
- 사랑의 내용이 담긴 엽서 보내기
- 기념일 및 생일자 축하 메시지 및 카드 보내기
- 가정 및 직장 방문하기

- 마을촌 및 목장사역위원회에서 도구 지원
- 선물지원 검토

d. 새 가족 양육 및 후속관리

- 목장에서의 계획된 환영식 준비 및 실시
- 1:1 ‘섬김이’ 배정
- 결신 축하 감사카드 발송
- 교회 새 가족 4주 교육과정 등록
- 새 가족 교육 중, 양육서신 발송(4주 내용)

③ 목장 금요 페스티벌(Festival)

a. 개 요

- 일시: 4월 24일(금요일)
- 대상: 전 목장 참여(마을촌별)

b. 내 용

- 청년목장 포함하여 총 7개 마을촌이 참여.
- 마을촌 운영진과 목장사역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세부기획안 마련.
-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더불어 신앙 간증, 축제로 진행
- 상품이 있고, 화목이 있고, 새로운 목장의 비전을 꿈꾸는 내용

④ 목장 축제

a. 개 요

- 일시: 5월 31일(주일)
- 대상: 전 목장 참여(마을촌 별)
- 주관: 목장사역위원회

b. 내 용

- 총 7개 마을촌이 참여.
- 마을촌 운영진과 목장사역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세부기획안 수립.
- 마을촌 별 다양한 주제로 편성(연극, 찬양, 뮤치컬, 판토마임, 유머콘서트 등)
- D-2개월 전에 세부적인 내용 수립 후 각 목장, 마을촌에 전파
- 푸짐한 상품과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⑤ 성경퀴즈대회

a. 개 요

- 일시: 7월 26일(주일)
- 대상: 전 목장 참여(마을촌별)
- 주관: 목장사역위원회
- 담당: 목장부사역위원장(정주용목사)

b. 내 용

- 마을촌 별로 진행
- 전반기 목장 모임지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출제
- 성경의 범위 사전 공지
- 다양한 퀴즈 문제와 ‘벨’(부저) 설치
- 푸짐한 경품 준비 및 골든벨 시상

⑥ 새 생명 축제(대각성 전도)

a. 개 요

- 일시: 10월 25일(주일)
- 주관: 각 목장/목장사역위원회

b. 내 용

- 태신자 초청과 총동원 주일의 복합적 의미를 포함
- 목장과 마을촌 양각 연합구도 체제를 구축
- 태신자 작정(미래교인)의 목표 설정 및 점검
- 관계전도를 통한 접근과 목장 및 마을촌 지원
- 새롭고 다양한 전도용품 개발
- 목장소식지 활용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병행
- 전도훈련학교 개설
- 목장별 효율적인 릴레이 기도 및 금식기도회 추진
- 목장에서 진행되는 관계형성 및 소식지, 카드 발송 지원
- 자료 확보 및 영상 제작, 편집 등 다각화

(5) 목장 리더 교육 계획

① 목장 리더의 은사발견 TEST

- 목자, 헬퍼, 예비목자들의 은사발전 형태 및 동향 점검 후 feed-back
- 새로운 리더 및 리더양성 대상자 은사점검과 feed-back
- 목자에 의한 목원들의 은사점검 활용 전파

② **목장 리더의 세미나**

- 연합목장모임 주간의 주일오후예배 후 진행(목자,헬퍼,예비목자)
- 섬김이 훈련(바나바 훈련), 목장운영Skill 훈련 등 실시
- 연 6회 진행으로 리더로서의 자질 향상 추진
- 목장사역에 접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미나 도입

③ **목장 리더 영성수련회**

- 일시: 9월 1일(주일)
- 대상: 목자, 헬퍼, 예비목자 전체
- 내용: 목자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배가하는 프로그램 설계(특별기도회 등 추진)

④ 2009 목장 교육체계

예비목자 교육과정

▷월 1회, 총 16시간상반기: 2월~5월, 하반기: 8월~11월
▷당해 년도 예비목자로 임명되거나 양성대상자
▷목자의 삶/목자의 임무와 역할/사명과 비전/ 성경 개관/ 기도훈련/목장모임인도RP/타 목장사례분석/ 목장운영체험

⇩

신임목자 교육과정

▷주 1회, 총 16시간8주 Course
▷당해에 목자로 임명되거나, 신임목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목장매뉴얼 이해/소그룹 인도법/새가족교육 (바나바사역)/전도훈련법/서번트 리더십/ 목장사례 적용훈련

⇩

목자/헬퍼 양성 1과정

▷연 2회, 총 4시간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목자1-2년차
▷감성리더십과 갈등관리/대화의 기술/ 효과적인 질문법/상담법

⇩

목자/헬퍼 양성 2과정

▷연 2회, 총 4시간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목자 3-4년차
▷멘토링과 코칭법/OJT지도 및 리더양성/ 효과적인 교수법

마을촌장 인턴 훈련

▷월 1회, 총 8시간 4주 Course
▷마을촌장으로 임명된 자
▷리더양성 훈련법/목장사례분석 연구/ 목표 및 전략수립

열린 세미나

▷정기적, 비정기적 Seminar
▷목자, 헬퍼, 예비목자 및 전 성도
▷성경Seminar, 부부Seminar, 이단Seminar, 창조과학 Seminar, 내적치유Seminar, 가정Seminar, 자녀교육 Seminar, 찬양Seminar

2008 성수교회 목장 리더 세미나(1차) 출석 현황

No	마을촌	목장	목자	1/20	1/21	1/22
1	사랑	열린	김신홍집사	1	0	1
2		기쁨있는	정동일집사	1	1	1
3		다윗	이인성집사	1	1	1
4		면류관	이정선권사	1	1	1
5		찬양	박영자1집사	1	1	1
6		바울	신용우집사	1	1	1
7		예루살렘	유기호장로	1	1	1
8	희락	야베스	박철수장로	1	1	1
9		임마누엘	김경재집사	1	1	1
10		에덴	임희운집사	1	1	1
11		바나바	김송자권사	1	1	1
12		복있는	김계선집사	0	1	1
13		디모데	조경구집사	1	1	1
14		벧엘	이영규집사	1	1	1
15	화평	보아스	서천근장로	1	1	1
16		헵시바	정창호장로	1	1	1
17		이삭	석철영집사	1	1	1
18		노아	이정길집사	1	1	1
19		여호수아	김응수집사	1	1	1
20		온유	변복순권사	1	1	1
21		이스라엘	권영선권사	1	1	1
22	자비	새순	임춘택집사	1	1	1
23		마하나임	최영식장로	0	0	1
24		겨자씨	김용호1집사	1	0	1
25		샬롬	황종렬권사	1	1	1
26		여호와닛시	신순자사모	1	1	1
27		한나	이정금집사	1	1	1
28		밀알	유은자집사	1	1	1
29	충성	사랑	엄재건집사	1	1	1
30		에녹	권시용장로	1	0	0
31		시온	전영준집사	1	1	1
32		에스더	강명숙집사	1	1	1
33		할렐루야	정승자권사	1	1	1
34		여호와이레	허금옥권사	1	1	1
35		소망	이효순집사	1	1	1
36	온유	새길	이득선장로	0	0	1
37		다니엘	권병상집사	1	1	1
38		엘림	하선의집사	1	1	1
39		화목	최재숙집사	1	1	1
40		백향목	방인규집사	1	1	1
41		새롬	정옥희권사	1	1	1
42		에바다	진정순집사	1	1	1
43		나비	조길송목사	1	1	1
			목자참석계	40	38	42

No	헬퍼	1/20	1/21	1/22
1	박상문집사	1	0	1
2	우성숙집사	1	1	1
3	홍경옥권사	1	1	1
4	이차훈권사	1	1	1
5	김녕숙집사	1	1	1
6	유송희권사	0	0	1
7	석현경권사	1	0	1
8	김영희집사	1	1	1
9	오은희집사	1	1	1
10	김유희집사	1	0	1
11	연선례집사	1	1	1
12	이정님집사	0	1	1
13	정은화집사	1	1	1
14	김영아집사	1	0	1
15	송소애권사	1	1	1
16	채형경집사	1	1	1
17	이은화집사	1	1	1
18	이재명집사	1	1	1
19	박 은집사	1	1	1
20	홍광자권사	1	1	1
21	박정순집사	1	0	1
22	박명순집사	1	1	1
23	김지원집사	1	1	1
24	손기순집사	1	1	1
25	고성님권사	1	0	1
26	김문숙집사	1	0	1
27	권옥남집사	1	1	1
28	김영숙2집사	1	1	1
29	윤경자권사	1	1	1
30	전옥희권사	1	1	1
31	유혜숙집사	1	1	1
32	하정선집사	1	1	1
33	박영순1집사	1	1	1
34	김기매권사	1	0	1
35	장인순집사	0	0	1
36	최수환집사	0	1	1
37	윤현정집사	1	1	1
38	이순희1집사	1	0	1
39	김혜경집사	1	0	1
40	김연숙집사	1	1	1
41	김은하집사	0	1	1
42	전제송권사	0	1	1
	헬퍼참석계	36	30	42

No	예비목자	1/20	1/21	1/22
1	윤종혁집사	1	0	1
2	김춘환집사	1	1	1
3	반종복집사	1	0	1
4	서원덕집사	1	0	1
5	김기만집사	1	1	1
6	신문수집사	0	0	0
7	이성렬집사	1	1	1
8	이형래집사	1	0	1
	예비목자계	7	3	7

참석 통계

구분	1/20	1/21	1/22	평균
목자	40	38	42	40.0
헬퍼	36	30	42	36.0
예비목자	7	3	7	5.7
전체(93)	83	71	91	81.7

불참 통계

구분	1/20	1/21	1/22	평균
목자	3	5	1	3
헬퍼	6	12	-	6
예비목자	1	5	1	2
전체(93)	10	22	2	11

출석율 통계

구분	1/20	1/21	1/22	평균
목자	93.0%	88.4%	97.7%	93.0%
헬퍼	85.7%	71.4%	100%	85.7%
예비목자	87.5%	37.5%	87.5%	70.8%
평균	88.7%	65.8%	95.1%	83.2%

4) 2009년 플러스 전도축제

(1) 실천 단계 매뉴얼

◈ 행사명 : 2009 플러스 전도축제

◈ 일시 : 2009년 6월 28일 오전 11시, 오후 3시

(태신자 작정-1차: 3월8일, 2차: 3월29일, 3차: 4월19일)

◈ 표어 : '내게 맡긴 한 생명 나만이 할 수 있다.' '사랑으로 품은 생명 섬김으로 구원하자.

◈ 플러스 전도 축제란? :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은 한 영혼을 더하면(플러스) 두 배의 성장을 가져온다. 플러스 전도축제는 내가 맺은 대인관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면(플러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 비전2000의 플러스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이다.

◈ 행사 방향

- 대상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태신자(미래성수교인)로 선정한다.
- 전도가 가능한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 사람이상 태신자를 정한다.
- 축제일 한 달 전부터는 그 중 가장 가능성 높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도한다.

◈ 실천 단계 매뉴얼

- 1 단계 : 태신자 찾기

☞ 옆집, 이웃집 사람 : 가장 확실한 전도 대상자
☞ 최근에 이사 온 사람 : 쉬운 전도 대상자
☞ 가족 : 인내심과 모범이 요구되는 전도 대상자
☞ 동네가게 : 조건부적인 전도 대상자
☞ 친척이나 친구 : 사랑이 요구되는 전도 대상자
☞ 직장동료 : 삶으로 모범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

· 태신자: "구원의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잠재적 신자"

· 인도 대상자: 작정된 태신자 중에 목장 또는 교회로 데리고 올 사람

· 중보기도자: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 현실적으로 우리교회에 나오기는 힘든 사람.

- 2 단계 : 태신자 작정 및 기도

·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태신자를 작정(1-3명)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영적상태를 작정카드에 기록하여 성경책 속에 가지고 다닌다.

· 작정된 태신자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한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목장모임)

· 작정된 인도대상자를 위해 매일 1회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 기도제목 : 태신자의 마음이 열리고/ 만남을 가질 때 인도하시고 / 전도축제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3 단계 : 태신자와의 관계형성

※ 좋은 이웃되기

· 인사하기(밝게) :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인사하기

· 먹거리 나누기 : 불러다 먹고, 갖다 주고

· 필요 채워주기 : 자녀 돌보기, 이야기 나누기

· 성수인 이렇게 살자 실천하기

· 교인확보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만남을 계속적으로 가지도록 한다.

· 단번에 되리라는 생각보다는 기도하며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 4 단계 : 태신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인도대상자로써 전도하기

※ 가정 방문

· 계속적인 관심을 통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방문시 가벼

운 선물을 준비)

・ 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물만이라도 전달한다. 추후 확인을 통하여 접촉의 기회로 이어간다.

※ 집으로 초청

・ 대상자를 집에 초청한다.(차 마시기, 간단한 다과나 식사하기)

・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제시한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제시한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삶과 그 후 삶의 변화를 전한다 / 복음을 전한다.)

※ 목장모임에 초대한다.

・ 목장 전체가 반갑게 환영한다.

・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기쁨, 유익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자랑한다.(사랑 많음, 목사님 등)

・ 언행조심, 단정한 복장, 순결한 모습, 농담금지, 식사대접, 교회의 사회참여 봉사 이야기, 대상자 칭찬

・ 주일예배참석을 권면하고 할 수 있으면 약속을 받는다.(우리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 태신자 접촉카드 및 태신자 접촉 진행 카드를 작성한다. (양식은 별첨자료 참조)

- 5 단계 : 플러스전도축제 초청하기

・ 안내장 및 초청장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전달한다.

・ 교회 참석을 권면하고 약속을 받는다.

・ 인도대상자의 참여를 위하여 기도와 관계 유지에 힘쓴다.

・ 교회에 초청한다. 가능한 직접 모셔오도록 한다.

- 6 단계 : 초청된 인도대상자 관리 및 미초청된 인도대상자 관리

· 초청된 대상자는 계속적인 예배초청을 통해 믿음이 뿌리내리기까지 관심을 갖고 돌아본다.

· 바나바 사역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 목장모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한다.

· 미초청된 대상자들은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다음 기회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2009 플러스 전도 축제 결과보고

◈ 행사명 : 2009 플러스 전도축제

◈ 일시 : 2009년 6월 28일 오전 11시, 오후 3시

(태신자 작정-1차: 3월8일, 2차: 3월29일, 3차: 4월19일)

◈ 표어 : '내게 맡긴 한 생명 나만이 할 수 있다.' '사랑으로 품은 생명 섬김으로 구원하자.

◈ 예배순서

- 11시 예배 -사회 김용호 목사

· 오르간 전주

· 예배의 부름

· 입례송

· 예배기원

· 신앙고백

· 찬송 29장

· 기도 이득선 장로

· 교독 71번

· 찬송 287장

· 예물봉헌

· 성경봉독 (잠언 1:7)

·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 워십&스킷드라마 (권정순외3명: 내 이름 아시죠, 신민재외3명: 나를 세우신 주)

· 말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 김재규 목사

· 결단시간

· 특송 (주낙현, 김미순 : 하나님의 은혜)

· 교회소식

· 찬송 1장

· 축도

- 3시 예배 -사회 김용호 목사

· 예배부름

· 찬송 301장

· 기도

· 찬송 305장

· 예물봉헌

· 성경봉독 (마태복음 11:28)

·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 주 하나님 지은신 모든 세계)

· 워십&드라마 (권정순외3명: 나의가장 낮은마음, 신민재외3명: 나를 세우신 주)

· 말씀 (위대한 초청) - 김용호 목사

· 결단의 시간

· 특송 (주낙현, 김미순 : 야곱의 축복)

· 광고

· 찬송 1장

· 축도

◈ 안내 및 선물

- 안 내

· 주차 안내: 이기연집사, 신용우집사, 김용호1집사

· 엘리베이터: 김명숙집사, 박복순집사

· 11시 안내

현관 밖- 박동직집사, 정은화집사, 이흥우집사, 유송희권사, 정복선권사, 전옥희권사

계단(안)- 김정님권사

2층 입구- 엄재건장로, 이혜자집사

3층 입구- 권영선권사, 이은화집사

본당 안쪽 뒤-김지원집사, 강명숙집사, 교역자

안쪽 앞- 김대규장로, 권시용장로, 송영만장로

· 3시 안내

현관 밖- 김계선집사, 정은화집사

현관 안- 임희윤집사, 유송희권사, 정복선권사, 전옥희권사,

계단(안)- 김정님권사

2층 입구- 엄재건장로, 이혜자집사

계단- 홍창표권사

3층 입구- 이정선권사, 하선의집사

본당 안쪽 뒤-강명숙집사

안쪽 앞- 김대규장로, 권시용장로, 송영만장로

- 접수부 ,접수자명단

1조: 전정순집사, 김경혜집사

2조: 채형경집사, 김은하집사   도우미: 박상문집사

- 선물

수건(150개)-3개입(하나타올), 금장자수 : 2009 플러스 전도 축제 성수교회

◈ 플러스 전도 축제 목장 참여인원

- 1부(11시) : 71명

- 2부(3시) : 15명

- 총 참여 인원 : 86명

- 교회 출석 결신자 : 51명

- 교회 출석 확정 : 24명

◈ 플러스 전도 축제 지출결산

내　　용	금　　액
홍보비(초청장, 현수막)	853,800원
준비비(무선마이크대여, 써치라이트교체)	236,500원
식비(간식 및 준비자 식대)	203,400원
선물비(수건: 11000×150)	1,650,000원
기타 (감사엽서 구입비)	15,000원
총 합계	2,958,700원

◈ 플러스 전도 축제 평가내용

- 전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 했고 전도 축제 전 목장 축제가 힘을 분산되게 만들었다.

- “한번만 오라”, “선물 주니까 오라” 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청년 초청자 숫자는 선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 1부 예배 참여 성도는 플러스 전도 축제 면제가 아니다. 다음에는 1부 예배를 전도축제 예배로 드리거나 안 드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 오신 태신자들은 적어도 한달은 관리 되어야 한다.

- 안내 및 봉사자들도 전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부터는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인원 외에 사람들을 안내로 세우도록 하자

- 앞으로 전 목장원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 되도록 해서 실제적 새신자의 전도효과가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성수교회 목장 축제 - Musical

◈ 화평마을촌 뮤지컬 공연 시나리오

● 제 목 : 선한 사람 ● 일 자 : 2008. 5. 26 ● 장 소 : 성수교회 본당

● 기획,연출: 정창호 / ● 지도:서천근 / ● 음향:최종웅 /

● 반주:이혜자 / ● 노래:서은영, 서지영 외 합창단

● 등장인물

해설나레이션(김예은), 농부(박은/ 변복순/김응수/서원덕), 탕자(최현규)/ 가족1(이은화/요나)/가족2(석철영)/ 강도(김기만/이정길)/지나가는사람(송영만/서대범/전용술)/ 선한사람(김덕현)/ 주모(채형경)

● 해설 나레이션 - (초등 김예은)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평마을촌은 지난 일주일동안 이 뮤지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연 습도 하였고, 의상이 없어서 동분서주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대사가 기억나지 않고 감정이 우러나오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뮤지컬 공연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 뮤지컬을 보시면서 "뮤지컬이 왜 저래?" "왜 이렇게 못하나?" 라고 혹평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여 드리려는 이 뮤지컬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되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탕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뮤지컬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한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가 나오면 무대의 무대 전체가 밝아지면서 대기한 중창단원이 노래한다. 중창단 뒤에는 여자 농부2, 남자농부 3명이 농기구를 들고 노래에 맞춰 어깨동무를 하며 서 있는다.

(중창단은 흰 블라우스와 검정치마, 농부는 흰 티셔츠, 청바지, 두건, 삽, 호미자루 준비)

● 노래곡 (중창 - 여기에 모인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중창단

● 시작 멘트(서천근 장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화평마을촌의 뮤지컬을 보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탕자와 선한사마리아 비유를 통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어설프고 어색해도 진실한 우리를 보여 드릴게요

오늘 우리 뮤지컬 속에서 주님 뜻을 느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중창단은 무대에서 퇴장하고 농부들만 남는다. 농부들은 나레이션이 흘러나올 때 허리를 굽혀 일 을 한다.

● 해설 나레이션(초등 김예은)

때는 봄. 보릿고개 시절. 모두들 먹고 마시는 일이 힘든 시절에 농부들이 논과 밭으로 나와서 바삐 일을 한다.

나레이션이 끝날 무렵, 합창곡이 저 멀리서 흘러나온다.

● 노래곡 (합창 -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노래가 끝날 즈음, 한 농부가 등장한다.

● 여자농부1(박 은)

(하늘을 쳐다보고,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에구 오늘도 비가 오지 않겠는 걸.”

(호미로 땅을 파다가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한탄한다.)

● 남자농부1(김응수)

(삽으로 땅을 파다가 손을 허리에 얹고)

“하늘만 쳐다보는 내 심정도 쩍쩍 갈라지는 땅과 함께 타들어가네 그려.”

● 여자농부2(변복순)

(다른 농부들을 향하여)

"이 극심한 가뭄으로 보릿고개를 어찌 견뎌야 할꼬"

이때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농부들 사이를 지나가며 비아냥 거린다.

● 탕자(최현규)

"여보시오, 농부들. 새벽부터 밤이 새도록 일을 해도 입에 풀칠이나 하는가?"

농부들이 탕자를 벌레 보듯 또 나타났다는 듯이 서로 쳐다 보며 손가락질 한다. 탕자가 농부들 사이를 다닐 때 마다 치를 떨며 피해 버린다.

(농부들이 피하며 대꾸를 안하자 다른 농부에게로 다가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은전 주머니를 흔들어 보이며)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은전을 주리다"

● 남자농부2(서원덕)

"아니 이보게 탕자! 당신 스스로 부한 체 하나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구먼!"

● 탕자(최현규)

"뭐라?"(가증스럽다는 듯이 배를 움켜 쥐고 크게 웃으면서)

● 남자농부2(서원덕)

"탕자! 당신 게으름으로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면 어찌 하려 이러시나!

● 탕자(최현규)

(돈주머니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돌리면서)

"하늘에서 비 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내 앞에서 살려 달라 엎드리는 것이 더 빠를 걸? "

무리 지어 모여서 탕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근 거리연서 탕자를 향해 노래를 부른다.

이 때 중창단이 합류하여 농부들과 같이 노래를 부른다.

● 노래곡(중창- ~부자인체 말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 탕자(최현규)

(화를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모르며)

"이 더러운 종놈들--"

(분이 나서 온갖 횡포를 부린다.)

농부들은 피하여 달아난다. 탕자는 허리에 찬 술병을 벌컥벌컥 마시며 비틀거린다. 탕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어찌 할 줄을 모른다. 농부들이 모두 퇴장하고 행인들이 하나 둘씩 거리로 모여든다. 많은 행인들이 탕자를 향해 장난도 치며 여러가지 놀림으로 연기를 한다

이때 탕자가 가난한 가족들의 곁을 지나간다

● 가족1(이은화-요나)

(엄마는 아기를 업고 우는 딸아이를 달래고 있다)

"좀 도와 주세요, 우리 아이가 배가 고파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어렵겠어요"

● 탕자(최현규)

"이것 보슈, 부자가 그냥 된 줄 아슈? 당신네들은 게을러서 거렁뱅이가 됐구랴. 아 하하하하"

● 가족2(석철영)

"그런말 마시오. 우리도 예전에는 만석꾼이 부럽지 않았으나 당신 같은 사람 잘못 만나 보증서는 사기를 당해 이리 됐습니다. 그 때 가난한 이웃이나 돌보아 주었으면 이 처지는 면 할 수 있었을 것을…당신도 그만 할 때 남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오. 나 같이 되지 말고"

● 탕자(최현규)

"나 같은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갈 것이니 너나 잘하시오. 으 하하하하"

행인들이 조롱하듯이 찬양한다.

● 노래곡(중창 - 네모습이 처량하다 ~   )

노래가 끝날 무렵, 탕자가 횡포를 부리며 행인들을 쫒아낸다

● 해설 나레이션 - (초등 김예은)

빈 거리에서 탕자는 자기 모습을 생각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행복이 여기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란 말이냐? 아버지 품을 떠나 유산을 받고 마음껏 풍족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이제는,,,이제는,,,

이때 강도2명이 살금살금 뒤로 와서 각목으로 탕자를 내려 친다. 탕자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손을 허우적거리다 쓰러진다.

● 강도1(김기만) / 강도2(이정길)

"어이 옷이 억수로 좋탕께 다 베껴부러"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돈 주머니를 주어서 끌러 보이며)

"왓따메 이게 뭐시다냐? 돈이 겁나게 많당께. 빨리 가지고 후딱 튀어불자 잉."

강도들은 부리나케 사라지고, 탕자는 고통 중에 죽은 듯 쓰러져 있다.

무대의 조명이 한번 꺼졌다 켜지면서 농부들이 지나간다.

● 남자농부2(서원덕)

"사람이 죽었소"

(농부들 들쳐 보더니)

● 농부전체

"탕자요 탕자"

농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 여자농부1(박 은)

(혀를 차며)

"우리를 업신 여기더니 죄를 받는 거여"

● 여자농부2(변복순)

"암, 당연한 업보지 업보여, 자기 생명이 다 한 거지 뭐"

이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행인이

● 선한사람(김덕현)

"비켜 서시오"

그 행인은 쓰러져있는 탕자에 가까이 가서 숨을 쉬는지 엎드려 얼굴을 대 보더니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준 뒤 웃옷을 벗어 감싸 주고 탕자를 부축하나 힘에 부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구 좀 도와주시오.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소"

● 지나가는 사람1,2,3(송영만/서대범/전용술)

하나 둘씩 손사레를 저으며 물러선다

선한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 선한사람(김덕현)

"거반 죽게 된 자요. 좀 살려 주시오. 네, 살려 봅시다."

선한사람은 탕자를 부축하여 이번에는 농부들에게 다가 가서

"그래도 우리 이웃 아니요, 다 죽어 가고 있소. 자비를 베풀어 줌이 마땅하지 않겠소"

● 남자농부2(서원덕)

"거,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모르시오? 일 없수다"

선한 사람이 주막으로 탕자를 데려간다.

● 선한사람(김덕현)

"주모! 이 사람이 거반 다 죽어가오. 주모가 치료 좀 해 주시요"

주모가 황급히 맞이한다.

● 주모(채형경)

"염려 마세오. 그런데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당신은 참 자비로운 분이군요. 이런 탕자를 살리려고 그리 애쓰는 것을 보니- "

● 선한사람(김덕현)

"고맙소, 내가 내일 다시 오리다"

● 주모(채형경)

"걱정하지 마세오. 내가 잘 보살펴 볼게요.."

주모가 부축이며 들어간다

● 노래(중창-)

무대조명이 꺼졌다 다시 켜진다.

-- 다음날 --

● 선한사람(김덕현)

"주모, 내가 값을 치루러 왔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 갚겠습니다."

● 주모(채형경)

"당신은 우리의 가난과 헐벗음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아는 자요, 우리 인생

의 지혜자로 참된 우리의 이웃 이군요. 고맙습니다"

이때 행인과 농부들이 서서히 모여든다. 그리고 탕자도 엉금엉금 기어 나온다

● 탕자(최현규)

"나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당신은 나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이제 새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해 주신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탕자는 선한사람의 손을 잡고 감격해 한다)

● 노래(합창-)

농부들이 모두 나와 탕자를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탕자는 농부들의 부축을 받으며 선한 사람과 사랑의 포옹을 나눈다. 노래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6) 청년 목장 사역에 대하여

청년회에는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아닌 단순한 교제와 나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이었다. 2006년부터 청년회도 소그룹모임 자체를 양육과 훈련을 목표로 하는전인적 소그룹을 하기 위해 새롭게 재정비하고 전인적 소그룹으로 세워가고 있다.

교회는 2003년부터 이전의 구역체제를 목장체제로 바꿔서 작은 공동체로서의 생명력 있는 울타리를 형성하기 위해 교회의 전반적인 양육시스템을 변경했다.

2008년에는 목장사역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목장사역에 대한 비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갔다. 이에 따라서 청년회도 2008년부터 목장체제로 바꿔서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청년회 목장사역이 시작되었다.

(1) 목장사역 이전의 청년사역

목장체제 이전의 청년사역은 단순히 소그룹 나눔의 모임이었고 소그룹의 재편성은 3개월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년회의 소그룹 모임을 전인적 소그룹모임으로 세워나가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훈련되지 않은 리더 (훈련된 리더의 수가 적었다)

둘째는 리더의 잦은 변동(3개월을 한 텀(term)으로 리더의 변동)

셋째는 3개월이라는 짧은 텀(term)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훈련된 리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인적 소그룹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그룹 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멘토로서의 리더가 필요했기에 리더훈련에 많은 시간과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2005년부터는 리더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여 리더와 부리더를 세워나갔다.

소그룹모임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예배였다.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청년들의 성향과 시대적인 예배의 흐름과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예배를 잡아가기 위해 여러 교회들의 예배를 리서치하고 젊은이들의 예배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인 것은 찬양팀의 영성과 수준이었다. 따라서 몇몇 훈련된 찬양팀의 리더와 팀원으로 재구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도하고 3년에 걸쳐 팀원들의 대부분이 예배인도자학교, 평신도사역자과정을 이수케 함으로 영성과 수준을 갖춘 찬양팀으로 세워갈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찬양워십팀을 발굴하고 훈련시킴으로서 생동감있는 찬양예배를 구성하고 열정적인 예배를 준비하여 청년들을 그 예배에 정착시켜나갔다.

이렇게 함으로 소그룹 리더그룹과 찬양팀 그룹(찬양,워십)이 자연스럽게 청년회 사역팀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2) 목장사역을 준비하며

교회는 2003년부터 구역제도가 목장체제로 바뀌었고 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년회는 그 체제로 바뀌지 못했다.

청년회는 장년부의 체제와는 다른 부서라고 여겨지고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청년회의 소그룹 모임 자체가 목장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06년부터 청년회도 목장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교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청년회를 목장으로 변환하게 되었다.

목장사역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청년회가 세워가려는 전인적 소그룹의 목적

이 거의 동일했에 청년회 소그룹을 목장체제로 바꿔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목장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소그룹 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양상이 조금다르다는 것이 문제였다.

청년회의 소그룹은 주일에 한 번만 가지는 반면에 목장은 주일에는 주일예배로 모이고 주간에는 목장에서 목장예배로 다시 모임을 가지며 그 시간에 식탁교제와 더불어 깊은 삶나눔을 통해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소그룹	교회목장
주일에 모임을 갖는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 성도의 가정에서 모임
나눔과 성경공부 형태(예배후에 모임)	예배와 나눔의 형태(목장예배형태)
비슷한 나이로만 편성(지역안배없음)	지역과 비슷한 나이로 편성
일주일에 한번 만남	주일 외에 주간에 모임(주간2회 이상 만남)

이 문제는 아직도 청년회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회의 소그룹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목장이라는 체제로 가져가면서 소그룹 편성의 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다시 6개월에서 1년의 텀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갔다. 또한 리더의 잦은 교체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리더의 수명이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지금은 1년에서 결혼 당해 년도까지로 정하고 있다.

(3) 목장사역으로 전환하고

2008년부터 목장사역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청년회도 본격적인 목장사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청년회의 모든 소그룹이 목장사역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청년목장은 교회의 목장사역에 따라서 그 체계를 따르게 되었다. 교회의 목장사역체계를 따르면서 더욱 강조된 것은 예배사역이 되었다. 예배 이후에 가지는 소그룹모임이 곧 목장모임이 되었기에 예배가 좀더 감동이 될 영감있는 예배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년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청년들에게서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했다. 찬양 팀의 예배준비 회의와 기도회와 리어설, 사역팀의 예배전 중보기도회, 중보 기도 팀의 매일기도회 등 영감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청년부 예배 장소는 비좁은 교육관에서 예배환경이 잘 갖춰진 교회본당으로 옮겨졌다. 예배의 환경은 매우 좋아졌으며 청년들의 예배참여도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예배와 목장이 점차적으로 안정되었고 60명의 대의 벽을 넘어 현재 평균출석이 72명이 넘게 되는 성장을 하고 있다. 청년예배와 목장에 참석하고 있는 청년은 100명을 넘어섰다. 그외에 아직 청년예배에 참석하 못하고 있는 몇몇 청년들을 청년예배와 목장에 참여하도로 하기 위해 그들을 목장의 목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목장의 모델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장사역을 통해서 청년회는 좀더 건강한 작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

다음은 청년회의 예배평균인원과 목장 수의 현황이다.

- 출석통계-

2003년 42명 12개 소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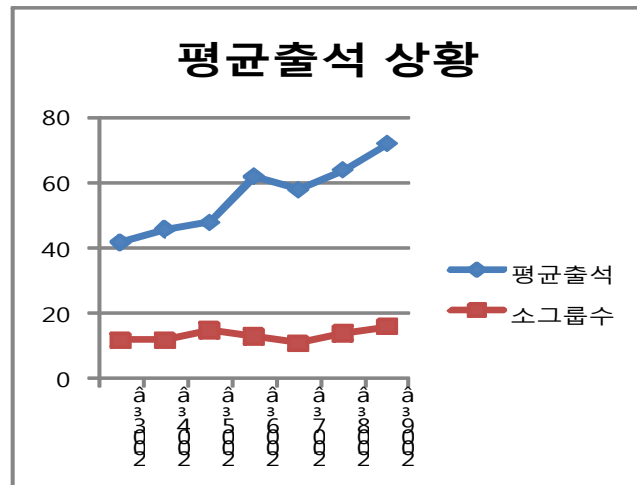
2004년 46명 12개 소그룹

2005년 48명 15개 소그룹

2006년 62명 13개 소그룹

2007년 58명 11개 소그룹

2008년 64명 14개 목장

2009년 72명 16개 목장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체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청년 목장을 위한 대안사역

청년회의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되어 전인적인 치유를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있는 작은 울타리가 되기 위해선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 있다.

목장사역에 맞춰서 훈련된 목자를 양성하여 목장사역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군사로서의 사역자가 절실하다. 교회의 장소가 협소하여 청년회목장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아쉬운 점이기에 소그룹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룸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간 모임으로 목장모임을 전환해 나가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청년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따라며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도 하다.

또한 목장모임을 전도의 소그룹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학생선교회(ccc)의 순모임이 건강한 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도 소그룹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소그룹은 폐쇄된 소그룹이 어니라 열려있는 전도 소그룹이 되어서 목장 안에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있는 체제를 세워나가야 한다.

따라서 목자가 곧 그들의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훈련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훈련된 리더들이 필요하기에 2008년부터는 청년 일대일양육을 새롭게 시작하여 리더들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하고 세워감으로 2010년에는 20개의 청년회 목장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원들도 목장사역에 대한 맞춤형 리더들이 아니기에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건강한 목장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목자의 영적인 수준과 건강이 곧 목장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청년회의 목표는 건강한 영적인 군사로서의 목자를 얼마나 세울 수 있느냐에 청년목장사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7) 목장별 선교분담-2010년 선교지 기도제목

분류	번호	선교지명 (교회명)	기 도 제 목	담당목장
농어촌 22곳	1	덕실소망교회	귀농가족이 교회로 출석하고 지역주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밀알목장
	2	화원중앙교회	교회부흥과 마을 복음화를 위하여	소망목장
	3	주월교회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나목장
	4	초남교회	교회건축이 잘 준비되고 선교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교회되도록	살롬목장
	5	새소망교회	새롭게 시도하는 구역예배가 잘 정착되고 교회 부흥이 응답되도록 하옵소서	겨자씨 목장
	6	가례 벧엘교회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이레 목장
	7	복된교회	심장협심증으로 투병하시는 김연수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벧엘목장
	8	고이 반석교회	지역전도가 활성화되어 복음화가 이루어 지게하옵소서	바나바목장
	9	풍성한교회	교회성전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승리로 지역을 복음화 하도록	화목목장
	10	주는교회	교회 부흥을 위하여, 특히 주일학교 부흥을 위하여	기쁨있는 목장
	11	금호교회	독고노인들의 건강과 그들을 잘 섬기도록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다윗목장
	12	시온교회	제자훈련이 능력있게 되어져 주님의 일군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
	13	상주 이천교회	마을에 우상숭배가 없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 하도록	바울목장
	14	대천 한빛교회	찬양사역, 제자훈련, 문화예술사역, 영어스쿨 사역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도록 하옵소서	행복한목장
	15	서울북노회 농어촌선교부	노회의 농어촌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잘 섬기도록, 많은 교회 참여하기를	
	16	잠실 평안교회	화려한 잠실이름 아래 소외되어 고통 받는 이들에게 도움주는 교회되도록	시온목장
	17	은송교회	신실한 일군, 추수의 일군 보내소서	다니엘목장
	18	대야미 새중앙교회	군포의 끝자리 대야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되게 하소서	벧엘목장
	19	천성장로교회	안면도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천성장로 교회 성전건축을 위하여	새롬목장
	20	진해새생명 교회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떨어지는 경남 지역에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샘물목장
	21	새양문교회	김진옥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행복한목장
	22	월간목회	월간 목회지가 목회자에게 큰 유익되도록	
장애인 2	24	유진벨재단	북한의 결핵환자들에게 결핵약과 각종 의료물품이 지원 될수 있도록	기쁨있는 목장
	25	천양원	지체장애 및 정신 장애우 20여명이	여호수아

곳		(천성교회)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목장
방송 4곳	26	극동방송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와 극동방송이 하나 되어 복음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에바다 목장
	27	창원극동방송	개국 14주년을 맞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과 교회를 섬기도록	백향목 목장
	28	부산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을 통해 지역복음화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29	CTS기독교TV	“농어촌, 낙도, 오지교회 위성 수신기 보내기”를 통해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군선교 4곳	30	군선교연합회	비전 2020운동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새길목장
	31	군선교 (에덴교회)	부대 안전과 복음화 위해, 군부대에 이단들의 활동 중단을 위해	
	32	대전보훈병원	병원사역을 통하여 많은 세례자가 나오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사랑목장
	33	보훈병원	영혼구원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영적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새순목장
국내기관 10곳	23	남북평화재단	이땅에 평화와 통일의 파수군 역할을 감당할수 있도록	여호와닛시 목장
	34	한국침례회 육군훈련소	논산 침례회관의 선교지원이 지속되어 활발한 전도사역이 이뤄지도록	
	35	광진경찰서	경찰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잘 진행되도록	
	36	신안보육원	신안보육원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목장
	37	한국기독교 역사연구회	기독교 문화에 창달과 선교에 기여하는 연구회가 되게 하소서	
	38	새생명(중국) 선교후원회	새 생명 사랑의 집을 통해 중국의 교포들이 한국에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39	대신은퇴 원로목사회	선교후원금이 풍성하여 은퇴 목사님들의 후생복지가 준비되도록	
	40	한국작은교회 살리기	많은 교회들의 사랑의 후원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41	건국대 병원교회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새순목장
	42	Joygospel 청소년선교회	섬기고 있는 각 학교에 예배가 살아나고 학생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해외기관 10곳	43	A.F.C 선교회	선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선교지역을 발견하도록	
	44	T.W.R (북방선교방송)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작업이 정한 시기에 마무리 되게 하소서	이삭목장
	45	월드비전	후원자들의 손길로 굶주리는 세계 어린이들을 지킬수 있도록	
	46	국제예수제자	사랑의집과 마을 복음화, ‘사랑의 동산’을 위해 준비된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여호와닛시 목장
	47	한국세계 선교협의회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48	F.I.M 선교회	국내외 사역자들의 성령충만, 건강 위해	디모데목장

	49	세계복음 선교운동	금년중 북경, 신장신학교 추가 건립되게, 중국내에서도 후원회가 설립 되도록	헵시바목장
	50	길벗중국 선교회	중국의 미래의 일군을 잘 양성하도록, 영적 전투에서 승리 하도록	
	51	선교한국	한국의 기독청년 대학생들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헌신케 하소서	
	52	틴테일 신학대학원	김연택 선교사님의 교수사역, 건강, 교민교회 사역을 후원하는 문제 위해	
해외선교사 27명	53	도미니카	목장보리교회 담임목회자 라파엘과 지네 부부가 사역을 잘 감당 하도록	여호수아 목장
	54	WEC 국제선교회	2010년 주님나라를 위한 기도가 주님의 계획가운데 서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목장
	55	코스타리카	어린이사역과 인디언사역, 전도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겨자씨목장
	56	중국(김순남)	금년 3~4월에 태주와 천진, 운남성과 사천성에 학교를 개교하는일을 위해	디모데목장
	57	터어키(요한)	센터공사가 지속되고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복있는목장
	58	요 르 단	박성미선교사님의 건강과 지혜로 사역 잘 감당할수 있도록	여호와이레 목장
	59	그리스(AFC) 손영삼	미전도 집시종족의 복음화가 가속되도록, 선교사님의 온 가족의 성령충만 위해	보아스목장
	60	파라과이 (곽성건)	빌예따 중앙교회를 통해 마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백향목목장
	61	네팔(김연정)	신학교가 아세아 신학(A.T.A) 연맹에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해	
	62	브라질 (강구희)	주이나 기술학교 팀사역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찬양목장
	63	필리핀 (백삼진)	토착교회개척과 성전건축이 형편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야베스목장
	64	필리핀 (임철수)	미전도 종족 6명에게 신학을 공부하게 하여 산지교회를 맡아 감당할 수있도록	에녹목장
	65	말레이시아 (이정민)	아가페 미얀마학교가 말레이시아 유엔 난민기구에 등록 될 수 있도록	브니엘목장
	66	말레이시아 (이철동)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프로젝트 사업비가 잘 마련되고 해결 되도록	온유목장
	67	태국 (권삼승)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할 장기선교사와 단기선교사들이 들어올 수있도록	할렐루야 목장
	68	미얀마 (김은호)	미얀마에서의 선교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69	몽골(이경준)	전능하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목장
	70	러시아 (박동국)	제13기 SMC선교훈련(선교훈련 중급과정) 을 마친 18명의 온전한 헌신위해	엘림목장
	71	인도(강호경)	선교센터(신학교와 기도원)건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면류관목장
	72	볼리비아 (장형식)	장애인 수송을 위한 차량 구입 위해, 세상의 빛 교회의 성가대 운영을 위해	겨자씨목장

	73	태국(박성준, 김희주)	태국어 언어의 진보를 더 깊게 이루며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마하나임 목장
	74	싱가폴 (정현희)	매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마하나임 목장
	75	네팔(권태웅)	2010년도에는 사역비 부족으로 울지 않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에덴목장
	76	찬양의교회 (안홍기)	북경 사역지를 떠나서 앞으로의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길	디모데목장
	77	멕시코 (전종헌)	어린이중심 사역과 가정회복 사역에 주력하고 아이들의 학교문제를 위해	야베스목장
	78	일본(권해수)	일본에 우상이 물러가고 복음이 잘 전파 되도록 청년 지도자가 많이 양성되도록	브니엘목장
	79	바이사 (몽골유학생)	한국어에 익숙하여 대학원공부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공부하도록	새순목장

2) 연구반의 운영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심야기도시에는 10시 이후에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중요 기획을 위해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갖는다. team장은 정창호 장로가 맡고 리더한다. 그 일지는 “부록”과 같다.

2. 평가 (Revaluation)

1) 평신도 목회자 평가

목회자에 대한 연구 반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목회자의 성격

담임목회자이신 목사님은 사자와 독수리의 성품을 겸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항상 힘과 용기,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만큼 강인한 성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의를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
또한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안목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성도를 대하시기에 성도들은 목사님께 많은 영적 상담을 의뢰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 날개로 알을 품듯이 인자하고 온화한 품으로 성도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살피시고 감싸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큰 등대고 위안이 되고 감동이 되는 분이시다.

(2) 리더십 부문

먼저 목표 지향적인 리더십을 들 수 있다.

담임목회자는 설교, 기도, 선교, 교육, 봉사 등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목포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침을 제시 해준다.

둘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가지고 있다. 성도들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정가능성과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제시하여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되도록 안내해 준다.

셋째는 변화에 민감한 행동하는 리더십이다. 성도들의 심리변화 등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시대를 통찰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계획이 세워지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모범을 보이신다.

(3) 지도력

목사님은 한마디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분명한 목표에 도달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신다.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의 성도가 모이면 목사님의 영향아래 그 능력들이 배가 되는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4) 운영능력 부문

목사님은 무엇보다 성도 개인에게 힘을 실어 주어 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영향력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위임하여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운영하신다.

또한 평신도 중, 전문가적인 측면을 양성하고 교역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임파워링(Empowering)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학문적 부문

성경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도록 가르치신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성경을 통찰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수십 년간 강단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 내 직분자들을 양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성도들에게 쉽게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

또한 교회 내의 교사대학 강의를 맡아 주시고, 히브리어 및 헬라어에 대한 성경 원문이해 강좌와 Seminar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인도하신다.

(6) 사회적 부문

사회적으로 목사님의 영향력은 교회를 많이 이롭게 한다.

국내적으로는 교단 총회장 역임을 통한 교단 내의 제도 및 올바른 기독교적 문화, 교리 정립 등에 힘을 기울여 왔고, 북한선교 활동, 청와대 조찬 기도회 설교 등 국가적인 행사 참여활동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참여에 사명감으로 관심을 가지셨다.

또한 50여 곳의 시골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는 호박죽 전도, 반찬 지원, 노숙자 돌봄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부문에 있어서 사명을 적극 감당한다.

국외적으로는 해외선교사 30여명 파송과 AFC 선교회 이사장의 역임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의 복음전파와 불우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중국선교의 활동을 통해 중국 내 목회자 양성 등을 주도하신다.

(7) 영적 부문

첫째는 말씀을 조명하고 가르치시는 능력이 탁월하다. 말씀선포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

둘째는 기도의 능력이다. 목사님의 주일날 축도 시의 치유기도는 아픈 병자를 치료하고 심리적 불안과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8) 목장을 이끄는 능력

42개의 목장 내의 목자와 헬퍼, 교사들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조율의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리더들인 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목장의 특성에 따라 성도들의 은사에 의한 배치, 그리고 중목장 리더, 지역장을 통하여 계속적인 성장도를 점검함으로써 목장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나간다.

2) 목회자 자신의 평가

목회의 초점을 구역(Cell)에서 목장으로 전환하여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협력사역을 하면서 특히 Site team들이 보는 목회자 관점은 객관성을 갖는 면이 있으나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평가 할 때에 취약점 이 많음을 인식하며 기술코자 한다.

(1) 목회철학

코람데오를 중심으로 축을 이룬다. 체면문화나 외식적 요소를 없애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며, 추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 비전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선교와

제자삼음이 그것임을 인식한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 공동목회를 하는 기초는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형성되었으며 부교역자와 20년 넘게 공동 사역하는 일을 통한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확신하며 한 이간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세워주는 목회관을 갖고 있다.

(2) 섬김의 리더십

고후 4:5의 바울 사상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의 종된 나 바울"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함은 곧 사랑의 종도 된다는 리더십을 갖게 했다. 종이된 지도자 상을 추구하고 모색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

(3) 가르치는 은사

오랜기간 동안(30년) 신학 전문 강의를 통한 훈련과 개발은 역시 이 쪽에 은사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는 명제를 중심하여, 일평생 배우며, 또 배움의 나눔이 가르침을 통한 계속 성장함을 인식한다.

(4) 결단력과 기도의 사람

하루의 전체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자는 모호로 산다. 스스로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기보다 기도 프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를 중시하고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사에 있어 제외 될 만큼 중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개인의 일이나 교회일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5) 개발형

나는 배우기를 좋아한다. 평생 공부에 게으르지 않기를 희구한다. 독서량이 많

고 계속 배움에 참여하여 선진화 세대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개발한다. 설교개발, 인격개발, 선교개발, 프로그램 개발, 학습개발, 성경적 예배 개발, 자기의 은사 및 영역 개발 등 꾸준히 개발한다.

(6) 조화력

원수 맺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 분쟁보다는 친화와 관계의 조화를 중시한다. 하나님은 중재자을 자처한 나의 마음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로 세우셨다. 결국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교회서의 사회적 요소요 잔선한 지상 천국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7) 구령열정

사명감 없이 주의 일은 불가능 하다 함은 기본적 목회자 요소이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잃어버린 영혼 추수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쏟는다. 그것은 성령 절대 의존이라는 당연한 결과이며 생명이 있는 한 이 사명을 다 하리라 다짐 한다.

(8) 행복 목회관

즐거운 목회, 기도가 좋고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고 성도와의 만남이 설레고 가정이 평화스럽고 기도 만능의 믿음, 오직 예수 사상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한다. 때로 이루는 습과과 게으름이 회개 요소이지만, 감격적 목회자 정직하고 깨끗한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품고 목회한다. 조금은 낙천적이고 주안에서 두렴없은 목회를 한다. 나는 행복자 라고 늘 고백하고 감사한다.

V.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1. 목장체계 상황과 발전을 위한 설문과 평가

1) 목장 설문지[433]

A. 목장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1. 목장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이 쉽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2. 목장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3. 목장모임의 메시지 전달방식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1) 대화식 2) 주입식 3) 나눔식

B. 목장모임의 유형에 관하여

1. 목장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잘 모여지고 있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2. 목장모임은 언제 모여지고 있는가?
 1) 월-목 2) 금-토 3) 주일
3. 주일날 모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모이기가 쉬워서
 2) 다른 날은 목원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
 3) 꼭 주간 중에 모이고자 하면 모일 수 있다
4. 모임의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모이는가?

[433] 본 목장설문지는 총 5개의 주제별 항목을 분류하여 선정했다. 그리고 주제별 항목 마다 3개에서부터 8개의 질문을 달아 총 27개의 질문사항으로 구성했다. 주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목장 모임의 교육환경, 목장모임의 유형, 목장의 나눔과 교제, 목장에서 감당하는 선교, 목장모임의 유익이다.

1) 돌아가며 각 가정에서

2) 한 두 가정에 고정으로

3) 교회에서

5. 교회에서 모인다면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함으로

2)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쉬워서

3) 꼭 가정에서 모이고자 한다면 모일 수 있다

6. 목장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성별은

1) 주로 여성이다

2) 주로 남성이다

3) 남녀 혼성이다

7. 남녀 혼성이나 동성끼리 모이는 것에 대하여

1) 동성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

2) 혼성(부부)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좋다.

3) 아무래도 상관없다.

8. 목장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몇 명인가?

1) 2-3명 2) 4-6명

3) 7-9명 4) 10명이상

C. 목장에서 나눔과 교제에 대하여

1.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음식교제를 나누는가?

1) 매번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차나 다과 정도로 그친다

2. 차나 다과에서 그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부담스러워서

2)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서

3)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3. 목장에서 삶의 나눔은 어떠한가?

1) 목원간 격의 없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편이다.

2) 깊은 대화는 없이 피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다.

3) 삶의 나눔은 거의 없고 말씀 나눔 정도 만 있을 뿐이다.

D. 목장에서 감당하는 선교에 대하여

1. 지금처럼 목장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2. 선교헌금을 목장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3. 선교는 목장별로 하지만 선교헌금은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4. 교회가 지금보다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5. 힘은 들지만 성도들이 지금보다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E. 목장모임이 주는 유익에 관하여

1. 목장모임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이 성장되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2. 목장모임이 교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3. 목장모임이 개인이 삶(가정과 사회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4. 목장모임 후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1) 신앙생활 2) 가정생활 3) 사회생활

*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5. 목장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6. 목장리더로서 힘들 때와 기쁠 때는 언제인가?

7.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목장 모임이 되기 위해 현재 무엇이 보충되어야 하는가?

8. 목장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2) 목장 설문조사 객관식 통계

＊ 객관식 문항

A. 목장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1. 목장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이 쉽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71%, 45명) 2) 보통이다(27%, 17명) 3) 아니다(2%, 1명)
2. 목장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1) 그렇다(68%, 43명) 2) 보통이다(29%, 18명) 3) 아니다(2%, 1명)
3. 목장모임의 메시지 전달방식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1) 대화식(35%, 22명) 2) 주입식(5%, 3명) 3) 나눔식(62%, 39명)

B. 목장모임의 유형에 관하여

1. 목장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잘 모여지고 있는가?
   1) 그렇다(78%, 49명) 2) 보통이다(21%, 13명) 3) 아니다(2%, 1명)
2. 목장모임은 언제 모여지고 있는가?
   1) 월-목(29%, 18명) 2) 금-토(52%, 33명) 3) 주일(21%, 13명)
3. 주일날 모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모이기가 쉬워서(11%, 7명)
   2) 다른 날은 목원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30%, 19명)
   3) 꼭 주간 중에 모이고자 하면 모일 수 있다.(13%, 8명)
4. 모임의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모이는가?
   1) 돌아가며 각 가정에서(59%, 37명)
   2) 한 두 가정에 고정으로(11%, 7명)
   3) 교회에서(33%, 21명)
5. 교회에서 모인다면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함으로(22%, 14명)

2)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쉬워서(33%, 21명)

3) 꼭 가정에서 모이고자 한다면 모일 수 있다(16%, 10명)

6. 목장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성별은

1) 주로 여성이다(38%, 24명)

2) 주로 남성이다(2%, 1명)

3) 남녀 혼성이다(60%, 38명)

7. 남녀 혼성이나 동성끼리 모이는 것에 대하여

1) 동성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22%, 14명)

2) 혼성(부부)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좋다.(29%, 18명)

3) 아무래도 상관없다.(40%, 25명)

8. 목장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몇 명인가?

1) 2-3명(5%, 3명)　　2) 4-6명(60%, 38명)

3) 7-9명(24%, 15명)　　4) 10명이상(11%, 7명)

C. 목장에서 나눔과 교제에 대하여

1.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음식교제를 나누는가?

1) 매번그렇다.(67%, 42명)

2) 가끔 그렇다(11%, 7명)

3) 차나 다과 정도로 그친다(22%, 14명)

2. 차나 다과에서 그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부담스러워서(25%, 16명)

2)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서(22%, 14명)

3)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21%, 13명)

3. 목장에서 삶의 나눔은 어떠한가?

1) 목원간 격의 없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편이다.(89%, 56명)

2) 깊은 대화는 없이 피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다.(6%, 4명)

3) 삶의 나눔은 거의 없고 말씀 나눔 정도 만 있을 뿐이다.(5%, 3명)

D. 목장에서 감당하는 선교에 대하여

1. 지금처럼 목장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70%, 44명) 2) 보통이다(17%, 11명) 3) 아니다(10%, 6명)

2. 선교헌금을 목장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33%, 21명) 2) 보통이다(24%, 15명) 3) 아니다(33%, 21명)

3. 선교는 목장별로 하지만 선교헌금은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1) 그렇다(63%, 40명) 2) 보통이다(19%, 12명) 3) 아니다(14%, 9명)

4. 교회가 지금보다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49%, 31명) 2) 보통이다(32%, 20명) 3) 아니다(3%, 2명)

5. 힘은 들지만 성도들이 지금보다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 그렇다(60%, 38명) 2) 보통이다(32%, 20명) 3) 아니다(3%, 2명)

E. 목장모임이 주는 유익에 관하여

1. 목장모임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이 성장되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71%, 45명) 2) 보통이다(27%, 17명) 3) 아니다(2%, 1명)

2. 목장모임이 교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1) 그렇다(75%, 47명) 2) 보통이다(24%, 15명) 3) 아니다(0%, 0명)

3. 목장모임이 개인이 삶(가정과 사회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1) 그렇다(60%, 38명) 2) 보통이다(37%, 23명) 3) 아니다(2%, 1명)

4. 목장모임 후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1) 신앙생활(62%, 42명) 2) 가정생활(27% 17명) 3) 사회생활(13%, 8명)

3) 목장 설문 평가 주관식 통계

* 주관식 문항

* E군 4-1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5. 목장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6. 목장리더로서 힘들 때와 기쁠 때는 언제인가?

7.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목장 모임이 되기 위해 현재 무엇이 보충되어야 하는가?

8. 목장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번호	질문 번호	내 용
1	5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다.
	6	목원들이 다 모이지 못한 때 / 말씀을 나누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술 수 있을 때
	7	목장헌금은 목장에서 관리하는 방안 검토요망
	8	신앙의 성장
2	5	격의 없는 나눔 그리고 기도
	7	기도 모임
	8	영적인 성장과 삶 나눔을 통한 정체성 확립
4	5	예배
	6	목원들의 모임이 많을 때
5	5	예배출석
	7	성령충만
	8	모임
6	5	교제
	8	목장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을 통해 교회생활의 적응을 더불어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5	권면과 기도
	7	새신자들과 친교하기(새신자가 여러목장을 순회하면서 목장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두어 교회의 여러 사람과 친교할 수 있도록 기감을 주는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1달 정도 4개 목장을 예배하면 다른 성도들과도 친해지고 목장 선정을 할때도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전도와 권면
8	5	섬김, 나눔
9	5	교제
10	5	친목도모
	6	목원들이 참여 안할 때
11	5	선불은 분가는 목장의 리듬을 깬다.
	6	잘 안 모일 때, 잘 모일 때, 말씀이 나눠질 때
	7	모임 인원이 5가정 이상 되어야 한다.
	8	변화
13	5	신앙생활 선배들께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깨우침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
	6	교재
	7	목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호응하고 동참해 줄때 기쁘고 반면 불참하거나 호홍이 적을 때 힘들다. (우리 목장은 열심이 동참해 줘서 감사)
	8	기도와 좀더 많으 교제
14	4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말씀밖에 나의 삶을 점검한다.
	5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
	7	목자나 헬퍼에 대한 성경 자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8	성경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되는 삶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도전
15	5	삶속에서 신앙을 적용, 평가해 볼 수 있음
	6	각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때 / 기도의 응답,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며 목원이 성숙해 질때
	7	성경중심 적용방법 /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 필요
	8	신앙의 기초를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나가길

17	4	말씀 보며 실천한다.
	5	목원과 친밀한 교제와 신앙심을 갖게 한다.
	6	시간적 부문이 부담되고 목원들과 나눔을 가질 때가 좋다.
	7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8	하나님의도움과사랑을나눈다.
18	5	목원이 한명도 빠짐없이 잘 모이는 것
19	5	목장 목원이 모이지 않을때
20	6	목원식구 만날때
21	5	말씀 나눔과, 출석률이 중요하다.
	8	신앙의 성숙도와 삶의 변화
22	5	전목원이 열심히 모이는 것
24	5	성도 간의 친교
26	5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목원들의 사절에 의해 모이지 않을 때
27	7	깊은 관심, 뜨거운 열정
	8	기쁨의 예배생활
28	6	목원 모두 모이지 못할때
	8	부흥
30	5	교제
31	5	모이는 일, 시간 엄수
33	5	교제
	7	가정에서의 식탁교제
36	5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
37	8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39	4	많이 모일수록 신앙이 깊어진다.
	5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
	7	빠지지 않고 건강한 모임을 계속 갖는것
40	5	구체적인 말씀 예화
	7	모임 말씀 대화
41	5	나눔의 장으로 서로의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눌수 있는것이 중요
	6	중요한 직장으로 참석 못 하게 될 때 힘이든다
	7	없음
42	4	행동에 있어서 한번더 생각케 한다.
	5	예배(기도,말씀,찬양) 교제(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기에)
	6	목원들의 순종, 불순종
	8	성도들의 자라나는 믿음생활(예배)
43	5	인간관계
44	4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44	5	교제 후 말씀 나누기
	6	본인이 열심을 내지 못할때 / 구역의 일원이 열심을 낼때
	7	기도
	8	활성화, 배가시킴
45	5	출석이다
46	6	많이 모이지 못할 때
48	5	모임의 인원수
	6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목원들의 생각이 괴리가 있을때
49	4	믿음성숙, 성격변화, 가정화목
	5	삶의 나눔
	6	참석이 저조할 때, 목원들의 믿음이 성숙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는

		모습을 볼 때
	8	목장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50	5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것
	6	안 모일때
	8	자기신앙 점검 및 신앙향상
51	5	서로 격의 없는 대화
	6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은혜가 서로 충만할때
52	4	장소가 어디던 기회가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5	목원들간의 친교
	6	목원들 중 참석하지 안하는 성도가 참석 해주길 바란다.
53	5	교제와 기도, 삶의 나눔
	6	목원들의 신앙이 자랄때
	7	재정이 부족 합니다.
	8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
55	5	교제와 화목과 스스로 배움이 된다.
	6	변화의 의지와 적극적인 동참의지와 참여의식이 필요합니다.
	7	온가족이 빠짐없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날에 되었으면 합니다.
56	5	삶의 나눔
	6	가족으로 느껴질때 참석인원이 적을때
	7	선교에 적극참여 필요
	8	상대방에게서 삶의 장점 배움
57	4	가정이 행복해졌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5	찬양과 기도
	6	목원이 잘 안 모일때 / 기쁠때는 목원이 변화하여 생활 할때
	7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
58	6	목자
	7	목원
	8	목원
59	5	교제와 말씀
	6	힘들 때(교회생활 오래 하던 목원의 출석이 저조할 때), 기쁠때(목원들이 기대이상 많이 모였을 때)
	7	목장모임이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함(교회차원에서 계속적인 광고)
	8	전도와 영적 충만
60	4	말씀과 기도 생활에 활력이 되고 그 시간들의 늘어나고 있다.
	5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와 말씀을 나눔
	7	1) 교회 4주후에 목장에 들어올때 교회에서 더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줬으면 2) 부족한 목자들에 대한 교육 3) 신앙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
	8	신앙생활의 활성화와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61	5	삶의 나눔
	6	정해진 모임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7	목장모임의 필요성 인식
	8	말씀을 통한 삶은 나눔으로 회복이 일어남
62	5	식사나눔
	6	믿음 없는 자가 직분자로 성장했을때
62	7	목원
	8	교회 정착자(직분자) 양성
63	5	목원 간의 친밀감
	7	참석율

4) 성수교회 목장체계 운영 사례 분석과 대책

본 성수교회는 2003년을 기점으로 기존 '구역체계'에서 '목장운영체계'로 변화하였다. 그 이유는 목장사역이 성경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인 요구이며 사도행전적 교회의 회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기존 구역 체계와 달리 목장은 작은 교회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기능과 사명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체계라는 것이다.

목장체계로의 변화는 그다지 쉽지 않았다. 기존 구역과 목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목장 스텝들에 대한 교육적 편차가 큰 문제로 다가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장개념에 대한 혼동과 기존 구역으로의 회기를 막고 목장모임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하여 샘플목장을 세우고 그것을 모델로 기존에 있던 구역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갔다. 또한 목장의 스텝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각 개인의 교육적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 되어져 갔고 약 3년 정도 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목장체계로의 변화가 본 교회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본 설문조사는 목장의 스텝(목자, 헬퍼, 예비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63명이 무기명으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특정항목은 복수선택(E군-4)이나 지정된 대상(E군-6)이 응답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주관식 문항을 통하여 객관식 문항을 보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설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힘썼다. 설문결과에 나타나는 백분율은 반올림현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밝힌다.

첫 번째로 먼저 목장 모임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환경[434]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목장모임 중에 전해지는 말씀의 전달과정과 그 말씀을 통한 유익(은혜)에 대하여 63명 중 45명(71%), 43명(60%)의 응답자가 1번(그렇다)을 택하였고 2번(보통이다)을 택한 응답자는 17명(27%), 18명(29%)이다. 3번(아니다)을 택한 응답자는 각각 1명(2%)으

[434]목장 설문지 A군에 속하는 항목들을 말한다.

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는 나눔식(39명/62%)과 대화식(22명/3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환경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목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특성인 관계를 통한 교육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 방식보다는 쌍방이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나눔식과 대화식 전달 방식을 선호함으로 내용 전달의 효율성과 유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목장모임의 유형[435]에 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목장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잘 모여 지고 있다는 항목에서 1번(그렇다)을 택한 응답자가 63명중 48명(78%), 2번을 택한 응답자는 13명(21%)으로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잘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목장 모임이 모이는 가[436]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중에 목장모임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며(51명/81%) 주초(18명/29%)보다는 주말(33명/52%)에 더 많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장모임에서 지양하는 주일모임 (13명/21%)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목원들 간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19명/3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임장소[437]에 대한 항목에서는 1번(돌아가며 각 가정에서 모인다)이 63명 중 37명(57%)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으로 3번 (교회에서 모인다)을 21명(33%)이 선택했다. 2번 "한 두 가정에서 고정으로 모인다"고 응답한 사람은 7명(11%)이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2번(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쉬워서)이 21명(33%)로 가장 많았고 1번(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을 14명(22%)이 선택을 했다. 그러나 이중에서 10명(16%)정도는 가정에서 모이는 원칙을 지킬 수 있음에도 주일모임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목장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성별에 대해서는 먼저 주로 남녀 혼성(38명/60%)으로 모이고 그 다음으로 여성들로 구성된 모임(24명/38%)이 이루어지고 있음

---

[435]목장 설문지 B군에 있는 항목들을 말한다.

[436]주중에 목장모임을 갖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일에 목장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437]목장의 일원인 목원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 알 수 있다. 그런 비율에 대한 반응으로 혼성으로 모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고 한 응답자가 25명(40%)이고 2번 “혼성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좋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8명(29%)이다. 1번(동성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을 택한 사람도 14명(22%)으로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 목장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4-6명(38명/60%)이 가장 많고 7-9명이 15명(24%)으로 두 번째이다. 2-3명이나 10명이상 모이는 목장은 각각 3명(5%), 7명(11%)이 응답했다.

목장모임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 각 목장이 정한 시간에 모임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주중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목장이 주일에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목원들 간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상황으로 인한 원칙의 깨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편한 시간에 모이고자 하는 생각들이 전제로 깔려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상황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시급히 계선 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 각 목원들의 가정을 돌면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는 교회에서, 한두 가정에서 고정적으로 모이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쉬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그중에서 꼭 가정을 돌면서 모임을 가져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쉬워서”라는 응답을 더욱 신빙성 있게 함과 동시에 목장 모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선되어 져야 하고 동시에 계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항목인 목장모임을 가짐에 있어서 모임의 구성원들에 대한 응답으로 남녀 혼성(부부)으로 모이는 목장과 여성만 모이는 목장이 주를 이루었다. 성별의 구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혼성(부부)으로 하자는 의견이 그 뒤를 차지했다. 이것은 혼성(부부)으로 모이는 것이 원칙인 목장의 특성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결과이고 일부 특수한 목장이 동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예외적 사례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즉 목장모임의 원칙인 혼성(부부)으로 모이는 것이 인식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으며 예외 사례를 통하여 자칫 목장모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원들을 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목장모임은 대부분 4-6명이 모이고 7-9명, 10명 이상 모이는 목장도 있다. 그러나 2-3

명의 적은 숫자가 모이는 목장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목장의 부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편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목장에서 진행되는 나눔과 교제[438]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음식교제를 나누는 가"[439]에 대한 물음에 1번(매번 그렇다)을 택한 응답자가 63명중 42명(67%)이었고 3번(차나 다과로 그친다)을 택한 응답자가 14명(22%)이였다. 2번(가끔 음식교제를 나눈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명(11%)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번(부담스러워서), 2번(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서)이라고 한 응답자가 각각 16명(25%), 14명(22%)이었고 3번(하고자하면 할 수 있다)을 택한 응답자도 13명(21%)이었다.

목장의 교제에 가장 핵심인 삶의 나눔에 대한 결과는 1번 (목원간 격의 없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편이다)을 택한 응답자가 56명(89%)이었고 2번(깊은 대화는 없이 피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다.), 3번(삶의 나눔은 거의 없고 말씀 나눔 전도만 있을 뿐이다)이 각각 4명(6%), 3명(5%)으로 나타났다.

목장에서 진행되는 나눔과 교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한다면 대부분의 목장이 음식교제를 하고 있지만 일부 목장이 부담스럽거나, 편리성 때문에 차나 다과 혹은 음식교제 횟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만을 놓고 본다면 음식교제의 원칙을 깨고 있는 일부 목장들의 나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목장 안에서 나누어지는 삶의 교제에 대한 설문결과를 종합한다면 그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즉 목원간 격의 없이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56명/89%) 목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음식교제를 함에 대한 실제적 목적인 자연스러운 삶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 차나 다과를 나누거나 음식교제의 횟수를 줄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럼으로 전체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식교제에서 삶의 교제로 이어지는 빈도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피상적 대화나 말씀나눔 정도로 그치는 목장도 일부 있었기에 그 부분을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목장에서 감당하는 선교[440]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지금처럼 목장이

[438]목장 설문지 C군에 있는 항목들을 말한다.

[439]목장모임 중 음식교제(식사)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교를 감당[441]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1번(그렇다)을 택한 사람들이 44명(70%)이었고 2번(보통이다)은 11명(17%), 3번(아니다)은 6명(10%)이었다.

선교헌금을 목장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번과 3번(각각 21명/33%)이 동률을 이루었고 "선교는 목장별로 하지만 선교헌금은 개별적으로 드리자"는 의견에 대하여 1번(그렇다)을 40명(6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2번(보통이다)을 선택한 응답자도 12명(19%)이었다.

교회가 지금보다 선교를 더 감당해야 한다는 물음에는 1번(그렇다)을 택한 응답자가 31명(49%)이었고 2번은 25명(40%)이었다. 3번 아니다를 택한 응답자도 5명(8%)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는 1번이 38명(60%), 2번이 20명(32%), 3번이 2명(3%)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목장이 실시하는 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각 목장이 담당 선교지를 정하고 그 목장을 통해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하지만 선교헌금이 개별적으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각 목장에서 감당하는 선교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후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선교에 규모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현재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넓히는 방향을 선택함으로 선교에 대한 방향이 각 목장에서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긍정에 대한 수치가 높지 않다는 것이 선교적 발전성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과하고 선교적 발전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목장 모임이 주는 유익[442]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신앙성장의 유익에 대한 물음에는 1번(그렇다)이 45명(71%)으로 2번(보통이다)이 17명(27%)로 나타났으며 3번(아니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명(2%)이었다. 교회생활 적응에 대한 부분은 47명(75%)이 1번을 15명(24%)이 2번을 택하였다. 개인의 삶에 변화에 대한 부분도 1번은 38명(60%), 2번은 23명(37%)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변화된 내용에

---

[440]목장 설문지 D군에 있는 항목들을 말한다.

[441]각 목장이 한 선교지를 감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2]목장 설문지 E군에 있는 항목들을 말한다.

대한 구체적 의견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그것으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관계의 계선과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도나 기도 생활에 대한 변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목장 모임의 유익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대체적으로 목장 모임을 통하여 생활(교회, 사회, 가정) 전반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결과는 생활 전반에 걸쳐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별히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항[443]에 대한 평가를 하면 목장모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자 대부분이 나눔과 교제를 강조하였다. 특히 신앙의 나눔을 통한 도전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과 교제가 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목장리더들이 가장 힘들 때는 목원들이 잘 모이지 않을 때로 나타났다. 즉 목장을 관리하고 목원들을 양육하는 목장리더들의 고충으로 이런 고충들이 해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목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목장리더가 기쁠 때는 나눔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앞의 설문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나눔과 교제를 통한 유익이 목장리더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장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가장 부합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두드러지는 것 두 가지는 기도에 힘쓰는 것과 목장모임 인원배치와 출석률이었다. 소수의 의견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새신자들의 친교에 대한 부분이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과 그것을 위하여 새신자들이 목장을 돌면서 나눔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이것은 새신자가 목장에 대한 여러 상황과 사람,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목원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목장모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

[443]목장 설문지 E군에 5-8번 문항까지의 내용을 말한다.

장 켰다. 말 그대로 목장모임에서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하여 성장과 변화를 더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설문에 대한 내용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다. 즉 목장의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나눔과 섬김이 생활 전반에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또 성장과 변화를 목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각 목장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선교적 전망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목장의 원칙들이 편의에 의하여 깨어지거나 변형되는 문제들과 목장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적절한 인원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문제, 특히 개인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목장의 부흥으로 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이 드러났다.

그럼에서 불과하고 목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가 좋다고 해서 설문을 통해 들어난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 없기에 분명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두날개 양육 시스템이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은 지금 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장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 것임과 동시에 본 교회 목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증거가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풍성한 교회[444]와 그 시스템을 도입한 많은 교회들의 실제적 사례들에서 나타난다. 그럼으로 본 교회는 2010년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한다.

[444]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합동측 교회로 담임은 김성곤 목사이다.

2. 결과와 방향제시(2010 성수교회 열린 모임 비전)

1) 비전

(1) 2010 행복 나눔 축제[445]

① 행사개요

◈ 행사명 : 2010 행복나눔축제

◈ 일시 : 2010년 4월 25일 오전 11시 오후3시

태신자 작정: 1차/ 2.7 , 2차/2.28

◈ 표어 :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사랑으로 품은 생명 섬김으로 구원하자.

◈ 행복나눔 축제란?

잃은 양과 태신자를 동시에 성도 한 사람이 3명의 태신자를 정하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1명을 베스트(best)라고 부르며 베스트1명에게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어 감으로서 행복나눔축제에 초청한다. 또한 장기결석자에 대해서 3인 1조가 되어 관계를 맺어 감으로서 교회에 적응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행복나눔축제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 진행 방향

- 대상은 가까이에 잇는 사람들 가운데 태신자(미래성수교인)로 선정한다.
- 1차 작정에서 태신자 3명씩 정하여 관계를 열고 가장 유력한 1명을 Best로 정한다.
- 1명의 베스트는 행사 2개월 전에 정한다.
-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부터 정중하게 초대한다.
- 정해진 베스트에 대해서는 열린모임 관계전도를 적용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관계를 맺어간다.

[445]현재 진행중인(4월25일) 행사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만 첨부함

- 축제 이전이라도 교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전에라도 교회로 초대한다.
- 축제 당일에는 반드시 찾아가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초대 대상은 1차 작정의 3명 모두를 초대한다.
- 베스트는 태신자 베스트와 장기결석자 베스트로 정한다.

◈ 진행방법
- 각 지역장의 지도하에 목장별로 진행한다.
- 각 목장은 3인 일조를 만든다.(부부는 조에 속하지 않는다)
- 각 목원은 태신자 3명을 정하고 후에 1명의 베스트를 선정한다.
- 베스트에 대한 관계 열기는 계획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며
- 3인1조가 필요에 따라서 함께 합력한다.
- 서로(조원)를 소개함으로서 좀더 관계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신의 베스트를 점검하여 베스트 카드를 작성한다.
- 행복나눔축제에 정중하게 초대한다.

② 베스트 카드

나의 베스트를 위한 기도제목

1.기도하기

나에게 구령의 열정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2.관계맺기

베스트의 필요가 채워져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소서

3.초청하기

베스트가 열린 모임과 영혼추수주일에 올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 주소서

4.번식하기

베스트가 결신하고 등록하고 정착하여 열린가족이 되게 하소서.

나의 태신자

- 성 명 -

①____________ ②____________

③____________ ④____________

⑤____________ ⑥____________

⑦____________ ⑧____________

작 성 자

- 작 성 자 -

성 명 ________ 직 분 ____

소 속 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

나의 베스트

(베스트 1)

성 명 __________성 별 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

(베스트 2)

성 명 ____________ 성 별 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

(베스트 3)

성 명 ____________ 성 별 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

③ 태신자 작정 카드

효과적인전도대상자찾는법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첫번째 이유는 친구나 친척의 초대 때문이다.[홍보 2%, 조직적인 방문 6%, 목회적 정착 6%, 친구나 친척의 초대 86%] 평소에 우리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 나의 태신자 정하기 > 성명: 목장

나의 관심의 대상	이 름	순 위	나의관신의 대상	이 름	순 위
아버지			빵가게 주인		
어머니			아이들 선생님		
남편			의사		
아내			치과의사		
아들			약사		
사위			간호사		
딸			검안사		
며느리			미용사		
자매			볼링상대		
형제			치킨집 주인		
사촌			치킨집 배달원		
계모(계부)			식당주인		
처남			식당배달원		
처제			이웃 1		
시아버지			이웃 2		
시어머니			이웃 3		
할아버지			친구 1		
할머니			친구 2		
외할아버지			친구 3		
외할머니			결혼 대상자		
숙모			직공		
삼촌			변호사		
조카			은행직원		
남자친구			학교친구		
여자친구			사업가		
과거의 고용주			운동모임		
사장			정치그룹		
상사			조합원		
동료			아이 봐 주는 분		
함께일하는사람			경찰		
이발사			쓰레기 수거인		
수퍼주인			기타		
나의 태신자 적기					

④ 잃은양 찾기 작정표

< 잃은양 찾기 작정표 >								
______________________ 목장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	휴대폰	직업	출석상태
1		남 / 여						
2		남 / 여						
3		남 / 여						
4		남 / 여						
5		남 / 여						
6		남 / 여						
7		남 / 여						
8		남 / 여						
9		남 / 여						
10		남 / 여						

출석상태: 1) A 타입 - 1년 이상 장기 결석자 2) B 타입 -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3) C 타입 -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4) D 타입 - 주일예배출석, 목장예배불출석
5) E 타입 - 목장예배출석, 주일예배 불출석

(2) 2010 성수교회 열린 모임 비전

① 일정계획

* 일시: 2월 28일 - 3월21일 / 오후: 4시30분 - 7시

* 장소: 성수교회당

② 교육순서

a. 세부 진행 계획

시간(pm)	내용
4시30분-4시50분	orientation
4시50분-5시50분	1교시
5시30분-6시	쉬는시간
6시-7시	2교시

b. 주별 진행 계획(총 4회)

1주차 (2월 28일) - 1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임이다.
2과 복음과 비전을 품고 나누는 모임이다.
2주차 (3월 7일) - 3과 열린모임은 소그룹 전도운동이다.
4과 열린모임은 소그룹 기도 전도운동이다.
3주차 (3월 14일) - 5과 열린모임은 소그룹 관계(오이코스) 전도운동이다.
6과 열린모임은 소그룹 배가 번식운동이다.
4주차 (3월 21일) - 7과 열린모임 인도 법,
8과 백지 전도 법

③ 주별 교육 내용

a. 1주차, 2월 28일

* 1과 : 복음의 능력 (눅 4:18,19)

<서론>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인 필요한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승리이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깨닫는 순간 엄청난 영적 대혁명을 체험하게 된다.

<본론>

1. 복음이란 무엇인가? (눅 4:18-19, 골 2:12-15, 롬 1:16-17, 요일 3:8, 갈 3:13-14, 요 16:24)
2. 사단은 어떻게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하는가?
3. 승리의 생활을 위해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요 10:28-29, 막16:17-18, 마 28:18, 요 16:24, 벧전 2:24, 고후 8:9)
4.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5. 복음을 소유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6. 복음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결론>

적용 및 기도

* 2과 복음과 비전(행 1:8)

<서론>

시대를 따라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왔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진지하게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본론>

1. 다음 말씀 중 성도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막 16:15, 마 28:19, 행 1:8, 마 24:14)

2.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약 4:13-16)

3.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막 16:15, 마 28:19, 마 24:14, 행 1:8)

4. 복음전파란 무엇인가?

5. 전도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롬 1:14, 고전 9:16, 요 15:8, 단 12:3, 빌 4:3, 막 10:29-30)

6.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막 1:15, 요일 3:8, 막 3:13-15, 마 28:18-20)

7. 예수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전략을 가르쳐 주셨다. (마 28:18-20)

8. 지금부터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요일 5:13, 마 9:37-38, 눅4:18-19, 마 24:14)

<결론>

적용 및 기도

b. 2주차, 3월 7일

* 3과 : 열린모임은 소그룹 전도운동이다(행 19:8-10)

<서론>

기독인들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전도소그룹을 통해 복음이 부풀어져 갔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복음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론>

1. 하나님 나라는 작은 운동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 13:2-50)

2. 소그룹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전략이다.
(마 4:18-25, 막 1:14-20, 마 10:1, 눅 10:1, 마 18:20, 요 1:40,
막 3:13-15, 마 28:18-20, 행 13:3, 행 16:1-3, 행 17:1-3, 행 18:1-4, 딤후

2:1-2)

3. 현대의 복음전도사역도 소그룹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눅 9:37-43, 눅 5:1-11, 마 4:19, 마 10:5-14, 마 12:28-30, 행 5:42)

4. 팀으로 전도할 때의 유익은 무엇인가?

5. 소그룹을 통해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말해보라. (행 2:43-47)

6. 소그룹 전도 운동은 주님의 명령이다

(마 28:18-20, 마 13:52, 행 15:27, 행 15:22, 막 16:20, 행 18:4-5)

<결론>

적용 및 기도

* 4과 : 열린모임은 소그룹 기도 전도운동이다(마 18:18-20)

<서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우리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본론>

1. 기도의 무기와 영적자원들이 무엇인가?

(눅 9:1, 요 14:14, 히 10:9, 단 9:3, 마 16:19)

2.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눅 11:13, 히 1:14, 에 4:14, 행 10:1-19)

3.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과 부흥은 무엇인가?

(눅 9:28, 출 17:11-12, 약 5:16, 신 32:30, 마 18:20, 전 4:9, 전 4:12, 행 2:41-47, 행 4:31, 골 4:3)

4.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합심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합심기도의 모습과 능력을 찾아보자.

(행 1:10-14, 행 4:23-31, 행 16:19-26)

5. 소그룹으로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 소그룹,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15:5-8)

6. 기도생활은 인생과 전도에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출발점이다. 매일 그들

의 맴버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은 일주일 에 한번 기도하는 소그룹보다 2배나 빠르게 성장한다.

<결론>

적용 및 기도

c. 3주차, 3월 14일

* 5과 : 열린모임은 소그룹 관계(오이코스) 전도운동이다(요 1:39-42)

<서론>

오이코스는 우리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에서 한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다. 오이코스는 곧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다. 이처럼 오이코스 전도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관계중심 생활전도를 말한다.

<본론>

1.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이다.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된다. (마 22:37-40, 요 14:6, 요 5:19-20, 마 11:27)
2. 가장 좋은 전도방법은 관계에 의한 전도이다

친구 혹은 친척, 이웃	75%-90%	자발적으로	2%-3%
목사	5%-6%	가정심방	1%-2%
주일학교	4%-5%	특별한 필요	1%-2%
교회프로그램	2%-3%	대전도집회	0.5%

<교회성장 연구소 : 당신을 하나님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1400명 대상>

3.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베스트(태신자)를 섬길 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
5. 관계 맺기 6단계

1단계 관계맺기 : 베스트와 차 마시기

2단계 관계맺기 : 베스트에게 간단한(부담스럽지 않은) 선물하기

3단계 관계맺기 : 베스트와 식사하기

4단계 관계맺기 : 베스트 섬기기(베스트의 필요 채우기)

5단계 관계맺기 : 베스트 섬기기(베스트의 필요 채우기)

6단계 관계맺기 : 베스트와 식사하기, 감동적인 선물하기

6. 열린 모임은 관계성의 흐름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환영(인간 대 인간) - 경배(인간 대 하나님) - 말씀(하나님 대 인간) - 증인(그리스도의 몸 대 세상)

7. 베스트의 마음을 열도록 나의 신앙 간증을 준비하자. 사도행전 26:1-23의 사도 바울의 간증은 개인 간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 간증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겠는가?

(믿기 전 삶 -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과 경위 - 만난 후의 삶)

<결론>

적용 및 기도

* 6과 : 열린모임은 소그룹 배가 번식운동이다(창 1:28)

<서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다. 한명씩 더하기 전도에서 배가 번식 전도로 전환하기를 원하신다. 폭발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1개의 열린모임이 앞으로 18년 동안 한 해 1번씩 번식하면 262,144개의 셀이 되어 세계비전을 이루게 된다.

<본론>

1. 21세기의 인구는 폭발하고 있다. 영혼추수를 위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년도	인구	기독교인	불신자수(현상태유지)	불신자수(1/3유지)
2009	60억	20억?	40억	40억
2025	80억	?	60억	53억
2050	93억	?	73억	62억

2. 열림모임의 배가 번식을 통해 인구폭발을 대비하자.

년	열린모임	배가수	년	열린모임	배가수
1	1	2	10	512	1,024
2	2	4	11	1,024	2,048
3	4	8	12	2,048	4,096
4	8	16	13	4,096	8,192
5	16	32	14	8,192	16,384
6	32	64	15	16,384	32,768
7	64	128	16	32,768	65,536
8	128	256	17	65,536	131,072
9	256	512	18	131,072	262,144

3. 번식은 우리의 절대 사명이다. (창 1:22, 창 1:28, 요 15:8, 마 13:33)

4. 성경에 나오는 배가번식의 예를 살펴보자

(요 1:40-42, 요 6:8-9, 요 12:24, 행 2:37-47, 행 8:1-4, 행 10:44-48, 행 11:22-26, 행 13:1-3, 행 4:36-37, 행 11:22-26, 딤후 4:11, 행 18:24-28, 딤후 2:2)

5. 전도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성경적인 배가번식의 기적은 무엇인가?

(마 13:33, 마 13:31:32, 마 13:44-46, 마 13:47-49)

6. 열린모임의 번식을 위한 지침은 무엇인가?

7. 배가번식을 일으키기 위한 재생산 사역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행 20:24, 골 1:24, 단 12:3, 딤후 4:8)

<결론>

적용 및 기도

d. 4주차, 3월 21일

* 7과 : 열린모임 인도법 (요 6:63)

<서론>

사역자가 말씀을 듣고 열린모임에 나아갈 대 전도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 주님음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거부하는 자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과 감동, 충격을 주었다. 지금도 전도의 현장

에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본론>

1. 주님은 사람들의 숨은 갈등과 고통을 아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마 9:36, 마 11:28, 요 2:2-11, 요 3:1-16, 요 4:1-26, 요 6:1-14)

2. 열린모임의 말씀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딤후 3:16-17, 골 1:28-29, 행 8:26-39, 행 2:37-38)

3. 말씀사역은 이렇게 하라.

(행 3:11-26, 빌 3:17, 막 9:23, 마 9:35-38, 롬 1:16-17, 행 20:24, 고전 11:1)

4. 열린모임의 확실한 목적 성취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요 6:63, 행 16:25-26, 롬 8:14, 빌 3:1)

5. 열림모임의 현장을 무엇으로 장악할 수 있겠는가?

6. 전체 진행은 이렇게 하라.

1) 환영(인사, 교제, Ice-break)

2) 경배(가벼운 찬양)

3) 말씀과 기도(간증나누기, 말씀선포)

4) 증거(베스트와 관계맺기, 다음주 열린모임에 누구를 데라고 올것인가?)

5)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결론>

적용 및 기도

* 8과 : 백지 전도 법

1. 도입

2. 복음제시(요 5:24)

행		복
세상(사람)	듣고 믿는 자	하나님
불행 - 죽음	예수 그리스도	행복 - 영생
두려움 - 심판		평안 - 기쁨
형벌 - 지옥		축복- 천국

3. 영접기도

4. 확신질문

5. 확신 : 동전비유(요 10: 28:29)

6. 영접자 카드 작성

7. 반도시 25시간 이내 연락하여 재확신 시킨다.

8. 준비물 (백지, 필기구, 영접카드, 전도지, 동전)

(3) 두 날개 양육 시스템 (Two Wings Pastoral Caring System)[446]

◈ 매 4개월마다 진행되는 포털 프로세스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열린 모임			행복나눔 새가족반 정착	(전인적치유수양회) 양 육 반 (은사발견 세미나, 새가족 섬김이 학교)			해피데이 정착, 정비	제자훈련 중보기도학교 (리더 반)		

12月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영혼추수 정착,정비	군사훈련 (리더수양회) 열린모임리더			행복나눔 셀번식	재생산훈련 (D12 그룹) 셀 리더			해피데이 D12 시작 셀번식시작

[446]부산 풍성한 교회 두날개 양육시스템

	12	1月	2	3	4	5	6	7	8
열린 모임		열린 모임			정착	열린모임			정착
추수행사		행복나눔		●		해피데이		●	
새가족반					●				●
치유수양회	●				●				●
양 육 반		양육반코스				양육반코스			
은사발견세미나									
새가족섬김이									
제자훈련1학기						제자 훈련1학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제자훈련2학기 군사훈련									
리더수양회									
제자훈련3학기 재생산훈련									

9	10	11	12月	1	2	3	4
열린 모임			정 착	열린 모임			정착
영혼추수		●		행복나눔		●	
			●				●
			●				●
양육반코스				양육반코스			
제자 훈련1학				제자 훈련1학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군사훈련(D2학기) 열린모임 리더 사역			목장분가	군사훈련(D2학기) 열린모임 리더 사역			목장분가
	●				●		
				재생산훈련(D3학기) 목장 리더 사역			수료식 목장번식

5	6	7	8
열린 모임			정착
해피데이		●	
			●
			●
양육반코스			
제자 훈련1학			
중보기도학교			
군사훈련(D2학기) 열린모임 리더 사역			목장분가
	●		
재생산훈련(D3학기) 목장 리더 사역			수료식 목장번식

< 열린 모임 일정 >

1	2	3	4
열린 모임			정착
해피데이 ●			
			새가족 ●
			수양회 ●
양육반코스			
	은사		
		섬김이	
제자 훈련1학			
중보기도학교			
군사훈련(D2학기) 열린모임 리더 사역			목장분가
	●		
재생산훈련(D3학기) 목장 리더 사역			수료식 목장번식

열린 모임

- “열린모임 비전”, “열린모임 실행Ⅰ”, “열린모임 실행Ⅱ”
- 12주 과정으로 모이며, 불신자를 초청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한다.
- 영혼추수주일을 통해 교회로 초청한다.

새 가 족 반

- “행복안내서1,2,3,4” “환영 엽서” “새가족섬김이 편지”
- 등록 후 4주 과정으로 정착 사역이 진행되고, 수료 후에 열린 모임에 들어간다.
- 새가족 섬김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 육 반

- “양육의 기쁨” (실행지침서)
- 12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군으로 세워 예비인턴이 되게 한다.

전인적 치유수양회

- “전인적 치유수양회”, “견고한 진 허물기”, 동영상 “십자가”
- 양육 시작전 1일(14시간) 실시하는 수양회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 뿌리와 견고한 진을 바르게 진단하고
-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는 시간(양육반 개강수양회)이다.

은사발견세미나

- “은사발견세미나” (실행지침서)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4:10)
- 양육반 3주차에 실시하여 자신의 은사를 알고 원하는 사역에 지원 배치한다.
- 주님 말씀대로 평신도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상담하여 최소 1개이상의 팀에

소속해 실제적인 사역에 동참케 한다.

새가족 섬김이학교

- “새가족 섬김이학교” (실행지침서)
- 동영상 “Mr. Bean - Church on Sunday”
- 양육 12주째에 실시한다.
- 수료 후에 새가족 반에서 섬김이로 봉사하게 된다.

제 자 훈 련

- “제자의 삶” (실행지침서)
- 동영상 “나무를 심는 사람”
- 제자대학 제1학기로, 12주 동안 5가지 목표

❶ 열린모임 인도자

❷ 삶의 우선순위

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확립

❹ 세계선교비전에 헌신

❺ 주재권 확립 - 로 강의하며 열린모임을 인도할 인턴으로 세운다

중보기도학교

- 제자훈련 2주째부터 3주간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고 8주동안 중보기도사역을 실행 한다.

리 더 반

- 제자훈련 9주째부터 리더반을 출석토록 지시하고 10주째부터는 확인을 한다. (평생 참석하는 리더반이다)
- 담임 목사가 매주 교회의 모든 셀을 파악하여 같이 기도하며, 교육은 담임목사 목회관에 따라 진행한다

군 사 훈 련

- “군사의 삶Ⅰ”, “군사의 삶Ⅱ” (실행지침서)
- 동영상 “나무를 심는 사람”
- 제자대학 제2학기로, 12주 동안 5가지 목표

❶ 셀그룹 리더

❷ 열린모임 사역에 헌신

❸ 성령의 은사 개발

❹ 세계선교비전에 헌신

❺ 군사같은 제자 - 로 강의하며 셀그룹 리더를 세운다.

리더 수양회

- “리더수양회” 군사훈련 시작전 1일 14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양회
-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을 자각하게 하는 비전수양회이다. 제자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한 제시를 하는 수양회이다.

재생산 훈 련

- “재생산의 삶Ⅰ”, “재생산의 삶Ⅱ” (실행지침서)
- 동영상 “나무를 심는 사람”
- 제자대학 제3학기로, 12주 동안 6가지 목표

❶ 재생산 사역자

❷ 팀리더 자질 개발

❸ 셀번식에 헌신

❹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

❺ 성령의 은사 개발

❻ 전임사역자로 헌신 - 로 강의하며 셀그룹을 번식케 한다.

D12 그룹

- 재생산훈련까지 마친 제자 중 12제자를 만든 그룹으로 목회자와 함께 평신도 목양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 다시 12명의 재생산 사역자를 만들어낸다.

2) 변화

(1) 목회자 자신의 의식 변화

한국교회에 구역 체제가 갖는 제한성은 통신 교통 등 환경 변화와 맞물려 변혁이 요구 되었고 Cell을 통한 교회 성장 지향의 문제점도 발견 되어 졌으며 결과로 넓은 목장과 그 속에 울(우리)이 있어 조화를 이루는 곧, 목장의 독립적이면서 전체교회와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요구와 교회 변혁이 필수 불가결한 시점에서 개혁주의의 핵심 요소인 초대교회롤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교회가 추구하고 시행 할 건강한 교회상[447]이 갈급 되었고 오랜 기간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도 감지되었으며 안일주의와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능동적이고 활성화 된 교회 정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에 구역예배나, Cell의 형태에서 가정교회로의 전환이 요구 되었고 집중적 시행과 연구 병행으로 가장 정상적인 교회 형태가 목장 곧 가정교회라는 결론을 얻었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목장 분가를 위해 성경의 기름 부음과 초대교회적 성령은사의 필요를 절감하여 두 날개 시스템적 전문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영감 깊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 대한으로 그리고 제안적 결론으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생명 공동체」훈련과 실시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생동감 넘치는 예배와 기대감 넘치는 평신도 지도자의 훈련 참여로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전이 확실해 졌고 그로 인한 목회관이 행복과 기쁨의 목회로 바뀌었다.

끝없는 도전으로 변혁하는 시대에 불변의 영적 진리로 맞서서 참 교회상을 세워나갈 미래적 환상을 갖게 되었고 평신도는 물론 타 교역자와의 파트너십의 의식전

[447]건강한 교회상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에 접목, 적용되어 사도행전적 역사와 능력과 예배와 섬김과 선교가 조화를 이루고 성숙한 천신의 공동체된 교회를 말한다.

화, 비전의 공유의식, 성도간 건강한 관계 조성을 위한 중재성, 주장하는 자세보다 평신도 들이 자립적, 구체적 문화 만들기에 협력 인도하는 조력심, 열린 마음으로 심으며 거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여유 있는 최선의 섬김 의식이 되면서 조급성이 개선되었고, 계속적 은사개발로 교회론적 조화의 개선과 코이노니아는 사회에 있어 더 큰 영향을 가져오는 빛 된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처음 시작의 혼란기에서 집중 연구 훈련을 통한 형성기와 인정과 도전의식의 단계가 주어졌다. 구령열정이 더욱 뜨겁고 분명해 졌다.

(2) 교회의 변화 (행동)

① 내적 참여변화

전도대 참여 기도회의 참여 변화 교제의 소중함의 변화가 목장내의 협력적 상활(질병, 경조사)이나 목자에서의 소외적 요소의 제거 효과로 형제자매, 자체의식의 상승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예규를 통한 동질성 함양으로 나타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

② 외적 변화

선교 분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선교현장에 자발적 기도제목 나눔과 위로, 선교 헌금 참여, 방문 등 으로 나타났고, 격주로 시행되는 450그릇의 병원 선교 음식 봉사 제공의 참여 열정이 계속되며 청년목장의 지역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사랑의 차 나누기 참여 등의 열매가 뚜렷해 졌다.

(3) 이웃의 변화

지역의 장애자 노동현장으로 연결된 협력으로 선한 이웃의 개념이 인식단계에서 실천화됨으로, 성수교회는 우리의 돕는 자란 의식 전환이 되었고 그 표로 필요할 때 마다 공식도움요청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

저들 영혼 구령과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기 위한 목장과 그 구성원의 노력으로 교회가 선한 청지기적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어져 문턱이 높지 않다는 인식 변화를 전도되는 사람들의 간증에서 찾는다. 우리끼리의 목장이 아닌 또 다른 울타리 밖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구체적 도움, 예컨대 사귐, 격려, 사소한 가사 협력, 상담, 등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가 늘고 있다. 열린 행복 축제를 더욱 기대케 하는 부분이고 지속적 섬김의 열매가 보이는 현황이다.

살아있는 공동체의 날갯짓 확장은 더 넓은 곳으로 퍼지고 그 소문과 사람은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매로 나타날 기대치를 향상케 한다.

Ⅵ. 부　　록 (Appendix)

1. 목장 모임 교안[448]

목자용-목장 모임 나눔지 목자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 환영인사와 식사

서로 반갑게 인사로 환영한다. 약속한 시간이 되고 목원들이 다 모이면 먼저 식사를 나눈다.

◈ 모임시작-마음 열기 (Ice-breaking)

◈ 찬양과 경배

먼저 찬양담당자가 자연스럽게 찬양을 2~3곡 정도로 인도한다.

찬양 선정은 목원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을 선정하되 은혜로운 곡을 선정한다.

너무 느리거나 어려운 곡은 피하는 것이 좋다(모일 때는 반드시 빈 방석을 준비하여 목원들의 빈자리에 놓고 목장모임을 진행한다. 빈자리를 반드시 채워야하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다).

◈ 삶의 나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자가 목원들의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질문하며 나눈

[448]본란에 소개되는 목장 모임교안은 2010. 1. 24에 진행되는 성수교회 목원들에게 말씀 나눔의 교안이다. 앞부분은 인도하는 목장이 참고할 부부이며, 뒷부분은 목원들을 지도할 멀씀 교안이다.

다.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힘들었던 일, 기도 응답 받았던 일, 말씀 듣고 깨달은 예 등등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한다.

이 때 기뻤던 일이나 감사한 일들, 축하를 받을 만한 일들은 서로가 뜨겁게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위로해 주고 권면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서로 격려와 위로를 위해 목자의 주관 아래 간단히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목자가 대표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말씀 나눔끝 무렵에 기도시간으로 돌려서 기도해도 될 것이다.

◈ 삶의 나눔 마무리와 말씀 나눔의 도입

삶의 나눔 끝에 나온 주제들을 리더 혹은 다른 목원이 '삶의 나눔'의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여는 기도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말씀 나눔-다음 교재는 이 주간의 목장모임 교안이다

● 목장 모임 나눔지(목자용)
2010년 1월 24일

세상 속의 교회
마태복음16:18-19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 비전(하나님 나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기관이요, 하나님이 방법이요, 하나님의 비전센터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① 지상의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주(主),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아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②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主)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목자> (엡1:22)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③ 주님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아래 그분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2.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

① 교회는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직영 지점입니다.

(마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된 사항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받아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교회의 권위입니다.

---•<목자>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동일한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요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에게 죄 용서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사죄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의 놀라운 영적 권위입니다.

②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생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복음전파입니다.

첫 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요.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 모두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며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18절)

①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엡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며 죄에 팔려 사탄에 매인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구출해 내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주님의 공생애 시작 이후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40일 금식기도하시면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참고/마4:1-11)

그리고 멋지게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치명타는 십자가와 부활사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고전15:55-58)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탄은 이제 패전 장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직 세상에서 역사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4:7)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을 자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힘차게 주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①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각자 이해한 대로 말해보십시오!
②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새 해의 각오와 결단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Ⅵ. 선교, 전도 보고 ====================
이미 정한 선교지의 상황을 가능한 입수하여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능한 (꼭) 빈 방석을 놓고 모임을 가지십시오!

Ⅶ. 합심기도
* 기도 담당자가 선교와 관련된 기도뿐 아니라, 앞서 삶의 나눔에서 나왔던 기도제목,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를 인도합니다.

※ 금주 기도할 교회 공통기도 내용
(1) 목회자를 위한 기도
(2) 2010년 감당할 선교지를 위하여
(3) 기도할 때마다 잃은 양 (즉 목장에 이름은 있는데 참석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 가며 기도해야 한다.
(4) 기도할 때마다 분가를 위하여(전도) 기도해야 한다.
(5) 올해 두 날개 양육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6)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7) 나라와 북녘의 형제와 지하교회를 위하여

(**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Ⅷ. 광고 (기타 제반 업무처리)

* 광고 담당자가 교회의 중요한 광고 내용을 광고한다.
* 목장에서 광고할 내용을 광고한다(광고 담당자는 미리 목자와 상의하여 광고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 성경 읽기 담당자가 성경읽기를 확인한다.
* 그 외에 목장 보고서 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출석체크 등)
* 마지막으로 목자가 광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강조하고 또한 목자로서 필요한 당부나 내용을 말한다.

※ 우리 교회 2010, 3대 실천운동을 강조하고

① 성경 1독 캠페인 - 목장에 담당자를 두어서 모일 때마다 체크 하도록.

② 새벽기도십일조운동 - 매일 전교인의 십분의 일(약70명)이 새벽기도 하는 운동입니다. 각자 약속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③ 성수인 이렇게 살자! -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달 첫 주)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Ⅸ. 목자의 파송

※ 파송의 노래」 부르고 기도(이 때에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행실의 증거와 직접적인 복음증거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한다.)또한 이 파송기도 전에

※ 목원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거나

※ 매주 끝날 때나 혹은 기도 할 때 목원 중 한 명 또는 두 명씩 가운데 앉히고 그 사람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축복하는 기도를 모든 목원들이 그 가운데 사람에게(머리는 빼고) 손을 얹고 집중기도 하는 시간

을 가진 후 목자의 파송기도로 마치면 좋다!

*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 세상을 향한 파송의 시간임을 잊지 맙시다.

(다같이 큰 소리로)

“말씀으로 양육 받아 주님의 제자 되고 제사삼자!”

● 목장 모임 나눔지(목원용)

2010년 1월 24일 세상 속의 교회

마태복음16:18-19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 비전(하나님 나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기관이요,,하나님이 방법이요,,하나님의 비전센터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바로 그 고백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① 지상의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주(主),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아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②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主)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

습니다.

③ 주님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아래 그분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2.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

① 교회는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직영 지점입니다.

(마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된 사항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받아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교회의 권위입니다.

②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생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복음전파입니다.

첫 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요.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3.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18절)
①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엡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며 죄에 팔려 사탄에 매인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구출해 내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주님의 공생애 시작 이후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40일 금식기도하시면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참고/마4:1-11)

그리고 멋지게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치명타는 십자가와 부활사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고전15:55-58)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탄은 이제 패전 장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직 세상에서 역사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4:7)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을 자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힘차게 주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각자 이해한 대로 말해보십시오!

②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새 해의 각오와 결단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2. 가정예배 교안

◈ 이 주간의 만나[449]

* 제목 :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 말씀 : 창34:18-31 .찬송 : 424(216)장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봅시다!

* 야곱의 아들들(시므온과 레위)은 자신의 누이동생 디나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하여 세겜성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 그 성에 거주하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백성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엄청난 살인극을 저지른 것입니다.

* 놀랍게도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틀을 다 죽이고서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31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 요즘 나는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화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

[449]본 가정예배 교안은 성수교회가 매주(가정예배-2010. 01. 31) 발행되는 주보 뒷면에 따로 난을 만들어 편집하여 매 주일 성도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 이 일에 대하여 야곱도 크게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곱은 아들에게 야단칠 때 ‘나’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사용합니다.

야곱은 무슨 뜻으로 자신을 가르키는 ‘나’를 빈번하게 사용했을까요? 그는 아들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직 자신이 당할 위협과 어려움만 생각했습니다(30절).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서야곱의 아들들은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가하냐?”고 따지면서 이것을 정당한 복수처럼 생각했습니다(31절). 야곱은 행복을 위해서 벧엘로 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큰 아 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고통 받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깨달은 사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공동기도제목 : 1. 국가와 지도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2. 담임목사와 교역자 위해
  3. 아이티 지진 참사의 도움과 회복을 위해
* 가족기도제목 : 가족의 필요를 따라 제목을 정한 후 합심 기도하십시오.
*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가족 간의 대회를 나누십시오.

3. 목장 관련 보고서 문건들

1) 목장 전반 진단 및 회의록

◈ 회 의 록 1

<table>
<tr><td>회의구분</td><td>○정기 / ●임시</td><td>회 의 명</td><td colspan="3">목장사역위 준비모임(1차)</td></tr>
<tr><td>회의일시</td><td>2007. 10. 27 19:00~22:00</td><td>회의장소</td><td colspan="3">성수교회 새신자실</td></tr>
<tr><td>회의주제</td><td colspan="5">현 목장조직 진단 및 2008년도 목장제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td></tr>
<tr><td>회의자료</td><td>‘2007년도 교회요람’</td><td>주관자
(주관부서)</td><td>김용호목사</td><td></td><td></td></tr>
<tr><td>참석자</td><td colspan="5">김용호목사, 정주용목사, 이세진전도사, 이순구전도사, 최성애권사,
송영만집사, 정창호집사, 최영식집사 이상 8명 참석</td></tr>
<tr><td>주요안건
및
회의내용</td><td colspan="5">1. 현 목장조직 상태 진단
■ 목장의 기준
▶규형잡힌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가 기준이 되어야 함(김용호목사).
■ 현목장 상태 진단
▶목장이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많이 약해져 있음
▶모임과 교제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훈련, 사역, 전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음. 특히 목장 내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목장의 리더십 부재현상으로 목자의 영향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목장조직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목자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재충전과 도전, 채움이 필요.

2. 진단에 따른 방안
1)조직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장구조를 갖추어야 함
▶대목장-중목장-목장으로 운영될경우, 중목장 운영자에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목장중목장 간의 정확한 보고체계 및 운영지원부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함.
2)운영
▶지원스텝 부서가 필요함(목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위한 부서가 있어서 목장보고서 취합 및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 필요)
3)교육
▶신임목자에게 ‘목장지침 Manual’을 주어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현 목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td></tr>
</table>

	4)목장편성 ▶현재의 연령별 그룹 중심에서 한 목장 내 다양한 연령으로 재편성하여 젊은이들이 연장자를통하여 배우는 체계로 조직되어야 함. ▶또한 목장 내에서 예비목자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함 5)목장 재편성 방법 ▶현재 Loose해진 목장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편성 실시 필요. ▶먼저 목자를 세우고 목원들로 하여금 목자를 선택, 지망(1~3지망)하는 방법을 택하여 목장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좋음 6)목자 선정 ▶현 목자 중에서 목장을 리더로 세움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잠시 쉬면서 재충전할 기회를 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목자를 발굴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7)목자 휴식년 ▶가능한 휴식년을 가지되, 목자 한 사람이 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맡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따라서 은사를 분석하여 적용한 배치가 필요함. 8)목장 사례발표 ▶목장의 지속적 도전과 발전을 위하여 분기별로 목장사례발표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9)교회 홈페이지 활용 ▶홈페이지를 통해 목장의 전달내용과필요한 교육내용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중목장별 페이지 할애를 통하여 목원들의 다양한 정보 활용 시도가 필요함. 10)인력 관리 ▶성도의 전반작인 인력관리와 개인별 은사 Network가 이루어져야 함. 11)교육체계 ▶성장반(기초 신앙교육 및 은사배치)제자반(신앙의 성숙)사역반(리더 훈련)크로스웨이, 재충전반 ▶제자, 사역반은 나눔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며, 철저하게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함. ▶목자는 제자반과 사역반을 통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신임목자는 목장의 기본운영에대하여 모든 코스의 교육을 받도록 함. 12)목장의 분가 ▶분가는 교회의 임의적 편성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분가가 이루어져야 함. ▶교회의 일방적 배정이나 인원 차출로 인한 분가는 목장의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므로 배제하여야 함. 13)기타 ▶교회신문을 발행하여 그 지면을 통하여 목장의 활동내용과 교회의 여러 소식을 담아 관심을 갖도록 함. ▶목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새신자가 오거나, 전도시 활용하면 좋음. 3. 정리 및 결론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2008년도 목장조직과 교육체계 등을 바탕으로 차월에 2차 모임을 가지기로 함.

◈ 회 의 록 2

<table>
<tr><td>회의구분</td><td>●정기 / ○임시</td><td>회 의 명</td><td colspan="3">목장사역위 모임</td></tr>
<tr><td>회의일시</td><td>2009. 5. 26(수)
20:30~22:00</td><td>회의장소</td><td colspan="3">성수교회 친교실</td></tr>
<tr><td>회의주제</td><td colspan="5">목장축제관련 행사 세부 준비 논의</td></tr>
<tr><td>회의자료</td><td>‘2008 성수교회 요람’</td><td>주관자
(주관부서)</td><td>목장사역
위원회</td><td>기록자</td><td>박상문집
사</td></tr>
<tr><td>참석자</td><td colspan="5">정주용목사, 정창호장로, 김경재집사, 윤현정집사, 박상문집사 이상 5명 참석</td></tr>
<tr><td>주요안건
및
회의내용</td><td colspan="5">1. 1부 (섬김과 나눔의 마당) 12:30~14:00
▶일시: 2009. 5. 31(주일)
▶목적: 축제를 통해 목장의 화합을 도모하고 행복한 목장을 누리고자 함
▶4/16부터 목장 리더들에게 홍보 실시목장별로 준비 시작
▶교회 정문 앞 부스 설치하여 다양한 나눔의 행사 실시
-페이스페인팅(청년부)
-풍선만들기(이세진전도사 섭외)
-Photo zone(최종웅집사, 진미혜청년)
-버튼제작, 액자제작, 캐릭터와 사진 촬영 등(청년회 봉사)
-Tea, Ice cream(남전도회)
-사탕 나눠주기(최영택강도사 캐릭터 복장)
▶점심식사는 식당, 야외설치 장소에서 자유롭게 식사
2. 2부 (목장축제 공연) 14:00~16:20
▶진행자: 조길송목사
▶Intro영상: 정주용목사, 최영택강도사
▶퍼포먼스 공연: 최영택강도사, 조성수청년
▶목장별 찬양과 공연(전체 18개팀, 팀별 할당시간 6분)
▶채점기준: 재적인원당 참여인원-60점/내용-20점/준비상황-20점

3. 기타사항
▶특색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뮤지컬이나 드라마, 사진전 등을 준비하여 전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정리 및 결론
☞목장사역위는 행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준비상황 수시 점검하기로 함.</td></tr>
</table>

2) 목장 모임 보고서

2009 -3월 목장 주간별 결산 (기쁨있는 목장 -1)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 읽은 장수와 합산표기 되며 매월 누계로 이월됩니다.

NO	Name	3월 1주(3/1~7)					3월 2주(3/8~14)					3월 3주(3/15~21)					3월 4주(3/22~28)					3월5주(3/29~4/4)					참석기준		목장 월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예배	목장 모임	참석율	주일 오전	참석율	주일 오후	참석율	성경 읽기	전도
1	정동일	1	1	1	165		1	1	1																		1	1	2	200%	2	200%	2	200%	165	0
2	우성숙	1	1	1	14		1	1	1																		1	1	2	200%	2	200%	2	200%	14	0
3	윤종혁	1	1	1	15		1	1	1																		1	1	2	200%	2	200%	2	200%	15	0
4	권정순	1	1	1	54		1	1	1																		1	1	2	200%	2	200%	2	200%	54	0
5	김인홍		1					1	1																		1	1	0	0%	2	200%	1	100%	0	0
6	이상미							1	1																		1	1	0	0%	1	100%	1	100%	0	0
7	김경호		1				1	1	1																		1	1	1	100%	2	200%	1	100%	0	0
8	이민향		1		11			1	1																		1	1	0	0%	2	200%	1	100%	11	0
9	손성익	1	1		15		1	1	1																		1	1	2	200%	2	200%	1	100%	15	0
10	권하나	1	1		17		1	1	1																		1	1	2	200%	2	200%	1	100%	17	0
11	조성훈																										1	1	0	0%	0	0%	0	0%	0	0
12	이미영							1																			1	1	0	0%	1	100%	0	0%	0	0
13	신동조																										1	1	0	0%	0	0%	0	0%	0	0
14	주영미																										1	1	0	0%	0	0%	0	0%	0	0
15	이원일																										1	1	0	0%	0	0%	0	0%	0	0
16	김선옥																										1	1	0	0%	0	0%	0	0%	0	0
17	박진호																										1	1	0	0%	0	0%	0	0%	0	0
18	임춘화																										1	1	0	0%	0	0%	0	0%	0	0
19																																				
20																																				
21																																				
22																																				
23																																				
24																																				
25																																				
계		6	9	4	291	0	7	11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2%		111%		78%	291	0

[주간 목장별 통계 작성방법]

*목장모임, 주일예배는 참석자를 '1'로, 불참자는 '0'으로 함 / 참석기준은 매월1일 ~ 매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의무참석일수를 기재함.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읽은 장수와 합산 표기되고 둘째주 부터는 주간중 읽을 장수로 표시 함.

2009-3월 목장 주간별 결산 (다윗 목장-2)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 읽은 장수와 합산표기 되며 매월 누계로 이월됩니다.

NO	Name	3월 1주(3/1~7)					3월 2주(3/8~14)					3월 3주(3/15~21)					3월 4주(3/22~28)					3월5주(3/29~4/4)					참석기준		목장 월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예배	목장 모임	참석율	주일 오전	참석율	주일 오후	참석율	성경 읽기	전도
1	이인성	1	1	1	0			1	1			1	1	1													1	1	2	200%	3	300%	3	300%	0	0
2	홍경옥	1	1	1	728		1	1	1	135		1	1	1													1	1	3	300%	3	300%	3	300%	863	0
3	김대규	1	1	1	30			1	1			1	1	1	80												1	1	2	200%	3	300%	3	300%	110	0
4	강순덕	1	1	1	388		1	1	1	150		1	1	1	117												1	1	3	300%	3	300%	3	300%	655	0
5	이병수	1	1	1	40							1	1	1	20												1	1	2	200%	2	200%	2	200%	60	0
6	최은숙		1	1	0			1					1	1													1	1	0	0%	3	300%	2	200%	0	0
7	강정구	1	1		0			1				1	1	1													1	1	2	200%	3	300%	1	100%	0	0
8	최완기	1	1		0			1	1			1		1													1	1	2	200%	2	200%	2	200%	0	0
9	차혜순	1	1	1	33		1	1	1	23		1	1	1	40												1	1	3	300%	3	300%	3	300%	96	0
10	석도남		1		0			1																			1	1	0	0%	2	200%	0	0%	0	0
11	지명순				0																						1	1	0	0%	0	0%	0	0%	0	0
12	김형인		1		0																						1	1	0	0%	1	100%	0	0%	0	0
13	조병선		1		20								1	1													1	1	0	0%	2	200%	1	100%	20	0
14	김종영		1		0			1					1														1	1	0	0%	3	300%	0	0%	0	0
15	홍안자		1		0			1																			1	1	0	0%	2	200%	0	0%	0	0
16	공두태				0																						1	1	0	0%	0	0%	0	0%	0	0
17	신의현		1		0			1					1														1	1	0	0%	3	300%	0	0%	0	0
18	한옥자				0																						1	1	0	0%	0	0%	0	0%	0	0
19	마채일				0																						1	1	0	0%	0	0%	0	0%	0	0
20	신영숙																																			
21																																				
22																																				
23																																				
24																																				
25																																				
계		8	15	7	1239	0	3	12	6	308	0	8	11	10	257	0	0	0	0	0	0	0	0	0	0	0				100%		200%		121%	1804	0

[주간 목장별 통계 작성방법]

*목장모임, 주일예배는 참석자를 '1'로, 불참자는 '0'으로 함 / 참석기준은 매월1일 ~ 매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의무참석일수를 기재함.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읽은 장수와 합산 표기되고 둘째주 부터는 주간중 읽을 장수로 표시 함.

2009 -3월 목장 주간별 결산 (면류관 목장-3)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 읽은 장수와 합산표기 되며 매월 누계로 이월됩니다.

NO	Name	3월 1주(3/1~7)					3월 2주(3/8~14)					3월 3주(3/15~21)					3월 4주(3/22~28)					3월5주(3/29~4/4)					참석기준		목장 월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전도	목장 모임	주일 예배	목장 모임	참석율	주일 오전	참석율	주일 오후	참석율	성경 읽기	전도
1	이정선		1	1	400		1	1	1	40		1	1	1	20												1	1	2	200%	3	300%	3	300%	460	0
2	이자훈		1	1	540		1	1	1	153		1	1	1	80												1	1	2	200%	3	300%	3	300%	773	0
3	조형자		1	1	20		1	1	1	50		1	1	1													1	1	2	200%	3	300%	3	300%	70	0
4	최순녀		1	1	227		1	1	1	72		1			10												1	1	2	200%	2	200%	2	200%	309	0
5	김염이				0																						1	1	0	0%	0	0%	0	0%	0	0
6	정영숙				0																						1	1	0	0%	0	0%	0	0%	0	0
7	백영숙				0																						1	1	0	0%	0	0%	0	0%	0	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0	4	4	1187	0	4	4	4	315	0	4	3	3	110	0	0	0	0	0	0	0	0	0	0	0				114%		157%		157%	1612	0

[주간 목장별 통계 작성방법]

*목장모임, 주일예배는 참석자를 '1'로, 불참자는 '0'으로 함 / 참석기준은 매월1일 ~ 매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의무참석일수를 기재함.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읽은 장수와 합산 표기되고 둘째주 부터는 주간중 읽을 장수로 표시 함.

2009 -3월 목장 주간별 결산 (찬양 목장-4)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 읽은 장수와 합산표기 되며 매월 누계로 이월됩니다.

NO	Name	3월 1주(3/1~7)					3월 2주(3/8~14)					3월 3주(3/15~21)					3월 4주(3/22~28)					3월5주(3/29~4/4)					참석기준		목장 월계							
		목장모임	주일오전	주일오후	성경읽기	전도	목장모임	주일오전	주일오후	성경읽기	전도	목장모임	주일오전	주일오후	성경읽기	전도	목장모임	주일오전	주일오후	성경읽기	전도	목장모임	주일오전	주일오후	성경읽기	전도	목장모임	주일예배	목장모임	참석율	주일오전	참석율	주일오후	참석율	성경읽기	전도
1	박영자	1	1	1	160		1	1	1	60																	1	1	2	200%	2	200%	2	200%	220	0
2	김명숙	1	1	1			1	1	1																		1	1	2	200%	2	200%	2	200%	0	0
3	김용순		1	1				1	1																		1	1	0	0%	2	200%	2	200%	0	0
4	황영순	1	1	1	50		1																				1	1	2	200%	1	100%	1	100%	50	0
5	강경순		1						1																		1	1	0	0%	1	100%	1	100%	0	0
6	윤신자	1	1	1			1	1																			1	1	2	200%	2	200%	1	100%	0	0
7	박애순		1					1																			1	1	0	0%	2	200%	0	0%	0	0
8	최윤애		1					1																			1	1	0	0%	2	200%	0	0%	0	0
9	김용순1																										1	1	0	0%	0	0%	0	0%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4	8	5	210	0	4	6	4	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9%		156%		100%	270	0

[주간 목장별 통계 작성방법]

*목장모임, 주일예배는 참석자를 '1'로, 불참자는 '0'으로 함 / 참석기준은 매월1일 ~ 매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의무참석일수를 기개함.

*성경읽기는 첫주에 전달읽은 장수와 합산 표기되고 둘째주 부터는 주간중 읽을 장수로 표시 함.

3) 목장 전도 계획서

목장 전도계획서

●소속:__________마을촌 _____________목장	●목자/헬퍼:__________/____________

※목자는 아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 장은 마을촌(센터)에서 보관하며, 다른 한 장은 주일 오후예배 후에 목장사역위 행정담당 staf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목표:_______명	
우리목장 표어	
예 상 인 원	인도: 명 / 전도: 명
중보기도 시간	[ ]요일 ______시 _______분 부터 _______시 _______분 까지
중보기도자 명단	

■세부 전도계획

NO	계획	전도실천 세부내용
1		
2		
3		
4		
5		
6		
7		

■전도 EVENT

이벤트	시행일	담당자	이벤트 세부내용

4) 목장 모임 현황 및 사역 보고서

주간 목장모임 현황 및 사역보고서

번호	목장모임	주일오전	주일오후	성경읽기	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모임현황

구분	금주	내주
목장일자	월 일( )요일	
모임시간		
모임장소		

헌금현황

헌금내역	금액
목장모임헌금	
목장선교헌금	
주간계	₩
누계	₩

목장사역/행사현황

목장신상변동/기도제목

확인란	목자	지역장

5) 목장 사역 위원회 일지 요약정리(Site team)

목장사역위원회 일지 요약 정리(2009.1월~2월)

<마르슬랭 정리>

첫 번째 회의때 나온 컨텐츠

1. 다음분기 계획
2. 우수목장 탐방
3. 목사님 말씀
4. 포토 뉴스
5. 선교 편지(선교지 소식)
7. 추천 도서 소개
8. 그외(소식지 명칭 공모/가로세로성경퍼즐/숨은그림찾기/컷만화/앙케이트)

두 번째 회의때 나온컨텐츠

1. 교인들의 어릴적 추억의 사진
2. 목장이 참여 할 수 있는 목장들이 함께 풀어갈만한 컨텐츠(생각해봐야 할듯)
3. 목장이 갈 수 있는 모임의 장소 소개(ex. 맛집/찻집/단일여행지/기도원...등등)
4. 요리강좌(나이많은 권사님들이나 요리 잘하시는 분들을 통해 소식지가 연령대 구별없이 사용되도록)
5. 전분기 목장사역 보고 & 다음분기 계획
6. 이단에 관한 자료

<박상문집사 정리>

2월 6일 금요일. 철야예배 후. 12:30~1:50 @교회 식당

*참여자: 정창호장로님, 김경재집사님, 윤현정집사님, 진미혜, 박상문, 김은혜, (정주용목사님)

*회의목적:목장 소식지에 대한 아이디어 및 목장사역위원회 사역에 대한 계획.

*과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역할에 대한 계획, 큰 틀 짜오기.

*과제: 1)진미혜자매: 목장리더교육은 off-line 모임이 힘든 상황이므로->ucc로 만들어서 제공해주자.

-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최종웅 집사님 등 일정, 도구, 같이 할 사람을 알아본다.
- 무엇을 만들건지? -교육: 다른 교회 목장 모델(외부에서)
- 간증사례: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내부에서)

@정주용목사님-> 당장 필요한 컨텐츠는목장운영/헬퍼, 목자, 예비목자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 교육컨텐츠: 일단 커리큘럼이 짜여져야 할 것.

@정창호장로님-> 내용은 이미 주어져 있다.

교육의 세가지 분야

- Off JT: 전체적으로(집합) 하는 교육
- OJT(on the job training): 1:1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교육
- SD(self development): 자기 스스로 학습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것은 뒤의 두 가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색.

- 자료구비 필요 -> 이에 앞서 제작이 필요함.(인적구성, 내용 구상해야 함)

과제2) 박상문: 교육자료 편집

과제3) 김경재집사님: 교육진행을 맡음. 웃음치료사 교육등 레크레이션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것을 추천함

-김은혜: '류종훈(운)'이라는 강사님을 추천함.

->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이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올 것을 당부드림.

***소식지 내용 아이디어**

@윤현정집사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예) 퍼즐, 어릴 적 사진을 올려놓고 ->'누굴까요?'.

상품으로 새로 바뀐 성경을 주는 것도 좋을 듯 함.

@김은혜: 목장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다. 예)성경을 같이 읽는다. 성경 한 권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채워 넣는다.

=> 정창호장로님 덧붙임: 만평을 실어서 한 칸에 '?' 물음표를 넣고 순서대로 해서 내용 채우는 것(교회 생활에 맞게…)

@김경재집사님: 외부프로그램 소개. 예)헵시바 목장의 외부활동 내용 같이. => 지역탐방, 조언, 추천코스, 맛집(새로운 음식) 등

'목장야외모임지' 추천하는 내용.-> '야외 나가기 미션'을 제안한다. -> 느낀 점을 글로 수집.

@김은혜: 요리강좌(다과 등 간단한 요리, 사진과 함께)

=> 정창호장로님 덧붙임: 연세 있으신 분들도 참여 가능할 듯. 청년목장은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 소식지에 전 분기에 있었던 사역 보고 내용을 넣는 것. + 다음 분기 계획도 싣는다.

***소식지명칭공모**: 당첨자 명단에 소속목장과 함께 이름을 넣는다. -> '제목' 공모할 때, 제목의 의미와 실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적어서 넣도록 한다.(윤현정집사님 의견)

@정창호장로님: 교회의 역사(발자취)를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진미혜: ucc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간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김경재집사님: 11시 예배 시작 전에 '영상' 또는 '메세지' 전달 하는 것을 새생명 축제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는 것이 어떨까.

목장에게는 숙제(미션)을 종종 준다.-> 계획을 짜준다.(분기 미션으로)

2월 20일. 철야예배 후 회의 내용.

* 목장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ex.+성경읽기 체크-주계, 누계 관련 부분도)

* 목장보고서 관리 - 각 지역 총무들이 카피본을 같이 끼워놓는 게 어떤가.

***소식지, 영상관련 내용**

2/22 전교인 플러스전도축제 선포 - 어떻게 진행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 계획이 좀 벅차지 않나.
- 전도 방법의 개혁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진행인원이 부족하다.

"올 해는 테스트 기간"

목장사역위원회는 9월 또는 10월 쯤 합숙예정-> 2010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성수인의날: focus- 잃은 양들.

새생명 축제: focus- 외부강사 초청, 전도

=>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모임에서 계속 전도하는 것을 체크한다. 목장 탐방 계획도 세워야 함.

#질문: 등록교인 정착률? -> '전도'도 쉽지 않지만 '양육'의 문제도 더욱 심각. 새신자 관리 프로그램 필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파악 -> 개선이 필요.

***성수인의 날**: 부활주일에 맞춰서 할 예정(4/12)

***소식지원고**: D-day를 잡아 놓고, 김은혜 자매가 찾아 다니면서 원고를 받아야 됨.

초안 잡아서 목장사역위원회 회의에 내 놓고 -> 수정 -> 확정 -> 작업시작.

Bibliography

Ⅰ. 외국서적

Avis, P. D. L.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Atlanta: 1981.

Balke, W.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1981.

Balz H. & Schneider. *G. EDNT Vol. 3.* Grands Rapidis: Eerdmans, 1994.

Bank, R.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Cultural Setting.* Peabody: Hendrickson, 1980.

Barclay, J. M. *The Family as the Bearer of Religion i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in H. Moxnes (ed.), Constructing Early ChristianFamilies. Family as Social REality and Metaphor*, London/New York: 1997.

Barth, P. and Niesel, G. edd. *Joannis Calvini Operan Selecta I-V*, Monachii, 1926-1936.

Barth, K. *Gotteserkenntnis und Gottesdienst*. Zollikon, 1938.

Barth, P. *Calvins Verstädnis der Kriche, in: Zwischen den Zeiten*. 3, 1930.

Battels, F. L. tr.,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 Philadelphia, 1960.

Bauke, H. *Die Probleme der Thelolgie Calvins*. Leipzig, 1922.

Baum, G., Cunitz, E., and Reuss, E. edd. *Ioannis Calvini Operan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Brunsvigae, 1863-1900.

Becker, J. *Paul and His Churches*. ET;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Beckham, W. A. *The Second Reformation: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21st Century*. Huston, 1995.

________. *Redefining Revival*. Huston, 2000.

Bieritz, K. H., Kähler, Chr. Haus Ⅲ, *TRE 14*, Berlin/NY: Walter de Gruyter, 1985.

Bohatec, J.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mit besonderer Ber ü cksichtigung des Organismusgedankens*. Breslau, 1937, 1968.

Branick, V. P. *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s of paul*. Wilmington: Michael Glazier, 1989.

Butin, P. W. Reformed Ecclesiology:Trinitarian Grace According to Calvin.

Princeton, 1994.

________.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ponse: Calvin's Trint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Oxford, 1995.

Chow. J. K. *Patronage and Power*. A study of Social Network in Corinth (JSNT. SS 75),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Comiskey, J. From 12 to 3: *How to Apply G-12 Principles in Your Church*. Houston, 2002.

Courvoisier, J. *La notion d'Eglise chez Bucer dans son developpement historique*, 1933.

Crampton, W. G. *What Calvin Says*. Maryland, 1992.

Dae-woo Hwang. *Het Mystieke Lichaam van Christus -de ecclesiologie van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Apeldoorn, 2002.

Donahue, B.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 Grand Rapids 2002.

Doumerge, E. L*e Caractère de Calvin - L' Homme*. Le System. L' glise, L' tat-, Neuilly (Seine) 1931.

Dunn, J. D. G.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Eerdman, Carlisle:Paternoster, 1996.

Estep, W. R. *The Anabaptist Story: An Introduction to Sixteenth-Century Anabaptism*, Grand Rapids 1963, 1975, 1996.

Exalto, K. *De Kerk bij Luther*, in: Spijker, W. van't, et at. ed., De kerk, Kampen 1990.

Finnell, D. *Life in His Body*, Houston 1995.

G. rtner, B. *The Temple and the Community in Qumran and the New Testament, A Comparative Study in the Temple Symbolism of the Qumran Texts and the New Testament*,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George, C.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Papids 1992.

George, T. ed.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1990.

Hamlin, Judy. *The Small Group Leaders Training Course*. Colorado: NAV press. 1974.

Hurd, J. C. jr, *The Origin of 1 Corinthians*, London: SPCK 1965

Icenogle, Garath. *Small Group Ministry, Pasadena*. CA: FTS, 1974.

Jay, E. C.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y Centuries, 2 vols*, London: SPCK, 1977.

Johnson, R. C. *The Church and Its Changing Ministry*, Philadelphia 1961.

Judge, E. A.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Khong, L. *The Apostolic Cell Church*, Houston: 2000.

Kristeller, P. O. *Studies in Renaissance Thought and Letters*, Rome 1956.

Kng Hans. *The Church.* tr. Ray and Rosaleen oken den London: search press, 1971.

Leith, J. 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1989.

Leonard, B. *Baptist Ways: A History*. Valley Forge, 2003.

Littell, F. H. *From state church to pluralism*, Garden City, 1962.

________. *The Anabaptist View of the Church*, Boston, 1958.

________. *The Free Church.* Boston, 1957.

Malherbe, Abraham J. *Social Aspect of Early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MaGavran, 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igan: W.M.B.Eerdmans Co. 1970.

Malherbe, A. J. *Social Aspects of Early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77, 1983(2nd ed.).

McDonnell, K. *John Calvin, the Church, and the Eucharist*, Princeton, 1967.

McGrath, A. E.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Oxford 1993.

McKelvey, R. J. *The New Temple.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McKelway, *A. The Importance of Calvin Studies for Chruch and College*, in: George, T. ed., John Calvin and the Church :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1990.

Meeks, W. A.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London: Yale Univ. Press, 1983.

Neighbour, R. W. Jr. *The Shepherd's Guidebook*, Houston 1994, 1995, 1996.

________. Jr.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Cell Group Churches*, Houston 1990.

________. Jr. *Cell Leader Intern Guide*, Houston 1995, 1997.

Newbegin, Lesslie. *The Household of God*. London: SCM Press, 1953.

Niesel, W. *Das Evangelium und die Kirchen*, Neukirchen 1960.

________. *The Gospel and the Churches: A Comparison of Catholicism, Orthodoxy and Protestantism*, Philadelphia, 1961.

________.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1957.

Osiek, C. and Balsh, D. L.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Households and House Church*. Louisville:Westminster John Know, 1997.

Otto, R. *Zur Erneuerung und Ausgestaltung des Gottesdienstes*, Marburg,1925.

Pannenberg, W. *Christliche Spiritualit-Theologische Aspekte*, Göttingen 1986.

Par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1995.

Pauch, W.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 Boston, 1950.

Payne, E. A. *The Fellowship of Belivers-Baptist Thought and Practice Yesterday and Today*, London, 1944.

Rudnick, M. L. *Speaking the Gospel through the Ages:A History of Evangelism*, St. Louis 1984.

Schrage, W.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Kor 15, 1-16, 24)*, EKKVII/4, D. sseldorg/Neukirchen-Vluyn / Benziger/Neukirchener, 2001.

Schaller, Lyle E. *Looking at the Small Church: A Fame of Reference*, The Christian Ministry, 1997.

Stuhlmacher, P. *Der Brief an Philemon (EKK 18)*, 2. Aufl., Neukirchen, 1981.

Spijker, W. *van't, et al*. ed., De kerk, Kampen 1990.

Torrance, D. W. and Torrance, T. F. edd., *Calvin's Commentaries, 12 vols,* Edinburgh 1959-1972.

The Mennonite Encyclopedia Vol.1, The Mennonite Publishing House, 1955.

Timothy and Denise George edd., Baptist Confessions, Covenants, and Catechism, Nashville 1996.

Torbet, R. G. *A History of the Baptists*, Valley Forge 1973.

Robers, A. and Donaldson, J. *Ante-Nicene Father: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own to A. D. 325*, Grand Rapids, 1953.

Various Translators, *Calvin's Commentaries, 45 vols*., Grand Rapids 1989.

Wallace, R.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1959.

Warfield, B. B. *John Calvin as Theologian*, in: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1956.

Weber, 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Gesammelte Aufs tze II, Neukirchen, 1968.

Weiser, A. *Die Rolle der Frau in der urchristlichen Mission*, in G. Dautzenberg/H. Merklein/K. Müller (Hg), Die Frau im Urchristentum, Freiburg/Basel/Wien: Herder 1983, 158-181

Werdermann, Th. *Calvins Lehre von der Kirche in ihrer geschichtlichen Wells*,

Daivd E.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3.

Wesley, John. T*he Work of Rev*. John Wesley. Thomas Jackson Editon, 14 Vol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8.

Williams, G. H. *The Radical Reformation*, London, 1962.

Ⅱ. 번역서

Arnold, Heinrich. *공동체 제자도*. 이상신 역. 서울: 도서출판 쉼터, 1998.

Augustine, S. *기독교 교육론*. 김종흡 옮김.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Banks, Robert.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________.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룬, 1991.

Bavinck, Herman.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Berkhof, Louis. *교회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92.

Bilezekian, Gilbert. *공동체*. 두란노출판부 옮김. 서울: 두란노, 1998.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Busma, W. J. *칼빈*. 이양호 박종숙 옮김.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Calvin, John. *기독교 강요Ⅳ*.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Chadwick, Henry. *초대교회사*. 박종숙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Collins, Gary R.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84.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________. *소그룹 인도법*. NCD편집부 역. 서울: NCD, 2003.

Cox, Harvey. *세속도시*. 구덕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Dowgiewicz, Mike Susan. *새 밀레니엄 교회*. 홍원팔 역. 인천: 도서출판 바울, 1999.

Engen,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2000.

F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George, Carl F.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정종현 옮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Gibs, M. and T. R. Morto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김성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Green, Michael.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Griffiths, Michael.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권영석 역. 서울: IVP, 1999.

Hinson, E. Glenn. *기독교 영성목회*. 엄성옥 옮김. 서울: 은성, 2001

Icenogle, Gareth Weldon.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공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Jay, E. C. *교회론의 변천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Jenson, Ron, and Jim Stevens, *생동하는 교회성장*. 금병달 역, 서울: 순출판사, 1994.

Johnstone, John. *대형교회 시대의 작은 교회*. 고수철 역. 부천: 수직과 수평, 2000.

Johnstone, Patrick.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역. 서울:나침반, 1998.

Jones, David Martyn Lloyd.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 장광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________. *청교도 신앙*.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Kraemer, H.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9.

Kang, Hans. *그리스도교 - 본질과 역사*. 이종환 옮김. 경북: 분도출판사, 2005.

________.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 출판사, 1997.

MaGavran, D. A. & Hunter. *교회 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McGrath, Alister E. *기독교의 미래*. 박규태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06.

Nic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92.

Ogden, Greg.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0.

OMF 한미선교부 편, *중국을 조명한다*, Pasadena: KAM-OMF, 1997.

Ridderbos, Herman N. *바울신학*. 박영희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3.

Rambert, Tony. *중국교회의 부활*. 조은화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Snyder, Howard A.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___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________.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Stevens, R. Paul.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명룡 옮김. 서울: IVP, 2001.

________.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IVP, 1995.

Thiessen, Henry C.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 1983.
Trudinger, Ron. *가정 소그룹 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Wagner, Pet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________.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Walker, Williston. *기독교회사*. 류형기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7.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옮김. 서울: 풍만 출판사, 1995.
Wesley, John. *존 웨슬레의 일기*. 김영운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5.
White, James F. *예배의 역사*. 정장복 옮김. 서울: 쿰란 출판사, 2000.
Whitney, H. J. *기독교 강요 핵심정리*. 윤두혁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Williamson, G.I. *소요리문답강해*. 최덕성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Wrightsman, B. *교회의 의미와 사명*. 김득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Ⅲ. 국내서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실로암, 1988.
기독교 한국 침례회총회 편.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 출판사, 1990.
김길성. *개혁교회론*. 용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________.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4.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김성진. *개혁교회 이론과 실제*. 성남: MSC, 2005.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서울: 이레서원, 1999.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김의원. *목회와 신학, 목회자 세미나*. 서울: 두란노, 2000.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김찬종. *교회성장을 위한 구역 운영지침*. 서울: 솔로몬, 1991.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1.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서울: 성약 출판사, 2000.
________. *교회에 대하여 Ⅰ*. 서울: 성약 출판사, 2000.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 2002.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기독교출판 에벤에셀, 2004.

박영률. *리더쉽과 교회성장*. 서울: 성광, 1991.

박영선.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엠마오, 2004.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박해경. *차트로 본 조직신학.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8.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VI 교회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5.

서철원. *교회론*. 서울: 은혜 문화사, 1998.

송길원. *지도자 지침서*. 서울: 양문, 1989.

송삼용. *구역장은 또 다른 목회자*. 서울: 작은행복, 2002.

송호범. *소모임 활동 입문*. 서울: 풀빛, 1983.

심상법. *신약 주해를 위한 신약서론*. 서울: 이레서원, 2005.

심창섭 외. *오늘 한국 장로교 정치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엠마오, 1998.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5.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5.

오정현. *패스파인더*. 서울: 두란노, 2000.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옥한흠.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6.

___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________.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5.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 2005.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이광복. *가정교회 목회*. 서울: 흰돌, 2000.

이병길. *중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2.

이병철 편저. *성서원어대전-신학사전 2*. 서울: 브니엘 출판사, 1985.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교회-21세기 한국 교회 메가트랜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

이승구.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여수룬, 1996.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이종윤 외 공저.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6.

이한수. *예수 바울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정일웅. *교회목회학*. 서울: 그리심, 2003.

________. *기독교 교육학*. 서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정준기. *복음운동사*. 광주: 광신대학교 출판부, 1998.

조효훈. *침례교회의 의식*. 서울: 요단출판사, 1987.

주동홍. *개혁교회사*. 서울: 솔로몬, 1998.

침례교회진흥원 편. *침례교회*. 서울: 침례회 출판사, 1985.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2.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___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7.

최인원, *침례교사 요지*. 서울: 대한 선교 침례회, 1986.

최정성. *구역관리와 교회 성장*. 서울: 엘멘, 1993.

최홍석. *교회론*. 서울: 솔로몬, 2001.

황성철. *교회 정치 행정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4.

황위섭. *크리스챤 리더쉽*.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0.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2002.

Ⅳ. 논문

고종명.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 개발"*, 1995.

김기태. *"재침례교도와 칼빈의 교회관 비교"*, 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신학대학원, 1990.

김준영.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회의 본질"*,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문교수. *"평신도 소그룹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1994.

박용호. *"소그룹 활성화와 역동적 교회성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박성호. *"소그룹 가정교회를 통한 인도네시아 선교전략"*, 1997.

박성진. *"칼빈의 교회론 의 근원과 변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신학석사 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0.

양기석. *"셀목회 활성화를 통한 21세기 목회전략 연구 : 가정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2002.

이승구. *"장로교회의 예배 이해와 장로교 예배 모범의 전통"*, 장로교 정체성 회복 위원회 발제 논문 5.

이중향. *"교회의 본질:그리스도와의 연합"*,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장복문. *"구역장 교역자화 훈련을 통한 교회성장과 활성화"*,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맥코믹 신학대학원, 2001.

전남순. *"구역장 훈련을 통한 구역 활성화"*,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 대학교 맥코믹 신학대학원, 2001.

Ⅴ. 간행물 및 기타서적

곽선희. "교회성장의 신학적 이해", *복된말씀* (1973년 10월)

구미 남포교회 목자 가이드북, "가정교회 ABC"

김길성. "은혜의 수단", *신학지남* 제278호 (2004년 봄호).

김용국. "제세례파 교회들의 교회론", *일립논총* (2001): 29-45.

김재성. "장로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과제", *신학정론* 39 (2002년 11월) 283-366.

김형국, "에베소서 강해", *그말씀* (2003년 5월)

김홍범. "예루살렘과 바울 공동체에 나타난 하우스 교회들의 형태", *한국 개혁신학회 논문집* 10 (2001년): 162-74.

박영돈. "교회론 의 성령론적 차원", *개혁신학과 교회* 제9호 (1999년 12월)

박영철. "교회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 *목회와 신학* (2001년 4월)

________. "한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3월)

방선기. "가정 교회의 비전과 한국교회의 부흥", *목회와 신학* (2004년 4월)

서철원. "개혁파 교회론", *신학지남* 제248호 (1996년 가을호)

양낙흥. "교회의 일치와 본열에 대한 칼빈의 견해", *개혁신학과 교회* 제7호 (1996년 12월): 199-136.

열린문 교회. "제 16차 목회자 초청 가정교회 세미나", (2003년 5월)

우은진, "목회자와 평신도는 차별 없는 소명자요 사역자다", *disciple*,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년 10월).

유해무. "공교회적 교회론의 개혁과 회복을 향하여", *개혁신학과 교회* 제10호 (2002년): 183-218.

________. "한국교회와 개혁신학", *개혁신학과 교회* 제13호 (2002년):146-168.

________. "한국에도 개혁신학이 가능한가?", *개혁신학과 교회* 제15호 (2003년): 169-201.

정일웅.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

안”, *교회 선교 연구소 6차 학술 심포지엄* (2006년 10월)

정정숙. “목회상담을 통한 치유”, *신학지남* 제286호 (2006년 봄호)

조병수. “셀 목회와 현대 목회의 전략”, *신학정론* 37 (2002년 11월):305-342.

________.“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자료분석”, *신학정론* 38 (2002년 5월): 33-62.

________.“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의미분석”, *신학정론* 39 (2002년 11월): 399-423.

________.“지역교회와 선교교회의 갈등. 요한삼서 연구”, *in 신약신학 열 두 논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9): 191-220.

최윤배.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의 성서적 접근”, *교회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연구원 (2003년 7/8월).

허순길. “보수, 자유 양신학이 한국 장로교회에 남긴 자취”, *개혁신학과 교회* 제7호 (1997년 9월): 125-141.

홍인규. “바울과 가정교회”, *한국복음주의 신약학연구* 제2권 (2003년 11월).

________.“바울과 성령”, *신약신학저널* 2 (2000년)

Davis, P. H. "An Anabaptist View of the Church", *Evangelical Quarterly* 56 (April 1984)

Filson, F. V. "The Significance of the Early House Churches", *JBL* 58 (1939): 105-12.

Lecerf, A. “La doctrine de l'eglise dans Calvin”, in: *Revue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17 (1929): 256-70.

Miller. M. E., "Ther Church in the World: A Mennonite Perspective", *Covenant Quarterly* 41 (August 1983)

Niesel, W. "wesen und Gestalt der Kirche nach Calvin", in: *Evangelische Theologie* 8 (1936): 309-310.

Quistorp, H. "Sichtbare und unsichtbare Kirche bei Calvin", in:*Evangelische Theologie* 9 (1949/50), 83-101.

VI. 웹사이트

서울순복음교회 홈페이지 http://www.sfgc.org (assessed 23 October 2009).

청산골 봉서방 개인카페 http://cafe.daum.net/cgsbong/21nL/808 (assessed 5 January 2010).

한국 자연적 교회 성장 NCD http://www.ncdkorea.com (assessed 13 October 2009).

영적 분별력 개인카페 http://blog.daum.net/kkho1105 (assessed 11 February 2010).

청산골 봉서방 개인카페 http://cafe.daum.net/cgsbong/21nL/808 (assessed 5

January 201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초능력교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ky6127/G6wn/81 (assessed 15 January 2010).